

사람 · 땅 · 하늘이  
어우러지는  
모듬살이

2004년판

# 한국의 공동체와 공동체 운동

생 태 공 동 체 운 동 센 터

## 〈 차 례 〉

### 1부 : 공동체와 공동체운동

한국 공동체 운동의 흐름과 경향 .....	1
공동체의 소통과 의사결정 .....	8
공동체와 영성 .....	14
공동체와 경제 .....	22
공동체와 교육 .....	28
공동체와 대안 기술 .....	32
대안 공동체운동의 과제와 미래 .....	41

### 2부 : 공동체를 찾아서

산안마을 (야마기시즘 생활 경향 실현지) .....	49
지리산 두레마을 (두레공동체운동) .....	59
민들레 공동체 .....	66
돌나라 한농복구회 (한농마을) .....	72
홍성환경농업마을 (문당리) .....	82
실상사 사부대중 공동체 .....	88
안솔기 마을 .....	99
예수원 .....	106
정토회 .....	113
예수살이 공동체 .....	129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	135
자유학교 물꼬 .....	141

간디 청소년 학교 .....	150
작은누리 .....	156
한살림 서울생활협동조합 .....	163
원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	170
풀무생활협동조합 .....	176
안성의료생활협동조합 .....	184
광명YMCA 생협 .....	192
필당생명살림 .....	198

### 3부 : 공동체 만들기

퍼머컬처란 무엇인가 ? .....	207
공동체 건설을 위한 지침 .....	218

### 부 록

공동체 목록 .....	227
공동체 관련 단체·정보 website .....	236
공동체와 만남·공동체 만들기 프로그램들 .....	238
공동체 관련 자료 목록 .....	248
다른 나라의 공동체들 .....	252

# 1 부

## 〈 공동체와 공동체운동 〉

- ◆ 한국 공동체 운동의 흐름과 경향
- ◆ 공동체의 소통과 의사결정
- ◆ 공동체와 여성
- ◆ 공동체와 경제
- ◆ 공동체와 교육
- ◆ 공동체와 대안 기술
- ◆ 대안 공동체운동의 과제와 미래

# 한국 공동체 운동의 흐름과 경향

김성균 (성결대학교 겸임교수, 생태공동체연구소 부소장)

## 한국 공동체운동의 흐름

### 생명사상의 출현과 민중·생명운동의 결합

근대이후의 한국 생명사상의 출현은 1974년 출간된 윤노빈의 '신생철학' 그리고 1984년 임효선의 삶의 정치사상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이분법적 서구 식문명 패러다임의 가져다 준 이분법적 세계관이 인간사회 및 자연과의 관계를 분절 시키게 된 동기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서로 협조하여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여야 하는 자연적 호혜주의를 주장한바 있다. 이러한 생명사상은 김지하의 개벽과 생명사상이 본격화되면서 사상이 운동으로 전환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1960년대와 1970년에 진행된 한국의 근대화는 더욱 이러한 가능성을 내포시키는 진원지가 된다. 서구사회 경제모델은 우리사회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공동체성을 해체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민중의 삶은 근대화의 그늘에 허덕이는 국가의 노동자로 전락하게 된다. 낮은 임금, 긴 노동시간, 잦은 실업이 이들의 삶의 전부였으며 이러한 한국적 근대화의 그늘이 김민기 노래의 대중화를 위한 배경이 되었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 공동체의 해체 등은 결국에는 생명사상을 형성하는 정서적 토대가 된다.

민중 속에 녹아있는 공동체문화를 새로운 관점에서 되살려내고자 했던 민족문화운동이 1960년대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1970년대에 이르러 서서히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민중문화운동은 민중들의 저항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민중들의 대동성, 공동체성과 생명력을 바탕으로 한 운동이었다. 이 가운데 노래와

춤을 매개로 대중에게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었던 민중예술은 하늘과 땅, 신령과 인간이 하나로 융합되어 새로운 문명과 문화를 창조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적 기반은 지역공동체를 되살리는 운동과 기획을 통한 생명운동의 정서적 뿌리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농업에 있어서 생명 가치의 구현을 위해 결성된 정농회를 중심으로 농촌지역의 자생적인 현장운동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되면서 유기농업이라는 방식으로 시대적 소명으로 여겨졌던 근대적 기제들에 대한 도전이 시작된다. 이러한 자생적 현장운동은 한살림 운동의 모태인 원주 캠프의 생활협동운동에서 시작된다. 원주캠프는 서울의 기독교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1970년대 민주화의 성지라고 불릴 만큼 사회저항운동의 본산지이기도 했다. 특히 원주캠프는 1973년 남한강 유역 대홍수를 계기로 강원도 지역의 농촌개발을 하면서 생산협동, 신용협동, 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용협동, 나아가 공동으로 생활물자를 공급·구입하는 협동 및 협업운동 등을 함으로써 지금의 생활공동체 운동의 효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공동체를 매개로 한 한살림이 조직된다. 결국 원주캠프는 생명운동, 그리고 생명담론을 한국사회에 구체화시키는 공간이 되었던 것이다.<sup>1)</sup>

## 근대성과 공동체운동

한국사회의 근대성에 대한 해석은 참으로 다양하다. 특히 공동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시되는 근대성의 의미는 그 시각과 논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생명사상의 출현과 생명운동의 결합도 근대성에 기인하고 있는 반면에 계획공동체의 구상 또한 마찬가지로의 경로를 지니고 있다.

한국의 근대성의 사건적 맥락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된다. 하나는 국가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농촌개발을 의제로 한 새마을 운동이다.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새마을 운동은 “조국근대화”를 슬로건으로 진행한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 재건 프로젝트였다.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사회경제적 패러디임을 재구조화 하면서 모든 것을 한 곳에 집중시켜 나갔다. 공간도 마찬가지로 집중되었다. 자본과 일거리가 집중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는 산업예비군들이 즐비하게 몰려들었고 결국에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산과 하천을 중심으로 대규모 무허가촌이 형성되게 된다.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월곡동, 목동, 청계천, 봉천동, 신림

1) 윤형근, “한국생명운동의 뿌리와 공동체(2003)”, 라는 글에서 한국생명운동의 형성과정과 그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기상의 “김지하의 생명사건론(2003)”, 이라는 글은 김지하의 생명사상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동 등이 대표적인 곳으로 일용직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대규모 거주지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지역사회 공동체에 공동체적 전망을 새롭게 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 도시빈민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전개하던 정일우, 제정구, 허병섭, 김진홍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 지역사회 공동체운동은 도시에서의 자립적 생활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도심을 관통하고 있는 청계천을 둘러싼 도시민빈촌은 주거지 정비계획이라는 명목으로 철거의 위기를 맞게 되면서 또 한번 삶의 터전이 해체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김진홍 목사가 이끌던 활빈교회는 국내 최초로 집단 이농을 결정하고 경기도 화성군 이화리에 두레마을이란 이름으로 자리잡으면서 특정신념을 바탕으로 한 계획 공동체를 모색하게 된다. 그리고 양평동, 청계천, 목동, 상계동 등의 무허가 주택에 주거지정비계획이 진행되면서 여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지금의 경기도 시흥시 철산동에 자리를 잡게 되는바 이것은 계획공동체의 형태를 띤 두레마을과는 달리 일반 지역사회공동체를 형성한다. 이러한 움직임의 중심에 '작은자리센터'가 있었는데 이는 지역사회지원활동 뿐만 아니라 한국의 도시빈민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수용하는 도시빈민연구소 활동의 근원지가 되기도 한다.

그 이후에도 운동지원세력은 금호·행당·하왕지역의 재개발 지역에 '금호·행당·하왕 지역 주민기획단'을 지원하면서 지역공동체 운동에 새롭게 결합하게 된다. 주민기획단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세입자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거주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강제로 철거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단결하여 임시거주시설을 만들고 공동임대 주택에 확실히 입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입자의 인간다운 삶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도시공동체운동은 주거권 운동을 출현시켰고 주민협동 공동체 실현을 위한 준비와 실험들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청계천의 나머지 철거민인 도시빈민들은 지금의 경기도 성남 구시가지에 대규모로 수용된다. 그러나 광주대단지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해학 목사를 중심으로 한 주민교회가 지역사회운동의 중심으로 떠오른다. 한편 하월곡동에서는 허병섭 목사가 노동의 의미를 강조하는 지역사회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들의 공동체들은 한국의 근대성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금도 그 중심과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사회의 공동체 운동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두레마을은 전형적인 계획공동체로 출발하여 지금은 한국적 생태공동체의 전략과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으며, 돌아가신 제정구 선생과 정일우 신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철산동의 복음자리 마을과 한독 마을 등은 자연적인 지역사회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지역사회 운동과 조직의 중요성을 공동체적 관점에서 꾸준히 제시하며 그 이후

'주거권 운동'이라는 운동지원 세력이 된다. 성남 구시가지에서 지역사회 운동의 중심이 된 주민교회는 주민생활을 매개로 한 생활공동체 운동과 대안교육기관인 창조학교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허병섭을 중심으로 시작된 밀알공동체는 노동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 의미를 전달하고자 대안교육운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사회가 겪은 근대화는 계획공동체, 생활공동체, 지역사회공동체 등에 대한 담론과 운동적 과제를 양산하는 중요한 촉매역할을 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1990년대 이후 도시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공동체 운동이 전개되는데, 이는 도시빈민지역의 한계를 넘지 못한바 있다. 1990년에 인천 송림 1동에 박종렬 목사가 운영하던 두레협업사, 1990년경에 서울에서 시작한 마포건설, 1992년 김홍일 신부가 진행한 실과 바늘, 1993년 송경용 신부가 진행한 나섬건설, 1993년 정옥순이 진행한 솔샘일터, 1993년 이기우 신부가 주축이 된 명례방 협동조합 등이 도시공동체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sup>2)</sup>

#### 지역사회운동과 공동체운동

지역사회운동은 주민의 자생적 조직을 통한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1984년 남상도 목사가 전남 장성군에 있는 백운교회에 부임해오면서 한마음공동체가 태동하기 시작한다. 백운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수새거부, 적십자회비 거부 운동 등이 정의운동으로 규정되면서 생명정의를 위한 구체적 운동을 발아시키게 된다. 한마음공동체 운동은 생명적 가치를 중심으로 지역을 조직하여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생태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는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을 거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보고 1990년 3월에 생산자 협동조합 형태로 '한마음 공동체'를 출현시키게 된다. 이러한 목적 아래 마평리, 덕성리, 평산리, 분향리 일대의 60여 농가가 '생산자 공동체'를 만들고 인접도시인 광주지역의 약 400여 세대가 '소비자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의 커다란 '도농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1993년부터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일대는 오리농업의 도입을 통하여 자생적 농업생산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명·환경산업으로의 농업, 농업을 통한 다양한 소득원 창출과 유통망 개선, 삶의 질 개선 및 환경친화적 생활개선, 국토의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환경마을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 마을은 '문당리 발전 백년 계획'을 주민 스스로 마련하기도 했다.

2) 김성균, "한국 공동체의 흐름과 스펙트럼", 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지역사회개발연구』, 제27집2호 2002. 12.



부산시 연제구 연산2동 산 176번지 일대에 위치한 물만골 공동체는 황령산 남서방향 분지 10만평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1,500여명의 사람들이 430세대를 이루고 있는 마을이다. 이곳은 지난 1953년 농장이 설치되면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는 25세대에 불과했으나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초량지역 철거민과 농촌인구의 유입으로 280여대 세대로 늘어났으며 1992년 철거 반대투쟁 때는 385세대까지 늘어났다. 마을사람들은 철거에 대하여 주민에 의한 생태마을 복원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노인회와 부녀회, 청년회를 구성하여 자활사업단, 풍물패, 주민학교 등의 지역사회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물만골 공동체에서는 주민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신년하례회, 정월대보름 산신제, 마을 풍물놀이, 지신밟기, 대동제, 경로잔치, 마을 노래자랑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물만골 공동체는 생태마을을 최종 목표로 하여 황령산 생태계 복원과 쓰레기 제로 마을, 자활사업, 부지매입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 대안주거와 공동체운동

한국에서의 대안주거운동은 안양아카데미테마타운, 안솔기마을, 청미래 마을 등 극히 국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양 아카데미 테마타운은 1991년 여름 서울대학교 석·박사학위과정에 있거나 졸업후 연구활동을 하던 인문사회과학 전공자 10여명이 중심이 되어 함께 연구하며 생활을 할 수 있는 “공부하는 사람들의 마을”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실험적인 대안주거이다. 이들은 공동으로 출자하여 1992년에는 1.2동에 19가구, 1996년에는 11동에 88가구를 분양하는 등 성공적인 공동주거를 발전시켜 나갔으나, 그 이후 4차분양이 진행되면서 일반분양으로 전환되었다. 안양 아카데미 테마타운은 공동식사, 독서실, 영화관, 헬스클럽, 음악감상실 등 생활문화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공동주거의 기능을 확대시켜나갔으나 현재에는 그 기능이 마비된 상태이다.

대안교육기관인 간디학교의 배후지로 시작된 안솔기마을은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살아 있는 교육의 장으로 되기를 바라면서 만든 한국 최초의 계획적인 생태마을이다. 안솔기 생태마을은 45,000평 가운데 9,000평을 주거부지로 개발하고 18가구를 목표로 2001년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다.

청미래마을은 유기농업을 주요 생산방식으로 하는 생태공동체 마을이다. 청미래마을은 농사, 집짓기, 살림살이, 품앗이 등을 통하여 제반 분야에서 친환경적 삶을 구현하고 최소한의 것을 공유하는 동시에 개인의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약 30,000평의 부지에 21,000평은 입주자들에게 각각 1,400평씩 분양하

고 나머지 9,000여평은 녹색대학과 입주자들의 공동경작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녹색연합은 충남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외 9곳에서 1999년에 생태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적극적인 주민참여, 마을 조성시 발생하는 제도적 문제해결, 생태마을 생산자와 도시소비자와의 도농교류, 생태마을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 한국적 가능성을 모색한 프로젝트였다.

### 대안경제와 공동체운동

세계화 중심의 질서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역공동체 경제에 대한 구상이 공동체운동의 한 영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대표적인 대안경제를 모색하는 공동체운동이 지역화폐(LETS ;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이다. 캐나다 코복스 지방에서 마이클 린턴에 의해 시작된 지역화폐 운동은 한국에서는 1998년 1월에 시작한 미내사 클럽을 비롯하여 광주 나누리, 송파 품앗이, 대전 한밭레츠, 그린네트워크 등에서 전개되고 있다.

대안경제운동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화폐 운동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대안화폐를 운영하며 그 과정에서 이용자간의 대면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공동체적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내 순환을 통한 자급자족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 성찰적 삶과 공동체운동

성찰적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운동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48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조직된 신앙과 사랑의 공동체인 '동광원'과 '귀일원', 1955년 부천소사에서 시작된 생명 나눔 공동체 '한살회', 1967년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에 대한 실천적 고민을 실험한 함석헌의 '씨알농장', 1958년 더불어 사는 평민을 모토로 시작된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1966년 무소유 일체의 삶을 위해 설립된 '야마기시즘 실현지' 등이 궁극적으로는 성찰적 삶에 대한 의미를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사회적 제안을 해왔던 셈이다. 그 중에서 특히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섰던 이들이 사회운동의 새로운 흐름으로서 공동체운동에 뛰어들어 토지 · 노동 · 삶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의도적인 방식으로 취하려 했다. 1995년 최한실을 중심으로 전개된 '푸른누리'는 "무소유, 무아집, 절대평등, 늘 행복한 세상"이라는 의제를 중심으로 자기 자신이 자연과 우주가 하나임을 깨닫는 것을 수행의 원칙으로 삼는다. 1996년 정호진 목사를 중심으로 시작된 '생명누리'는 생태적 가치관에 기초한 민주적인 자치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푸른누리나 생명누리는 현재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그 명맥

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1990년 이후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공동체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예수원, 이랑동지, 다일공동체, 정토수련원, 예수살이 등이 대표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수행과 노동, 공동체적 삶을 일상 속에서 조화롭게 구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결론을 대신하며

한국의 공동체 운동의 흐름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녀왔다. 박정희 정권시절 근대성에 대응한 저항적 의식이 두레, 향약, 계 등 과거의 공동체와는 다른 형태의 공동체 의식을 복원시켰다. 단순히 일상생활 단위에서의 공동체 복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근본적 복원, 즉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새롭게 복원해 내는 운동으로서 天·地·人의 관계를 조화롭게 회복하는 공동체 운동이 전개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타난 공동체운동은 생명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중문화운동과 생명운동, 도시개발로 인한 지역공동체의 해체에 따른 계획공동체의 구상, 자생적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마을만들기, 격리된 주거문화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서의 공동주거 구상, 세계화의 압박 아래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을 실험하는 지역화폐 운동, 생태주의 원리를 계획단계부터 반영시키고자 노력하는 생태마을 및 퍼머컬처 운동, 그리고 자신에 대한 성찰적 반성과 생활세계의 개혁을 추구하는 수행공동체 운동 등으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공동체운동은 새로운 문명,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자기성찰적 운동인 동시에 생태 위기 시대에 대응한 생태주의 운동이다. **공동체**

## 공동체의 소통과 의사결정

이근행 (생태공동체운동센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기쁘다. 서로의 믿음을 확인할 때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 하지만 ‘일보다 사람에 치인다’고, 일상 생활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일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하지만, 길어야 삼 년. 아이를 낳고 기르며 부부 사이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도 하지만, 겉으로만 하는 소리이건 어찌건 십 년 안에 ‘웬수’ 소리 한번 하지 않고 지나는 남녀를 보기 어렵다. 한 땅에서 살을 맞대며 진화해왔음에도 그 차이의 간극을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 표현했을까? 이 역시 여자와 남자의 차이뿐 아니라 관계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측면이다.

더불어 사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소통한다는 것이다. ‘소통’은 관계 맺기의 가장 중요면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소통 없음, 소통의 어려움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다. 가족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식간에, 사회적으로는 세대간에, 직장이나 조직에서도 부서간에, 지역 간에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이지 싶다. 소통이 되지 않아 믿음이 흐려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약하니 소통이 걸도는 악순환에 놓여있다. 핸드폰에, 이메일에 때와 장소조차 가리지 않는 소통의 매개물들은 늘어가는데 막상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역설적인 상황이다. 뭔가 소통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아! 맞아, 나도 그래”

함께 얘기를 나누거나 책을 읽다가 눈이 번쩍 뜨이고, 입으로는 깊은 탄성이 스며나오는 그 순간, 무르팍을 탁 치지 않아도 찰나의 환희는 몸이 먼저 느낀다. 막히지

아니하고 서로 통할 때의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은 대개 다 알고 있다. 그 기쁨은 내 몸과 마음이 열리는 해방감이며, 다른 무엇과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충만함이며, 그 관계망 속에 내가 자리잡고 있음을 느끼는 편안함이다.

## 관계와 소통의 장

소통은 관계의 표현이다. 소통은 관계를 반영하는데 머물기도 하지만,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밀접한 관계로 발전하기도 한다. 또한 ‘이웃이 사촌보다 낫다’는 속담처럼 실제로는 관계가 있어도 소통하지 않으면 소원해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소통이 없다고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모두 굳건히 연결되어 있다. 나의 존재가 똑 떨어진 하나가 아니라 우주만물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인식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할 뿐 아니라 본디 세상을 옹계 바라보는 관점인 것이다. 세상 사람, 세상 만물과 나는 이미 관계를 맺고 있지만 소통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는 마을의 주요한 특징은 소통에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공동체에서는 얼굴을 마주 대하고 직접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공동체의 적정 규모는 직접 소통이 가능한 범위를 가늠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공동체의 적극적인 소통은 잃어버린 소통을 거듭 살리는 것이며, 나와 연결된 관계들로 소통을 넓히고, 나 자신과의 소통을 깊게 하여 그 관계들과 더불어 나를 실현해가고자 애쓰기 때문이다.

공동체로 산다는 것,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은 관계와 흐름의 왜곡과 단절을 넘어 본래적 관계를 회복하고 재구성하려는 노력이다. 그러한 관계 속에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겠다,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인식의 실천이다. 공동체적 삶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려는 이유는 물질, 상품, 경쟁이라는 자본주의적 관계가 인간 소외와 생태위기라는 자연·인간·사회 관계의 왜곡, 단절을 조장하고 강화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관계는 자연·인간·사회의 진정한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는 모든 주체들의 지속가능한 삶과 행복한 관계를 향한 소통의 장인 것이다.

##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상대가 없는 곳에서 험담하지 않는다. 이부자리에서 부부들끼리 조차 남을 험담하기는커녕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면을 암시할 수 있는 말조차 금한다. 사소한 험담으로 사람들끼리 불신하고 균열되는 것을 통찰한 금언인 셈이다. 이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상대에게 ‘직접 솔직히 얘기하는 것’을 사랑으

로 여긴다.”<sup>1)</sup> 미국과 영국, 호주에 퍼져 초기기독교 정신의 삶을 세 세대 짝 이어가고 있는 ‘브루더호프’ 공동체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글이다.

다른 사람의 느낌과 판단에 기댈 경우 선입관이 생기고, 그 선입관은 편견을 낳고, 편견은 오해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기 십상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여서 수다를 떨며 없는 사람 험담을 늘어놓기 일쑤이고, 술자리 단골 안주는 상사나 정치인들을 흥보며 씹는 것이다. 그런 것도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가나고 할지 모르지만, 불신에 근거한 사회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든다. 없는 자리에서 이야기되는 기대와 바람의 한 부분만이라도 직접 재대로 전달한다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공동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소통방식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나’를 주어로 말하기이다. 이는 부부관계나 모임의 집단상담에서도 많이 언급되곤 하는데, ‘나’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당신은...’이나, ‘남자들은...’이라고 비난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소통방식은 언짢은 분위기를 만들지 않고서도 할 말을 다하고 경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그건 서구의 개인적 합리주의의 영향이지 우리와는 다르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는...’으로 시작되는 말속에는 그 안에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거나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요컨대 ‘나’를 소통의 주체로 세움으로서 소통에 책임을 지고,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비난과 냉소의 표현을 자제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시작이고 우주의 중심이듯이 다른 모든 존재들 또한 그러하다는 전제로 소통할 수 있기에 다양한 존재와 관계방식을 인정할 수 있다. ‘스스로 변하는 만큼 세상이 변한다’는 말이 늘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까닭도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얘기일터. 세상의 변화는 원하지만 나의 변화는 두렵다. 나의 변화를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세상을 우리는 또한 원한다.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영성수련 공동체로 널리 알려진 스코틀랜드의 ‘핀드혼’에서는 모든 일상의 한 매듭의 시작과 끝에 ‘조울’이라는 의식을 가진다. 밥을 먹거나 농장 일을 하기에 앞서서 또는 회의나 프로그램을 마치고 난 후에 둥그렇게 둘러서서 서로 손을 잡고 짧은 침묵(명상 혹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이는 하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농장의 초목과 일에 사용되는 도구 등 모든 것이 하나임을 느끼고 확인하는 의식이다. 사람과 자연과 영성과의 교감을 이루는 이 단순한 의식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간의 일거리 나눔과 협력을 이루고, 자연을 착취나 이용대상이 아닌 생명의 토대로 인식하고 더불어 살리는 길로 핀드혼을 이끌어왔다. 핀드혼의 조울은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넘

1) 『세계 어디에도 내 집이 있다』, 조연현 엮음, 한겨레신문사, 2002

어 자연과 사물들과의 소통을 연결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적극적인 소통은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넘어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과의 소통을 회복하고 계발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의식을 개혁하고 인식능력을 깊게 하고 넓히는 것이기도 하다.

## 갈등을 넘어서

공동체에서도 소통은 끊임없는 과정이기에 잘 풀리지 않는 실타래는 있기 마련이다. 어떤 갈등이 드러나며 그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풀어 가는가 하는 것이 그 공동체의 독특한 기운이나 분위기로 나타나기도 한다. 적극적 소통을 추구하는 공동체 생활의 대체적인 합의는 이런 문제들을 피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때의 소통은 단순히 갈등 관계의 당사자들이 마주 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다. 갈등의 원인과 양상이 다양하듯 갈등을 풀어 가는 소통의 내용과 방식 또한 다양할 것이다.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적극적인 소통일 수 있으며, 때로는 자연이나 우주와의 교감을 통해 작은 갈등이 해소되기도 하고, 자기 내면과의 소통을 통해 갈등의 원인 자체를 극복하기도 한다.

한편, 공동체는 집단생활로 인하여 따로, 혼자 살 때에는 신경 쓰이지 않던 문제들이 불거질 때가 많다. 깔끔한, 독립적인, 과정 지향적인, 현실주의적인 경향과 또 다른 경향들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고, 음식이나 개인 공간 등의 일상적인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성과에 대한 강박이나 일 중독증처럼 주류 사회에서 살 때 지니고 있던 문제들이 공동체 안에서 다시 드러나기도 한다. 자신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공동체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sup>2)</sup>

내면의 욕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채워질 거라는 기대로부터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욕구를 의식하고 다루는 과정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 공동체 성원들은 이러한 내면의 욕구를 의식하는 법과 집단생활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다루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이러한 긴장을 다루면서 얻은 통찰들은 비슷한 문제를 가진 일반 사람들과 사회 조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교육공동체 ‘물꼬’에서는 갈등이 일어날 때 이미 자기 안에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일 할 때나 명상할 때 마음을 들여다보는 영성훈련을 중시하는데, ‘깊이보기’를 통해 마음 밑바닥까지 들여다보고 얘기를 나누면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곤 한다. 더욱이나 갈등이 생기면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약

2) <『새벽을 여는 사람들』, 코린 맥러플린·고든 베이비드슨, 한겨레신문사, 2005> 3장에는 공동체의 다양한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다.

속도 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마주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더러는 시간의 흐름에 맡기기도 한다. 자유학교 아이들이 있음으로 하여 어른들 사이의 갈등은 오래 끌지 않으려는 경향도 생겼고, 때로는 아이들이 쏟아내는 재롱과 경이로움들이 어른들의 갈등을 풀어주기도 한다.

## 의사결정

초기의 형성과정을 거치면서 공동체는 나름의 소통과 갈등해소 방식을 실험하게 되고, 공동체가 결정해야 할 일들이 하나 둘씩 생기면서 소통의 결과는 의사결정으로 자리잡아 간다.

소통의 깊이는 한 집단의 의사결정을 신중하고 그만큼 굳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의사결정은 소통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일 따름인데, 우리의 일상은 결정을 앞세우고 그에 쫓겨 소통을 등한시 하곤 한다. 소통의 불충과 선부른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은 공동체의 통합을 이루지도 못하고, 많은 사회적 비용을 낭비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접한다.

관계와 생명을 중시하는 공동체에서는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 선부른 다수결보다는 서로의 생각을 충분히 나누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수의 목소리도 반영되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대를 넘어 발전하는 공동체들은 나름의 소통과 의사결정 방식을 발전시켜오고 있는데, 산안마을의 연찬도 그 중 하나이다.

무소유 일체사회를 지향하는 '산안마을'의 '연찬(研鑽)'은 개인이나 공동체, 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궁구하여 꿰뚫는' 일상의 활동이다. 한 사안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조정하고 대립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함께 풀어 가는 과정이다. 사회적 관계의 뿌리를 찾아가는 삶을 추구하기에 너와 나를 구분하기보다는 일체로서 나의 쓰임새를 먼저 생각하고, 소유를 넘어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6년에 처음 개최된 이래 2004년 8월에 207회 프로그램을 진행한 산안마을의 '특별강습 연찬회'는 마음공부의 원조격으로 많은 사회활동가들이 거쳐갔으며,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운동의 산실 역할을 해온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시공간과 모든 존재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을 토대로 생활하고 활동하는 일과 수행의 공동체 '정토회'의 의사결정 방식도 역사적 깊이가 있다. 정토회는 삼의제(三議制)를 도입해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게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밟는다. 삼의제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세 번까지 문제 제기하여 재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 1/3이하의 소수의견이 나오면 다시 토론에 붙여 소수가 보충 설명을 하고 충분히 그 의견을 들어 다



시 표결을 한다. 그때 소수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1/3이상으로 늘어나면 그 의제를 처음부터 다시 토론한다. 두 번째 표결에서 1/3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소수의견은 한 번 더 개진될 수 있다. 세 번째 투표에서도 1/3이하가 되면 소수자는 의견을 자진하여 철회한다. 모두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정도회가 가진 집중한 활동력과 내적 결속력을 이루는 한 측면이다.

### 모든 관계가 소통하는 세상

집단명상의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이루는 화백회의의 전통을 가진 우리이건만 지금의 우리는 소통의 의미뿐만 아니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그 방법마저 잃어가고 있다. 소통의 부재는 관계의 흐트러짐 때문이기도 하다.

관계로 인하여 존재가 있다. 그런데 도시에서의 일상에 파묻혀 지내다보면 우리가 자연 속에서, 그 섭리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유기체라는 사실마저 잊고 지낸다. 나를 살리는 것이 핸드폰이나 자동차가 아니라 내 앞에 놓인 밥 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밥이 내 생명이 되기 위해 농부들과 어머니의 정성어린 손길뿐만 아니라 해와 달, 바람과 물, 흙과 곤충들의 섭 없는 관계들이 있다는 사실을... 해월 선생님의 내 앞에 놓인 “밥 한 그릇에서 만사를 알 수 있다(食一碗 萬事知)”거나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以天食天)”는 말씀<sup>3)</sup>이 바로 이 얘기이지 싶다. 공동체는 이러한 본래의 관계를 인식하는 삶을 살고자 애쓴다. 한 사람 한 사람,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물과 바람과 땅과 햇볕까지, 모든 존재들이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실현하고,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실현케 하는 온전한 관계를 맺고자하는 것이다.

소통은 우리와 더불어 내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방식이다.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소외된 사회적 주체들뿐 아니라 자연의 온갖 존재들과 미래의 세대들을 함께 소통할 주체로 삼을 때 우리의 현재 삶도 탄탄하고 행복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체**

3) 해월신사법설, <2.天地父母: 天依人 人依食 萬事知 食一碗>, <24.以天食天>, 천도교 (chondogyo.or.kr) 경전 참조

# 공동체와 영성

김 진 (예수도원)

## 공동체와 영성, 피할 수 없는 만남

공동체라는 말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체'는 사용하는 사람의 의향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너무 일반화되어 버려서 '공동체'라는 말이 신선하고 창조적인 기운(氣運)을 느끼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식상한 표현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어감(語感)에서 뿐 아니라 실제 내용에 있어서도 이 현상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공동체를 지향하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성을 현실 속에서 새로운 삶의 양식과 문화로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성'(Spirituality)이라는 표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불분명하게 이해되고 있으며, 또 한편에서는 그 본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실도피나 내향(內向)주의 문화의 또 다른 표현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식상해진 용어 '공동체'와 비현실적인 단어 '영성'의 만남은 사실 그렇게 생동감 있게 다가오지

---

1) 필자 개인으로는 이 '영성'이라는 표현이 번역어이기도 하고 또 표현자체가 무의식적으로 종교적인 영역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품고 있는 단어이기에 순수 우리말로써 '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적절하고 이해가 쉽게 다가온다고 생각한다. '영성' 그러면 '이성', '자성', '감성' 등 표현에서 보듯 마치 인간의 특정부분의 성향을 지칭하는 말로 들리는 것도 문제이다. 그러나 영성은 그 내용상으로 볼 때 인간의 존재와 삶의 총체적인 영역을 아우른다. 우리의 '얼'이라는 말은 이 인간의 총체성을 담기에 충분하다. '얼'이 간 사람이 '얼간이'고 '얼'이 아직 분명하지 않은 상태가 '얼떨떨한' 상태인데 이것 모두 영성의 빈약함, 흠여짐을 의미한다. 건강한 영성은 결국 알찬 '얼됨'을 뜻한다. 영성의 표현 혹은 실천은 '얼됨의 드러남' 혹은 '얼함'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본다. 본 글에서는 일반 독자의 편의를 위해 '영성'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얼'이라는 표현을 염두에 두길 바란다.

않는다. 그러나 서두에서 미리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어도 21세기 현대 문명 속에서 공동체 운동이 가지고 있는 문명사적 의의와 대안으로서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영성의 문제는 보다 분명하고 명료하게 이해되고 구체화되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려는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성'이라는 화두 자체가 불분명하게 다가온다면 그는 아직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엄밀하게 말해서 공동체의 삶 자체가 그 공동체와 개인의 영성이 구현되는 구체적인 삶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 삶에 있어서 영성에 대한 분명한 자기이해는 공동체의 삶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한 걸음 나아가 건강한 공동체는 공동체가 지향하는 영성과 개인의 영성사이에 상호 밀접한 유기적인 관계가 조화롭고 풍요롭게 펼쳐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 공동체와 영성과의 관계

영성은 공동체의 토대임과 동시에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를 끊임없이 인도하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우선 영성이 공동체의 토대라고 말하는 것은 공동체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전 이미 그 공동체를 이루려는 사람들의 영성이 서로 만나 교류되고, 이것이 공동체가 지향하는 영성으로 모아져 공동체의 기반이 됨을 의미한다. 즉 공동체가 형성된 이후에 새롭게 형성되고 성숙해 지는 영성도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공동체가 생기고 나서 영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 있어야 공동체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영성이 공동체 형성의 원인이자 동기이며 원동력이다.

영성 발현의 결과로 형성된 공동체일 때 영성은 계속해서 공동체 삶 속에서 그 공동체의 내용과 방향을 규정하는 가능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향했던 영성을 통해 현재 공동체의 현실을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영성 깊은 카리스마적 지도자는 필요하다. 그러나 어느 한 개인의 카리스마나 혹은 아이디어만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것보다는 말 그대로 공동체가 지향하는 영성의 빛에 비추어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그 공동체 성원들의 조화로운 영성을 토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영성 없이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으며,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지 않은 영성은 올바르고 건강한 영성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공동체와 영성의 만남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 공동체가 말하는 영성

'영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그 '영성'을 묻는 이의 의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 이유는 '영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인간의 어느 한 부분적인 특성을 지시하

는 언어가 아니며 오히려 인간의 모든 내면적, 외향적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총체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영성이라는 단어는 종교의 범주 속에서 종교적 가치들과의 관련 속에서만 파악될 수 있는 기성종교의 전용어(專用語)처럼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말하는 영성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파악하여 그 인간의 영이 특정 절대적 존재와 관계지음을 통해 나타나는 일체의 현상을 의미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영성'은 그 단어에서 풍기는 종교적 색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담론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이해를 넓혀가고 있다. 그래서 '영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영성에 대한 보편적 이해나 개념 정의 보다는 자신들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 안에서 영성이 지닌 의미와 역동적 기능을 파악하고 그 영성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공동체와 관련해서 말해지고 펼쳐져야 할 영성은 어떤 것인가?

관계짓는 존재로서 인간의 삶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초월적 실재'와 관계 속에서 펼쳐진다. 즉 인간은 인간과의 사회적 관계, 자연과의 생명적 관계, 그리고 초월적 실재와의 신앙적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 사람들 각자의 지향에 따라 그 관계맺음의 내용이나 강도의 편차는 있지만 이 세 관계는 삼각구조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공동체가 말하는 인간의 영성은 바로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일어나는 관계지음을 통해 형성되고 또 이 관계가 일상의 삶에서 실현되는 영성이다.

우선 공동체가 지향하는 영성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나눔의 감수성으로 표현된다. 사람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문명 속에서 인간은 서로 소외되고 있고 삶의 나눔과 대화의 부재현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더욱 더 공동체적 삶을 바탕으로 하는 영성의 회복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공동체의 영성은 다른 공동체 성원들과의 일상의 만남(Encounter)과 삶의 나눔 속에서 구체화 된다. 이를 통해 공동체 성원들은 자신 안에 감춰진 영성을 회복되고 삶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공동체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의 회복뿐 아니라 자연과의 생명관계의 회복을 지향하기 때문에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말은 한편 생태적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가 공동체의 삶을 인류문명의 하나의 대안적 삶의 방식으로 믿는다면 그 대안은 자연 속의 모든 생명들과의 관계에서조차 의미가 있어야 한다. 자연과

관계에 있어서 공동체의 영성은 생명세계에 대한 경의를 바탕으로 하는 생명교감의 민감성으로 드러난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 교감은 관계되는 생명체를 더욱 생명답게 창조하는 힘을 제공한다. 공동체 안에서의 단순한 육체노동뿐 아니라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등 모든 것의 수요와 공급이 이 생명세계와의 교감을 통해 이루어짐을 인식하고 서로가 생명력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공동체의 영성은 성숙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체가 지향하는 영성은 그 공동체의 정신 이념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성찰을 통해서 형성된다. 공동체는 그 공동체 전체가 지향하는 분명한 정신(Spirit)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정신은 고정되었거나 닫혀있는 개념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는 역동적인 화두이다. 마치 개인의 영성이 자신이 신념하는 내용이나 구체적인 실재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될 수 있듯이 공동체의 영성은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정신 혹은 신앙적 실재와의 관계를 통해 성숙시켜 나갈 수 있다. 이 영성을 지향함에 있어서 공동체는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신(神)적인 실재를 상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공동체가 모델로 삼고 있는 인물의 사상이나 지향점 그리고 그의 영성과의 교감이 중요하게 추구되어야 한다. 정신적 교감을 통해 형성되는 공동체의 영성 없이 그 어떤 공동체도 오래 유지 될 수 없으며 그 공동체성 또한 사회 속에서 실현될 수 없다.

### 공동체적 삶 속에서 구현되는 영성

영성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공동체의 삶이 지향해야 될 영성은 이상에서 말한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사회적이고, 생명적이며, 그리고 정신적인 차원에서 교감되는 인간이해의 감수성과 생명적 민감성, 그리고 영적인 소통능력으로 발현된다. 이러한 공동체의 영성차원은 서로 구분은 되지만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공동체의 일상의 삶 속에서 체화되어야 한다.

영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는 자신들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이 영성이 자연스럽게 배어나도록 하루하루의 삶을 구성하게 된다. 함께 먹고 일하고 자고 하는 모든 생활 자체가 영성생활임에 틀림없지만 구슬을 꿰듯이 이것을 뜻있게 엮어내는 삶의 일과는 그 공동체의 영성을 보다 강력하게 성숙시켜 나갈 것이다.

세계 어느 공동체든 그들의 하루 일과를 보면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영성을 토대로 구성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공동체가 지향하는 전체 영성을 위해 하루 세 번 정도의 기도와 명상모임이 있고, 자연과의 생태학적 교감을 통한 영성 계발을 위해 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시간이 구성되어 있다. 사람과의 만남과 소통은 일반

적으로 일과 노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뤄지기도 하지만 전체 공동체 차원에서 갖가지 의견을 나누고 제시하는 시간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하루일과 속에 공동체의 영성이 어떻게 이어지고 또 형성되는지를 간디가 세운 세바그람 아쉬람의 일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세바그람 아쉬람(Sevagram AShram, Babu Kuti)은 간디가 1936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그의 마지막 아쉬람이며 현재 인도 중부 세바그람에 위치하고 있다. 간디가 그의 생애의 말미 12년간 가장 오래 머물렀던 아쉬람이며 그의 공동체 운동과 사회 정치 개혁 운동의 가장 정점에 함께 했던 아쉬람이다. 세바그람 아쉬람의 하루일과는 간디 생존시기의 일과가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서 간디와 그의 공동체들이 추구하고 있는 공동체의 영성을 그대로 읽을 수 있다.

세바그람 아쉬람의 하루는 오전 4시 45분 새벽기도로 시작된다. 공동체 성원들은 어둠 짙은 시간에 간디가 머물렀던 집 앞에 모여 앉아 기도모임을 갖는다. 세바그람 공동체의 기도는 다른 공동체와는 달리 다양한 종교들의 기도문을 차례로 음송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간디 자신이 힌두교인이었지만 다른 종교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는 어떤 것이건 신께 바치는 기도로서 그 종교의 중요한 기도문이라면 과감하게 채용하였다. 여기에는 힌두교, 불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시크교, 자이나교 등의 주요기도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이 아쉬람의 영성을 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다. 또한 이 기도문을 음송할 때 공동체가 지향하는 11가지 삶의 원칙도 함께 음송함으로써 공동체성을 다시금 확인한다. 새벽기도모임이 끝나면 동트기를 기다렸다가 공동노동시간이 시작된다. 그리고 7시 30분에 아침밥을 먹는데 음식의 영성을 중요시하고 또 삶의 단순함을 지향했던 간디는 밥과 반찬으로 세 가지 이상을 차리지 않았고 지금도 그 곳 사람들은 그렇게 밥을 먹는다. 무엇을 어떻게 조달해서 먹고,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는가를 드러내는 '밥의 영성'은 그 공동체의 영성을 읽어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아침식사 이후 각자 맡은 바 소임을 하고 11시에 점심밥을 먹는다. 오후 2시까지 다시 노동과 소임을 하고 2시에 모여 함께 물레질은 한다. 간디의 물레는 단순한 노동을 넘어서서 노동과 기도가 결합된 정신적인 행위였다. 이들에게 있어서 물레질은 중요한 영성수련의 하나이다. 30분간의 물레질이지만 한 자리에 모인 성원들은 다시 한번 공동체 속에 하나됨을 강하게 느끼는 기회이고, 또 정신적인 지주인 간디와의 교감도 함께 가지는 소중한 시간이다. 물레질을 통해 얻는 실과 천으로 '카디'(Kadhi) 옷을 지어 입는다. 스스로 물레질을 통해 목화솜에서 실을 뽑고 천을 짜서 옷을 만들어 입는 과정은 공동체의 자치와 자립정신(스와라지)의 구체적인 실례이자, 자본의 논리와 소비문화, 편의주의에 익숙

한 현대문명의 폐해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표시이기도 하다. 물레질이 끝나면 각자 쉬거나 다시 소임의 현장으로 돌아가 일을 한다. 계절에 차이가 있지만 5시30분에 저녁밥을 먹고 6시30분에 기도마당에 앉아 저녁 기도를 드린다. 기도마당에는 간디가 기도했던 자리를 그대로 보존하여 늘 그와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않는다. 저녁 기도시간에는 간디나 그의 제자였던 비노바 바베의 글을 함께 읽는다. 저녁 기도가 끝나면 처마밑에 모여 간디나 힌두교 경전의 가르침을 공부한다. 종소리로 이 일과에 따른 시간을 알리는데 저녁 10시를 알리는 종소리를 끝으로 하루가 지나간다. 지난 65년 동안 변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세바그람 아쉬람의 하루일과 하나하나가 세바그람이 지향하는 영성의 표현이며 수련이다. 그래서 이 하루일과를 함께 하다보면 자신의 삶의 문화와 양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영성이 몸에 베어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동체의 영성은 실제의 일상(日常) 안에서 추구되는 영성이며, 동시에 공동체적인 영성이다.

공동체의 영성은 하루일과에서 뿐 아니라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건물의 모습이나 배치동 공동체내의 환경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생태적 건축물이나 에너지 사용, 생활습관, 심지어는 공동체 성원들의 얼굴표정과 태도에서도 공동체의 영성을 읽어낼 수 있다. 이러한 영성의 표출은 단지 기능적이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구현될 수 없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걸려지고 다듬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아무리 생태적인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걸맞은 영성생활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 건물에서 영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생태주의자들의 눈에 볼 때 친환경적 건물이 아닐지라도 그 속에 베어있는 영성의 힘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다.

### 다양성, 개방성, 실천성으로 드러나는 영성적인 공동체

공동체가 지닌 영성의 구체적인 표출은 각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각기 달리 표현될 수 있지만 만약 그 공동체가 영성을 토대로 형성된 공동체라면 그 영성은 '다양함', '개방됨', 그리고 '실천함'으로 드러난다.

영성적인 공동체는 공동체 삶 속에서 다양한 이해가 공유되면서 하나로 통전되어 가는 다양성의 일치를 경험하게 한다. 다양성의 일치라는 표현은 단순히 지향성을 의미하는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구현되어 공동체 성원들이 체험해야 할 실제 삶이어야 함을 뜻한다. 공동체에서 말하는 다양함이란 어떤 개인의 취향과 욕구 표출의 다수(多數)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향하는 영성의 토대위에 펼쳐지는 개인적 영성의 다양한 표출을 의미한다. 하나로 모아지는 영성이지만 그 안에서 공동

체 성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양함 속에서 일치, 일치 속에서 다양함이 보장되거나 실현되지 않는 공동체는 이미 공동체로서의 자기모습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공동체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개인적인 헌신과 절제가 동반되지 않는 다양함의 강조는 오히려 공동체의 분란을 일으킬 것이다.

건강한 영성공동체는 개방성을 강조한다. 공동체의 삶 내부에서 올바른 다양성의 표출과 수용을 제대로 이루어내고 있는 성숙한 공동체는 외부 세계와의 만남 속에서 '개방성'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한때 '공동체'라는 말이 주는 어감(語感)이 세상과 사회와 담을 쌓고 오로지 그 공동체 사람들만의 폐쇄적인 삶의 공간이라는 선입감을 갖게 했다. 지금도 사람들에게 그런 느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람들조차 주관과 폐쇄됨을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공동체는 엄연히 역사와 사회 속에 존립하는 한 실체이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다른 개인과 사회와 직·간접적 관계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사회적 공동체의 관계에서 자신을 개방하거나 그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그만큼 공동체 자체의 허약한 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영성적인 공동체는 이웃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방적인 만남을 통해 필요하면 자신들을 기꺼이 변화시켜 나갈 자신감을 갖는다. 공동체의 개방성은 마치 생명체의 들숨날숨과 같이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맞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건강하게 개방된 공동체는 자신의 영성과 삶을 다른 사회 공동체와 나눔으로써 더욱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로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공동체의 영성은 한편에서 실천활동으로 구체화된다. 공동체적 삶이란 한 공간에서 함께 머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지향이 공동체 안 밖에서 실현되는 것을 포함한다. 공동체는 결코 이론이나 이상(理想)에 머물 수 없으며 자신의 뜻을 공동체와 함께 실천적으로 풀어가는 운동체(運動體)로서의 정체성을 지닌다. 이것은 공동체가 지니는 됨(Being)의 영성과 함(Doing)의 영성 사이의 조화를 의미한다. 공동체 안에서의 노동과 수행, 그리고 밖에서의 활동은 그 공동체의 정신에 살을 입히는(肉化) 과정이다. "왜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믿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국 이러한 실천을 통해 검증될 것이다. 그리고 실천은 큰 사회적 실천만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공동체 단위 안에서의 작은 실천조차 의미를 지닌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공동체 성원들의 변화를 통해 마을과 사회, 세계변화를 지향했던 간디의 아쉬람 운동은 많은 공동체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 영성 깊은 공동체를 향하여

공동체를 향한 몸부림 그 자체가 이미 우리 시대의 의미 있는 도전이다. 그러기에 공동체 운동을 마치 이익사업을 평가하듯 '실패'와 '성공'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못된다. 공동체 운동은 그 과정 자체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 그 이유는 실제로 공동체적 삶이 구현되지 못할지라도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노력 속에 이미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게 되고 또 자신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것이나 그렇겠지만 공동체 역시 되어가는 과정에 놓여 있는 도상(途上)의 현실이다. 현재 형성된 공동체 또한 자신의 뜻이 다하는 순간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 땅에 영원한 공동체는 있을 수 없으며 또 그것을 지향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공동체의 생성과 소멸, 이 과정을 통해 인류는 보이지 않게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아간다는 신념이 우리를 더욱 더 강하게 공동체로 들어서게 할 것이다. 그러기에 더욱 더 겸손한 자세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영성 깊은 공동체를 위해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강조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자문도 중요하다. 그 길로 걸어가는 가는 과정 자체 또한 영성적이어야 한다. 

## 공동체와 경제

김성균 (성결대학교 겸임교수, 생태공동체연구소 부소장)

### 경제성장의 딜레마

경제는 자원배분의 문제, 입지의 문제, 경제활동의 지리적 유형의 문제, 도시 및 지역성장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다룬다. 궁극적으로 종합과학적 접근 방법을 선호하고 있는 경제는 자원이용의 효율성의 극대화, 계획의 과학성을 주요 접근방식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본질적인 목표는 GNP, 자본스톡 등의 성장에 목표를 맞추게 된다.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특화된 공간 전략은 입지분석을 위해 우선적인 과제로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이윤극대화와 수송비의 극소화에 근거를 둔 최적입지유형을 모색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보편적인 지역사회경제 체제는 지역 외 교환을 전제로 하며 그 교환대상도 재화에 바탕을 둔 거시경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역경제는 화폐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화폐이외에는 그 어느 것도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오로지 지역사회경제는 화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화폐를 중심으로 한 경제체제는 지역간 경쟁력이 가장 큰 논의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지역의 투입과 산출을 입지상 분석, 변화할당 분석, 지역성장 시차분석 등에 기초하여 지역을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발전과 개발의 논리가 우선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성장우선론에 매몰되어 있는 경제체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유통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지역사회의 문화, 공동체성 등을 획일화된 상품으로 규정해버린다. 궁극적으로 '양적 중심의 성장'에 주안점을 둔 경제성장은 세계화 맥락 속에 그리고 세계적인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공동체성이 강조된다.

## 세계화의 실험실, 지역사회경제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세계화의 일상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다. 동네아저씨가 만들어 준 빵보다는 파리바게트를, 동네아저씨가 만든 치킨보다는 KFC를, 동네아저씨가 만든 햄버거 보다는 맥도널드를, 그리고 촌노의 구멍가게와 재래식시장보다는 초국적 자본이 투자된 대형마트가 바로 세계화의 현장이다. 이곳은 자본주의의 모든 상품을 집중화, 획일화 시켜놓고 편리성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현혹한다.

그 뿐만 아니라 공공자금으로 이루어지는 인프라 프로젝트는 초국적 기업들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한다. 가령 월마트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상품들은 공공자금으로 건설된 고속도로를 통해 수천 마일을 이동한다. 외국에서 생산된 상품이 도착하는 하역터미널은 공유지에 건설되어 공동기관에 의해 관리된다. 이 회사가 모든 점포와 배급트럭과 통신하며 운송상황을 파악하는데 사용하는 인공위성은 공공자금이 투자된 우주개발 프로그램의 산물이다. 결국은 월마트와 같은 초국적기업은 전세계의 지역사회 시장과 작은 상점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수천 마일 떨어진 곳으로부터 엄청난 에너지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매개로 음식을 먹고 있는 우리는 대규모의 단일경작과 획일화된 문화에 종속되어 간다. 대부분의 농업이 수출주도형으로 변화되면서 소농은 사라져 가고 대규모의 단일경작, 값비싼 농기계, 화학비료의 대량 투입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우리는 작은 것에 대한 회생을 토대로 큰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것을 성장이라고 부른다.1)

## 경제공동체의 새로운 인식

큰 규모를 향한 경제의 세계화가 우리들의 일상에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 진행된다면 작고 지역적인 대안은 결코 설 자리가 없다. 따라서 지역공동체는 지속가능성과 평등을 지향하는 나름의 공동체를 이루고 세계적인 기업들의 의존 없이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토대구축이 중요하다. 경제적 세계화의 저항 세력으로 지역사회경제 공동체의 구상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즉 지역사회 경제공동체는 지역소비를 위한 지역생산의 장려, 낭비적인 포장과 수송의 현격한 감소와 지역사회 내에서의 돈의 순환, 생물학적 다양성의 증대 등의 회복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공동체를 지원하는 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이 농민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키고, 지역은행 및 대출펀드를 통해 지

1) 자세한 것은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허울뿐인 세계화』, 따님, 2000> 참고

역주민이나 사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본을 확대시키고 지역사회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이 지역사회경제를 위한 새로운 인식이며, 이것이 새로운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일이다.

또한 지역화폐를 통하여 국가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상품과 서비스를 돈 없이 거래할 수 있는 경제공동체의 새로운 실험인 것이다.

### 더불어 사는 '삶의 터'의 경제공동체, 지역화폐

지역화폐는 지역내 교환제도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지역경제 체제와 다른 점이다. 세이팡(G. Seyfang)과 윌리엄(C. Williams)은 1997년 Kinderd Spirit 가을호에서 “세계화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업식 민주주의의 가공할 압력 속에서 궁핍화와 착취를 강요당하는 풀뿌리 공동체들의 자기방어와 회생을 위해 주목할 만한 수단으로 세계 곳곳에서 들쭉처럼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다”라고 극찬한바 있다. 지역화폐는 거시적인 지역경제보다도 미시적인 지역사회 경제 즉, 공동체 경제에 관심을 갖는다.

정리하면 지역화폐란 지역에서 통용되는 유형 또는 무형의 교환매개체를 통하여 지역주민끼리 상품과 노동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교환제도로써 지역의 공동체를 재건하고 상호부양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며 가난한 사람과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돕고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전망을 갖도록 하는 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국가에 의하여 창출되는 통화의 유통부족으로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국가통화 중심 경제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생태공동체의 또 다른 대안운동이다.

지역화폐는 일반사회에서 지향하는 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을 지니고 있다. 우선 공동체사회를 원칙으로 운영의 방법, 목적, 교환매개 과정, 대상과의 관계가 형성된다. 이와 같은 특징을 종합해보면, 통화소는 거래의 매개 역할 만 할 뿐 어느 누구도 이 네트워크를 소유하지 않으며, 거래는 상호 동의에 의해 진행되며, 서비스 이용시 이자지불과 채무 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으로 지역화폐 시스템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또한 지역화폐는 화폐가 없어도 물건이나 서비스를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화폐가 운영되며 그 과정에서 이용자간의 대면성이 확보되며 궁극적으로 공동체적 관계가 형성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외에도 지역내 순환을 통한 자급자족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특징도 지니고 있다.

위와 같은 특징을 지닌 지역화폐는 궁극적으로 생태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사

회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요건을 충분히 지니고 있는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 1) 지역내 장기간의 거래를 통하여 에너지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게 되며 2) 지역화폐의 지역내 순환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생산-유통-소비-폐기의 전 과정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궁극적으로 일상의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스스로 통제하는 체계에 돌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3) 지역내 순환은 화폐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지역의 생산, 서비스를 비롯하여 지역의 산업, 공동체성의 회복, 자연에 대한 배려 등 생물지역의 원리에 근거한 지역만들기를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4) 배타적인 도시에서 생활공간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느끼게 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 대안화폐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경제공동체의 실험

지역화폐는 1983년 캐나다 코목스에서 6명으로 시작하여 1985년 550명으로 늘어났으며 그 이후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뉴질랜드, 미국 등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1992년 오스트리아 정부는 전국에 지역화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M. Linton을 초청하기도 하였다. 1999년에는 영국 270개, 프랑스 300개, 호주 250개, 미국 110개, 오스트리아 19개, 스위스 1개, 스웨덴 14개, 노르웨이 7개, 덴마크 3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에는 광주나누리, 불교환경교육원 '두레', 대전한밭레츠의 '두루', 송파자원봉사센터의 '송파머니', 인천지역화폐 '나눔', 관악지역화폐 '나무', 그린네트워크 녹색화폐 '사랑' 등이 있다.

지역화폐는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제운영시스템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유형·무형의 서비스를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써 이웃간의 신뢰와 나눔의 정신을 만들고, 사람의 가치가 존중되는 아름다운 경제공동체, 지역복지, 환경보전 등 나눔의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역공동체 건설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전지역에서 지역화폐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밭레츠는 '두루'라는 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 1999년 10월에 지역화폐 시스템을 도입하여 2000년 2월 1일에 창립하며 2002년에는 240여명의 회원에 이르고 있다. 한밭레츠는 회원들이 통용할 수 있는 '두루'를 이용해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이나 기술 등을 회원 간에 서로 나눔으로써 상호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주고받고 있다. 이곳은 광주나누리와 함께 지역의 재화를 외부지역으로의 유출을 차단하고 생산·소비·유통·재활용의 시스템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적 지역경제 체제로 전환해가고자 한다. 두루는 일반사회에서 사용하는 화폐에 대응한 대안화폐라기 보다는 화폐의 '사용가치'를 최대한 살리기 위한 보조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송파품앗이는 1999년 5월에 '송파머니'를 통하여 지역내 교환 제도를 활용한 자원봉사자의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송파품앗이는 회원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각종 물품과 서비스를 교환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강화 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지역 내에 도입한 것이다.


관악지역은 2000년 3월에 시작하여 약 100여명의 회원들이 '나무'라는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관악지역화폐는 기존의 실업사업이 생계비 지원, 보조금 지급 등의 복지 공급자 중심이 갖는 수혜적 성격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된 주민자발적·자치적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실질적인 노동의 가치가 결여된 자원봉사 시스템에 문제 의식을 가지면서 경제위기, 대량실업, 화폐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마비를 막기 위한 자족적인 시스템을 실업자 보호 프로그램에 맞추어 지역화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민들레 교육통화는 서로 도움으로써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새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민들레 교육통화는 격월간지 민들레에서 1998년 1월 시작한 '민들레 교육통화', 1999년 12월부터 '관악교육통화', 2000년 5월에 시작한 '신촌교육통화'가 있다. 이 화폐의 단위가 '민들레'라는 명칭으로 쓰인다. 이곳은 지역화폐 운영체계와 거의 흡사하다. 그러나 -50만이하의 계정을 두고 있다는 특징도 있다. 이것은 거래의 활성화와 도시의 대면성을 고려한 것으로써 서비스 이용의 한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교육통화는 교육이외에 다른 물품의 교류도 가능하다. 지리산에서 차를 재배하시는 분이 차를 제공하는 대신에 그 분의어린 이가 필요한 책이나 유아용품을 제공받기도 한다.

녹색화폐인 '사랑'은 녹색대학, 청미래마을, 그린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대안화폐이다. 지금까지는 많은 지역화폐가 출현하였으나, 녹색화폐 '사랑'은 국가조폐기관에서 발행한 화폐라는 점에서 기존의 지역화폐와 다른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녹색화폐는 '사랑화'를 발행하면서 몇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녹색의 순수하고 착한 돈, 우주만물 모든 것이 잘 어울려 살도록 하는 나눔·돌봄·섬김의 돈, 그린네트워크에서 제휴하는 기관이나 공동체 내에서 통용되는 내부화폐, 국민통화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통화단위, 생태경제적 나눔을 도모하는 돈, 노동의 시간적 등가를 지향하는 평등의 돈, 공간적으로 특정지역에 제한 받지 않는 광역 단위의 돈, 지역화폐로 공식 발행된 위조방지 화폐 등의 내용으로 화폐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 '사랑화'는 1,000사, 5,000사, 10,000사로 구분되어 발행하며 현재 녹색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녹색아카데미를 후원하는 가게인 인사동 '시천주'와 유기농 녹색가게

신시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녹색화폐의 취지에 동의하는 모든 곳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광주전남녹색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화폐 '광주나누리'는 2002년 11월 창립하여 170여명의 회원이 나누리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화폐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광주나누리는 “회원사이의 믿음을 바탕으로 현금 대신 지역통화인 나누리를 통하여 물품과 서비스를 거래함으로써 경제적인 유의성과 더불어 이웃과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교환제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실험들에서 언급했듯이 이제 우리는 경제적 세계화가 가져온 생활세계의 파괴화를 극복해내고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공동체성을 회복해내는 실천적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함과 동시에 성장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 초점을 두고 경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 공동체와 교육 \*

이근행 (생태공동체운동센터)

### 미래를 만드는 교육

집이나 학교, 농촌이나 도시의 마을 어느 곳이고 언제나 활짝 피어나는 꽃, 그런 꽃이 있을까? 바로 아이들이다. 화사한 꽃이 열매맺어 새로운 씨앗으로 자라 생명이 이어지듯, 아이들은 또한 미래의 씨앗이다. 우리의 미래는 아이들인 것이다. 건강한 씨앗이 싹을 틔우고 건강한 환경이 그 싹을 자라게 하듯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돌보고 가꾼다. 바로 교육이다.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지에 대한 고민이기에 바람튼 치마폭에만 담아 놓을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들길을 거닐다 자칫 발로 밟을 뻔한 들꽃이 눈에 들어온다. 졸업식이 많은 시절이나 가정의 달에 때맞추어 대량으로 피워낸 장미며 카네이션 등에 비하면 조그맣고 화려하진 않지만 우리는 그 꽃에서 상품으로 진열된 꽃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경이로움과 생명력을 한껏 받아 안는다. 주변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어울리며 제 스스로 피어난 생명이기 때문이다.

자연 속에서 일상의 삶이 들꽃과 같은 아이의 생명을 기르는 생활, 세대를 이어가는 교육의 본 모습이지 싶다. 아이들은 제가 태어난 마을에서 또래아이들과 어울리고, 자신을 잘 알고 있는 동네 어른들의 보살핌 속에서 이야기와 자연, 일과 놀이를 배우고, 꾸중과 칭찬을 들으며 제가 속한 마을 공동체의 어엿한 구성원으로 자라난다. 제 주변의 자연과 사람들은 친밀하고 뒷산의 샘물과 마을 저수지, 여름밤의 은하

\* 이 글은 <마을이 학교요, 학교가 마을이다>. 이근행, 「한국YWCA」 2004년 12월호를 수정 보완한 글이다.



수가 김매기와 추수로 이어지는, 여러 관계들은 손에 잡히고 그 관계를 이어가는 지혜는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 담겨있다.

### 제도교육의 틀을 넘어

아이를 낳고 기르고 교육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이나 사회의 지속 발전을 이루는데 너무도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현실은 자연과 인간이 단절된 도시화, 상품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산업자본주의,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고 서로를 불신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온통 채워져 있다. 그 속에서 교육도 악순환의 고리에 맞물려 있다. 관계와 소통이 단절되고, 소외와 불신이 조장되는 산업사회를 예까지 끌어오고 세대를 이어 지탱시키는 사회적 제도 가운데 하나로 국가중심의 획일적인 공교육체제가 지적되곤 한다.

제도의 틀에서 자연의 품으로, 억압적 타율에서 창의적 자율로 대안적인 배움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다름 아닌 공동체운동이다. 공동체운동은 우리가 잃어버린, 끊어진 관계의 매듭을 새롭게 이어가려는 움직임이며, 그 노력과 실천이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의 기운이 되고 그 아이들도 공동체로 살아가며 기쁨과 감사를 가슴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자연은 가장 훌륭한 교사이다. 새와 곤충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당신은 그저 조용히 있으라’는 교육자 페스타로치의 충고를 받아 안기에는 우리네 일상이 너무 뒤떨어져 있다. 타고난 자연과의 교감능력은 학교라는 제도 속에서 퇴화된다. 우리는 그걸 사회화 과정이라 부르며 다그친다. 협력과 소통의 단절은 또래집단 사이에도 팽배해 있다. ‘이건 아니다. 아이가 스스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만큼은 만들어야 한다.’ 이런 고민들이 대안교육을 형성해 왔다. 공동육아, 방과후학교, 대안학교로 이어지는 물줄기는 이제 실개천을 벗어나 공동체의 강물로 흐르고 있다. 불과 10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들이다.

### 지역이 학교요, 학교가 지역이다

몸과 마음과 머리의 조화로운 성장, 자연과의 교감, 노작활동, 자율과 다양성 등 대안학교들이 추구하는 가치, 교육철학 가운데 어느 곳에서도 중시하는 것이 ‘더불어 사는 삶’, 공동체 정신이다. 대안학교의 자율적인 개인들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온전한 관계들의 긴밀함이 요구되고 그리하여 작은 학교를 지향하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대안학교의 첫 마음이자 모델로 받아들여지는 곳이 ‘풀무학교’이다.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자리잡은 지 47년이 지난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는 설립초기의

‘성서의 가르침, 농업 중시, 작은 학교’ 정신을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한 학년이 25명 남짓한 풀무학교 아이들은 모두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어울려 살아가는 생활인으로 커간다. 친구와 선후배를 위해 돌아가며 밥을 짓고, 규칙은 스스로 만들어 자율적으로 지키며, 나의 문제도 친구의 문제도 함께 풀아가는 생활 속에서 학생들은 공동체를 익힌다. 공동체의 주체로 성장하는 또 다른 장은 활발한 동아리 활동이다. 80명 남짓한 학교에 십수개의 동아리들이 자율적으로 결성되어 한 학생이 대개 두세개의 동아리 활동을 한다. 다섯 개가 넘는 동아리활동에 무리이다 싶은 학생도 있어 선생님이 자제를 당부하는 경우도 있단다. 풀무학교의 진면목은 지역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지역이 학교요, 학교가 지역이다.’는 말이 무색하지 않는데, 작은 풀무학교로부터 시작된 생활협동운동이 규모와 내실 있는 신탁과 생협으로 자라나고, 학교에서 접한 유기농업이 실천되어 면단위를 넘어서는 지역으로 확산되는 모범적인 사례를 흥동지역은 보여준다. 올해는 지역급식운동에서 또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를 일구었는데, 이 지역은 농민들이 부담하여 어린이집에서부터 초·중·고등·전공부까지 유기농 쌀로 급식을 하게된 것이다. 흥동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은 지난해부터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쌀로 급식을 해왔으며, 올해에는 인근의 6개 학교 650여 명에게도 유기농쌀 급식이 시작되었다. 고생하며 지은 유기농산물을 정작 내 아이들에게 먹이지 못한다는 젊은 농부들의 설득으로 오리쌀 작목회와 풀무생협 조합원들은 정부미 기준의 급식비 지원금과 유기농쌀과의 차액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흥성의 아이들은 부모들이 직접 농사지어 그때그때 방아찌은 유기농쌀을 먹고 자라고 있다. 이 행복한 아이들은 밥맛이 좋아 다른 지역보다 밥도 더 많이 먹는다고 한다. 갓골어린이집 아이들은 풀무생협의 지원으로 쌀뿐만 아니라 부식까지 친환경 식자재로 공급받고 있다. 지역 내의 순환과 자립이라는 유기농업의 원칙을 지역에서 하나씩 실현해 가고 있는 것이다. 50년 가까운 풀무학교의 정신이 지역에 싹을 틔우고 있는 것이다.

공동육아로부터 생협 활동을 거쳐 대안학교설립에 이른 마포 성미산 자락 주민들 이야기는 많이 보도된 마을학교 이야기이다. 파천에도 공동육아 경험을 공유한 부모들이 무지개학교를 설립하고 이제는 인근 지역의 대안초등학교들과 협력하여 중등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 지역 부모들은 대안학교라 하여도 학교생활만으로 대안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여 일상의 삶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으로 ‘파천 무지개교육마을’이라는 지역공동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안교육의 경향은 중고등에서 초등과 유아로 뿌리에 가까워지고, 유아로부터 시작된 노력들은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초등과 중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배움과 생활을 일치시키려

는 경향 또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 스스로 배우는 터전, 공동체

이미 생활의 터전과 배움의 장을 일치시킨 공동체 마을에서는 다른 방식의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화성의 산안마을에서는 가르친다는 '교육'이 아닌 스스로 배운다는 '학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아이와 부모, 마을이 함께 자란다는 '태양의 집' 이야기가 이번 <녹색평론 79호>에 잘 소개되어 있다. 포르투갈의 타메라 공동체는 '아이들 선언'을 만들고 아이들이 초대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만의 공간을 따로 마련하여 공동체와 아이들이 협력하고 지지하는 공동체 교육을 행하기도 한다. 작은 동물농장을 만들어 자연과 동물과 정서적 교감을 돕기도 한다.

공동체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바깥의 지적이 있다. 어른들의 역할은 아이들이 어떤 사회성을 기르도록 도와줄 것인가에 집중할 일이다. 대안교육은 소수의 사람들이 선택할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80년 넘은 서머힐의 자유학교 출신은 수백명에 이를 뿐이다. 그러나 그 정신이 교육철학과 사회개혁에 미친 영향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교육은 아이들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정작 재교육이 필요한 것은 우리 어른들이다. 그래서 많은 공동체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소통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체운동은 결국 주류의 경쟁과 소외, 불신과 파괴의 사회흐름 속에서 작은 생명, 작은 믿음의 틈새들을 찾아 서로 살리는 관계를 맺어 가는 그리하여 세상을 생명의 그물망으로 한 코 한 코 떠가는 운동이다. 생명의 그물코 하나는 또 하나의 그물코로,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그물망으로 이어진다. 생명의 그물망을 떠 가는 지역은 바로 참된 대안의 교육장이며 학교가 지역이고, 아이고 어른이고 모두가 학생이자 선생인 것이다. **공동체**

# 공동체와 대안 기술

박한강 (생태공동체운동센터)

생태공동체는 문명의 이름 아래 처참하게 파괴된 자연과 인간 내면의 심성을 자연의 흐름에 맞추어 근원적으로 치유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문명이다. 지금까지의 문명은 인간 이외의 모든 존재들이 오직 인간을 위해 복무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져 왔으나 새로운 시대의 문명은 모든 존재들의 평등성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태적 삶, 아니 본원적 의미에서 인간의 삶이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주변 생태계에 조용하는 삶이라 할 것이다. 생태공동체는 이러한 본래의 인간 생활방식을 복원하고 공멸로 나아가는 지금의 문명을 지양하는 대안적 삶의 형식이다. 이러한 생태공동체에서 채택하여 사용하는 기술을 대안기술이라고 일컫는 바 그 내용과 형식이 지극히 다양하지만 대체로 지역순환적이고 재생가능하며 사용하기 쉽다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 대안기술, 적정기술

생태적 공동체에서 산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것으로 회귀하자는 복고주의적 발로도, 수렵, 채집생활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대에서 공동체란 기존의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자연과 사회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것은 철학(혹은 영성)적인 각성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이나 생활에서 대안의 방식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공동체가 만들려는 새로운 관계는 상호간의 몇 가지 요소를 새롭게 배치하고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요소의 근거에 있는 틀거리 자체를 바꿀 때에 요소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공동체에 필요한 몇 가지 유틸리티를 환경

친화적인 것으로 바꾼다고 해서 대안기술을 채택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안기술을 이야기 할 때 슈마허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슈마허는 그의 명저 「작은 것이 아름답다」를 통해 중간기술을 역설하였다. 그에 따르면 중간기술이란 자본집약적 첨단과학 기술과 토착 기술의 중간 어디쯤에 있는 기술로서, 환경파괴와 인간소외를 낳는 성장 중심의 경제를 극복하고 지역중심, 인간중심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중간기술은 1960년대 이후 반문화(Counter-Culture)운동의 영향아래 수많은 진보적 개발론자와 실천가들에 의해 적정기술, 대안기술로 개념이 확장되었다. 이들은 적정기술을 “자립, 지역적 자율성, 자연에 대한 배려”를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적정기술이란 “① 거의 모든 사람에게 접근가능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그 비용이 낮아야 하며, ② 쉽게 유지되고 고쳐질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해야 하고, ③ 소규모 생산에 적합해야 하며, ④ 창조성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와 양립 가능해야 하고, ⑤ 환경에 대한 자각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하는”<sup>1)</sup> 것이다.

이 논의에 의하면 기술은 이제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특별한 지위를 갖는 기술자의 특권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기술의 범주가 단순히 기계 장치와 그것의 실용적 사용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구-자연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시스템으로까지 확장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안기술은 자체의 기술적 완결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안적 사고의 계발과 실천 속에서 구현되어야 의미를 갖게 된다. 대안의 삶과 분리된 대안기술은 취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삶을 바꾸는 기술

현대의 과잉생산/과잉소비의 사회<sup>2)</sup>에 의해 빚어진 환경파괴와 인간관계의 붕괴는 우리에게 인류의 생존이 지속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공동체는 이러한 반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제시된 새로운 사회적 실천단위이다. 흔히들 소비사회에서 뛰어나와 공동체에서 생태적으로 사는 것을 단순히 “덜 먹고 덜 쓰자”는 식의 금욕주의로 받아들이곤 하는데, 사실 초점은 “바르게

1) Carroll Pursell, "The Rise and Fall of the Appropriate Technology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1965-1985." *Technology and Culture* 34:3(1993), pp. 629-637  
김명진의 홈페이지(<http://phps.snu.ac.kr/people/walker71>)에서 참조.

2) 다르게 말하면 '생산력' 지상주의의 사회이다.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생산력'과 '발전'이라는 이름 하에 자연과 인간사회에서의 수많은 파괴를 저질러 왔다.

먹고 바르게 쓰자"에 있다. 우리는 지금 자연과 사람에 대한 착취와 이용 관계에 근거해 "잘못 먹고 잘못 쓰기" 때문에 위기상황에 몰려있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고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의 사이를 공생과 순환의 관계로 바꾸어야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다. 대안기술은 이러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용되는 기술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기술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인지에 상관없이 멋있고 그럴듯해 보이면 돈을 주고 사다 쓰는 데 익숙해져 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기술의 생산자들에게 예속되고 만다. 사람들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사람을 부린다. 이에 반하여 공동체는 스스로가 지향하는 가치나 삶의 방식에 걸맞은 기술을 채택한다. 공동체가 자본주의의 대량생산체제를 거부하고 소규모의 자립적인 생산체제를 선택한 만큼 사용하는 기술 역시 그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기술은 수작업과 육체노동에 근거한 작지만 정교한 기술들이다. 물론 공동체의 규모와 사회 전체의 기술수준에 따라 기술의 복잡성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공동체 성원들에 의한 통제가 가능한 기술이다. 트랙터를 예로 들어보자. 노동력에 비해 넓은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부는 트랙터를 선택하는데 있어 아무런 주저함이 없다. 그러나 그가 생태농업을 하고자 한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트랙터는 토양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고장이 났을 경우 농부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는 통제불능의 기술인 것이다.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농부가 손쉽게 부릴 수 있는 기술,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생산성이 있는 기술이 없을까? 기계가 크고 복잡할수록 개개 작물의 생육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지므로 되도록 자연에 밀착되어 작물과 주변 식생의 관찰이 용이한 기술이 없을까? 노동을 통해 자연과 하나됨을 느끼면서 일하는 자체가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이 없을까? 전수가 용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개발이 가능한 기술이 없을까? 공동체 누구에게도 반감을 일으키지 않고 즐겨 사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없을까? 등등... 이런 모든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을 찾아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안기술은 어정쩡한 중간적인 기술이 아닌 것이다. 현행의 기술을 대신하면서도 공동체와 개인 그리고 주변 생태계와 잘 조화를 이루는 기술이다. 지극한 인간의 창조력이 요구되는 기술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창조력이 돈을 주고 기술을 사는 자본주의 사회의 편리함 속에서 나올 수는 없다. 공동체 안에서 탐구하는 자세로 대안적 삶을 살 때에 그 절실함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변화된 삶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새로운 기술은 다시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변증법적 관계가 성립한다.

대안기술은 지역의 재료와 특성에 기반을 두고 효율과 경제성을 고려하면서 연구 개발된다. 이는 전통적인 기술에 현대의 과학지식과 대안적 삶의 가치관이 결합하여 공동체와 구성원의 창조성을 극대화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창조적 행위를 통하여 공동체로 살고자 하는 개인의 가치와 대안사회의 맹아로서의 공동체의 가치가 조화롭게 발현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대안기술은 공동체에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기술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한다. 대안기술은 본질적으로 특권화된 기술, 소수에 의해 독점되는 기술, 중앙집권화된 기술이 아니라 공동체 성원에 의해 고안되고 운용되는 공동의 기술, 분권의 기술이다.

## 국내의 공동체와 대안기술

대안기술은 집이나 농장을 만드는 계획에서부터 건축, 농업, 수처리, 에너지 등의 공법 및 재료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한다. 국내 공동체에서 대안기술의 채용은 건축과 에너지 등 일부 분야에서 도입을 시도 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이는 국내 공동체 운동의 역사가 길지 않고 일부 상징적인 대안기술의 초기 투자비용이 과대하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공동체와 기술'에 대한 통합적 관점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종래의 기술 패러다임을 따르면 대안기술은 환경 위해가 적고 에너지 소비가 적은 여러 가지 기술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식의 삶과 기술을 분리하는 인식으로서는 기술 소외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부분의 국내 공동체들이 단지 자금과 기술적 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대안기술의 채택을 미루고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미흡하지만 개괄적으로 몇 개의 분야로 나누어 대안기술의 보급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농업

국내공동체에서 비교적 광범위하게 대안기술이 적용, 시도되고 있는 분야는 농업이다. 대부분의 대안공동체들이 기계와 화학물질에 의존하는 관행농을 거부하고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공동체의 역사가 짧다보니 유기농이 제대로 안정되지 못한데다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먹거리의 자급율은 낮은 편이다.

논농사에 국한시켜 볼 때 현재 국내 공동체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다양한 농법 가운데 가장 대중적인 것은 오리농법이다. 오리농법은 충남 홍성 문당리에서 지역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이래 전국적으로 퍼진 것으로 오리를 통해 제초와 비료 효과를

보자는 것이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오리농법에 만족하지 못하는 공동체들은 우렁이농법과 쌀겨농법을 비교적 많이 채택하고 있다. 전남 장성의 한마을공동체에서는 우렁이 양식시설까지 갖춰놓고 이 농법의 연구와 보급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유기농 단체인 정농회와 인연이 있는 공동체들에서는 슈타이너의 신지학 사상에 기반을 둔 바이오다이내믹 농법(biodynamic agriculture)을 널리 채택하고 있다. 그밖에 참깨농법과 미생물을 이용한 자연농법, 유축순환농법 등을 다양하게 채택하고 있으나 아직은 자급자족 및 실험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채소농사의 경우 무경운, 무제초, 천적을 이용한 병충해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태농업이 실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농업에 있어서 대안기술은 단지 농사기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중심으로 모든 자원이 지역내부에서 순환하는 지역순환농업, 생물종다양성과 유전자 확보를 위한 토종종자 보존운동, 전통 농기구의 개량과 개발, 전통 농법의 연구 등 다양한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에 있어서 활발한 여러 노력들에 비하여 다른 분야의 대안기술을 도입하거나 개발하려는 노력은 아직 미미한 단계이다.

## 2) 에너지 : 열과 전기

최근 국제 원유가의 상승기류에 발맞추어 정부에서 대체에너지 지원 정책을 내놓았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워낙에 대체에너지 분야에 대한 하부구조가 취약한데다 수요자의 인식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책 내용을 보면 태양광 주택을 보급하기 위해 393억원을 배정하여 설치비의 70%를 지원하며, 태양에너지, 지열, 풍력 등으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그린빌 사업에도 400억원의 예산을 추가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 국내 공동체에서는 자급 능력이 있는 몇 군데에서만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리산 두레마을의 경우 온전히 자리를 들여 중국에서 태양전지가 부착된 500와트 짜리 풍력발전기를 3대나 들여와 사용하고 있지만 에너지 효율로 보아 투자액을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이다. 그렇다고 하여 정부지원에 의존한다면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생긴다. 홍성의 풀무학교와 문당리에도 역시 중국에서 수입한 태양광 및 풍력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역시 기존 전력에 대한 보조수단에 그치고 있다.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경제성으로 보아 아직은 대체에너지의 적용이 보조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러나 남미 콜롬비아의 가비오따쓰 공동체처럼 자체 기술에 의해 대체에너지 기구들을 개발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시장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대안에너지 설비는 늘 경제성 문제로 인해 대중화되기 어렵지만 공동체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은 사용자의 필요와 적합성이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경제성을 따져 대안에너지 설비가 대중화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안적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의한 창조적 열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밖에 문당리에는 마을축사에서 나오는 분뇨와 인분, 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바이오 가스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여기에서 생산되는 메탄 가스는 취사용으로 쓰고 남은 찌꺼기로는 액비를 만들어 쓰고 있다. 주민 이환의씨가 설치한 8톤짜리 탱크에서는 연간 78톤의 액비가 나온다고 한다.(평화신문 2004.7.11)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철 미생물의 활동이 둔화되는 점 때문에 탱크를 지하에 묻거나 하우스 안에 설치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주도하는 대체에너지 사업은 아무래도 대규모인데다 시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생태공동체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각 생태공동체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소규모의 대체에너지를 자체 개발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에 있어서나 창조적 삶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하겠다.

### 3) 건축

생태공동체에서는 환경친화적 재료를 이용하여 자기 손으로 집을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집짓기에는 아무래도 아마추어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손을 빌릴 때가 많다. 전문가의 손이 많이 갈수록 집은 매끈하고 반듯하게 나오지만 그만큼 소박함과 애착이 덜하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공동체에서 집을 지을 때는 공동체 구성원의 노동력이 집중투하 된다. 경북 문경에 있는 작은우리 공동체의 경우 흙과 통나무를 사용하여 지은 5채의 집이 모두 구성원들의 손으로 직접 지은 것이다. 강원도 태백의 예수원 공동체는 주변에 널려있는 돌을 사용하여 돌집을 지었으며, 전북 변산의 변산공동체는 벽돌 사이에 페트병을 넣고 벽돌 안팎으로 황토를 입히는 퓨전스타일의 집을 지었다. 무주군 안성면의 무주공동체에서는 주로 한옥양식의 목조에 황토벽돌로 벽을 친 집들이 많고, 산청 안솔기 마을엔 통나무를 이용한 전원주택형 가옥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의 특성과 공동체의 취향에 따라 집의 형태와 재료가 다양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 공동체들의 집재료로는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황토와 소나무가 가장 선호되고 있다. 집의 구조는 대체로 전통 초가나 한옥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아직 태양열 주택을 본격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곳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것은 태양전지판의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다 미관상 농촌지역에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보다는 태양열 자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연형 태양열주택(passive solar house)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몇몇 역사가 오래된 공동체들의 경우 전혀 생태적이지 않은 집에서 살고 있기도 하다. 경기도 화성의 산안마을과 경북 울진의 한농복구회에는 조립식 가옥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것은 공동체 건설 당시만 해도 생태 건축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었는데도 짧은 시일 내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런 방식을 택한 측면이 있다.

최근엔 집짓기 품앗이 조직이 여기저기 생겨나 품앗이를 통해 공동체 건물을 짓는 다든지 혹은 초보자가 건축일을 배우러 참여했다가 공동체에 가담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특히 문당리의 경우처럼 공동체 자금을 모으고 마을 사람들이 흠뻑들을 한 장 한 장 찍어서 세운 공동체 건물(환경농업교육관)의 방식은 공동의 작업을 통해 마을의 공동체성을 높이고 나아가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건축이 단순히 좋은 재료와 외관의 조합이 아니듯이 친환경적 재료의 사용에 머물지 말고 지역의 재료를 고려하고 적합한 공간 배치와 공동노동 등 건축 계획에서부터 시공, 사후 관리와 철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공동체의 의미를 살리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 4) 생활오수와 폐기물

본래 자연에는 쓰레기가 없다. 한 생물종이 만들어낸 쓰레기는 다른 생물종의 먹이가 되기 때문이다. 오로지 인간만이 쓰레기를 만들어 낸다. 그것은 현재의 인간사회 구조가 쓰레기를 만들어만 낼 뿐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쓰레기는 그 자리에서 거의 영구적으로 자연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고 서 있거나, 썩어가면서 주위를 오염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예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거나 쓰레기를 만들더라도 자연 상태로 되돌아 갈 수 있는 쓰레기로 만들어야 한다. 생태공동체는 쓰레기 제로 사회를 지향한다. 공동체의 모든 자원과 요소들이 순환주기 안에 있음으로써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쓰레기는 형태상 고체와 액체, 기체로 나눌 수 있다. 고체 쓰레기는 부서진 물건이나 포장지, 인분, 음식물 찌꺼기 등으로 대부분의 공동체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외부로부터 고체 쓰레기를 가져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대표적인 도시공동체인 정토회에서는 지난 수년 동안 열성적으로 쓰레기 제로 운동을 벌인 결과 획기적으로 쓰레

기를 감량하는데 성공했다. 그들은 아예 밖으로부터 포장 비닐 따위의 재생불가능한 물품을 들여오질 않는다. 화장실 폐지를 없애기 위해 뒷물을 이용하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사찰식 공양을 한다. 조리과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는 지렁이를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부산물은 화단의 거름으로 쓴다. 이렇게 고체 쓰레기를 줄이면 소각할 일이 없게 되므로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다. 사실 도시에서는 힘겹기만한 이러한 노력들이 시골의 공동체에서는 그리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다.

액체 형태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공동체에서는 대부분 정화 연못이나 미나리밭 또는 갈대밭을 설치한다. 규모가 작은 시골 마을의 경우는 그대로 흘려보내도 자연정화되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규모가 커지면 생물학적 하수집중 처리시설을 해야 하는데(예컨대 캐나다의 John Todd박사가 개발한 Living Machine) 아직 국내에는 몇몇 공동체에 계획만 있을 뿐 그런 시설이 들어선 곳은 없다. 생태공동체에서는 하수처리 그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리된 물이 재활용되어 일체의 오수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처럼 생물대사가 정지되는 추운계절이 있는 곳에서는 좀 더 복잡한 장치가 요구되는 바 관계기관의 지원과 공동체 성원들의 창의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화장실의 경우 많은 공동체들이 '투석식' 갯간 화장실이나 '푸세식' 전통 뒷간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획기적으로 물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수세식 화장실이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드럼식 화장실의 개발이 필요하다.

## 나무지붕과 기와지붕

"멋지군." 어느 날 오후 루가리가 알론쏘에게 말했다. 그는 건축 현장 근처 잔디밭에 앉아 팽이를 짊으면서 지붕 얹는 일을 감독하고 있었다.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알론쏘가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야자 잎은 공짜인데."

"지금이야 그렇겠지요. 알고 보니 방수용 지붕을 만들려면 1평방미터당 80장의 잎이 필요하더군요. 가비오파스가 계속 성장하고, 특히 야노쏘에 사람이 살게 할 계획이라면, 그리고 나무를 모두 베어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기와지붕이나 금속 지붕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사용하는 게 좋을 텐데..."

"지역에서 나는 자연자원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아주 낭만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항상 순수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비실용적이지

요. 미래는 자연과 기술을 필요로 할 겁니다. 우리는 통밀 빵으로 태양열 패널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sup>3)</sup>

적박한 황무지에서 대안기술이 꽃피는 공동체를 이룬 가비오파스를 묘사한 글의 일부이다. 이 짧은 대화는 공동체에서 기술에 관한 한발 나아간 고민을 보여준다. 콜롬비아의 열대 숲 한 가운데에 있는 가비오파스에서 야자나무는 우리의 소나무만큼이나 흔한 나무일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야자나무 잎으로 지붕을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모든 나무가 베어지게 되고, 이것은 결국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도 경제적으로 값싸지도 않게 된다는 것을 알론소는 말하고 있다. 이는 대안기술이 생태적이든 기술적이든 종합적인 관점에서 연구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안 혹은 적정기술은 누구를 위한, 어떠한 기준에서 적정하고 어떤 목적의 대안인가가 애매하고 혼란스럽다는 비판을 받는다. 공동체로 살고자 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스스로가 추구하는 창조적인 삶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술이 분리되어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 한 우린 이러한 질문들에 지속적으로 답해야만 한다. **중략**

---

3) 『가비오파스』, 앨런 와이즈만, 월간 말, 2001

## 대안 공동체운동의 과제와 미래

황대권 (생태공동체운동센터)

한국에서 대안공동체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권이 몰락한 90년대 이후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대안으로서의 사회주의 이념이 쇠퇴하자 자본주의 내에서 시민적 권리를 확보하려는 시민운동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을 넘어 새로운 공동체 세상을 꿈꾸는 대안공동체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시민운동과 대안공동체운동은 그 지향하는 바와 인원구성에 있어서 공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 어떻게 보면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시민운동도 원자화된 개인의 시민적 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시민=개인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당수의 시민운동가나 시민운동 단체의 회원들이 언젠가는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대안공동체에서 살 수 있기를 꿈꾸고 있다는 데서 대안공동체운동은 아무래도 미래지향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대안공동체운동은 시민운동과 확실히 구별되는 영역과 인맥을 가지고 있다. 시민운동의 현장인 도시보다는 지방, 또는 시골을 선호하고 있으며 주된 인적 구성도 시민운동과의 인연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 한국의 대안공동체운동에는 80년대 민주주의운동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상당수 있으며, 그밖에 운동권 주변이나 아예 운동권과는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공동체운동에 뛰어든 사람들도 많다. 예측컨대 앞으로는 시민운동권에서 대안공동체운동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다. 대안공동체운동이 이렇게 여타의 운동 부문과 연관 속에 발전해 왔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운동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과제를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대안공동체운동은 자신의 경제와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운동이므로 기존의 사회운동과는 다른 차원의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의 대안공동체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90년대 이후라고 했지만 현재 온전히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공동체들은 대부분 그 이전에 시작된 것들이 많다. 그것은 공동체가 안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맨 땅에 삶의 터전을 일구고 거기에서 지속적인 생존기반을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주형 공동체의 경우 토지를 구입하여 회원들의 손으로 집을 짓고 농토를 만드는 기간이 최소한 3~5년이 걸리는데 그것도 회원들 간에 팀웍이 잘 맞고 자본동원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 수 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하다. 겨우 2년 만에 지리산 자락의 13만평 땅 위에 대여섯 채의 건물과 농토를 만들어 공동체 주민 21명이 입주하여 사는 두레마을은 다른 지역에서 20여 년 동안 공동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경험이 있다. 그리고 지역형 공동체의 건설은 주민들의 의식을 계발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공동체의 주체로 나서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표적인 농촌마을 공동체인 흥성 문당리의 경우 마을공동체가 공식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것은 법인이 설립된 1999년이지만 그 이전에 풀무학교를 중심으로 벌인 지역공동체 운동의 역사가 40여 년이나 된다. 이와 같이 대안공동체운동은 그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우리 운동을 두고 성패를 말한다거나 문제점을 거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대신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음을 지적할 수 있을 뿐이다. 대안공동체는 그 종류와 형태가 워낙에 다양하므로 일일이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이들이 안고 있는 공동의 과제들이 있으므로 이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해당 사례를 드는 것이 이야기의 전개상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 지역성의 강화

공동체 운동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성 때문이다. 우리는 조선 왕조 건국 이래 600년이 넘도록 철저한 중앙집권적인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지방 또는 지역의 역사가 한번도 제대로 쓰여 본 적이 없다. 지역은 중앙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 또는 중앙정부를 위한 과세지일 뿐이었다. 근세이후 태동한 사회적 저항과 운동도 거의 대부분 중앙에 대한 도전이었다. 공동체 운동에 이르러 처음으로 지역을 위한 지역의 운동이 꽃피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체 운동의 생명은 여하히 지역성을 담보하느냐에 있다. 설령 중앙이 몰락하더라도 자기완결 구조를 가진 지역의 공동체는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중앙이 강하면 지방이 약해지고, 중앙이 약하면 지방이 강해지는 경향을 보여 왔

지만, 우리의 경우 중앙이 약해지더라도 지방의 강화를 용납하지 않는 뿌리 깊은 중앙집권 의식으로 인해 지역에서의 민관과 반역이 끊이지 않았다. 공동체 운동은 민관의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서 또 그렇기 때문에 중앙의 견제를 받지 않는 지역강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공동체 운동은 기존 사회운동의 관성 때문인지 아니면 중앙을 통한 영향력 확대 욕심에서 인지 지역에서 성공을 거둬 중앙으로 진출하려는 경향이 눈에 띈다. 유통을 중시하는 생협운동과 농촌의 생산자 협동조합이 그런 경우이다. 대부분의 경제적 부가 서울과 그 언저리에 몰려있다는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가져간 부가 지방을 강화하는 측면보다 서울에 대한 종속이 더욱 심해지는 것이 문제이다. 힘들더라도 애초부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 순환체계를 모색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중심의 네트워크 체계가 중요하다.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는 대안교육 운동도 마찬가지이다. 학교는 땅값이 싼 지방에 있되 학생들은 거의 모두가 전국의 도시에서 온 중산층 자녀들이다. 지역출신 학생이 자기 지역에 있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학생들은 지역과의 구체적인 연관성이 없이 학업을 마치면 다시 도시로 돌아가 중앙이 지배하는 기존 질서에 편입된다. 교과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다른 패러다임의 사회를 원한다면 운동의 전개과정과 실천에 있어서도 다른 패러다임이 적용되어야 한다. 현실을 이유로 자꾸 중앙의 논리와 타협하다 보면 대안 운동은 결국 주류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보조적 운동에 머물고 만다.

### 지역 연대와 네트워크의 강화

지역에서 출발한 대안공동체 운동이 현실을 이유로 자꾸 중앙을 기웃거리는 것은 황폐한 지역 인프라 때문이다. 지역에서 인력을 수급하고 지역에서 순환하는 유통구조를 만들려면 연대와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거들떠보지 않아서 그렇지 잘 들여다보면 쓸만한 자원과 사람들이 꽤 남아있다. 이를 추슬러서 네트워크화 하고 다양한 연대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만약 그러한 것조차 남아있지 않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심정으로 다른 지역이나 중앙의 원조를 얻어서라도 지역 인프라를 강화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계획공동체의 경우 지역에 틀어박혀서는 일체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경향이 눈에 띄기도 한다. 공동체의 발전 단계상 어느 정도 그런 고립적 발전의 기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하나의 경향으로 굳어져서는 곤란하다. 공동체가 대안으로서 기능하려면 전체 사회와의 부단한 교류 속에서 정체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혼자서 극복해 기보다 다른 공동체나 지역NGO들과의 연대와 교류 속에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훨

신 효과가 있고 바람직하다.

## 제도와 법률의 개선

대안공동체운동은 말 그대로 바람직한 미래를 현실로 살자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의 법과 제도에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다. 가령 농촌마을의 한 공동체가 소득증대를 위해 자체 가공시설을 갖고 싶어도 까다로운 법규와 절차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지역에서 나는 자원과 기술을 이용하여 생태건축을 하고 싶어도 도시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건축법규에 어긋나기 때문에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토지에 대한 법률과 조례가 귀농자나 도시농업자들에게 유리하게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밖에도 미처 법률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많은 영역들이 대안운동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를 시정하고 개선해나가는 운동이 시급하다. 법과 제도의 개선은 한 개인이나 단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므로 이 역시 기존 NGO 및 사회단체들과의 연대와 네트워크 운동을 통해 사회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

## 회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공동체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지도자나 간사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회원들의 역량강화이다. 영어로 이것을 empowerment라고 하는데 글자 그대로 회원들의 지식과 능력을 강화하여 자기 삶의 주체로 나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과 이것을 잘 소화해 낼 수 있는 프로그램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자 훈련 역시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뜻있는 개인과 단체들이 중지를 모아 공동체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널리 보급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현 단계 공동체 운동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프로그램은 갈등해결과 영성개발에 관한 것이다. 물론 프로그램만으로 이 중대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갈피를 잡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절대로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공동체가 깨지는 가장 큰 원인은 회원들 간의 갈등을 적절히 해소하지 못했거나 영성 개발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다. 국내의 몇몇 종교단체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구조가 폐쇄적이고 종파적이라서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공동체 지원 시스템의 강화

여느 운동도 그러하지만 공동체 운동은 특히 다양한 관계망의 형성이 중요하다.



공동체적 세계관 자체가 이 세상을 관계의 무한중층 구조로 보기 때문이다. 하나의 공동체는 다양한 관계망 가운데 하나의 결절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주위에 끊임없이 관심과 지원을 보내줄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각종 공동체 관련 컨설팅 기관, 기금후원 기관, 자원봉사 인력을 알선하는 조직,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조정하는 기관, 공동체 관련 인력양성 기관, 프로그램 개발 연구소 등이 있다.

### 대안기술의 개발과 보급


대안공동체에서 대안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테크놀로지와 생활양식은 함께 가는 것이지 기술은 주류 사회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생활양식만 대안적으로 하는 것은 진정한 대안공동체라고 할 수 없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공동체에서는 현실적인 여건을 이유로 대안기술과 대안에너지의 사용을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미래에 맡겨두고 있는 실정이다. 기껏해야 흙집 몇 채 지어놓고 시범용으로 풍력발전기 한 두 대 세워놓는 것이 고작이다. 현재 수준으로 보아 이런 정도도 아주 '대안적'이랄 수 있을 만큼 국내의 상황은 열악하다. 무엇보다도 대안기술과 관련된 연구소와 사업체, 정부의 지원정책이 너무도 빈약하다. 거의 모두를 개인의 능력과 자본으로 해결하자니 생존에 급급한 공동체들이 번 훗날로 미루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와 기업체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대안기술과 대안에너지 분야에 투자할 때도 되었다. 그리고 각 공동체들은 사회여건의 변화와는 별도로 열악한 상황에서나마 자기 나름대로의 대안기술 개발과 보급에 힘써야 한다. 그러한 기술들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 자체가 대안적 삶이요 운동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의 공동체들이 해당 지역의 토착(전통)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계승하는 것도 중요한 일거리 가운데 하나임을 명심해야 한다. 토착기술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지역고유의 기술이면서 대안기술이 추구하는 인간적 척도(human scale)의 기술이기 때문이다.

### 국제 연대의 강화

연대와 네트워크의 강화는 지역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도 강화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의 무시무시한 파괴력은 세계적 네트워크에서 온다. 흔히들 세계화에 대항하기 위해 지역화를 강조하지만 그런 일면적인 대응으로는 국제자본의 다면적인 압력에 견딜 수가 없다. 지역화는 세계화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전일론적 시각에서 볼 때 지역공동체의 일원은 곧 세계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평

소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가 무슨 국제행사가 열리면 우르르 몰려나가 구경이나 하고 오는 국제활동은 대안공동체운동의 확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국제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국제연대를 통한 빈번한 교류와 협력은 국내 공동체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공동체운동의 세계적 확산을 촉진한다. 개별 공동체로서는 언어문제 등 여러 가지 장애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전국 차원의 공동체 연대가 결성되어야 할 것이다.

### 대안 공동체운동의 미래

아직 우리 사회는 근대화 과정의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안공동체운동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급속한 세계화는 우리에게 단계론적 발전을 고집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미처 과거를 정리할 틈도 없이 모든 것이 혼재된 채 오로지 자본과 시장이 이끄는 대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대안운동은 이 현실에 휩쓸려서도 또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다행히 우리의 대안공동체운동은 비록 그 걸음이 느리기는 하지만 열악한 조건 속에서 조금씩이나마 진전을 이루고 있다. 주요 도시마다 귀농학교가 있고, 생협이 조직되어 있으며, 대안학교도 어느덧 그 숫자가 150여를 헤아리고 있다. 그리고 민관 합작의 생태마을이 전국에서 시도되고 있다. 토지문제와 생존의 어려움 때문에 생태공동체의 숫자는 크게 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종교 단체와 개인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다만 도시에서의 생태공동체운동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의 대안공동체운동은 대단히 희망적이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우리 국민들은 애항의식과 귀향본능이 유별나다는 것이다. 이 특이한 정서가 공동체운동과 잘 결합이 된다면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회운동은 적대적 대항관계를 통하여 발전하여 왔지만 대안공동체운동은 상생관계를 통해 사회의 어떠한 부분도 소외되는 일이 없이 사회 전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십여 년간 이루어진 성과를 보면 실로 다양한 분야와 지역에서 대안공동체운동이 벌어졌는데 이는 운동의 시너지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2 부

### 〈 공동체를 찾아서 〉

- ◆ 산안마을 (야마기시즘 생활 경향 실현지)
- ◆ 지리산 두레마을 (두레공동체운동)
- ◆ 민들레 공동체
- ◆ 돌나라 한농복구회 (한농마을)
- ◆ 흥성환경농업마을 (문당리)
- ◆ 실상사 사부대중 공동체
- ◆ 안솔기 마을
- ◆ 예수원
- ◆ 정토회
- ◆ 예수살이 공동체
- ◆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 ◆ 자유학교 물꼬
- ◆ 간디 청소년 학교
- ◆ 작은누리
- ◆ 한살림 서울생활협동조합
- ◆ 원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풀무생활협동조합
- ◆ 안성의료생활협동조합
- ◆ 광명YMCA 생협
- ◆ 팔당생명살림

나, 모두와 함께 번영한다

## 산안마을 (야마기시즘 생활 경향 실천지)

산안마을은 야마기시 미요조가 제안한 무소유 일체의 정신으로 화, 다툼, 물건 쟁탈과 전쟁이 없는, 마음과 물질 모두 풍성한 이상적인 인간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뜻에 따라, 그 단초로서 사회의 일부에 미리 실현하여 나타내 보이고자 계획적으로 구상하여 출발한 마을이다. 무소유 일체라는 사상을 현실에 적용하여 무소유, 공용(共用)의 경제방식으로 운영하며, 생활에서도 한 몸과 같이 아픔과 기쁨에 함께 반응하고, 서로 자기자리를 고집하지 않고 순환해 가면서 인류사회 전체로 이 삶을 알리고 넓혀 가는 것을 목표로 생산 활동 및 여러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 계획공동체 (영농조합법인)



● 산안마을 가족들이 한자리에... ●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구문천3리 산 141-1 (445-922)
- 연락처 ; 031-353-3920      • 연락 담당자 ; 김상보
- www.yamagishism.co.kr      • email ; webmaster@yamagishism.co.kr

## 역사와 현재

산안마을은 전후에 일본인 야마기시 미요조(山岸巳代藏 1901~1961)가 제시한 상생과 무소유로 '더불어 행복한 일체사회'를 이루는 전 세계 50여 곳의 무소유 실현지 가운데 하나로 1984년 화성에 자리를 잡은 곳이다.

야마기시회(山岸會, 1995년부터 행복회야마기시회로 부르고 있다)는 1953년 야마기시 미요조가 하고 있던 독창적인 양계법(일명 '야마기시식 양계법')과 "사회생활의 인식과 개혁의 방법"인 야마기시즘에 공명한 10여명의 사람들에 의해 일본 교토부(京都府)에서 만들어진 모임이다. 이어 1958년 2월 야마기시즘을 실천하는 일체생활(一體生活)이 미에켄 가스가야마(三重縣 春日山)에서 시작되고, 1961년 이후 일본 여러 지역 농촌에서 야마기시즘 생활 실현지가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 야마기시즘이 소개된 것은 1966년으로, 당시 농민운동을 고민하던 이들이 일본 실현지에 9개월 동안 연수를 다녀와 1966년 1월 수원 농민교육원에서 첫 '특별강습연찬회'를 가진 것이 모태라고 할 수 있다. 이 무렵 농민운동을 하던 선각자들이 농사기술을 중심으로 협업농장을 실험하면서 모임이 이루어지다가 1984년 1월 26일, 6가족이 중심이 되어 이곳 화성군 향남면에서 야마기시즘생활 경향실현지가 탄생하였다. 일본 바깥에서는 처음 만들어진 실현지였다. 경향(京郷)은 경기도 향남면의 약자로 경향지방이라는 의미이며,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며 찾아가고자 하는 모두의 고향이라는 뜻도 담겨 있다.

초기의 가족들은 야마기시즘 특별강습 연찬회를 계속 해 오던 중 고도연찬회 및 연찬학교를 통해 '나, 모두와 함께 번영한다'는 모임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는 결의를 나눈 교사, 상업, 농업인 등이 각자의 모든 재산을 풀어놓고 돈지갑 하나로 연찬생활을 시작하였다. 당시 생활은 허허벌판에 맨손으로 비닐움막을 짓고 땅을 개간하는 힘든 일이었으나, 지혜와 힘과 마음을 하나로 하여 그 과정을 들여다보고 즐기며 극복하는 기쁨, 그리고 자신의 울타리를 스스로 허물어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었다. 개별 구성원과 전체를 창조의 과정으로 묶어낸 것은 바로 일상의 연찬으로부터 얻은 힘이였다.

이들은 우선 땅을 구하여 계사를 짓고 11월에 처음 병아리를 들었다. 생활 공간을 지으며, 이듬해에는 유정란이 생산되고 직거래 소비자들이 이어지면서 경제활동이 유지되기 시작하였다. 1987년부터는 축제행사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거저의 축제'를 열어, 풀어놓고 나누는 실천의 장을 마련하였고, 지금은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여는 '초록축제'로 확대되어 이어지고 있다. 생활이 안정화되면서 얻은 수익은 재투자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연찬생활과 환경친화적인 생산으로 발전해 왔다.

현재 실현지에는 8가족 33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10대 이하 아이들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30~40대가 12명, 50대 이상과 20대가 3명씩 있다. 3대가 공동체를 이루며 2세대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실현지는 임대한 토지를 포함하여 5만 5천여 평을 활용하고 있으며, 시설로는 계사 18동, 계사 부속건물 5동, 주거생활 및 사무실 8동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 목적과 가치

산안마을은 행복회야마기시회의 한 실현지이며, 추구하는 바는 회의 근본 목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행복회야마기시회는 “자연과 인위, 즉 천(天)·지(地)·인(人)의 조화를 도모하여, 풍부한 물자와 건강과, 친애의 정으로 가득 찬, 안정되고 쾌적한 사회를, 인류에 가져오는 것”을 취지로 삼고 있다. 즉, 인간을 자연과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은 일체(一體)로서,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로 혼자 존재할 수 없는 일체 속의 일원으로서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모임은 “나, 모두와 함께 번영한다”는 지표를 내걸고,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인간과 인간사회의 본연의 모습을 탐구하고 실천하며, 인간 사회 본래의 모습 즉,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런 사회를 실현하는 일에 종교나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모두의 뜻을 모아 검토하고, 언제나 최고 최선 최중적인 것을 찾아내어(이 과정이 연찬이다) 그것을 실천하고자 한다. 또한 이 같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원리가 무소유(無所有), 공용(共用), 공활(共活), 일체(一體)이다. 마치 태양과 공기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이 함께 혜택을 누리며 활용하고 있는 자연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전인(나를 포함하는 현재와 미래의 전인류)이 행복한 ‘진실사회’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야마기시즘’의 핵심이다.

행복회야마기시회는 종교가 아니며, 철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진리와 방법을 함께 탐구하고 행동하는 진리실천의 사회활동체이다. 그리고 이 활동체를 살아움직이게 하는 것은 고정관념 없이 열린 자세로 진정을 추구하는 연찬활동이다.

산안마을의 ‘연찬(研鑽)’은 개인이나 공동체, 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궁구하여 꿰뚫는’ 일상의 활동이다. 한 사안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조정하고 대립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함께 풀어 가는 열린 소통의 과정이다. 연찬

방식은 모두를 인정하는 속에서 자기 생각을 규명해 들어가기에, 여러 사람과 함께 할수록 상승효과가 있다. 대중 속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깨닫게 되면 뭘 하더라도 조화하려는 의욕이 일어난다. '나, 모두 번영한다'는 것은 그런 깨달음의 세계를 집약한 말이다.

연찬회는 1956년 1월 교토 근교 광명원(光明院)이라는 절에서 제1회 야마기시즘 특별강습연찬회(특강)가 1주일에 걸쳐 개최된 이래 일본에서는 2천 회 가량 열렸다. 우리나라에서는 1966년부터 2004년 8월까지 7박8일 일정의 특별강습연찬회가 207회 열렸다. 그동안 2,000여명이 참여한 특별강습연찬회에는 많은 사회활동가들이 거쳐갔으며,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운동의 산실 역할을 해온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연찬은 일상의 소통이자 재교육이기도 하며, 새로운 구성원들이 거치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선 산안마을과의 만남은 야마기시즘 특별강습 연찬회로부터 시작된다. 자기 자신과 인간 사회의 본연의 모습에 대해 들여다보고, 그 모습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지혜를 모아 찾아가는 기회이다. 7박 8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특강에서는 야마기시즘에서 생각하는 이상사회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한다. 이 특강을 마친 사람들은 행복회야마기시회의 회원 자격을 얻고, 회의 여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실현지의 구성원이 되고자하는 사람은 연찬학교(14박 15일 과정)와 예비 참획기간의 회 활동 등을 통해 서로 맞춰보고 검토한 뒤 현 구성원 전원의 합의로 새로운 구성원이 된다.

## 조직과 운영

마을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전원일치체에 의하며,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공동의 뜻을 실천해 나간다(私意尊重公意行)'는 운영원칙을 가지고 있다. 인원이 많을 경우, 3인 이상의 대표를 전원이 모인 연찬회에서 투표가 아닌 '전형'이란 방식으로 가장 어울리는 사람을 전원 일치로 선출하여 대표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또한 6개월마다 새로 전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모든 구성원들은 자신의 역할을 내려놓고 전형을 통해 새롭게 역할을 구성한다. 물론 중요한 사안은 언제든지 전원이 모여서 연찬하여 결정한다.

연찬은 의사결정뿐 아니라 갈등의 극복에도 의미있는 관점과 접근을 제공한다. 모든 갈등의 바탕에는 자기의 견해나 주장을 옳다고 하여 밀어붙이려는 경향이 있고, 그 과정에서 화를 내거나 상대의 의견을 들으려하지 않고 자기 본위로 성급하게 결론 내리고 실행하다가 다툼이 발생하는 것이다. 갈등이 생기면 그 원인을 상대로 돌리지 않고 우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제도 이전에 사회 기풍이고 개인의 자각과 성숙인 것이다. 당사자는 일단 그 문제를 풀어놓고 선반 위에 올려놓듯이 분리하여 검토하고, 상대가 있다면 당사자와 대화 연찬을 하며, 여러 사람이 참가하는 연찬회에 내어놓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각도의 견해를 잘 들어보면서 자기만의 결론에 빠지지 않도록 연찬해간다.

한 예로 산안마을에서는 이삼년전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한 여러 의견들이 있었다. 외부의 학습지를 활용하거나 학원교습을 보내고 싶다는 의견과 그런 교육은 실현지의 학육 취지를 저해한다는 의견의 차이가 드러났다. 마을에서는 연찬을 통해 일부 학습지는 시도해보기로 하고, 내부에서 채워지지 않는 예능 교육은 강사를 실현지로 모셔서 우리의 방향성을 서로 상의해가며 해보자, 그리고 그 상황을 보아가면서 부모들과 학육 담당자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선에서 진행시켜가자는 결론을 내렸다. 어느 쪽이라도 아이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어른들의 일치를 만들어 내고 그 바탕 위에서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깨닫는 과정이었다.

마을의 운영조직으로는 우선, 세 사람이 역할을 맡고 있는 '조정소'가 있다. 이 단위는 전체를 위한 마을 사무나 연찬회의 진척을 돕고, 전체적인 조정의 역할을 한다. 두 사람이 역할을 맡는 '사이좋음반'은 전체 대가족의 생활이 즐겁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 외에 생산과 생활에 관한 부서로 법인사무, 양계, 채소, 공급, 의·식생활, 학육부문 등을 담당하는 단위들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이 모든 역할들도 1년에 한두 차례 자동 해임하고, 전형을 통해 다시금 역할을 구성한다.

## 경제와 생산

산안마을은 '무소유(無所有) 공용(共用) 일체(一體)'의 정신에 따라 구성원 누구도 개별 소유 없이 유형, 무형의 자산 모두를 나눈다. 다른 체형과 위생을 위한 개인적인 생활재 외에는 외출복 등의 옷가지까지도 필요한 사람에게 쓰이도록 하고 있다. 공동소유를 넘어선 무소유는 모든 물자를 잠시 사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삶이다. 참획(정식 구성원으로 참여함)할 때에는 이전 재산 전부를 처분하여 '한 지갑'에 넣어 관리 운영하고 있다. 재산과 '한 지갑'은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모두의 것이기도 하다. 법률적으로는 영농조합법인과 출자자의 관계로 되어있으나 내용적으로는 무소유 공용 일체의 생각으로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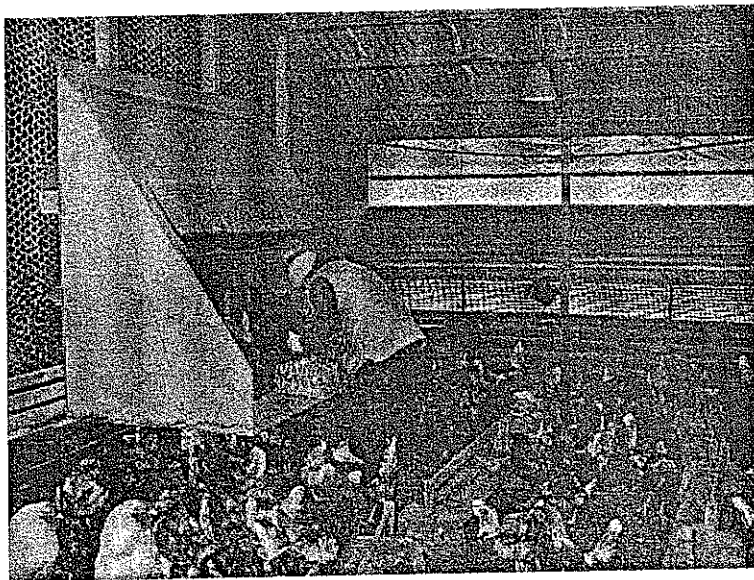
마을은 1만 5천평의 양계장과 사료용 풀밭 2만평, 주택지, 자급하는 채소밭, 야산 등이 있는 땅에 들어서 있다. 18동의 계사에서 2만 5천~3만수의 닭들이 날아주는



유정란은 마을의 주된 사업이다. 산안마을 유정란은 오랜 검증을 거친 계사관리와 순환, 닭을 한 식구로 생각하는 마을 사람들의 정성으로 품질과 인기가 높다. 서울, 경인지역을 비롯해 광주, 전주, 대구, 대전의 회원들에게 직거래로 공급된다. 산안마을에서 유정란 공급은 달걀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 공동체의 행복운동이 사회로 확산되는 매개이자 행복의 순환으로 여겨진다. 유정란과 야채의 생산·가공·유통 일체를 10여명의 실현지 식구들과 약간 명의 고용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정란은 친환경 직물재 시범농장으로서 인가를 받았으며, 야채는 유기재배를 하고 있지만 인종은 받지 않고 회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노동시간은 특정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며, 가사와 공급 등 다양한 역할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하루에 7~8시간 정도 일을 한다.

생산·공급 활동 외에 외부 사람들을 위한 성인 대상의 '특별강습연찬회'와 청년을 위한 '일체캠프',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낙원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생산활동 등으로 마을은 자립적인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

사업에서의 수익은 전부를 한 가족의 수익으로 관리하여 재투자나 저축한다. 어른들이 5만원 정도의 용돈을 받는 것 외에 개별 분배는 없고, 대가족이 한 지갑을 쓰는 것이기에 구성원들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은 공동체의 동의를 얻어 가져다 쓸 수 있다.



● 양계는 산안마을의 경제 기반이자 생활의 원리이다 ●

## 생활과 교육·문화

산안마을의 농사는 유정란과 야채 중심으로 벼농사는 짓지 못하고 있다. 마을의 먹거리는 전체적으로 60% 정도를 자급하고 있다. 마을 구성원 모두가 사용하는 '애화관'이라는 식당에서 한 가족으로 밥을 먹고, 건강을 고려하여 2끼 식을 권장하고 있으나 아이들이나 산모 등 상황에 따라서 3식을 하고 있다. 보통 낮에는 11시~12시 사이에, 저녁은 6시~8시경에 식사를 한다. 매일 한 차례 마을회식이나, 명절 등에는 모두가 한데 모여 식사를 한다.

마을 세탁실에는 대형 세탁기 두 대가 있고, 생활부 담당자들이 세탁물들을 속옷, 양말, 겹옷 등으로 분리하여 건너편 옷장에 정리하여 놓는다. 옷장 옆에는 미용실과 신발장이 있으며, 7평 남짓한 컴퓨터실에는 컴퓨터 3대와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다. 컴퓨터실 옆에는 마을사람들이 연찬도 하고 함께 비디오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거실이 있다. 컴퓨터실 맞은편의 식료품 창고는 늘 열려있어 필요한 사람이 누구든지 꺼내 쓸 수 있다. 양계장으로 가는 길목에는 순환코너라는 재활용 공간도 마련하여 놓았다. 아직 마을에는 재생가능 에너지나 자연정화설비를 갖추지는 못하고 있다.

산안마을에서는 교육이라 하지 않고 '학육'이라고 말한다. 아이들은 스스로 배우면서 자유스럽게 커나가는 것이지 누가 가르치고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학육은 아이들 자신의 배우려고 하는 힘을 최대한 신장하게 한다는 의미로서 사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주위 아이들 의견도 조화롭게 들을 수 있는 삶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며 연찬회를 통해 함께 자라난다.

취학 전 아이들은 '태양의 집'에서 함께 돌보고 큰 아이들은 인근의 일반학교에 다닌다. 방과후에는 학육부에서 함께 밭에서 작물을 가꾸고 동물을 돌보는 생활 작업을 하거나, 시사토론, 예능 교육, 영어회화, 연찬회 등을 하고 있다.

산안마을에서는 이곳의 삶을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풀어놓고 함께 나누는 실천의 장으로 1987년부터 해마다 5월 초에 '거저의 축제'를 열어왔다. '돈이 필요 없는 행복한 사회'의 삶을 이 날 하루 함께 나누자는 의미였다. 회원과 주민 등 수백 명이 찾아오더니 어느 해부터 1천명을 넘고, 1998년에는 3,500명으로 늘어났다. 규모가 커지며 거저의 풍성함을 즐기자는 애초 뜻과는 달리 풀어놓지는 않고 챙기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마을 주민들은 고심 끝에 1999년부터는 축제를 마을 안에서 특강을 거쳐 간 회원가족들의 행사로만 열기로 했다. 한해 두해 지나고 2000년에는 이 지역의 제약단지애 방사선 업체가 입주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운동이 일어나고 지역 환경단체가 꾸려졌다. 이 과정에 산안마을 주민들도 적극 참여했다. 이 과정에 지역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거저의 축제'를 부활시키자는 얘기가 오가며 오산·화성 환경운동

연합이 적극 나섰다. 이에 산안마을은 자신들이 열어온 거저 축제를 선뜻 내놓고 준비하는 한 주체로 참여하였다. 이렇게 거저의 축제는 지역의 축제로 거듭났다. 2004년에도 화성의 초록산에서 열린 4번째 '초록축제'는 산안마을은 물론,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과 20여개의 지역 시민, 종교, 사회단체들이 함께 준비하여, 3천여 명에 달하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풀어놓고 만들어가는 '무소유의 해방감'을 맛보았다. 초록축제는 참가자들이 각자 가져온 소중한 물건으로 가게를 채우고 누구나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풀어놓는 가게'와 산안마을의 유정란이나 붕어빵, 두부, 인절미, 한과 등 먹을 거리를 준비하고 가져와 나누는 '먹거리 마당', 그리고 화분만들기, 숲 체험교실, 운동회 등 어울려 노는 '함께 나누는 마당' 등으로 꾸며진다. 사람들이 모인다는 소문에 행사장 주변에 자리잡은 노점상인들이 머쓱해지고, 처음엔 어색해하는 참가자들도 이내 '풀어 내놓는 즐거움'에 잔잔한 마음의 감동을 안고 간다.

### 외부와의 관계

인접 부락 구문천 1~5리와 마을 도로를 함께 쓰며 연결되어 있는 데 실현지는 3리에 속해있다. 실현지에서는 양계와 채소재배에 일손이 부족할 때 인근의 젊은 아주머니들과 할머니들의 품을 사기도 한다. 그 자체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한 통로로 되기도 하고 할머니들의 생계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마을의 여러 사업에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지역의 초등학교에서도 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거나 도농교류, 현장학습의 장으로도 실현지가 쓰이고 있다. 초록축제는 한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던 축제를 지역사회로 가지고 나와 함께 즐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 과정에서 공동체와 지역시민단체가 만나고, 신선한 실험과 시도가 지역사회와 만나는 기회를 가진다.

사회 활동에 있어서는 공동의 입장을 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의견을 나눌 기회가 많으므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방향이 잡혀가는 편이며 최종적인 의사는 개인의 자유에 맡기고 있다. 근래 인근 지역이 택지, 공단 등으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방사선 조사시설의 유입 설치 문제나 소각장 설치 문제 등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과 적극 협력하여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 정당의 가입 등은 실현지 차원에서는 권하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 등의 시민운동에는 개인 및 단체로서도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생산물의 직거래를 통하여 도시의 활용자(실현지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다)들과 만나며, 활용자들은 실현지 방문 행사(감자·고구마 캐기 잔치 등), 어린이 낙원촌에 아이보내기, 특강 수강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기적으로 발간하던 '행복회

야마기시회 소식지'는 최근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특강을 수강한 회원들은 회원 행복연찬회 등을 통해 활동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실현지는 일본 각지를 비롯하여 한국, 스위스, 브라질, 타이, 호주, 미국 등 7개 나라에 40여 개가 있다. 이들 해외 실현지에서는 일본을 경유하여 한국 실현지에 교류를 위해 오는 경우가 많고, 한국 실현지의 청년이 연찬회나 관광을 위해 해외 실현지에 가기도 한다. 일본 실현지와는 교류가 빈번하여 서로 몇 개월에서 몇 년간 머물기도 한다. 최근에는 일본 실현지에서 개최하는 내부 연찬학교에 늘 참여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이나 청년 프로그램은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함께 참여토록 하고 있다.

### 과제와 전망

언제나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연찬'으로 자기만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모두의 서로 다른 생각을 지혜롭게 모아서 일치점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다.

산안마을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꽤 많지만 막상 자기 것을 포기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근래 줄어들고 있다. 일체에서 벗어나면 쉽게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실현지의 원칙을 존중해갈 생각이다. 한편, 유기농업이나 대안공동체운동에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이 특강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를 통해 간접적이지만 실현지의 이상은 꾸준히 실천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 방문이나 참여는?

방문·체험을 원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홈페이지나 전화 등으로 문의한 후 일정을 잡아 마을을 방문하여 안내를 받으며 돌아볼 수 있으나, 양계장 지역은 질병관계로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식사는 제공되지 않으나 제공하는 경우 소정의 식비를 받는다. 희망할 경우 농사체험을 할 수 있다.


봄, 가을의 감자캐기, 고구마캐기 잔치는 활용자들이 참여하는 실현지 방문체험으로 약 100명 규모의 가족단위로 작은 잔치를 벌인다. 도시락을 싸오고 실현지에서는 쥘 감자, 고구마, 계란, 야채, 밀반찬 등을 제공하며 참가비는 없다.

청년들이 참가하는 '일체캠프'도 있다. 청년들이 실현지 생활의 일부나마 체험하고 자신의 삶에서 조화로운 삶을 몸에 익히는 기회로서 삼을 수 있다. 6박 7일의 생활과 노동, 7가지 주제의 연찬 등으로 진행되는 캠프 참가비는 15만원이다. 대상은 실

현지의 여러 행사, 특강 수강자, 방문했던 청년들이고 실현지에 관심이 있는 초심자도 참가 가능하며, 일본 실현지의 청년들도 함께 한다.

어린이 낙원촌은 초·중·고등 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 겨울 방학시기에 열린다. 7박 8일간의 합숙 생활 체험, 농사와 마을 생활 체험을 하며 누구하고도 사이 좋게 살 수 있는 마음과 생활력을 기른다. 참가비 25만원이다.

특별강습연찬회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7박 8일간의 합숙 연찬회이다. 실현지와 접하기는 하지만 생활체험이 아닌 연찬 중심 프로그램이다. 근래에는 일년에 네 차례 정도 진행하며 참가비는 30만원이다.

산안마을의 삶에 참여하고자 하면, 야마기시즘 특별강습 연찬회를 통해 실현지와 행복회야마기시회를 깊이 접하여 본인의 뜻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회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14박 15일 과정의 연찬학교에 입학한다. 몇 해 간 서로 알아가면서 철저히 하게 이 삶을 실천하고 전면적으로 참가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해지는 시점에서 '참획 신청'을 하게 된다. 신청자는 조정기관 및 마을 구성원 전원의 찬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유형, 무형의 소유를 풀어놓고 참획자로서 생활을 시작한다. 현재는 3년 간의 예비자 기간을 두고 있어 본인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마을에서는 가치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 『산안마을』을 소개한 자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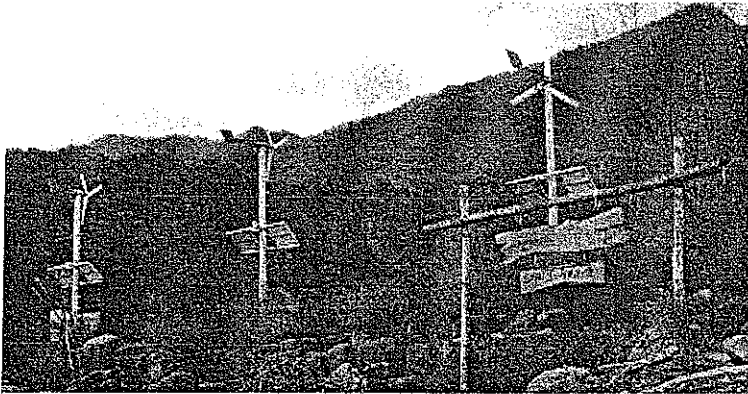
- 『자연과 인간과 하나된 삶을 추구하는 야마기시 가이』, 유정길, 《녹색평론》 제12호, 1993년 9-10월호
- 『야마기시즘 농법』, 야마기시즘 실현지 출판부, 1999
- 『야마기시 마을』, 조연현, 『나를 찾아 떠나는 17일간의 여행』, 한겨레신문사, 2001
- 『우리는 공동체가 아니다』, 황대권, 《월간 말》, 제200호 2003년 2월호
- 『야마기시즘 생활실현지 이야기』, 김현주, 《녹색평론》 제79호, 2004년 11-12월호

사잖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를 생각하라

## 지리산 두레마을 (두레공동체운동)

지리산 두레마을은 전세계 2만 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두레공동체운동의 산하기구이자 지리산 생태계와 연결된 생태마을이며, 친환경농장이다. 두레마을은 기독교 영성 훈련과 생태교육의 장이다. 신체적·사회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공동의 피난처이기도 하고, 농촌에서의 자립을 위한 경제활동의 터전이기도 하다.

☞ 생태마을 · 영성 · 수련공동체 · 교육공동체



● 지리산 두레마을 들머리 ●

- 주 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817-1 (676-802)
- 연락처 ; 055-964-2317      • email ; doorae@doorae.or.kr
- www.doorae.or.kr (두레공동체운동)
- cafe.daum.net/JIRISANDOORAE (지리산 두레마을)
- 공동체 대표 ; 김진홍 목사      • 연락 담당자 ; 김호열 목사

## 역사와 현재

두레마을은 1971년 당시 신학생이었던 김진홍 전도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당시 송정동에서 활빈교회의 간판을 내걸고 본격적인 민민선교활동을 시도하였다. 그 후 판자촌이 헐리면서 갈 곳을 잃은 50여 세대와 함께 “활빈귀농개척단”을 조직하여 남양만 지역 간척지로 집단 이주하여 물질만능주의의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두레마을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1979년 1월에 8세대가 입주한 1차 두레마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차 두레 공동체는 준비 소홀과 축산물 가격의 폭락, 성원들 사이의 인화 문제 등으로 실패하였고, 그 후 활빈교회는 86년 10월에 2차 두레마을을 만들었다.

현재 두레마을에는 140여 명 정도가 살고 있고, 이 마을의 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3개월의 공동체 생활 훈련과정을 거쳐, 남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공동체 성원의 동의를 얻어 준회원으로 영입하고, 그후 9개월의 적응과정을 거쳐 정회원이 될 수 있다.

두레마을의 재산은 모두 공유한다. 공동체에 가입한 회원들은 재산과 부채를 모두 가지고 들어오며, 다시 나갈 때에는 가지고 들어 온 것을 모두 반환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부분적인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고, 용돈 제도를 두어 필요에 따라 용돈이 지급된다. 또한 공동체는 개인의 생활비와 의료비, 자녀들의 교육비 등 모든 것을 책임진다.

매우 강한 종교공동체인 두레마을에서는 하루 7시간 정도의 노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오전 8시30분부터 12시까지, 그리고 2시부터 5시30분까지가 노동시간이다. 일요일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자유시간이 주어지고, 토요일에는 대개의 경우 오후 작업은 하지 않는다. 각 부서별 독립채산제를 고수하며, 각 부서는 사무부, 생산부, 생활부, 재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두레마을에는 두레마을 영농조합법인, 사회복지법인 새생활 치유원, 두레선교회, 두레유통, 두레시대, 두레연구원, 두레 모임 등이 있고 앞으로 연변에 150만평 규모의 두레마을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2002년도 10월 3일에 창립된 경상남도 함양군 내 지리산 두레마을은 생태마을과 영선수련 공동체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 목적과 가치

기독교적 영성추구를 근본목적으로 하고 있는 두레마을은 평화·생명·공동체 가치 실현과 교육 및 훈련을 통한 공동체 성과물의 확대 재생산을 공동체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정하고 있는 지리산 두레마을의 7대 정신은 ① 예수와 삶과 함께하는 복음정신, ② 이땅에서 가난을 극복하는 활빈정신, ③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바닷정신, ④ 낮은 자로서 이웃을 섬기는 목민정신, ⑤ 미지의 세계를 일구는 개척정신, ⑥ 대안을 마련하는 창조정신, ⑦ 섬김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정신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산 두레마을의 정신은 위해 3가지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한반도를 덮는 시대를 맞이하는 꿈이요, 한라산에서 백두산 사이에 골짜기마다 성서의 진리로 다스려지는 시대를 바라는 비전이다.”를 추구하는 성서한국(한국경영)과 “세계의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의 한을 씻고 칠천만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이 통일을 이루어내는데 두레가족들이 쓰임 받기를 바라는 비전이다.”를 추구하는 통일한국(민족경영)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세계 곳곳에, 사람이 사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라이 전파되어지고 성서의 진리가 심어지기를 바라는 비전이다.”를 추구하고 있는 선교한국(세계경영)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있다.

두레마을의 목적과 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두레마을의 중심적인 가치는 복음운동, 공동체운동, 교회갱신운동, 사회개혁운동에 중심을 두고 두레공동체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리산 두레마을의 구호처럼 사용하고 있는 “사람아 너는 흙이나 흙으로 돌아갈 때를 생각하라”는 성경구절은 두레마을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과 가치를 표현하고 있는 글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지리산 두레마을에는 21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10대 이하는 5명, 10대는 2명, 20대 2명, 30대 5명, 40대 5명, 50대와 60대가 각각 1명씩 구성되어 있으며 4가족 4가구를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지리산 두레마을은 토지 13만평, 숙소 2동, 강당 1동, 방갈로 5채, 창고 1동을 비롯한 현재 건축 중인 숙소가 3동이 있다.

## 조직과 운영

지리산 두레마을의 운영은 두레공동체운동을 총괄하는 DCM총회에서 결정된다. 선출은 총회에서 2년 단위로 투표를 통하여 진행되며, 실무는 상근자들인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하며, 견제와 감독은 회원들로 구성된 대표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지리산 두레마을의 실무운영은 두레마을 운영위원회 및 가족회의를 통하여 진행된다.



다.

실무운영을 위해 진행되는 의사결정방식은 가족회의와 운영위원회로 구분되어 진행되는데, 가족회의는 성원전체의 합의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생활전반에 관한 내용을 주요의제로 정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두레마을의 대표기구로서 구체적인 실무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을 주요 의제로 하고 있다.

지리산 두레마을의 조직은 운영위원회와 소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모임은 영농팀, 시설 및 토목팀, 생활팀, 교육팀, 야생화 관리팀, 허브 재배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리산 두레마을의 운영위원회는 10년 이상 두레공동체운동을 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결정 방식은 합의제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체에 대한 내용은 사안에 따라 김진홍 목사의 제가를 받는 정도로 진행하고 있다.

## 경제와 생산

지리산 두레마을의 재산 소유방식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은 경우 개인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내 본인의 투자로 획득한 부동산은 개인소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매, 양도 등에 있어서 제약을 두고 있다. 또한 거주지내에서 개인 물품의 구입시 개인 소유물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식당, 영농지, 강당, 본부 사무실 등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은 공동체 소유로 하고 있다. 이전 재산처리는 토지의 사유는 불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본인의 자비로 건축할 경우에는 개인의 소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지리산 두레마을의 주요생산 수단은 (주)두레마을에서 가공한 산머루가 중심 산업을 이루고 있다. 공동체 내에서 산머루를 재배 후 영리법인에 납품하고 있으며 영리법인은 주식회사로 공동체가 대주주로 되어 있다. 수익은 대주주로서 주식회사 원칙에 의거해 분배하고 있다.

지리산 두레마을의 노동은 산머루 농장, 채소재배, 허브재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간과 보상은 합의에 의해 정해지며, 평균 일일 8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다.

수익은 공동체 전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각 개인은 생활비를 지급한다.

## 생활과 교육·문화

지리산 두레마을의 먹거리는 가능한 한 생산을 직접하고자 하고 있으며 생산은 모든 과정을 유기농 방식을 지향하고 있으며 외부의 판매는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리산 두레마을의 주된 수입원인 산머루는 전량 공장에 원재료로 판매하고 있다.

마을내에서 현재 자급하고 있는 먹거리는 채소, 산양젖, 허브차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침식사의 경우에는 독신자 별 혹은 가족별로 그룹식사를 하고 있으며 점심식사는 공동식사를 하고 있다. 저녁식사는 주 3회 정도 공동식사를 하고 있다.

두레마을의 에너지는 적정기술이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재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가운데 내몽고에서 도입한 500W 규모의 풍력 및 태양열광판 겸용 발전기가 전체 전력의 10%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이 발전기의 도입은 자연환경적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현재 시험 중에 있으며 점차적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원 확충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하수처리는 자연정화를 할 수 있도록 약 30cm정도 깊이의 돌과 모래로 채워진 수로를 만들어 놓았으며, 마지막 지점에는 100m정도의 모래더미를 통과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지리산 두레마을의 구성원들을 위한 교육은 제도권 교육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으며, “밭쓰개 노동학교”, “두레훈련생과정”을 통하여 두레마을의 목적과 가치를 배워가고 있다.

그러나 남양만 두레마을에 별도의 학교법인인 “두레자연중·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지리산 두레마을의 문화활동은 판소리, 풍물 및 야생화 축제 등이 전부이다. 대외적인 문화활동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 외부와의 관계

지리산 두레마을은 지리산 자락에 자생하고 있는 산머루가 지역사회경제 및 외부적 관계를 원활하게 도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지리산 두레마을은 이미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산머루를 약 15만평 정도 규모를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약 3년간 50만평 정도 추가 보급함으로써 지리산 특화작물로 성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리산 두레마을은 인근 지역사회와의 호흡이 생태공동체를 구상하는 기본원칙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1년 34차례 정도 집단적으로 왕래를 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사회 학교의 결식 아동학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공식적인 정치적 대응은 일체 지양하고 있다.

그리고 두레공동체운동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있는 김진홍 목사의 설교 태요, 두레유통 매장 등을 통하여 외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WEB상에서 발행한 소

식지를 통해 두레마을과의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두레마을은 지리산 두레마을 외에도 남양만 두레마을, 문막 두레마을, 보성 두레마을, 연변 두레마을, 베이커스펠드 두레마을을 비롯하여 연변두레마을도 계획하고 있다.

## 과제와 전망

두레마을은 국내 최초의 귀농집단, 두레학숙이라는 도시공동체의 구상, 계획공동체에서 생태공동체로의 전환 등의 많은 의미있는 사례를 지니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는 경제적인 자립이었다. 그리고 경제소득 발생시 분배의 문제가 공동체 내부의 갈등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한 발생시키지 않기 위하여 최소한의 사적소유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두레마을 내부의 변화이기도 하다.

그러나 두레마을이 보여 준 공동체 운영의 다양한 경험과 비전은 한국의 공동체 운동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지리산 두레마을을 비롯한 두레마을은 영성수련 프로그램을 보다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며 영성훈련원의 개원 및 훈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제작 및 농산물 가공공장 건립 및 문화축제의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 방문이나 참여는?


두레마을의 참관은 개인, 가족, 단체에 상관없이 항시 가능하며 숙박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숙박시에는 1박 3식으로 2만원을 받고 있다.

두레마을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11박 1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말씀과 노동학교"가 있다. 말씀과 노동학교는 아침 6시에 기상하여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주로 강도 높은 노동으로 오전과 오후를 일정을 보내고 저녁에는 성경공부, 특강 및 토론이 진행된다. 말씀과 노동학교는 중고등부 과정과 청년부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두레마을의 정식적인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두레공동체운동에 동의한 자로써 3개월 동안의 공동체 생활 후에 준회원 자격이 주어지며, 준회원 이후 1년 후에 정회원의 자격이 주고 있다.

장애우, 가정폭력피해자등과 같이 피난처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두레마을의 수용능력에 따라 입주여부가 결정되며,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각각의 경우를 상담한 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숙소의 부족으로 인해 입주자를 당분간 받을 수 없는 상태이다.

현재 살고 있는 가족들도 숙소문제로 인해, 콘테이너 하우스와 인근 농가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도에 '사랑의 집' 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제한적으로 입주 가능성이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 '지리산 두레마을'을 소개한 자료들

「산들바람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 지리산 두레마을」, 김성균, 《월간 말》 제206호, 2003년 8월호

「성경적 삶을 실현하는 예수공동체 - 두레마을」,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생태위기 시대의 공동체 운동』, 생명운동아카데미 제11맥

단순하고 소박한 삶, 뿌리깊은 영성과 삶의 훈련, 선교적 삶

## 민들레 공동체

서부경남지역 선교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종교공동체이다. 민들레 공동체는 국내의 서부경남 및 제3세계 농촌과 지역을 통합적으로 선교, 교육, 개발하는 일을 하고있다. 성령 안에서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통해 공동체의 삶을 이루고, 손으로 노동하며 자신의 내적인 성장과 훈련을 실천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지역에 온전히 임하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의 비전이다.

☞ 계획공동체 · 교육공동체 · 선교공동체



● 2004 농촌비전학교 참가자들 ●

- 주 소 ; 경남 산청군 신안면 갈전리 42번지 (666-961)
- 연락처 ; 055-973-6813
- www.dandelion.or.kr    · email ; kis5804@hanmail.net
- 공동체 대표 ; 김인수    · 연락 담당자 ; 권근숙

## 역사와 현재

민들레 공동체는 1991년 4월 5일 경남 진양군 정촌면 화동마을에서 창립모임에 8명이 모여 공동체 운동을 시작하였다. 1995년에 진주시 진성면 중촌리에 자리를 잡았다가 다시 1997년에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갈전리에 자리를 옮겨 공동체 소유의 땅과 건물 소유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민들레 공동체는 농촌선교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공동체 생활 시작하였으며 이때 공동체의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시작했었다.

설립 당시 공동체 이름은 '선교공동체 민들레하우스'로 무교회지역전도 및 교회개혁과 어려운 농촌 및 농촌교회 지원 사역에 집중하고자 했다. 그러나 서부경남 전체 농촌에 대한 발전방향을 늘 염두에 두고 활동하였으며 점차 농촌지역문제에 대한 인식과 생태문제 및 인재양성에 관심을 갖고 일하게 되었다.

민들레 공동체는 김인수 대표가 중심이 되어 대학선교단체의 대학 후배들이 참여하고 있다. 초기에는 김인수 식구만 결혼한 가정이었고 나머지는 미혼남녀들이었다.

민들레 공동체는 농촌사역자로서 농촌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한다고 자각하여 초기부터 텃밭 가꾸기, 농사일, 축산업 등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그러나 화동과 중촌마을에서는 집과 농장을 임대한 상황이어서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건물을 비워주어야 할 만큼의 어려운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꾸준히 지역과 마을 봉사를 계속하였고, 유기농업 소개, 의료봉사, 구제활동, 선교활동 등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경남 산청에 토지를 구입하고 그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생활과 문화가 뿌리내리는 공동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멤버들이 결혼함으로써 팀웍이 강화되기도 했지만 가정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지 못함으로써 의사소통의 문제, 공동체 정신을 둘러싼 가족간의 입장차이, 자녀교육의 문제를 비롯하여 가장 큰 문제인 경제문제 등이 더 큰 위기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경제문제와 공동체 내의 가정의 지원 여부는 공동체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1998년 10여 년간 함께 일하고 살았던 김기대 식구를 cambodia 선교사로 보내면서 경제적으로나 인력 면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으나 민들레공동체가 큰 규모의 공동체가 되기보다는 제 3세계와 한국 농촌을 위해 계속 인재를 공급하는 중심지가 되어야 된다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민들레 공동체 구성원은 총 12명으로 10대 이하가 4명, 30대와 40대가 3명씩 있으며 60대가 2명이 있다. 또한 민들레 공동체는 대지 450평 위에 본관 60평, 교육관 30평, 사택 2동 각 15, 12평, 공방 12평, 전시설 4평, 간이 집회실 겸 창고 45평, 계사 15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논농사 1,500평, 밭농사 500평을 경작하고 있다.

## 목적과 가치

민들레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성서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세우되 다른 종교가 갖는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하며 생태주의야말로 종파, 인종, 문화를 막론하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우리 시대의 근본악에 대한 대안적 삶을 근본 목표로 하고 있다.

민들레 공동체는 민들레 꽃에서 그 의미 및 가치를 찾고 있다.

① 손으로 하는 노동 중시하고 제 3 세계 및 우리나라 농촌상황에 어울리는 생활양식을 정착시키기 위한 단순 소박한 삶, ② 마음의 뿌리, 생각의 뿌리, 공부의 뿌리, 일의 뿌리를 견고히 하고 우리는 열매를 추구하는 곳이라기보다 (열매는 누가 먹든) 건실한 뿌리를 길러내는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뿌리 깊은 삶, ③ 훌쩍처럼 훌어져 선교하고 평화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는 일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있다.

민들레공동체도 끊임없이 외부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여나가고, 자체 생활양식을 키워나간다. '텃밭문화'가꾸기 방식 등의 자체 생활양식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조직과 운영

민들레 공동체는 아직 체계화된 조직과 운영방식은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매일 갖는 자체 기도회(저녁) 이후 잠깐 잠깐씩 대화를 통하여 안건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정하고 있는 공식적인 정회원, 준회원 제도는 없지만 장기간 생활하면서 공동체의 비전과 목적에 공감하고, 돈을 위해 살지 않기로 한 기본정신이 형성된 경우 자연스럽게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결정 방식은 합의제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아직 안정된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 내부의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상적인 기도회, 성경읽기 등을 통한 신앙적 방법을 동원하고, 갈등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와 용서를 구하고 다른 공동체 회원의 개입을 통한 갈등 당사자 간의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민들레 공동체의 구성원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가족'으로 부른다. 가족이라는 명칭은 일시 갈등이 있어 떨어져나가더라도 이 후에 다시 공동체와 연결되어 일하거나 협력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공동체에서 사는 식구와 지금은 살지 않지만 살았던 사람들이 피차 갈등을 가진 당사자 간의 관계를 원활케 하는 가교가 된다.

공식적인 조직은 소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체에 TV가 없기 때문에 유익한 비디오를 전 식구가 함께 일주일에 1회 정도 보고 토론하기도 하고, 공동체스터디 모임을 운영하기도 했으나 농사일정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 경제와 생산

민들레 공동체의 재산 소유는 정회원의 경우 무소유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무소유에 대한 강요는 없으며 자발적인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동체의 건물, 대지, 논밭은 개인 명의로는 되어있으나 식구들 명의로 분산되어있다. 이것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시설은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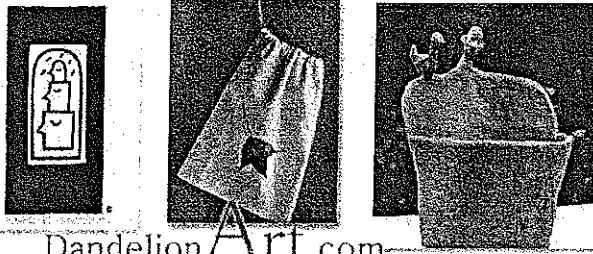
공동체 가입 이전 재산처리 역시 개인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단 부득이한 경우 공동체가 개입을 하기도 한다.

민들레 공동체는 교육사업과 민들레아트센타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사업으로는 계절학교(자연체험캠프) 및 일일캠프, 기타 훈련프로그램이 있으며 민들레아트센타([www.dandelionart.com](http://www.dandelionart.com))는 목판 및 인쇄작품, 목판화 카드, 토우, 자연염색, 나무심자가 등 수작업에 의한 작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체나 지역 행사 시 전시회 다수 진행하고 있다. 매출규모는 연간 1,000만원 정도이다. 민들에 아트센타에 공급되는 생산을 위해 담당자 1명과 식구들 2-3명씩 작업에 투입하고 있다.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유기농산물 유통시키고 있다.

민들에 공동체의 노동 의무시간은 정해지지 않다. 그러나 농번기에는 계속 일하는 편이고 일손이 부족할 경우 work camp를 통해 지원받고 있다. 보통 하루 7-8시간 노동하고 있으며 식사, 설거지, 육이는 주로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다. 농사, 건축, 대외활동은 주로 남성들이 담당하되 엄격한 구분은 없다.

아트센타, 프로그램 운영, 농사, 강연, 외부후원 등에서 수익이 생기는 대로 생활비와 대외지원비에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별로 월 10만원씩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 생활과 교육·문화

민들레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채식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다. 벼농사 1,500평, 밭작



물 500여 평을 직접 재배하고 있으나 식구수와 1년에 1,000명 정도 방문객을 고려해 볼 때 생산량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민들레 공동체는 모든 식사를 공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은 기존 일반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축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선물의 집”, “공방”은 인근의 돌, 황토, 대나무, 소나무 활용하여 흙집으로 건축하였다.

교육은

교육에 있어서는 현재 2명이 (18세, 14세)이 홈스쿨링을 하고 있으며, 1명은 인근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교육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 교육, 자연친화적인 교육을 상호학습하고 있으며 현재 공동체학교 계획 중에 있다.

문화활동으로는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공예, 미술활동을 하고 있으며, 1년에 1-2차례 전시회를 개최할 때 모든 식구들이 참여하여 제작, 홍보, 판매를 하고 있다.

## 외부와의 관계

민들레 공동체의 지역사회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는데, 주로 농촌의 노인분들과 교류하고 있다. 병약자 방문하거나 음식 및 필요한 물품나누기 등 비교적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그리고 이들은 비폭력 평화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선한 사업이나 인재를 지원하거나 양육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인근 지역사회 외에도 국내외의 여러 기관과 교류 중에 있다. 국내에서는 지역 농어촌교회 및 한국헤비타트진주지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캠프를 통해 어린이, 청소년, 성인, 도시 학부모들 상시 접촉하고 있다. 그리고 캄보디아 꿈과 미래학교(NGO), 국제농촌교회협의회(Int'l Rural Church Ecumenical Association)등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비정기 간행물 <민들레 편지>를 통하여 외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과제와 전망

민들레 공동체의 가장 큰 과제는 경제적 안정이다. 따라서 이들은 NGO, 선교지원, 교육지원 등의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된 후원체제 구축 및 교육사업, 아트센터, 유기농 유통 등을 통한 자립경제 수립 위한 사업 확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민들레 공동체의 가장 큰 과제이다.

그리고 중장기으로는 30여 가정이 살 수 있는 토지와 여건 구상주एं 있으며, 구성

원의 1/3은 선교와 봉사, 2/3는 지원체제가 마련된 자립적인 공동체 마을을 구상하고 있다.

### 방문이나 참여는?

민들레 공동체의 방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방문과정은 전화, 홈페이지, e-mail을 통해 접수받고 기간은 자유로운 편이다. 필요시에 프로그램을 열어서 도와 주고 있다. 공동체 orientation, 공동체의 원리와 삶, 섬기는 삶, 농촌자연체험 등 손님이 하는 일은 별도로 구분되어있지 않고 식구들의 일상에 함께 참여하면 된다.

단 요양하기 원하거나 쉬러 온 경우는 특별히 배려하고 있으며. 기간도 자유롭되 장기적으로 있을 시에는 공동체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비용은 훈련 프로그램이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민들레 공동체의 공식적인 식구가 되기 위한 자격은 가능한 공동체의 가치와 목적에 동의하고, 우리의 활동을 이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입회절차는 방문, 인터뷰, 공동체 식구의 동의 과정을 거친 후 식구로서의 승인을 하고 있다. 장기생활 희망자는 초기 3개월, 이후 6개월, 그 후 1년, 3년 등으로 기간을 나누어서 생활해보도록 권유하고 있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권한과 의무는 무소유, 공동노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민들레 공동체는 3개월, 6개월, 혹은 1년 과정의 비정규적인 공동체훈련이 있다, 그동안 민들레농촌선교학교, 민들레농촌 vision school 등의 1-2주 코스의 사회교육 과정도 여름과 겨울에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1년 1차 10주-12주 코스의 <기독교가치관학교>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아직까지 가치를 달리하는 사람이 공동체 성원이 되길 원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원할 경우 마음을 열어놓고 일정기간 생활하면서 더불어 살 수 있을지 적응단계 후 장기생활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공동체의 원리와 삶, 노작, 공예교육, 농사교육, 건축공부, 지역섬기는 일, 외국 NGO 및 선교단체 단기 후원과정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공동체**

### 민들레 공동체를 소개한 자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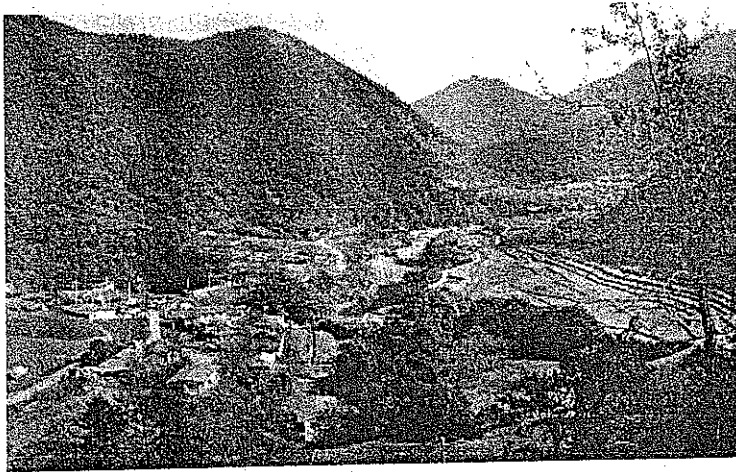
「못나서 잘하고 잘나서 잘 못한다」. 남화선, 《월간 말》 제205호, 2003년 7월호

지구환경 회복과 한국농촌 복구

## 돌나라 한농복구회 (한농마을)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종교공동체가 친환경농업을 바탕으로 한 농촌지역공동체로 변모한 공동체이다. 돌나라란 하늘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들같이 심지가 견고하여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음의 나라를 말한다. 지구환경 회복운동과 한국농촌의 복구를 내걸고 국내외 20여 개 지부에 2,500여 정회원을 비롯하여 7천 여명이 살고 있다.

☞ 종교공동체 · 계획공동체 · 생태마을 (사단법인)



● 울진 한농마을 전경 ●

- 주 소 ; 경북 울진군 서면 왕피리 101번지 (767 -884)
- 연락처 ; 054-783-6857, 0420
- www.hannong.com
- email ; decaks@empal.com
- 공동체 대표 ; 이기송 대표이사
- 연락 담당자 ; 도정호 사무국장

## 역사와 현재

자연친화적인 농촌생활을 원하던 사람들이 1980년대부터 농촌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개별적으로 유기농업을 실천하던 이들은 한 곳에 모여야 제대로 된 유기농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1994년 초 300여명이 모여 '한국농촌복구청년불빛회'를 창립하고 친환경농업을 바탕으로 한 이상적인 농업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목표를 세운다. 이들은 부지를 찾고 귀농하여 짧은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올진을 비롯 한 청송, 상주, 평창, 춘양, 장흥, 산청 등지에 유기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마을을 형성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수가 수천명에 달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같은 신앙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반에 한농복구회의 정신적 지도자인 석선선생은 기독교계열의 한 교파<sup>1)</sup>를 형성하고 '땅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삶의 근본'임을 설교하였고, 이 뜻을 따르는 이들이 한농복구회를 이루어 한국농촌을 복구하는 유기농과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나선 것이다.

1994년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건축을 시작하는 한편, 팀을 꾸려 일본 아마기시 공동체, 후쿠오카 마사노부 연구농장, 미국 아미쉬 빌리지 등에 연구단을 파견하여 선진 농업 공동체를 견학하고 연구활동을 하였다. 1996년까지 국내 10개 지역에 공동체를 설립하고 영농조합법인으로 등록을 마쳤다.

초기 정착과정에는 공동화와 노령화가 두드러진 농촌, 그것도 대부분 오지에 전국의 원근각지에서 농업정착촌을 이루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땅을 매입하고 하여 원주민들이 오해와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부지런히 농사짓고 유기농을 실천하는 생활을 보고 시간이 흐르면서 오해도 사라지고 원주민들과도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한농복구회는 1994년 출발 당시부터 친환경농업을 제창하고 그 바탕위에서 병든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운동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시작하였으나 초기에는 일반 소비자나 정부조차 인식이 부족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일반관행농법에 비해 몇 배나 더 드는 투자와 노력을 30~50% 정도 더 받을뿐인 유기농산물의 판매 가격으로 버티기도 어렵고 그나마 소비처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게다가 척박해진 땅을 개간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천연 농약과 퇴비를 써서 땅을 부드럽게

1) 이 교파는 1990년대 초 예수교장로회 교단들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이 책은 종교적 배경을 가진 공동체들의 경우 종교적 성격보다는 객관적 실체를 가진 공동체의 생활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각 공동체의 설명과 관련한 사실에만 충실하고자 한다.

만드는 데 꼬박 3년이 걸렸다. 시행착오는 미생물연구로 이어져 다양한 액비와 천연 농약과 비료를 개발보급하는 '천연농업자재연구소'로 발전하였다.

7년 여에 걸친 실천과정 가운데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였고, 한농북구회의 친환경 농업도 안정적인 틀을 갖추게되었다. 2000년 한농은 농림부로부터 친환경 농업자금 10억원을 지원받고 한농의 천연농법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는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기반도 형성한 터라 2001년부터 한농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쇼핑몰도 개설하고 언론의 취재에도 응했다. 한농은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수상도 하였고, 이제 각 지역 농민단체나 자치단체에서 한농의 유기농업을 배우기 위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지부들 가운데 울진 왕피천 계곡에 자리잡은 울진 한농마을은 한농북구회의 본부이며, 12개 마을로 이루어진 가장 큰 지부이다. 2000년 처음으로 친환경농업지구로 조성하고 2002년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자격을 얻었으며, 2003년에는 친환경 농업 최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등 친환경농업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곳에는 천연농업연구소, 농업전문학교, 한농종합식품 등이 있으며, '2005 울진 세계친환경 농업 엑스포' 행사에서 유기농 시범포 운영을 맡아 준비하고 있다.

한농북구회는 울진 외에 청송, 상주, 평창, 춘양, 장흥, 전주, 마군담, 원주, 진천 등지에 10개 국내지부가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케냐, 대만에 10개의 해외지부가 있으며, 전체 한농마을에 살고 있는 인원은 1만 명 정도에 이른다. 울진에는 왕피 1리와 2리의 열 두개 마을에 초기 200명에서부터 시작하여 한때 1천7백 명까지 모여 살았고, 지금은 새로 생긴 지부들로 이주하여 천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국내 10개 지부에 살고 있는 정회원 수는 약 1천5백여 가구에 2천5백명 가량되는데, 30~40대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20대와 50대가 다음으로 많으며, 70세 이상이 300여명, 10대 이하가 200여명 살고 있다.

국내 10개 지부를 총괄하여 한농이 공동소유의 형태로 확보하고 있는 토지와 시설 규모도 상당하다. 논(100,716평), 밭(696,745평) 등 토지와 주거시설(623동), 저온창고(21동), 농기계보관창고(14동), 건창고(18동), 건조장(14동), 냉동창고(5동), 콘테이너창고(57동), 단동하우스(151동), 연동하우스(16동), 친환경대규모지원하우스(10동), 친환경소규모지원하우스(11동), 기타 하우스(16동), 양계장(20동), 우사(13동), 퇴비사(18동), 폐자재수거장(10동), 미생물실(6동), 액비제조시설(13동), 농산물가공시설(15동), 기타 시설 등을 농업 관련 시설로 확보하고 있다.

## 목적과 가치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꿈을 이루는 공동체의 실현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꿈은 크게 두가지로, 첫째는 모두가 병이 없는 건강한 사회의 실현이고, 둘째는 남이 없는 하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실현이다.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한농은 실천적 방법으로 “지구환경회복운동”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구환경회복운동은 구체적으로 크게 세가지 차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① 땅을 회복하는 운동 ;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땅을 회복하는 사업이다. 땅이 회복되어야 땅의 산물이 건강한 산물을 맺게 되고 생태환경도 회복되고 따라서 인류의 건강도 회복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② 몸을 회복하는 운동 ;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과 천연의 건강법칙을 실천하는 방법, 그리고 천연적인 치료방법을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는 사업이다.

③ 정신을 회복하는 운동 ;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교육 사업을 통하여 정신을 회복하는 운동이다. 구체적으로는 부모효도와 자녀교육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지는 지적교육을 통하여 인류와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정신, 온 인류를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하며 가족을 회복하는 사업이 정신회복운동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은 먼저 공동체 마을 내에서 실험적으로 실천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와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하고 일반화될 수 있는 실천으로 확대되어 마침내 모두가 병이 없는 건강한 사회, 모두가 남이 없는 행복한 세상을 구현하려는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의 공동체는,

- ① 지상에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 ② 성원 개개인이 욕심과 이기심 없이 남을 위해 사는 봉사의 삶을 실천하고,
- ③ 지역공동체의 완성을 통하여 지구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며,
- ④ 지구환경회복운동의 이상 실현하고,
- ⑤ 공동체의 소단위인 각 가정에서 행복하고 만족스런 삶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체 설립과 형성과정에는 신규회원을 위한 교육과정이 있었으나, 공동체의 발전과 완성을 위해 몇 년간 신규회원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공동체의 발전을 공동체 설립 → 발전 → 완성 → 확대와 보급의 4단계로 구분한다면 이제는 공동체의 확대·보급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신규회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 조직과 운영

공동체 운영은 국내 10개 지부와 해외 10개 지부가 독립된 영농조합법인의 형태로 운영된다. 한농에서는 역할을 맡은 자리에 으뜸 장(長) 대신 아우 제(弟)를 붙인다. 책임을 맡은 어른이 아니라 아우가 되어 섬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직책에 대한 호칭일 뿐 일상 생활에서는 서로를 삼촌·이모·형님·아우님으로 부르고 있다.

각 지부의 대표자는 지부제라고 하며 각 지부마다 부서제가 있어서 회원들을 위해 봉사한다. 지부제의 선출은 총회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각 지부의 부서제는 지부제가 선임한다. 총회는 고문격인 총제와 대표이사가 있으며 운영위원이라 할 수 있는 이사들이 있다. 국내외 모든 지부를 위해 봉사하는 총회 부서제들이 있으며 총회부서제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대표이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주요 결정기구는 총회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가 있다. 국내외 지부 전체를 위한 주요 사항과 안건들은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하며, 각 회원들은 지부의 대표격인 대의원들을 통하여 의사를 반영하며 각 지부에서는 지부제 및 부서제들이 회원을 대표해서 의사를 수렴한다. 상시 의결기구로 총회 이사회가 있어서 안건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내부의 다양한 갈등에 대해서는 지부제 및 담당 부서제의 중재와 권면으로 해소도록 하나, 지부 내에서 해결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회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다른 지역 공동체로 이사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성격이 맞지 않아 이웃 간에 다툼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부분 화해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지만 심할 경우 지부제나 부서제가 중재하여 화해를 시키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 지부 내에서 다른 가구로 이사하여 환경을 바꾸도록 한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는 본인 의사를 반영하여 다른 지부로 이사를 하기도 한다. 공동체 환경이 바뀌고 본인 스스로가 잘 할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해결되고 공동체에 적응하고 있다.

운영 조직으로는 행정업무와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실이 있으며, 공동체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는 다양한 기능의 부서(농업부, 건축부, 사업부, 생활부, 여성부, 복지부, 의료부, 교육부, 차량부, 청년부 등)들이 있다.

또한 소모임으로는 연령별 모임(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30대모임, 40대모임, 50대모임, 60대모임, 70세 이상 신선회 모임 등)이 있고, 취미별 모임(축구부, 사친부 등), 특기별 모임(무용부, 관악부, 합창부 등), 기타 소모임들이 있어 다양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경제와 생산

공동체의 토지와 시설 건물 등 모든 시설물은 공동체의 공동 소유이다. 건물이나 토지 등의 명의를 정회원 이름으로 할 수 있으나 그 이용과 사용에 대해서는 공동소유개념으로 공동체 성원의 모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

공동체 내에서 개인 재산은 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것에 한하여 개인소유를 인정하며 공과금을 비롯하여 일상의 대부분은 공동체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공동체에 정회원으로 가입할 때에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빚이나 사채 등이 없어야 하며 가입 시에 개인 재산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출연할 수 있다. 출연금으로 낸 재산에 대해서는 출연증서를 발급하며, 만약의 경우 탈퇴시에는 출연금 원금에 한하여 돌려받을 수 있고, 이자는 한농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출연금의 규모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자기 의사와 능력대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회원들 가운데에도 출연금이 없는 정회원도 많이 있다.

한농마을의 사업은 전체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이 중심을 이룬다. 유통사업은 유기농산물 유통판매, 농산물 가공, 생태환경보전 및 건강사업을 포함한다. 그리고 외부의 건축사업을 통한 수익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타 수익(20%)이 있으며, 2003년도의 예를 보면 국내 지부 전체의 연간 매출 규모가 100억원 정도였다.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회원을 중심으로 유효 노동력을 가진 전체 인원의 40% 가량이다. 어린이와 노약자, 병약자들은 노동에서 제외되며 회원개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서별로 자기 능력과 자질에 따라 일을 하고 있다.

모든 공동체 회원들은 각자 정해진 부서에 소속하여 일을 한다. 일이라기 보다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이다. 노동시간은 각 부서별로 형편에 맞게 자유롭게 결정한다. 농번기와 같이 때로는 부서에 상관없이 전체가 농사일을 할때가 있으며 부서간의 협력은 부서제 사이에 협의를 하여 조정한다.

공동체의 수익은 지부별 또는 마을단위로 관리 운영되며 마을 공동체 사무실에 재정담당이 회계를 하며 지부에서는 지부제와 총무제, 마을에서는 마을 리제의 책임아래 관리한다. 모든 결제와 자금 집행은 회계, 부서제, 총무제, 지부제의 책임 순서에 따라 결제하며 주요 공동체의 사업 결정은 지부제가 각 부서제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부서제는 공동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수익 가운데 공동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은 사무실에서 일괄처리하고 나머지 순 수익에 대해서는 가정별로 소득을 나눈다.



## 생활과 교육·문화

공동체의 모든 먹거리는 공동체안의 경작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완전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어 회원들이 소비할 내수용 먹거리를 다양하고 충분하게 재배하는 일은 농업부가 맡고, 생산된 농산물을 가정별로 나누는 일은 생활부에서 맡고 있다. 주곡의 자급률은 지부별로 다르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부식 자급율은 거의 100% 달성하고 있다. 부족한 품목은 생활부에서 외부로부터 건강에 좋은 것으로 구입하여 채우고 있다. 과일의 경우 100% 자급하기 힘들어 해외지부의 산물이나 외부에서 구입하여 공급한다.

공동체에서 식사는 가정별로 이루어지며 마을 공동작업이 있거나 특별한 잔치나 행사가 있을 경우에 공동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

식생활은 초기부터 채식을 중심으로 해왔으며, 2002년 말부터 천연식이라고 불리는 생식위주의 채식이 보편화 되고 있다. 이는 건강에 좋은 식생활을 계속 연구하며 발전한 것으로 지금은 채식을 기본으로 하여 생식과 화식을 조화시킨 식생활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한농의 천연식은 단순히 생것을 씹어먹는 것이 아니라 생식을 하되 영양과 맛, 보기도 좋고 구미에도 맞도록 천연식생활 문화를 연구·개발하여 선진적인 천연식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있다.

한농마을의 공동체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곳으로 마을마다에 행복마트가 있다. 이곳은 각종 곡식과 부식 등 먹거리와 생필품 등이 있는 가게로, 주민들은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고 장부에 기록만 한다. 한편에는 녹색가게처럼 옷가지와 핸드백, 작은 가구들이 놓여 있어 필요한 사람들은 가져다 쓰고 필요 없는 물건은 갖다 놓아 필요한 사람이 쓰게끔 하고 있다. 함께 쓰는 공용코너에는 이따금씩 사용하는 작은 생활가전제품도 있어 돌려쓰고 있다. 작은 금고에는 돈을 넣어두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가져가고 쓰고 남은 돈은 다시 입금해 놓는다. 한 가족이 생활하듯 마을 살림을 하는 것이다.

한농은 초기부터 건강회복사업의 일환으로 천연치료시설을 설치하여 흙치료실, 향토방, 차콜(숯)치료실, 태양열치료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치료실이나 환자를 위한 건축물은 대부분 흙벽돌을 이용하여 건축하였다.

이 외에도 수려하고 깨끗한 주변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마을 조성에 친환경적인 방법들을 도입하고 있다. 우선, 생활에서 합성세제나 샴푸, 린스 등의 화학합성물질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적인 세제를 별도 주문생산하여 사용하며, 숯비누, 목초액비누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친환경 화장품도 개발하였으며, 숯치약, 각종 숯가루 제품을 생활전반에 걸쳐 이용하고 있다. 생활하수 처리는 마을마다 미나리평을 설치하고

다시 논을 거쳐 왕피천으로 흐르도록 하는 자연정화처리를 하고 있다. 또한 농경지는 물론이고 마을의 정원이나 시설 조성에서도 농약, 화학비료,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주거 시설은 단기간에 많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생태 건축기술을 도입하진 못하였다. 난방은 마을 단위로 중앙난방식 화목보일러를 폐목자재를 태워 이용하고 있다. 울진은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한 난방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분야는 바이오에너지 개발이다. 퇴비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은 친환경 농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무한한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다. 현재 연구를 마치고 실용화 단계에 와있다.

아이들 교육은 유치부는 공동체 안에서 초등부는 인근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공동체의 초등부 교사가 있어 정규과목 외에 보충교육이나 예능을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을 추가로 하고 있다. 중고등부와 대학부는 대안학교를 운영하여 농업교육과 예능교육,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 지부에도 교육기관이 있어 유학을 가거나 외국 학생들이 연수를 오기도 한다.

공동체 학교에서는 아이 때부터 악기를 하나씩 배운다. 회원들이 중심인 '둘나라 문화예술단'은 관현악부와 농악부, 고전무용부, 중창부 등으로 구성된 100여명의 예술단으로 공동체 내부 행사와 규모가 큰 외부 초청 공연을 펼치기도 한다. 마을의 크고 작은 잔치에는 학생들이 악단 역할을 하여 흥을 돋구기도 한다.

## 외부와의 관계

공동체의 발전은 지역 사회와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한농의 농산물 유통을 활용하기도 한다. 친환경농업의 확산은 의미있는 성과이다. 그 간에 축적한 한농의 유기농기술을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 동기를 주기도 하고, 기술이전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농촌문화와 효도문화 등 공동체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문화예술단 공연 활동이나 경노잔치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도 널리 알리고 함께 참여하고 있다.

한농은 사회·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갖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외부 사람들과의 교류는 정기적인 간행물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후원자들을 초청하는 행사도 갖는다. 정기 간행물은 격 월간지는 '한농새아침'(2002년까지), '지구사랑'(2003년까지) 등을 발간하였고 새로운 간행물을 준비 중이다.

한농에서 생산, 가공하는 다양한 제품들은 한농유통센터나 쇼핑몰 홈페이지(hannongmail.com)를 이용할 수 있다.

## 과제와 전망

한농의 중점 과제는 친환경농업을 통한 완전한 자립경영을 이루는 것이다. 또한 유기축산단지를 조성하고, 온라인 도농교류협력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온라인 직거래 유통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내외 20여개 지부 공동체의 완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공동체가 이제는 정착되어 확대할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고 공동체의 사업과 취지에 찬동하는 다수의 회원을 확보하여 친환경농업을 바탕으로 전세계 네트워크와 함께 지구환경회복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방문이나 참여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과 사업에 대하여 전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하는 사람은 우선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후원 회비를 납부하며 공동체에서 생산하는 유기농산물을 공급받으며,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받고 각종 행사에 초청되어 공동체의 활동을 체험한다. 2차로 공동체 생활에 직접 참여하기를 원하는 후원회원은 공동체에서 마련하는 일정한 교육과정(정신교육과 농업교육)을 이수한 후 준회원이 되며 정기적으로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수 있다.

준회원 가운데 직접 농사를 지으며 공동체에 참여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총회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정회원으로 공동체 지역에 입회할 수 있다.

공동체 방문 프로그램은 농촌체험이나 농업현장 견학, 식생활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방문할 수 있다. 한농 홈페이지에 이벤트 행사를 공지하고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05년 '울진 세계친환경농업 엑스포' 행사에서 유기농 시범포 운영을 맡아 준비하고 있으며 행사 때에는 울진 지부가 공식적으로 유기농 투어 방문 코스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더 많은 방문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승용회**

## ☞ '한농복구회'를 소개한 자료들

「병든 땅 살리며 무소유의 삶 실천 - 왕피골 사람들의 유기농 공동체 실험」, 박인규, 프레시안(www.pressian.com), 2001. 9. 23

「박달재 넘어 그곳에 무릉도원이 있었네」, 김원진, 《월간 달》 제210호, 2003년 12월호  
「왕피리 사람들」, MBC <특집 다큐멘터리> 추석특집 다큐멘터리-新귀거래사(2부), 2001.

10. 3

「땅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 TBC 대구방송 <산따라 물따라>, 2003. 9.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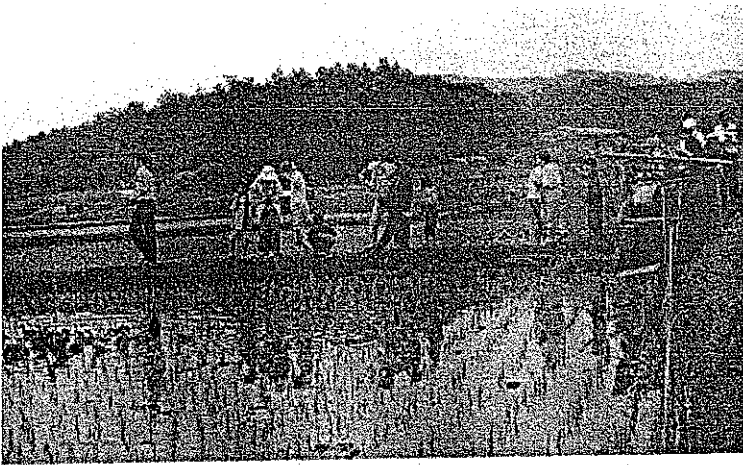
「필리핀을 바꾼다 산골 야콘농장」, KBS <수요기획>, 2004. 11. 3

생각하는 농민, 준비하는 마을

## 홍성환경농업마을 (문당리)

오리농법을 활용한 유기농업으로 농촌의 공동체적 관계를 회복하고 활성화한 모범을 보여주는 농촌 마을이다. 오리농 벼농사는 주변지역까지 200만평이 넘는 논으로 확대되었고, 주민들이 손수 짚은 흙벽돌로 환경농업교육관과 농촌생활유물관, 짚질방도 지었다. 문당리는 농촌마을에서 희망을 찾고 자립적이고 상호부조하는 두레공동체의 모습으로 건강한 자연 속에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마을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 '마을 백년 계획'을 마을 단위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우기도 하였다.

☞ 지역공동체 · 생태마을 (영농조합법인)



● 문당리 오리입식 행사 ●

- 주 소 ;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405번지 (350-813)
- 연락처 ; 041-631-3538
- www.mundang.invil.org
- email ; nanum2100@hanmail.net
- 공동체 대표 ; 주형로
- 연락 담당자 ; 방인성 사무국장

## 역사와 현재

문당리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명절놀이와 두레노동 등 전통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농기계가 도입되며 공동노동이 사라지고 상호부조와 교류가 없어져 마을 풍습이 사라져갔다.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고 청둥오리를 이용해 병충해를 방지하고 제초를 하는 오리농법을 처음 시작한 것은 1993년. “오리농법이 가져다준 마을 운동”이라고 지난 10여 년 사이 마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마을 대표 주형로씨는 이미 1979년부터 생명을 살리는 유기농업을 실천해왔다. 농촌과 농업이 살아가려면 유기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주변을 설득하기를 10여 년, 이제 이 곳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는 환경농업마을로 널리 알려졌다.

첫해에 좋은 성과를 보고 농가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여 1994년도에는 19농가가 3만여 평의 단지를 이루고 1996년에는 30농가가 오리농법 작목반을 결성하였다. 해마다 참여 농가가 늘어 2000년에는 홍성 일대 127농가가 33만평에 농약과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농업을 실시하였고, 2004년에는 인근 지역까지 250만평 규모로 확대되었다.

오리농법이 확산된 데에는 1995년도부터 재배하기 시작한 흑향미 덕을 많이 보았다. 재배농가의 소득이 눈에 띄게 높아지면서 참여 농가가 늘었다. 유기농업의 확산으로 협력을 필요로 하는 공동노동도 조금씩 되살아나고, 소득이 늘면서 벼를 수매할 때 가마당 얼마씩 마을 환경기금을 떼어 적립할 수 있었다. 1996년부터는 모은 기금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도시의 소비자,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지길 바랐고, 주민들은 환경농업교육관을 짓기로 하고 1998년도에는 적립된 기금으로 부지 3,000평을 공동 구입하였다. 당국에 계획안을 제출하여 일부 지원도 받게 되었고, 주민들은 직접 나서서 흙벽돌 3만장을 손수 찍고 서까래를 깎아 준비하였다. 2000년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한 홍성환경농업교육관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오리농업과 농촌체험을 하는 터전으로 발전하였다. 오리농업은 문당리를 경제적 안정과 일체성, 그리고 생태적이고 공동체적인 마을로 거듭나게 한 것이다.

1999년도에 문당리는 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 지원을 받았으며, 이해에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마을 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생산자, 농협, 유통업체 삼자 계약 재배를 실시하고 벼 수매 제도를 실시하여 생산과 판매의 안정성도 확보하였다.

환경농업교육관 준공을 축하하는 자리에서는 문당리의 또 다른 자랑거리도 선을 보였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마을단위에서는 처음으로 계획·작성한 “문당리 발전 백년계획서”였다. ‘마을 백년 계획’은 농촌마을에서 희망을 찾고 농촌과 도시의 공생 방

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외부 전문가의 도움으로 작성되었지만 계획서의 앞머리에는 계획을 세우는데 함께 고민한 주민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있다. 문당리 백년계획의 사업전략은 크게 '넉넉한 마을', '오손도손한 마을', '자연이 건강한 마을', '자연과 조화되는 마을' 만들기이다. 자립적이고 상호부조하는 두레공동체의 모습으로 건강한 자연 속에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마을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서너 세대를 내다보며 마을의 건강한 변화를 꾀하는 주민들에게 마을과 후대들,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은 진정한 주체로서 각별할 수밖에 없다.

2002년 들어서는 오리농법 단지가 100만평을((유기재배 품질인증 430농가) 넘어섰고, 4월에는 농촌 마을 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농촌생활 유물관'을 준공하고 지역 주민들이 기증한 생활유물 1천점을 전시하여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03년에는 유기재배 벼 전문 정미소도 설립하였고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마을 찜질방'도 만들었다.

문당리 주민들의 노력은 환경농업시범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그리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선정으로 이어졌고, 자연생태 우수마을, 녹색경영대상, 농업기반대상 등 많은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문당리는 80여 가구에 280여명이 살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이 절반을 넘고 있다. 마을의 공동체 기구라 할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있는 토지는 3천평 정도이며, 시설로는 환경농업교육관(80평), 교육관식당(80평), 정미소(100평), 찜질방(53평), 숙소(96평), 체험학습장(20평), 농촌생활유물관(60평) 등이 있다.

## 목적과 가치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이기도 한 마을 주민 모두가 환경농업을 하고 있으며, 문당리 발전 백년계획을 토대로 아름다운 마을 환경을 지켜나가고자 하며, 도농교류를 실천하여 농촌마을과 도시를 살리는 운동을 하고 있다.

'넉넉한 마을', '오손도손한 마을', '자연이 건강한 마을', '자연과 조화되는 마을' 만들기가 마을의 목표인 것이다.

## 조직과 운영

마을 공동체이므로 마을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구성원이다. 영농조합은 흑향미를 재배하여 환경기금을 내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조합과 마을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

홍성환경농업마을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들 중에 임원진을 선출하여 매월 정기 이사회와 임시이사회 및 연말 총회를 통해 모든 마을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조합은 대표자와 7명의 이사, 2명의 감사로 구성하며, 총회에 선출한다.

마을 내의 문제는 마을회의나 법인 이사회를 통해 해결해 가고 있다.

운영 조직으로는 법인 이사회, 유기축산분과, 교육관분과, 정미소분과, 찜질방분과, 유기농산분과 등을 두어 마을을 운영하며, 부녀회, 문우회(청년회), 상여계 등의 소모임도 운영되고 있다.

## 경제와 생산

법인 소유의 재산은 마을 공동의 재산이기도 하다. 공동 시설로는 홍성환경농업교육관, 교육관숙소, 교육관식당, 농촌생활유물관, 황토건강체험실, 환경농업마을정미소, 마을정자, 체험학습장 등이 있다.

이러한 시설을 활용하여 환경농업교육사업, 어린이생태체험학습, 정미소사업, 황토 찜질방 등을 운영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연매출은 2억 가량 되며, 사업분야에 6명의 정식직원(교육관 2명, 정미소 4명)이 근무하고 있다.

마을의 공동 부역은 마을 청소, 장작 만들기, 풀베기 등 마을 정비할 때 한나절 혹은 하루를 함께 일한다.

법인의 사업수익은 연말에 정산하여, 적립을 하거나 분배토록 하는데, 아직까지 분배한 적은 없으며, 운영유지금으로 재투자해왔다.

## 생활과 교육·문화

먹거리는 가정별로 키우는 농산물로 하며, 교육관 운영에 쓰이는 먹거리는 마을 내에서 구하거나, 외부에서 유기농산물을 구입하여 방문자들에게 제공한다.

마을 공동 식사는 마을회의와 마을 잔치가 있을 때하며, 일년에 다섯 차례 정도 있다.

마을의 공동체 건물은 생태건축을 적극 도입하였다. 교육관, 숙소, 식당, 농촌생활유물관, 찜질방 건물들은 주민들이 직접 짚은 황토벽돌과 나무를 사용하였으며, 최소한의 부분만 콘크리트를 사용하였다.

재생가능에너지는 소형 풍력발전기를 찜질방에 2기, 교육관에 1기 설치하였으며, 외등을 켜는 정도로 활용되고 교육적인 효과도 보고 있다. 또한 찜질방의 연료는 옆에 있는 정미소에서 나오는 왕겨를 태워 기본 난방을 하고 있다.





● 문당리 주민들이 손수 짠 흙벽돌로 지은 환경농업교육관 ●

아이들 교육은 대부분 갯골 어린이집과 흥농 초등학교에 다닌다. 갯골 어린이집은 풀무학교에서 시작되어 지역사회에 자리잡은 각별한 곳이다. 교육은 이 마을의 뿌리 역할을 해온 풀무학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처음 유기농업을 시작한 주형로씨는 온 가족이 풀무학교 출신이다. 풀무학교 시절에 정농회를 통해 유기농업을 접하였으며, 오리농법을 처음 하게 된 것도 풀무학교 선생님께서 일본 농법을 소개받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

마을에서 가장 큰 행사는 해마다 6월 6일에 벌이는 오리입식행사이다. 1995년부터 오리입식을 도시 소비자와 함께 하여 도농교류의 전형을 이루고 있다.

매뚜기잡기가 인기 있는 가을걷이 나눔의 잔치는 해마다 10월 3일에 개최하여 수확의 기쁨을 도시소비자와 함께 나눈다. 두 행사 모두 1,500여명이 참여하는 큰 행사로 발전하였다. 마을에서 모든 준비를 하던 것을 지금은 농협과 군청의 지원도 받고 있다.

### 외부와의 관계

지역사회와 인근에 유기농업이 확산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인력이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활성화한 농업생산과 농촌사회는 환경, 농업, 생활 등 다방면에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었다.

외부에서는 여러 생협의 조합원, 시민사회단체, 농민단체 등이 이곳 교육관에서 교

육이나 행사를 하고 있으며, 녹색연합, 환경교육센터, 자활후견기관, 신시, 한화, 귀농운동본부 등의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도농교류 행사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국경을 넘어 평화를 실현하는 오리농법’이라는 표어아래 일본과도 교환 방문을 하고 있다. 1997년에는 일본 외 아시아 3개국 오리농법 실천모임 및 관련 연구자들이 모여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많은 국내외 관계자들이 마을을 방문하고 있다.

마을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식을 알리며, 면내 소식지를 통하여 소식을 전하기도 한다.

### 과제와 전망

환경농업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 문당리 발전 백년계획을 2000년도에 수립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마을 가꾸기를 진행하고 있다. 백년계획서 내에는 의식주, 주택, 수질 개선, 삶의 올바른 방향, 마을의 올바른 발전 방향 등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지침이 되고 있다.

### 방문이나 참여는?

방문·체험 프로그램은 매년 6월 6일과 10월 3일 도시 소비자를 초청하여 오리농기 행사와 나눔의 잔치 행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방문하려는 사람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하면 마을 행사나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방문자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자체 행사나 농촌체험 프로그램(수확, 농산물심기, 황토염색, 솟대만들기 등)등이 가능하며, 비용은 숙박이 1인당 5,000원(20인 이상 일 경우)이고, 식사는 1인당 한끼에 5,000원이다. **중요제**

### ☞ '문당리 환경농업마을'을 소개한 자료들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 계획』, 흥성환경농업마을, 2000. 12.

『환경농업으로 특화하는 흥성군 문당리』, 주형로, 삼성경제연구소 <여가와 농촌 활성화' 심포지움> 발표문, 2001. 7.

『전통마을의 공동체를 되살리려는 더불어 사는 평민들』, 김서정, 《월간 말》 제208호, 2003년 10월호

조화로운 삶,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농업

## 실상사 사부대중 공동체

지리산 자락의 천년 고찰 실상사를 중심으로, 불교의 인드라마 세계관에 따라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실상사의 스님들과 신도들, 지역주민과 지역 활동가들이 한 식구로 모이는 단위가 '실상사 사부대중 공동체'이다. 이 지역은 '인드라마생명공동체'운동의 실상사 지역 실현지이기도 하다. 지역공동체운동을 담당하는 재가자들의 활동단위는 '(사)한생명'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한생명'은 지역공동체를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여겨 스스로 지역에 뿌리내리는 공동체로서 역할하며 다양한 교육, 복지, 문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 지역공동체 · 계획공동체



● 들녘에 자리잡은 천년고찰 실상사 ●

- 주 소 ; 전북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 345-4 (590-853)
- 연락처 ; 063-636-5388
- email ; hanlife@hanlife.or.kr
- www.hanlife.or.kr (한생명)
- cafe.daum.net/silsang4(실상사)
- 공동체 대표 ; 도법스님
- 연락 담당자 ; 김인숙 (한생명 사무국장)

## 역사와 현재

1996년 실상사 주지로 부임한 도법스님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불교의 개혁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계셨다. 하나는 부처님 당시의 초기 수행자들의 거주형태가 출가자와 재가자가 함께 하는 사부대중공동체였다는 점에서 한국불교의 사찰도 사부대중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었고, 또 하나는 지역의 사찰이 지역과 하나가 되어 지역에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데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실상사는 농촌사찰이고 농촌과 농업을 살리기 위해 농지를 구입하여 농장을 마련하는 일로부터 활동은 시작되었다. 이후 스님들이 농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전국귀농운동본부 이병철본부장의 건의에 따라 실상사농장을 귀농자들의 현장실습장으로 활용하고 귀농정착에 도움이 될 장기귀농학교를 1998년 9월 1일에 개설하였다.

1994년 불교의 조계종단 개혁에 참여한 스님들이 주축이 되어 선우도량이라는 결사가 이뤄지고 이후 사부대중공동체운동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재가자들 중심으로는 도농공동체운동을 추진하면서 1998년부터 서울에서 불교귀농학교를 진행하게 되었다. 1998~99년에 실상사 장기귀농학교가 1, 2기를 배출하여 이들 중 일부가 실상사 농장에 정착하게 되었고 불교귀농학교 출신들도 귀농대열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바탕을 기반으로 하여 1999년 9월 12일에 생명운동이라는 새로운 기치를 내걸고 불교계의 시민운동단체로서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창립하였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불교의 생명사상, 연기론을 바탕으로 한다. "인드라망이란 우주만물이 본래가 하나의 유기적 생명공동체라는 의미이고, 우주는 관계의 그물망으로 엮어진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공동체로 성립하고 공동체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온 우주는 한몸 한생명이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기존의 승가를 중심으로 한 사부대중공동체 추진팀과 재가자를 중심으로한 도농공동체 운동팀이 결합되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드라망 세계관에 공감하는 재가자들이 실상사에 모여들어 실상사인근을 인드라망 생명공동체의 실현지로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1999년부터는 실상사 농장에 귀농자들이 정착하여 농사를 기반으로 한 사부대중공동체의 한 영역이 탄생되었다. 이는 기존의 귀농학교를 진행하는 팀과 농장에서 농사를 담당하는 농장팀이 함께 만든 실상사 농장공동체였다. 두 번째로 만들어진 영역은 실상사 작은학교이다. 대안교육에 뜻을 가진 교사들이 모여 인드라망 세계관을 기본으로 생태적이고 공동체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불교계 최초의 대안학교를 만들기로 뜻을 모으고 1년 간 준비 끝에 2001년도에 중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인 실상사 작은학교를 열었다.

실상사를 비롯한 승가의 역량과 재가자들의 역량을 결합시켜 실상사 인근 지역을 희망이 있는 농촌공동체, 지역공동체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2001년 8월 27일에 지역공동체로서 '한생명'을 사단법인의 형태로 구성하여 지역활동에 들어갔다.

실상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건설 과정에는 여러 단위 활동에 많은 이들이 참여하였다. 우선 공동체의 정신적 지주는 실상사 주지스님으로 한생명 이사장 역할을 맡으신 도법스님이다. 또한 각 영역별로 대표를 두고 많은 식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실상사를 포함한 이 모든 단위들이 '실상사 사부대중(四部大衆)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 귀농학교 : 초기에 이향천(이해경)교감, 이향민(이이숙)간사가 주축이 되어 진행되다가 귀농학교 건물을 신축한 후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아 한생명 부설 사회문화교육원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많은 식구들이 동참하게 되었다. 현재는 지리산생명문화교육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교육 내용도 다양화하였다. 원장은 중목스님이 맡고 초기의 식구들이 교체되고 늘어 7명의 공동체 식구들이 활동하고 있다.
- 실상사 농장공동체 : 초기에 귀농학교 1기 졸업생인 유종석 가족이 내려와 1년간 생활하였고, 2기 최병홍, 이주승과 3기 최석민이 참여하면서 최석민 대표 중심으로 운영되고 귀농학교와는 분리되었다. 정식구 3명을 포함 예비식구, 지원자식구들을 합쳐 7~8명이 참여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지역생태농업센터의 농장으로 재편하여 지역 유기농 확산·보급의 역할을 하게 된다.
- 실상사 작은학교 : 이경재 교사대표를 비롯하여 강은화, 조경미, 송사석, 연동진 등이 준비단계부터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이후 많은 교사들이 결합하여 현재 11명의 교사가 활동하고 있다.
- 한생명 사무국 : 사무국은 2002년 7월에 서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사무처에서 활동하던 수지행이 내려와 사무국장 역할을 맡아 틀을 갖추었다. 초기에는 방과후학교(박미란, 김보미), 주민건강사랑방(김인중)등이 사무국 내 기구로 운영되다가 2004년에 분리하고, 현재는 사무국장 김인숙, 활동가 김수미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지역복지문화센터 : 농림부가 지원하는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을 2004년 7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흩어져 있던 지역복지 관련 사업단위들을 통합하고 수지행이 센터 소장 역할을 한다. 지역복지문화센터 산하의 여성농업인센터는 이향천이 소장을 겸임하고, 방과후 학교에 지숙현, 김현정, 어린이집에 원장 조경순, 박경희, 문봉

자, 건강사랑방에 김인중 실장, 무구행 상담사, 박무열 등이 활동가로 참여하고 있다.

- 지역생태농업센터 : 2004년에 신설한 기구로서 지역의 친환경농업 발전과 지역 귀농자 정착, 공동체 식구들의 먹거리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다. 현재는 이향천 운영위원장이 소장을 겸직하고 있다. 지역의 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을 진행할 단위이며 농장 공동체는 지역생태농업센터의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 한생명 운영위원회 : 한생명 공동체의 심의·의결기구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각 기관·기구의 대표들과 지역 귀농자, 인드라망 사무처 등 9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운영위원장은 이향천이 창립 때부터 맡고 있다.

공동체에서는 2003년 12월에 지난 5년을 돌아보고 앞날을 내다보는 '한생명 대중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기간동안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어왔는데, 공동체 전체 식구들이 모여 평가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공동체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각 기관기구들이나 식구들이 지향하는 목표나 방향이 서로 다른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그동안 양적인 사업의 확대에 편중된 경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이 자리는 지난 5년 동안의 모든 것에 대한 식구 대중들의 거침없는 평가와 소통을 이루었고 많은 것들이 조율되었으며, 무엇보다도 각 단위에 소속된 식구들간에 공동체의식이 고양되었으며, 서로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제가자 영역의 한생명에는 30대와 40대가 주를 이루며 아이들까지 37명이 식구로 생활하고 활동하고 있다. 공동체가 소유 또는 활용하고 있는 토지로는 전답 2만평과 대지 3천평, 임야 4만평이 있으며, 시설로는 건평 400평에 건물 7개 등이 있다.

## 목적과 가치

공동체는 불교적 가치와 더불어 생태·공동체·자립·지역적 가치를 추구한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생활하고 활동한다.

- ① 생명살림의 생태적 공동체 만들기 : 자연, 생태, 환경친화적인 지역발전 모색
- ②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 경쟁이 아닌 협력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
- ③ 자립적 지역공동체 만들기 : 개인의 자립과 지역의 물질, 인적자립을 추구하는 공동체
- ④ 주민자치의 지역공동체 :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지역발전을 모색

- ⑤ 통합적 지역발전모델 만들기 :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 농업, 교육, 복지를 통합한 지역발전모델 만들기
- ⑥ 순환형 공동체 만들기 : 도시와 농촌, 지역과 지역, 사찰과 지역, 인간과 자연간의 순환시스템이 살아있는 공동체 모색

공동체는 불교 사찰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지만, 인드라망의 인식처럼 종교와 종교는 대립, 갈등관계가 아니고 서로의 특성과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여긴다. 따라서 타 종교를 배척하거나 배타적인 것을 경계한다. 다만, 세계의 모든 만물이 너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드라망' 세계관 인식을 함께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에 동의하는 누구에게나 공동체는 열려있다. 실상사의 수경스님이 타종교 성직자들과 함께 새만금간척을 반대하는 삼보일배 수행을 하신 것처럼 진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그 어떤 종교와도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함께 연대하고자 한다. 따라서 종교는 공동체 가입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념인 인드라망 이념에 동의하는가 이다.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더불어 공유하고 나누기 위해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종교적 행사에는 반드시 동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또한 공동체는 생태주의에 관심이 많다. 물질과 돈으로 집약된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생태주의에 입각한 생태문명을 이룩하는 길밖에 없다. 생명에 대한 산업문명의 결론은 죽임이고 생태문명의 결론은 살림이다. 인드라망 세계관은 근본적으로 생명살림이고 우주만물의 생명은 평등하다는 기본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생태주의는 공동체의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가치 중의 하나이다.

공동체의 가치와 목적을 교육하는 과정으로는 월 1회 '나눔 화합 수행의 날'에 전체 식구들이 참여하여 공동체의 가치와 불교에 대해 공부하고 있으며, 원하는 사람들은 주 1회 실시되는 불교 교리강좌에도 참여한다. 그리고 매년 두차례에 걸쳐 공동체 활동가 수련회를 개최한다. 또한 각 기관기구별로 자체연수를 통해 활동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조직과 운영

한생명은 기본적으로 총회, 이사회 등 법인의 운영 틀을 가지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각 기관기구대표, 지역 귀농자, 지역주민 대표자 1인 등으로 구성하며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구로서 역할하고, 전체성원의 합의방식으로 의결한다. 총회, 이사회 등에서도 투표나 거수에 의한 다수결에 기대지 않고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후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의결하는 방식을 취한다.

각 기관기구들은 공동체의 기본이념에 충실할 것을 전제로 자율과 평등, 자치를 권장하며 각 단위별 정책조율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내부에 의견 대립과 갈등이 드러나는 경우, 우선은 갈등 당사간의 대화가 중요하다. 최대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얻을 때까지 시간을 가지며 수 차례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재를 요청하며, 여기서도 극복되지 않으면, 공동체 대표가 참여하여 양당사자간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조정한다. 실제로 2004년 초에 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기구 사이에 다른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재가 요청되기도 했었다. 결국 운영위원회에 다시 논의되고 절충하는 방안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한생명의 운영 조직은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이 있고, 각 기구의 집행위원회와 식구 회의가 있다. 각 기구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로는 교육위원회, 환경위원회, 공동텃밭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된다. 소모임으로는 지역교육모임, 자연의학모임, 천연염색모임, 환경농업작목반 등이 운영되고 있다.

## 경제와 생산

공동체의 기금으로 취득한 재산(건물, 토지, 시설)은 공동체 소유로 하여 법인명으로 등기를 한다. 공동체가 지향하는 것은 모든 재산의 공유체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재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또한 지역공동체를 지향하기 때문에 재산의 사유화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체에 정식 가입할 때 이전재산에 관한 어떠한 제약이나 요구는 없다. 다만 농장공동체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내는 것을 자체내 규로 규정하고 있다.

공동체의 공동 시설로는 공동체가 소유하는 교육원 시설(강의실, 숙소 2동, 사무실, 주방 및 식당, 세면장, 화장실, 창고)이 있고, 작은학교 소유의 실상사 작은학교(교무실, 교실 2동, 생활관 3동), 농장소유의 농장(생활관, 하우스 2동, 컨테이너)이 있다. 또한 실상사가 소유하고 공동체가 빌려 쓰고 있는 공동시설로는 사무국과 복지문화센터(여성농업인센터, 어린이집, 사무국, 강의실, 멀티미디어실, 휴게실, 판매장, 강당, 생태농업센터 자료실 등)가 있다.

공동체 식구들은 서로 다른 단위에서 활동하지만 함께 혹은 돌아가며 공동작업(울력)을 수행한다.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공동텃밭에서 함께 일하는 공동농사 울력은 매주 1회 2시간을 노동한다. 공동텃밭은 공동체 식구들의 먹거리로 활용된다. 매월 1번은 환경청소의 날을 정해 함께 청소를 하고 있다. 그 외에 식당에서 주 1회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체 혹은 각 기관에서 공동작업을 요청하면 함



게 참여한다.

현재 공동체의 재무관리는 각 기구별로 독립채산제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각 기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자체 관리하고 공동체적인 분배는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운영주체를 중심으로 설립하였기 때문이며, 대부분 재정적으로 안정되지 못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후에도 공동체는 가능하면 자율적인 독립채산제를 유지할 생각이며 재정 사업단을 통한 공동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각 기구의 형편을 고려하여 지원함으로써 공동체 전체 및 각 기구의 재정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생활과 교육·문화

공동체의 먹거리는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고 채소는 공동텃밭에서 얻고 있으나 주곡은 외부에서 구입하고 있다. 자급율은 50%가량 된다. 고추, 고사리, 배추, 감자 등 일부작물은 외부에 판매도 하고 있다.

공동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은 실상사와 교육원, 어린이집 등 세 곳이 있다. 식사는 각 활동기구의 성격에 따라 이루어지며 교육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채식위주에 이따금 육식을 한다. 사찰에서는 철저하게 채식을 하지만 재가자들에게 강요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모두 유기농 식재료를 이용하며 가능한 유기농 채식을 지향하려고 한다. 공동체 식구들은 공동식사를 많이 하며 개인의 취향에 따라 각자 취사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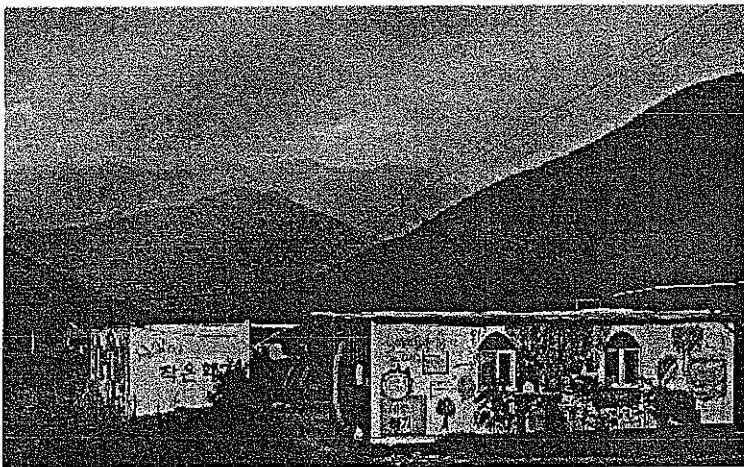
건축의 경우, 지리산 생명문화교육원의 모든 건물은 기둥이 없이 흙벽돌을 이용하여 지었다. 강의실과 사무실, 교사숙소와 숙소 2동을 모두 흙을 활용한 건축물이다. 또한 실상사와 교육원, 농장, 작은학교 모두 생태화장실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기본적으로 나무로 지었다. 생태화장실은 똥과 오줌을 분리시켜 모두 재활용 및 순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구조이다.

에너지문제에도 관심은 있지만 현재는 관련 시설이 없다. 가까운 시일에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시설들을 갖추고 이를 널리 보급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

교육의 문제도 가능하면 지역교육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어린이집과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유기농 식사, 농사를 비롯한 생태 체험 중심의 생태유아교육을 하고 있으며, 동네의 노인들과 아이들이 만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노인들이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유아교육에 관심을 갖게 하며,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도록 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는 '산내 어린이 스스로 배우터'이라는 이름처럼 학원과 같은 교육이 아니라 나름의 프로그램을 짜서 일관되

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의 공부방과 년 중 2회씩 교류를 하여 열린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교육의 측면에서는 지역뿐 아니라 생명운동차원에서 대안교육 기관을 운영함으로써 공동체 이념의 확산을 꾀하고 있다. 우선 청소년을 위한 중등과정의 대안학교로 실상사 작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년당 10~15명 안팎의 작은 인원이고, 교사도 학생 3명당 1명의 비율로 현재 11명이다. 이제 4년 되었으며 금년에 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작은학교는 대안학교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인가 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 실상사 작은학교에서 바라본 지리산 전왕봉 ●

지리산 생명문화교육원은 성인을 위한 대안학교이다. 1998년 실상사 귀농학교로 출발하여 주변 지역에 100여명이 넘는 귀농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지금은 공동체이념의 확산과 공동체의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귀농교육을 1년 과정으로 하고, 보다 전문화시켜 평생교육과 전문교육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실상사 작은학교의 성공적 운영은 대안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불교계 전체에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 전국 17개 교구본사마다 대안학교를 하나씩 운영한다는 정책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지역적으로도 자녀들을 자꾸 외지로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들에게 농촌에서도 충분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었다. 이에 따라 지역교육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대안학교가 더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지역에서 대안교

등학교를 설립하자는 요구들이 있어 공동체에서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차 후 대안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실상사에는 드나드는 사람도 많고 주변으로 귀농한 젊은이들도 많이 있어 여느 산골과는 달리 분주한 편이고, 또 그만큼 다양한 활동과 문화생활의 기회도 많다. 우선 공동체에서는 방과후학교가 주관하여 매달 한 차례씩 좋은 영화보기 행사를 마련한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의 하나로 지역주민과 공동체 식구들의 노래자랑대회로 '문화의 밤' 행사도 4년째 이어오고 있다. 설날에는 식구들이 모두 함께 모여 공동세배를 하고 웃놀이 대회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이외에 부정기적으로 외부 공연팀(국악인, 가수, 문화공연패 등)이 오거나 초청하여 공연을 펼치기도 한다.

지역 차원의 큰 축제는 우선 정월대보름 행사가 있다. 인근 백일리 마을 주민과 함께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고 달집태우기, 풍물굿으로 지신밟기 등을 하여 흥겨운 한해를 시작한다. 이 행사에는 지역 주민뿐 아니라 외지인, 관광객들도 많이 참여한다. 또한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도 사찰의 행사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축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을에는 추수가 끝난 후 인드라망 전체 차원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축제한마당을 벌려 서로 공동체의식을 나누고 있다.

## 외부와 의 관계

공동체의 목표가 바람직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인 만큼 주요한 사업들은 지역사회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진행된다.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여기에는 지리산과 연계된 지역 생태관광, 농촌체험이나 전 지역을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려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특용작물(오미자, 복분자, 고사리, 산나물, 약초 등)의 개발이나 지역특산물(목기, 한봉 등)의 고품질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문화적 교류로는 지역청년들과 함께 산내면족구대회를 개최하고, 민민의 날 행사나 체육대회에 공동체 식구들이 공동으로 참가하며, 지역주민들과 풍물패를 구성하는 활동 등이 있다.

인적 관계에 있어서는 초창기에 외지인이라는 인식으로 이질적인 어색함이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상당히 개선된 상황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주로 각 마을에 분산 거주하면서 지역주민으로 살아가려는 노력과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지역자율방범대에도 공동체 식구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와 연대감을 갖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공동체사업과 지역사업의 공동주체로 참여토록 노력

하고 있으며 점차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운동을 펼치는 공동체로서 중요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활발한 활동을 한다. 그 방식은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사회의 보편적 시스템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생명, 환경, 생태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생명운동 단체로서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여 참여하고 있다. 중요한 현안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 혹은 식구 전체회의에서 대응방식을 논의한 후 결정하고 있으며 논의결과는 반드시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체가 관계하고 교류하는 외부는 우선, 인드라마생명공동체가 있다. 한생명은 인드라마생명공동체의 지역조직으로 전국 회원들과는 인드라마를 통해서 만난다. 전국의 회원들이 1년에 한차례 정도는 실상사에서 한생명의 프로그램(생태체험 등)을 참여토록 운용하고 있다. 불교생협은 인드라마생명공동체에 소속된 기관으로 한생명 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생협의 소비자 회원들이 실상사 농장과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고 있으며, 이들이 유기농사체험과 생태교육을 주로 이곳에서 하고 있다.

또한 실상사 작은학교 학부모들은 수시로 학교 교육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이곳에서의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정기간행물 및 소식지로는 격월간 인드라마, 월간 한생명 소식지 등이 회원들에게 제공되며 각 기관기구의 자체 소식지도 발간되고 있다.

## 과제와 전망

현재 공동체가 당면한 중점 과제는 식구들이 공동체적 관계와 삶을 이루고 또한 생태적 삶을 구현하는 것이다. 활동의 기반인 재정자립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에 터하여 공동체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확산하는 것이다.

현재 공동체 식구들 간의 공동체적 관계는 자아성찰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식구들간의 대화의 장을 많이 마련하는 것으로 해결해가고 있다. 생태적 삶의 구현은 환경위원회를 통한 교육과 사례 교류로 진행하고 있으며, 재정사업단을 운영하여 경제적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공동체 활동에 늘 지역주민이 참여토록 하고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지니도록 애쓰고 있다.

중장기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도 많이 있다. 공동체 내부 관련해서는 규정을 통일하고 새로 들어오거나 오래된 식구들의 교육과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야 한다. 지속되는 과제로 의사소통구조를 원활하게 하는 것은 꾸준히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체가 하나씩 감당해 가야할 지역 사업도 많이 있다. 여기에는 지역을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다. 교육(대안고등학교 설립, 교육원을 명상수련센터, 자연의학센터를 포함한 종합교육단지로 조성), 문화(청소년 문화센터 및 지역문화회관 건립, 도서관 건립, 지역신문 발간), 복지(노인복지센터 건립), 그리고 근간이 되는 농업(생태농업연구소 건립, 산지유통센터 건립, 농산물 가공센터 건립, 유기농산물판매장건립 생협 혹은 건강생협 설립)분야에서도 하나하나씩 준비하고 실천할 일들이 많이 있다.

### 방문이나 참여는?

공동체 성원으로 들어오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 식구가 된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 생활하며 지역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새로운 식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각 기구에서 필요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기구에서 결정권을 가지며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수습 식구 3개월 후에 정식구로 인정된다. 작은학교는 6개월 간의 예비식구 생활 후에 정식구로 들어가고, 농장의 경우에는 3개월의 지원자과정과 9개월의 예비식구과정으로 1년 농사를 지은 후 정식구로 입회한다.

식구는 공동체에서 정한 교육, 수련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고, 내규로 정한 활동에는 반드시 참여토록 한다. 또한 식구들은 매월 일정한 액수의 생활 지원금과 복지혜택을 받게 된다.

방문·체험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생활이나 농사, 생태체험 등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사전에 연락하여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공동체에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공동체의 기본 정신에 대한 강의와 지역공동체운동으로 펼쳐고 있는 일에 대한 소개, 그리고 각 기구 단위(실상사, 실상사 작은학교, 실상사 농장, 지역복지문화센터, 지리산생명문화교육원)에 대한 안내가 가능하다. 또한 생태농업체험, 생명문화학교(가족단위의 3박 4일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다. 비용은 숙박비는 1인당 6천원, 식사비는 1인당 3천원 범위 내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중등회**

### ☞ '실상사 사부대중 공동체'를 소개한 자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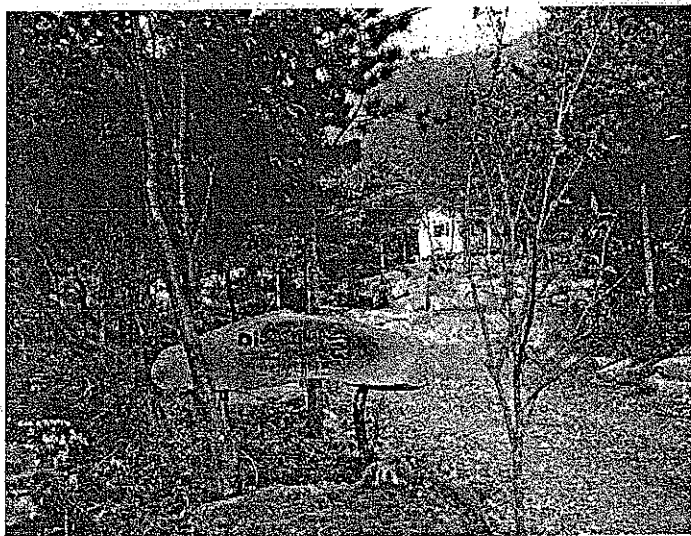
- 「지역을 짚는 구슬그물 실상들 지역공동체를 찾아서」, 이근행, 《월간 말》 제201호, 2003년 3월호
- 「실상사, 하느님과 부처님이 함께 웃는 곳」, 《공동선》(comngood.co.kr) 제52호 특집, 2003년 9·10월호

주민자치로 열어나가는 생태마을

## 안솔기 마을

집터를 제외한 토지를 공동 소유하는 느슨한 형태의 주거 중심 마을공동체이다. 초기에 마을 조성을 간디학교에서 계획하고 추진하여 교직원과 학부모가 많고, 여전히 간디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생태마을이라는 이름을 걸고 입주자 모집과 단지 조성 단계로부터 주민회의를 통해 마을을 만들어왔다.

☞ 계획공동체 · 생태마을



● 안솔기 마을의 들머리 ●

• 주 소 ; 경남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산 17, 18번지 (666-963)

• 연락처 ; 최세현

cafe.daum.net/gandhifarm

himnanum@hanmail.net

## 역사와 현재

경남 산청군 신안면 둔철산 자락에 자리잡은 간디학교의 배후 마을로 생태마을을 목표로 조성하였다. 간디학교(1997년 설립)가 자리잡으며 교사, 학부모들을 위한 가까운 마을이 필요하였고, 자연과 조화된 삶의 양식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모델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 마침 학교 기숙사 터를 구하며 마을 부지를 구할 기회가 생겼다. 간디학교와 기숙사 중간 위치에 생태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녹색학원 '생태마을 사업단'이 주축이 되어 초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1999년 10월, 간디학교 설립자인 양희규 선생은 '간디 생태마을'을 구상하고 마을에 들어올 주민들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간디학교 소식지에 실었다. 그에 따르면, 가구당 2,000만원 씩 18가구에 택지를 분양하며, 분양 총 수입금인 3억 6천만 원 중 1억 7천만 원은 땅값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억 9천만 원은 생태마을 조성공사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 사업은 간디학교가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이며, 1억 9천만 원은 전기, 물, 도로 등 가장 시급한 공사에 사용하고 그 자세한 범위를 미리 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자연과 조화되는 삶을 추구하고, 간디학교와 연계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동의하는 간디학교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전국에서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안솔기 마을'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부지가 산골로 농토가 부족하고,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등 계약 후 탈퇴하는 경우도 있었다.

2000년 들어 사업 주체로 녹색학원 '생태마을 사업단'을 설립하고, 4월에 첫 주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생태마을 계획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기본계획 작성은 녹색연합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8월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임야를 개간하고 마을 시설의 기초를 닦는 토목공사가 시작되었다. 5월에는 분양필지 규모를 당초 계획 400평에서 200평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주민 간담회에서 결정하였다. 경사가 심한 토지의 지형조건상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매달 진행된 주민모임에서는 냉난방 에너지와 자연정화처리, 생태적인 주택, 마을 기반시설 등을 공부하는 워크숍을 열기도 하고, 함께 살아갈 마을에서 공동 생활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나누기도 했다. 7월 모임에서는 건축의 큰 원칙으로 콘크리트 사용을 자제하고 생태적 자재를 사용하며 수세식 화장실은 설치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루고, '안솔기 마을 자치 규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11월 들어서 입주할 주민들의 건축공사가 시작되었다. 2001년 2월 최세현씨 가족이 처음으로 이사를 들어왔다. 주민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은 활기를 띠어갔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이면 모여 새로운 마을 만들기에 열중해온 주민회의는

이 해 8월 마을 사업의 주체를 녹색학원에서 주민회의로 이관하고, 주민 공동대표 3명을 선출하였다. 2004년 8월 현재, 전체 18가구가 들어서기로 한 마을에는 15가구가 입주를 하였고, 나머지 주택들은 건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마을 전체 부지는 45,000평으로 그 중 9,000평을 마을 부지로 개발하였다. 가구 당 건축 대지 200평은 개별적으로 등기를 하고 나머지 땅은 주민들 모두의 공동 명의로 등기하였다.

현재 15가구의 주민들은 직업도 다양하여 간디학교 관계자 등 교육자, 공무원, 회사원도 있고, 사회운동가와 유정란을 생산하는 농부도 있으며, 한의사, 약사 등 자영업에 종사하기도 한다. 모두 44명의 주민들 가운데에는 30~40대(21명)가 주를 이루며, 이들의 자녀들(10대 이하 19명)과 60대 이상(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솔기를 공동체적인 마을로 만들어 온 것은 '주민 모임'이다. 입주예정자들의 간담회로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마을 조성 초기부터 매일 거르지 않고 지속해온 주민들간 소통구조이며 총회에 다름 아닌 '주민 모임'이 마을 주민들 사이에 공동체성의 싹을 가꾸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주민들은 '주민 모임'을 통해 서로의 다양성을 확인하기도 하고 마을 전체의 공동체성도 키우고 있다.

## 목적과 가치

안솔기 마을은 생산을 함께 하거나 종교적 믿음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아닌 넓은 의미의 마을 공동체를 지향하는 아주 느슨한 형태의 공동체이다. 공동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 부지를 공동으로 등기하였다는 점과 마을 일을 논의하는 주민 모임을 가지며, 함께 지켜나갈 가치를 '마을 자치 규약'에 담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마을이 생태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표방하고는 있으나 생태를 보는 관점의 편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야마기시 양계법으로 유정란을 생산하고 있는 마을 공동대표 최세현씨는 "모든 면에서 일치하려면 너무 힘들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함께 지켜야 할 것은 최소한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알아서 하자는 겁니다"라며 주민 모임의 분위기를 알려준다. 그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개인 필지를 400평에서 200평으로 줄이는 결단도 내렸고, 생태건축에 대한 원칙도 합의하였다.

'안솔기 마을 자치 규약'에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 공공용지의 범위와 사용 및 관리, 건축과 공동생활의 가이드라인, 주민대표 및 마을회의 구성, 마을회계 등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합성세제 등 오염 우려가 있는 물질의 사용이나 대기오염 유발 물질의 소각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텃밭에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할 경우 마을에서 사



용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등 주거생활 전반에 대한 원칙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sup>1)</sup>

합의 가능한 선을 지키고 사안에 따라 조율해가며, 개별 생활은 자유롭게 보장하는 방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는 '간디 생태마을'로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주민들 스스로 그 이름이 부담스러워 '안솔기 마을'로 바꾸었지만, 안솔기는 서로 다름을 확인하는데서 나아가 그 다름을 인정하고 여럿이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서로의 발걸음을 살펴주고 있다. '안솔기'란 이름은 마을이 행정구역상 '외송리(바깥솔기)'이지만 간디학교 아래 작은 부락 이름이 '내송(안솔기)'인 것에 기인한다.

### 조직과 운영

매월 한 차례 갖는 주민 모임에서 함께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논의한다. 마을을 대표하는 주민 공동대표 3명이 있으며 매년 연말 주민 모임에서 선출한다. 마을과 관련된 의사 결정은 주민 모임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있다. 일상생활 이외에 뚜렷한 소모임 활동은 없다.

주민 모임에서 오랫동안 논의된 사안으로 마을 안 도로 포장 문제가 있다. 경사가 가파른데다가 비가 오면 진창이 되고 작은 돌들은 쓸려 내렸다.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는 것은 땅도 볼도 죽이는 일이기때문에, 큰돌들을 박아 놓았는데 겨울에 표면이 살짝 얼면 미끄러워 다닐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주위에 알아보기도 했지만 이렇다할 방법을 찾지 못해 오랫동안 마을의 고민거리였다. 현실적으로 포장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선부른 결정을 하기보다는 좋은 방법을 찾는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대체로 동의하였다. 3년 동안 논란을 겪다 2003년 겨울을 앞두고 안전문제를 미룰 수 없어 가파른 길 일부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다. 결과는 현실과의 타협이었지만 고민의 과정은 주민들에게 생태적 삶에 대한 고민의 기회가 되었다.

### 경제와 생산

마을 공유지 외에 생산활동은 개별적이다. 전체 마을 부지 중 개별 필지와 건물은 개인 소유, 도로나 주차장, 텃밭, 운동장 등 공유지는 마을 공동 소유이다. 마을 공동 건물은 마을회관을 계획하였으나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마을 공동 사업으로 경육고(백봉령·지황·벌꿀·인삼을 가마솥에 넣고 나흘 간 고아 만든 건강식품)를 생산해서 연간 2천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 사업은 주민 공동대표이며 부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김명철씨의 제안으로 이루어졌

1) '안솔기 마을 자치 규약'은 생태공동체운동센터 웹사이트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며 판매도 맡아하고 있다. 이익금은 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마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수익 일부를 간디학교를 후원하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한 번에 4일간 진행되는 작업을 한 달에 2번 정도 진행하며 주민 가운데 5~6 가정이 참여하고 있다. 12시간 동안 불을 때는 작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인건비를 책정하여 부업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 경옥고를 포장하고 있는 주민들 ●

### 생활과 교육·문화

산지를 개발한 마을 입지로 주변에 농지가 많지 않아 각자 집 마당과 공동 텃밭에서 기른 채소류 정도만 자급자족하고 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함께 식사를 하며, 마을 공동기금으로 함께 의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

마을의 초등학생들은 윗마을의 둔철분교가 폐교되면서 가까운 면소재지인 원지의 초등학교로 통학버스로 다닌다. 중고등학생들은 대부분 대안학교인 간디학교에 다니고 있다. 기숙학교이지만 안솔기에 사는 학생들은 집에서 다닌다. 간디학교는 마을의 문화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진행하는 각종 공연, 문화의 밤 행사, 물레축제 등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생태마을로 기획된 만큼 건축과 물 관리 등도 초기부터 고민을 했으나 현실적으로 검증된 적용 가능한 기술이 많지 않은데다 주민들의 합의를 이루는데 있어서도 쉽지 않았다. 마을 진입로의 공동주차장, 투수성 포장, 비옴으로 실개천 및 인공연못을 조성하여 생활하수의 자연정화와 동식물 서식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초기에 제안되긴 했으나 인공연못의 하수정화 능력이 검증되지 못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건축에 있어서도 큰 틀의 합의는 이루었으나 개별주택의 건축양식은 자유롭게 선택하기로 하여 저렴한 목조주택에서부터 통나무주택, 흙벽돌집, 심벽집, 전통한옥 등 다양한 건축양식이 적용되었다.

수세식 화장실을 두지 않기로 했으나 도시생활에 익숙하고 거름이 많이 필요치 않은 생활이라 화장실은 대부분 실내에 포세식을 적용하였다. 유기양분을 하는 최세현 씨는 처음부터 집 밖에 생태뒹간을 지어 부엽토로 자연분해·발효하여 활용하였다. 이를 보고 두 집에서 생태뒹간을 설치하였다. 한의원 집에는 근래에 태양열을 이용

한 온수·난방 겸용 설비를 갖추었다.

## 외부와의 관계

마을 성격상 대외적 교류는 많지 않다. 주민의 대부분이 인근 진주, 원지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으며 농사 중심의 마을이 아니므로 가까운 산청이나 진주로 시장을 보러 나가며 이들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최세현씨의 경우 이 마을에 들어오면서 처음 유기양계를 시작하고 그 판로로 진주의 직거래 회원을 확보하여 일주일에 두 번 유정란 배달을 다니고 있다. 그는 숲해설가 교육도 받아 진주의 유정란 소비가정 회원들을 대상으로 마을 인근 숲에서 생태교실을 펼치기도 한다. 진주환경연합 회원 활동에도 열심인 그는 간디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숲 체험교실도 이끌고 있다.

안솔기의 마을 만들기는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시도이니 만큼 생태마을, 건축, 교육 등의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보여왔다. 그러나 평범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제대로 자리잡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관심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적절한 개방성을 유지해 오던 중, 지난해 외부의 과도한 관심 때문에 마을은 크게 흥역을 치렀다. 색다른 삶을 모색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자 한 방송사에서 마을 모습과 주민들 생활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내보냈다. 방송의 힘을 확인이라도 하듯 마을에는 방문하고 싶다는, 어떻게 하면 여기 와서 살 수 있냐는 전화와 사람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고, 심지어 사전 연락도 없이 무작정 찾아와 이집 저집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번잡스러움과 무례함으로 조용한 전원의 일상이 휘방 받고 사생활마저 침해당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주민들은 마을 입구 안내판을 내렸다. 주민들 사이에는 주위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내걸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 마저 지나가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지 모른다는 우려로 그냥 그대로 번잡스럽고 불쾌한 시간들을 보냈다. 방문자들이 많거나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마을이나 공동체는 따로 역할을 두거나 방문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하지만 안솔기는 아직 그런 생각이나 준비가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를 계기로 안솔기는 운영하던 인터넷 카페마저 닫을 수밖에 없었고, 외부의 답사와 취재 등에 조심스런 분위기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모습으로 안솔기 마을은 안팎의 영향과 시선을 받으며 조금씩 자리잡아가고 있다.

## 과제와 전망

다양한 배경과 생활, 생각을 지닌 주민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어 주민들간의 공동

체성을 높여가는 것이 과제로 여겨진다. 공동생산의 기반을 만드는 것은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 근래 들어 건축일을 하는 김준희씨를 중심으로 주민 4명이 윗마을에 '둔철 교육생태마을'을 건설하는데 건축일을 함께 하고 있다. 경옥고 만드는 일과 함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들이 많아지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을 전체적인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마을을 조성하면서 훼손된 자연에 대한 복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택 건축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자연적인 산림의 복원도 진행되고 있다.

안솔기 마을이 들어선 이후 주변에 외지인들이 집을 짓고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황폐화하는 산촌 마을이 간디학교와 더불어 활기차게 변모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마을 농업 등이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마을 앞을 가로질러 둔철산에 이르는 포장된 산길이 2차선으로 확장될 계획이 확정되고, 둔철산 분지에는 생태공원이 조성될 계획이 세워지는 등 마을 주변의 변화가 안솔기 마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조심스런 우려도 있다.

### 방문이나 참여는

기존의 마을 주민 중 이사를 할 경우 그 집을 구입해서 새로 입주할 수 있다. 집을 팔고 이사가는 경우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새 입주민에 대한 자격 심사 등의 절차는 없으나 주민 자치 규약만큼은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세우고 있다. 입주 이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두 집의 주인이 바뀌었다.

마을 방문 프로그램은 따로 없다. 양계를 하는 최세현씨가 진주의 '소비자' 회원 가족을 대상으로 생산지 답사나 숲 체험교실의 해설가로 마을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세현씨가 운영하는 '간디농장' 카페(<http://cafe.daum.net/gandhifarm>)를 활용하면 된다.

마을 공동 생산물인 '경옥고'에 대해서는 마을 한의원(055-973-6103)으로 연락하면 문의할 수 있다. **▶중독해**

### ☞ '안솔기 마을'을 소개한 자료들

『경남 산청군 신안면 '간디생태마을' 기본계획』, 녹색연합, 2000. 8.

『주민참여로 대안적 삶을 만드는 안솔기마을』, 이재준, 《월간 말》 제203호, 2003년 5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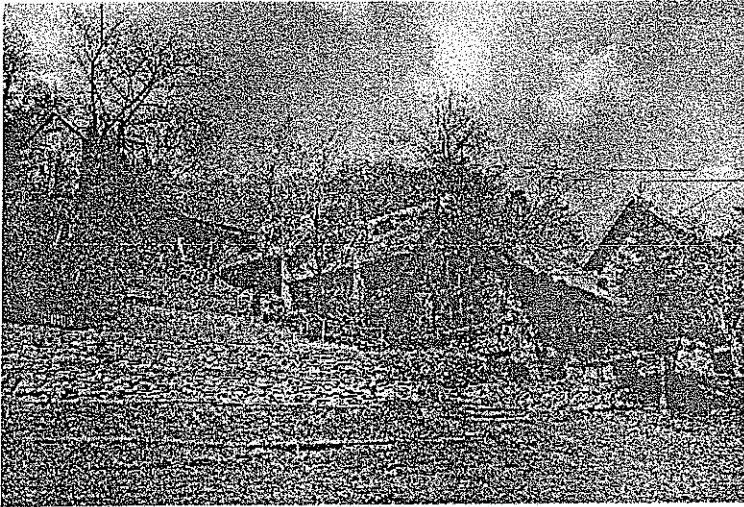
『생태마을 - 안솔기』, KBS 1TV <현장르포 제3지대>, 2003. 7. 8

노동하는 것이 기도요, 기도하는 것이 노동이다

## 예수원

대천덕 신부가 설립한 예수원은 '신학의 실험실'을 지향한다. 실험실은 이론을 검증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실인지 이론일 뿐인지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관념적인 신이 아니라 그 자녀들과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길이길 원하는 이 곳은 초교파적인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 영성·수련·기독교 공동체 (사단법인)



● 예수원 공동체 ●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삼수동 산 7번지 (235-270)
- 연락처 ; 033-552-0662
- www.jabbey.org                      • email ; jabbey@jabbey.org
- 공동체 대표 ; 재인 아쳐토리 (현재인 사모)
- 연락 담당자 ; 김인선 (테레사)

## 역사와 현재

예수원은 모든 교파에 열려있는 기독교 수도공동체이다. 설립자인 미국인 대천덕(Reuben Archer Torrey III. 1918~2002) 성공회 신부는 성공회 대학교의 전신인 성미가엘 신학원의 전후 재건을 위해 1957년 한국에 왔다. “교회는 가르치는 곳(敎會)이 아니라 교제하는 곳(交會)이고, 신학은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 개인과 기독교 공동체와의 관계, 기독교 공동체와 사회의 관계를 실험하는 실험실의 환경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그는 학생들과 노동과 강의를 함께 하면서 성경 내용의 ‘실험’을 시도했지만 당시 신학교의 현실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1965년 결국 대 신부는 가족,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한국인 12명과 함께 태백(당시 황지)의 산골 하사미의 외나무 끝에 천막을 치고 살면서 예수원을 시작했다. 그해 11월 지금의 시온(Zion) 건물의 모태가 되는 두 개의 온돌방을 직접 지은 그들은 한국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공헌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일에 중점을 두고 공동체 생활을 해나갔다.

1967년에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받아들여 재활원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1971년부터는 태백시내와 예수원 사이에 있는 피재에 삼수령 목장을 개척하여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처음 자리잡을 당시 16명에 불과했던 인원은 1988년에는 7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2002년 여름 예수원의 설립자이자 영적 지도자인 대천덕 신부가 84세를 일기로 소천(翫天)한 이후 예수원에 대해 걱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원은 흔들림 없이 이전의 생활과 실험을 계속해 오고 있다. 지금은 10가구 65명의 회원들이 모두를 평등하게 형제, 자매로 부르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 예수원은 삼수령 목장 땅에서 청소년과 젊은 세대를 교육하는 ‘삼수령 넷째강’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4년 전부터 시작한 삼수령 연수원 사업에 더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해 추진하고 있는 이 계획은 남북한 통일 후를 준비하는 것이다. 통일 이후 대안적인 방법으로 북한 사회를 재건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일할 사람들을 교육하는 센터를 만들 예정이다. 농사, 건축, 목축 등 실질적인 기술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하려는 것이며, 이 일은 지금의 예수원처럼 공동체 생활과 노동이 기초가 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삼수령은 이 곳에서 한강, 낙동강, 오십천이 시작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거기에 넷째 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북한 사회에 삼수령의 네번째 강물이 살아 흐르기를 바라는 희망이 담겨져 있다.

현재 예수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12필지 78,608㎡ 규모이고, 시설로는 8개 동(숙소 기타시설 포함)의 건물이 있다.

## 목적과 가치, 교육

예수원이 처음처럼 간직하고 있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 첫째 목적은 노동과 기도의 삶을 영위하면서 기도의 실제적인 능력 여부를 시험해 보는 실험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신자생활의 세 가지 실험'을 위한 것으로, 세 가지 실험이란 ① 하나님과 개인의 인격적인 관계, ②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의 신자 상호간의 관계, ③ 기독교 공동체와 비기독교적 사회와의 관계를 실험하고 검증하며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 실험은 '기도'와 '코이노니아'와 '선교'의 세 영역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다.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은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해지고 있는 것으로, 세 가지 실험에서 파생되어지는 사역들 즉, 훈련소, 연구소, 파송소, 보급소, 발력소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예수원의 교육은 몇 단계로 이루어진다.

### ▶ 지원제도

예수원에서는 매년 봄(4~6월)과 가을(9~12월) 두 차례, 국내외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3개월 간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정하며, 3개월 동안 예수원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지원생을 위한 강의나 세미나에 참석한다. 참가비는 없으며, 지원 프로그램 기간동안 지원생은 집안의 관혼상제 외에는 외출은 금한다.

### ▶ 수련제도

3개월 지원 수료자를 대상으로 1년 간의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상자의 선정은 지원제도와 같고, 보다 적극적으로 예수원 일과에 동참하게 된다. 1년 수련자의 교육목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제자화'이며, 1년 수련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2년 수련자의 교육목표는 '능력있는 공동체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 ▶ 성령세미나

예수원에서는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성령세미나' 행사가 열린다. 성령세미나 기간동안 참석자들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영원한 생명을 묵상하며, 성령 하나님의 각종 은사를 사모하고 안수기도를 통하여 실제적인 은혜를 받게 된다. 성령세미나는 주제별 강의와 소그룹 모임, 죄 고백과 안수기도 등으로 구성되며, 보통 1주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 조직과 운영

예수원은 의회(의장, 형제대표, 독신자매 대표, 기혼자매 대표 등 3~4인)와 회원모임(원내의 모든 회원)으로 이루어진다. 매월 회원모임에서는 재정 지출 원칙이나 인원구성(수련, 회원 결정) 등을 안건으로 삼아, 주제토론을 거쳐 출석의원 2/3의 결정 또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토록 하고(그날이 지나기 전에 화해해야 하는 성경의 원칙) 어려울 경우 → 각 책임자들 중재 → 의회 중재 → 목회, 장로 모임의 중재 → 회원모임의 중재 등의 과정을 거친다.

운영 조직으로는 손님부(예수원 방문 안내 및 예약 등 손님사역 전담), 사무부(예수원 행정 등), 교육부(지원생 및 수련생 교육 프로그램 주관, 신앙상담 등), 목각부(예수원 십자가목걸이, 기도일자 제작), 목장부(예수원 피재 분수령목장 운영 및 관리), 선교부(문맹자세미나 주관 및 선교 홍보 등), 운행부(공무원관련 차량 운행), 출판부(대전덕 신부 저서 기획 출판 및 '더불어 함께' 제작, 배포 등), 판매부(예수원 도서 및 비도서 상품 판매, Tea-room 운영), 원예부(예수원 원내 화단 조성 및 관리), 시설부(예수원 원내 및 원외 시설 보수), 농장부(예수원 식단에 필요한 주부식 재배) 등이 있고, 기타 꽃방, 수방, 환경 등의 조직이 있다.

소모임은 각종 세미나(회원 세미나, 수련자 모임, 지원자 모임)와 중보기도 모임이 있다. 중보기도(仲保祈禱, bidding prayer) 모임은 전체 교회나 국가 또는 남을 위한 기도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겸손한 마음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을 알아서 그들을 위해서 하느님에게 구하는 것이다.

## 경제와 생산

재산은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공동 소유의 시설로는 숙소와 부대시설이 있다. 정회원으로 입회할 때에는 하나님에게 재산을 바친 후에 공동체에 들어온다. 이는 재물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지하여 살도록 하는 것인데, 예수원에 가지고 들어와 기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다른 단체나 공동체에 기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수원에서 정회원인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 TV, 냉장고, 세탁기 등 생필품 정도이다.

사업은 자체 제작한 십자가 목걸이, 기도 일자, 꽃카드, 도서 판매 등을 통해 50~60% 정도의 자립을 하고 있다. 노동은 8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하고, 이에 따른 수익은 공동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나눈다.



## 생활과 교육·문화

예수원의 기본일과는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라는 성(聖)베네딕 수사장의 가르침에 따라, 하루 세 차례의 예배와 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방문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에 참석하며, 노동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업안내를 받고 공동체의 다양한 노동에 참여할 수 있다.

하루 세 차례 삼중(三鐘)도 예수원의 중요한 일과이다. 매일 아침 6시, 정오 12시, 저녁 6시에 삼중이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침묵으로 기도를 드린다. 이외에도 밤 9시부터 10시까지 소침묵 시간에는 작은 목소리로 필요한 말만 하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예배 전까지 대침묵 시간에는 온전한 침묵 가운데 안식하거나 하나님과만 대화하는 시간이다. 점심식사 직후인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개인대도를 위한 침묵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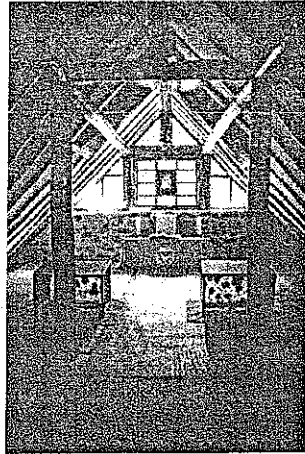
식사는 방문자를 포함하여 공동 식사를 원칙으로 한다. 예수원 가족들은 아침 한 끼를 가정에서 한다. 공동체에서는 텃밭 정도를 가꾸어 채소의 일부를 얻고 있다.

하루 세 차례의 예배는 하루 24시간의 십일조에 해당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아침과 점심은 식사 전에, 저녁예배는 식사 후에 드린다.

아침예배(조도)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6~7시에 드리며 성경 말씀을 1장 읽고 묵상한 후 은혜받고 깨달은 말씀을 자유롭게 나눈다.

점심예배(대도)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정오부터 30분간 드리며, 예수원 대도록에 실린 국내외 기도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드린다. 월별로 정리되어 홈페이지에 소개되는 중보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원을 방문한 사람의 건강이나 단체의 사역이 이뤄지길 소망하는 내용에서부터 국가 정책이 바로서기를 기원하거나 전세계 각지의 재난이나 전쟁, 억압이 해소되기를 기원하는 내용까지 다양하다.

저녁예배(만도)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하며, 매일 다른 형태의 예배를 드린다. 월요일은 점심예배와 구분되는 중보기도, 화요일은 찬양예배, 수요일은 대만도 혹은 강의, 목요일은 은사예배(몸 섬김의 밤), 금요일은 구역예배, 토요일은 감사예배가 있고, 주일 저녁에는 전체 가족모임을 갖거나, 영화를 감상하거나, 개인적인 안식을 갖는다.



● 예수원 기도실 ●

아이들 교육은 4살까지 어머니가 돌보고 이 시기에 어머니는 공동노동을 하지 않는다. 취학 전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돌보며, 초등학교부터는 외부의 학교에 다닌다.

## 외부와의 관계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설립초기부터 예수원을 건립하는 과정에 마을주민들에게 일거리 제공하였다. 또한 암소 1마리를 사서 가정에 양도하고 새끼를 낳으면 다른 가정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마을 자립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이 사업은 이후 태백육우 협회로 성장하였다.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중립의 태도를 견지한다. 다만, 토지문제에 대해서는 '토지 공개념' 실현을 위해 설립 초기부터 대천덕 신부가 강조하였고, '성경적 토지 정의를 위한 모임'을 결성하여 지대조세제 입법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모색해 왔다.

외부의 단체와는 성토모(성경적 토지 정의를 위한 모임), 창조과학회, 한동대, 북한 학교 등과 교류를 하고 있다.

회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더불어 함께'(부정기 간행물), '뉴스레터'(월간 소식지) 등을 발간하고 있다.

## 과제와 전망

예수원에서 태동된 통일 후 북한 재건을 위한 도움을 주고자하는 '내빈재강 프로젝트'를 예수원 목장에서 준비하고 있다.

## 방문이나 참여는?

예수원에 입회하려면 최초 방문 (2박 3일, 누구나) → 3개월 지원훈련 → 1년 수련 → 2년 수련 → 회원의 과정을 거친다. 회원 승인은 회원 모임에서 참석 인원 2/3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방문·체험은 방문자를 전담하는 '손님부'에 전화로 예약하고 오면 된다. 누구라도 2박 3일 방문이 가능하며, 주말에는 방문자를 받지 않는다. 1년 방문객이 만여 명에 이르고 공동체 가족들의 휴식과 안식을 위한 것이다. 숙식경비는 따로 없으며 자발적인 헌금을 할 수 있다. 방문자들은 예수원의 일상(노동)에 따라 생활한다. **공동체**

## 『예수원』을 소개한 자료들

「나만의 소중함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원충연, 《월간 말》 제204호, 2003년 6월호

『대천덕 자서전 - 개척자의 길』, 대천덕 지음, 양혜원 옮김, 홍성사, 1998.

『예수원 이야기』, 현재인, 홍성사, 1998.

『대천덕 신부가 말하는 토지와 경제정의』, 대천덕 지음, 전강수 외 옮김, 홍성사, 2003.

맑은 마을 · 좋은 벗 · 깨끗한 땅

## 정토회

정토회는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일에 참여함으로써 사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복과 자유가 실현된다'는 원리에 따라 일하고 수행한다. 이렇게 일과 수행이 하나된 삶이 새로운 사회의 희망이라 생각하고 실천하는 공동체이다. 정토회의 활발한 사회실천 활동은 국내 9개 지역과 해외 5개 지역 대중들의 활동과 수행의 힘에 근거하고 있다.

☞ 계획공동체 · 영성 · 수련공동체 · 교육공동체 (재단법인)



● 정토회 활동가들 ●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137-173)
- 연락처 ; 02-587-8990
- www.jungto.org
- email ; jungto@jungto.org
- 공동체 대표 ; 유수스님
- 연락 담당자 ; 장도연 기획실장

## 역사와 현재

개인의 깨달음과 사회의 변화를 함께 추구해가고 있는 정토회는 1988년 서울 홍제동에 '정토포교원'을 열면서 시작되었다. 같은 해에 설립한 '한국불교사회교육원'은 불교사상과 수행의 사회화, 차별 없는 사회, 전쟁이 없는 세계를 위한 비전을 모색하고 실천하였으며, 이후 1991년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의 대안을 불교에서 찾아가기 위해 '(사)한국불교환경교육원'으로 전환하였다. 불교환경교육원은 자연과 조화되는 가치관과 생활양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운동, 대안문명과 모델 연구, 공동체실험 활동들을 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1,000여명 이상이 거처간 생태학교와 생명운동아카데미는 이러한 사상의 전파에 기여해왔고, 체험학습 프로그램인 생태선재기행과 땅살림 생태교육장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1991년에는 민족과 종교를 초월한 나눔운동으로 국제 기아·질병·문맹퇴치를 실천하는 'JTS(Join Together Society)'를 설립하였다. 이는 인간이면 누구나 원하는 최소한의 필요라 할 배고픔과 아픔, 문맹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이다. JTS는 1993년에 인도 불가촉천민촌 동계스리 마을에 학교를 세운 이래 주변 마을에서 무료진료와 지역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중국지부를 거점으로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에 탁아소와 유치원 어린이 결연사업과 구호사업도 활발하며, 9·11이후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에도 활동가를 파견하여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1996년에는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되어 북한동포돕기에 나서기로 하고 정토회가 중심이 되어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를 결성하여 긴급 구호활동을 펼쳤다. 이후 정토회는 더욱 집중적이고 실질적인 북한동포돕기운동과 평화운동을 하기 위해 국제평화·인권·난민지원센터 '(사)좋은벗들'로 전환하여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평화와 국제이해 활동을 인정받아 지금은 지도법사로 역할하는 법륜스님이 2002년도에 권위있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99년 서초동에 '정토회관'이 건립되면서 정토회 산하 단체들이 모두 정토회관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다. 정토회관은 여러 활동단위들 간에 긴밀한 소통이 가능하게 했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정토회 사업의 최종 목표인 '대중주체'의 정토회운동도 정토회관이 서면서 비로소 힘을 받기 시작하여 회관에서는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신도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게 되어 정토회가 질적, 양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토회는 가족 중심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서울본부(정토회관)에는 현재 45명 가량의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고, 문경 정토회수련원에는 20여명의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 외 아프가니스탄에 3명, 인도에 7명의 구성원이 파

견되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 공동체 성원들은 대부분 독신이다. 결혼해서 함께 공동체 내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3가족) 이런 경우도 공동체내에서 가족끼리 따로 독립하여 살지는 않는다. 정토회의 취지에 동의해 개인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정토회는 서울 서초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 대지 2,145평 규모의 정토회관이 있으며, 경북 문경에는 임야를 포함하여 35만평 정도의 토지에 정토수련원이 있다. 전국에는 9개 지역에 정토법당(서울, 부산 2곳, 대구, 대전, 청주, 마산, 울산, 광주, 정읍, 대부분 임대)이 있고, 지리산과 경남 울주 탐곡에도 작은 수련장이 있다. 해외에는 미국 LA에 260에이커 규모의 정토수련원이 있으며, 다른 해외 8개 지역에는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정토법당이 있다.

## 목적과 가치

개인은 그 마음을 잘 다스려 행복한 인생을 살고(맑은 마음), 사람과 사람관계는 경쟁과 투쟁의 적대관계가 아니라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벗의 관계임을 알아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며(좋은 벗), 자연은 인간이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삶의 터전임을 알아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여(깨끗한 땅)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살기 좋은 세상 “정토”로 만들어 가자는 것이 바로 정토회의 목적이다.

정토회는 사회운동만을 하는 단체도 아니고, 개인 수행만을 하는 단체도 아니다. 개인의 수행을 기반으로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서원을 가진 서원 공동체이다. 정토회가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불교만을 고민하거나 사회운동만을 고집한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이탈되는 과정을 겪었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수행, 보시, 봉사 활동이다. 자기 수행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경제적인 것들 중 자기 것을 내어놓는 보시와 그리고 자기의 시간을 나누어서 일에 참여하는 봉사를 통해서 자기변화와 사회개혁을 동시에 추구해 나간다. 모든 정토회원은 매일 한 시간씩 수행(천일기도)하고, 매일 1,000원 이상씩 보시하며, 매일 한 가지 이상 봉사한다. 이런 작은 힘들을 모아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조금씩이라도 지금 바로 해나가려고 한다. 이러한 집합적 활동들은 주로 정토법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법회와 각종 강좌, 정토불교대학, 100일마다 점검하는 실천활동 등이 정토법당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토회는 산하에 전문수련장인 정토수련원(Jungto Rtreat Centre), 그리고 환경운동단체인 환경교육원(Buddhist Academy for Ecological Awakening), 기아·질병·

문맹퇴치기구인 JTS(Join Together Society), 평화·인권·난민지원센터인 좋은벗들(Good Friends), 그리고 대중들이 함께 모여 꾸려가는 수행·보시·봉사의 수행공동체 정토법당(JungTo Temple)등 다섯 가지 기구가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모든 활동은 자신을 돌아보는 수행을 기초로 한다. 그 수행의 힘으로 사회변화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정토회를 이루고 있다.

## 정토회의 특성

① 정토회는 대중들과 함께 수행·보시·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이다.

정토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의 기초는 '수행'이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다룰 수 있게 되는 수행을 통해 수행자 개개인 은 이 세상 모든 일이 '나'로부터 나온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올바로 알고 실천하게 된다. 또한 모순되어 보이는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이라는 것이 모두 내 마음의 거울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바뀌어 감으로써 나에게 비쳐지는 상대의 모습도 바뀌낼 수 있는 가능성을 만나게 된다. 정토회는 이렇게 개인의 삶이 전환되는 수행의 힘을 기초로 하여 그동안 기아·질병·문맹퇴치운동, 평화·인권·통일운동, 생태·환경운동 등을 실천해오고 있다. 자신이 체험한 진리를 구체적인 삶 속에서 구현해 보려는 사람들의 모임인 정토회는 개개인의 가치관의 변화를 새로운 인류사회의 실현을 위한 운동의 가장 중요한 전제로 생각하거나, 사회변화를 위한 운동 그 자체를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수행의 장으로써 제시함으로써 개인의 각성과 사회의 각성이 개별적인 것이 아닌 유기적인 관계임을 증명하고 있다. 즉 정토회는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평안에 멈추지 않고 사회의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에의 참여 그 자체를 통해 마음공부를 하게 해주는 통로이기도 하다.

정토회의 참여자들은 마음을 돌아보는 수행을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이 가진 시간과 돈과 능력들이 순전히 자기만의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며, 그러한 힘들이 가장 크게 잘 쓰일 수 있을 때는 그 힘이 만들어졌던 본래의 자리 곧 우리와 함께 하는 모든 존재들에게로 되돌려졌을 때임을 알게 된다. 상호연관성의 세계를 자각한 이들에게 자신을 위하는 것과 남을 위하는 것의 분별은 무의미해지며 모든 이의 참여로 만들어진 자신의 힘을 다시 모든 이들을 위해서 쏟으로써 나의 변화가 곧 사회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한다. 이러한 사회적 자아의 각성을 실행하기 위해 자신의 것이라 생각되는 것들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고 남들과 함께 공유하려 하는 '보시'의 삶이 개개인에게 요청되며, 보시의 삶은 물질에 얽매는 삶, 만족을 모르는 과잉상태의 삶에서 벗어나 필요한 만큼에 만족하고 거기서 넉넉함과 자유를

체득할 수 있는 삶을 실현시킨다. 이러한 보시하는 삶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에게 최고의 목표는 자신의 힘을 가장 유용하고 의미 있게, 즉 잘 쓰이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잘 쓰이고자 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잘하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보다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 또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들에 자신을 맞춰나가 일을 함으로 해서 자족적인 봉사에서 벗어나 더욱 값지고 소중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수행'과 '보시'와 '봉사'는 구별되는 다른 의미들을 가진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성의 세계에서 나와 남,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하나의 단일한 개념으로써 '나로부터의 사회운동'을 의미한다.

## ② 정토회는 생태공동체이다

환경문제는 단순히 공기와 물이 오염되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사회 내부에 축적된 모순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문제이다. 이것은 곧 우리 물질문명의 문제이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더 많은 소비와 더 많은 소유에 경도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조금씩 바뀌어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욕망에의 집착이 만들어낸 부조리한 사회현상에 대처하는 것이 곧 생태운동으로 자연환경의 파괴뿐만 아니라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 기형적 부의 축적 구조, 패권주의적인 문화침략 등이 모두 지속가능하며 조화로운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 생태운동이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들이다. 인간의 욕망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강자들에 저항하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투쟁의 방법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의 욕망과 집착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지 깊게 돌아보아야 하며, 대중들이 진정으로 변화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얘기하는 주체인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를 실천하는데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정토회는 정토회 참여자들의 삶 자체가 생태운동이 되어야 하며 생태운동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생태운동의 실험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생태운동의 중심에는 절대적인 생명경외사상을 설파했던 불교의 가르침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욕망이 아닌 필요에 의한 삶 곧 수행자적 삶으로의 변화를 위한 생활 속의 실천운동들을 해나가고 있다. 의제 선점이나 구호성 운동이 아닌 생활실천 운동으로써의 생태공동체를 만들고자 정토회의 본부인 '정토회관' 자체에서는 '쓰레기제로운동'같은 생태공동체의 실천사항들이 실험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아이템들이 전국의 정토폰당과 정토회 참여자들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 실현되고 있다. 또한 정토회는 자신들 생태운동의 결과물들을 다양한 경로로 사회 속에 심어나가는 확산운동을 주요활동으로 잡고 있다.



### ③ 정토회는 계획공동체이다

정토회는 개인의 문제에서부터 사회의 문제,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는 국제적인 문제들까지 '지구공동체'라는 개념으로 한꺼번에 바라봄으로써 전인류적, 전지구적 관점이라는 총체적인 인식 하에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 인류가 처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부분적인 처방으로써는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고 있다. 그것은 이러한 문제들 모두가 총체적인 연관 속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종합적인 인식을 하지 않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에 정토회에서는 전인류적, 전지구적 관점 위에서 모두와 더불어 사는 새로운 문명, 곧 '정토회'를 실현해 가자는 목표 아래 기본적인 수행 뿐 아니라 복지활동, 환경운동, 평화운동을 종합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정토회는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일에 자신을 헌신함으로써 사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복과 자유가 실현된다'는 원리에 입각하여 일하고 수행한다. 그리고 이렇게 일과 수행이 하나 된 삶을 사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바로 새로운 사회의 삶의 양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새로운 삶의 양식이 인류의 문제를 푸는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와 생태주의에 대해서 정토회가 추구하는 현실 속에서 정토회만들기는 불교사상에 입각하여 타종교가 추구하는 진리들을 배척하지 않으며 각기 다른 종교와 사상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들간의 평화로운 조화를 이상적인 상태로 상정함으로써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한다. 또한 인류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간의 연대운동이 중요하다고 보아 정토회 운동의 주제를 공유하는 타종교의 단체들과는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생태운동은 정토회가 추구하는 정토회의 모습을 현실 속에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 현재는 정토회 산하의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의 부문운동으로써 기능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모든 운동은 생태운동으로 귀결되며 생태적인 관점이 정토회의 모든 부문운동의 원리가 되도록 관철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토회의 생태운동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연관되어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생태운동 자체도 이 세상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아가 나에게 돌아옴을 알아 내 삶의 참회로부터 출발하여야 함을 시작점으로 한다. 정토회 생태운동은 수행을 통한 참회와 반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연의 근본을 통찰하고 우리의 생활양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정토회의 참여자들은 생태문제에 대한 주요 원리들이

불교에서 설해지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현재의 정토회의 생태운동은 활동가들의 선도적인 운동보다는 대중들이 참여하여 실제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운동으로써 진행되는 환경운동이며, 이러한 대중환경운동의 최고점에 달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대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쓰레기 제로운동'이다. 정토회의 참여자들은 많이 생산하여 많이 소비하는 삶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보고, 현재의 과잉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게 먹고, 적게 자고, 적게 입는 수행자적 삶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환경부분에 있어서는 물질문명과 소비주의 문화의 결과로써 대량생산되는 쓰레기의 문제에 우선 집중하여 소비구조의 개선을 통한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을 대안적 삶이라 여기고, 쓰레기제로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수행·보시·봉사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정토행당은 삶의 현장 한 가운데에서 그들의 고통을 그대로 껴안고 함께 해결해 가는 대중수행도량이다. 정토행당의 대중들은 매일 자기 집에서 수행하며 스스로 주체가 되어 법당을 운영한다. 그리고 정토회 산하의 전문기관들(JTS, 좋은벗, 불교환경교육원 등)이 제시하는 북한동포돕기와 민족화해를 위한 기도, 쓰레기제로운동 등 각종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전국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수행과 사회실천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 없이 정토회를 방문하여 자신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된다. 정토행당에 가면 언제나 불교의 근본사상과 현대문명의 문제를 진단하고 실천적 대안을 찾는 각종 법회 및 강좌에 참석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 정토행당에서는 일반인들이 일정 기간이라도 무아·무소유·무아집의 수행생활과 대중청규에 기초한 공동체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불교에 대한 전문적인 교양을 원한다면 전국 정토행당을 통해 운영되는 정토헌교대학에 출석하면 된다. 정토헌교대학에서는 정토회의 이념과 구조 등 조직일반에 대한 소개를 받을 수 있다.

1991년부터 시작된 '깨달음의 장'을 비롯하여 '나눔의 장', '일체의 장'은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정토수련원의 수련 프로그램이다. 깨달음의 장 수련은 자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인간에 대한 성찰, 자신과 타인, 자연과 일체의식, 소유의식에 대한 각성 등의 내용을 스스로 깨닫게 함으로써 '맑은 마음'을 지닌 미래 사회의 새로운 인간상을 추구하고, 나눔의 장 수련은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교류를 통해 '좋은 벗'의 관계를 지향하고, 일체의 장 수련은 노동과 수행을 결합시켜 생활 속에서 '일과 수행의 통일'을 구현해내고자 한다. 그밖에 어린이, 청소년 등 대상별 특별수련과 일반대중

명상수련이 연중 2회에 걸쳐 실시된다.

종교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다 하더라도 자신이 변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고자 하는 원이 있는 사람,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 지금은 가치관이 다르더라도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다. 정토회에서 진행하는 수련에 동참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동참을 하면서 성원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 조직과 운영

정토회의 활동과 운영의 열개는 1993년 3월 '만일결사운동'으로부터 출발한다. 세상을 바꾸려면 최소한 한 세대 3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륜스님 등 자신의 삶의 목표와 정토회의 활동 목표가 일치하는 회원들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를 구성하여 만일결사를 하였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만일결사를 천일단위로, 백일단위로 나누어 일반회원과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총회는 현재 26명으로 구성되며 의사결정은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만장일치를 이루려는 민주적 절차인 삼의제(三儀制)로 이뤄진다. 매 천일마다 모든 역할과 일, 사업의 방향까지를 내려놓고 처음부터 검토하여 새로운 천일결사를 구성한다. 그리고 다시 천일을 백일로 나누어 매 백일마다 모든 결사자들이 전부 모여 매일하는 아침기도와 수행을 점검하고 사회실천과제를 세운다. 그 실천 과제는 다음 백일에 보고하고 또 다음 실천과제가 세워지는데, 이 과제들이 쓰레기 제로를 위한 환경실천, 통일관련 평화운동, 옷모으기, 모금하기, 자원활동하기 등 대중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실시된다.

정토회의 최고 결정권은 회원총회에 있다. 총회가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이다. 총회는 정토회 전체방향성을 설정하며, 총회 회원들은 정토회의 각 사업 영역에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단위 부서에서는 회원이나 아니냐 하는 것은 사업 결정에 아무 관계가 없다. 대중 부서를 제외하고는 총회에서 결정된 범위 안에서 다시 단위 부서별로 실무자 전체 회의에서 평등하게 논의해서 결정하는 구조이다.

자원봉사자의 경우는 의견개진은 할 수 있지만 결정권은 좀 떨어져 있다. 자원봉사자는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일이라도 그만 둘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서 업무와 관련해서는 실무자들의 회의가 사업방향에 대한 결정권을 갖게 되고, 그것은 다시 각 부서의 책임자와 의장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된다.

그리고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한 사안이 있을 때는 한 달에 한번씩 열리는 운영위가 총회를 대신해서 다루게 된다. 정토회 구조에서 운영위는 사업집행 기구가 아니다. 처음에는 운영위가 사업집행기구였지만 지금은 총회를 일상적으로 대행하는 기구이다. 사업집행은 의장과 단위 부서의 책임자에 의해서 아주 단출하게 집행하기로 되어있다.

의장은 총회결의 사항이 아니거나 위배되는 것, 위임된 것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운영위에 안을 내어 회의를 해서 의결하고 집행한다. 운영위는 일상적으로 총회를 대신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토회 회원의 조건 및 선출방식은, 회원은 누구나 다 될 수 있지만 일단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내어야 한다. 근무지역이나 부서가 결정되면 어디든지 흔쾌히 따른다는 마음이 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상 필요하다면 결정된 것을 흔쾌히 따라야 된다. 이것이 '무아집'이다. 그리고 활동하면서 생기는 모든 인적, 물적, 기술적 자원은 개인에게 소속되지 않는다.

자신이 동의하고 참여한다면 회원 신청을 하고, 또 회원 신청을 하면 일정하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가 마음을 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가능성이 있었는지, 욕심으로 신청한 것인지 점검되어야 한다. 누가 봐도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 성질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자기 취향을 따지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회원은 총회 회원의 만장일치로 영입되며, 대표 또한 총회 회원의 만장일치로 선출된다.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삼는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만장일치가 아니라 만장일치에 가까운 삼의제를 원칙으로 한다. 삼의제란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토론을 하면 어떤 의견은 팽팽하게 대립되어 소수가 계속 주장을 하고 동의를 못 할 경우가 있다. 소수의견이란 그럴 때 투표해서 1/3이하가 되는 측의 의견을 말한다. 이때 소수의견이 무시되고 2/3가 넘으면 다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토론을 한다. 그 때는 소수만이 자신의 의견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다. 다수는 설명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다시 투표를 한다. 그래서 만약 종전의 그 소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1/3이상으로 늘어나면 그 의제에 대한 토론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토론을 한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투표에서도 1/3이하로 떨어진다 해도 그 소수의견의 의사가 또 한 번 더 개진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의견이 2/3나 절반 정도 되면 토론이 새로 진행된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투표에서도 1/3이하가 났다면 소수가 자신들의 의견을 자진해서 철회한다. 이것이 삼의제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만장일치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소수가 철회를 하기 때문이다. 즉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만장일치라는 것이다. 동의하지 않은 상태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것이 대중주체의 모습이다.

## 갈등 해소

정토회에서 갈등해소 방식은 근본적이다. 정토회의 삶의 원칙에는 참회, 그리고 포살과 자자가 있다. 잘못된 줄 알면 즉시 참회하고 정기적으로 포살과 자자를 행한다.

자기를 정화시키는 가장 첫 번째가 스스로 누우쳐 참회하는 것이다. 자기가 돌이켜질 때 편안해지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된다.

두 번째 수행법이 자기를 돌이켜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을 포살이라 한다. 참회가 모든 것에 대한 보편적인 참회라면 포살은 약속된 기준을 갖고 대중에게 바로 참회하는 것이다. 근본을 놓치지 않고 생활하기 위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과 우리들의 실천생활에 맞게 30개의 계율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발로 참회한다.

세 번째 수행법이 자자이다. 자자는 본인이 늘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남을 보듯이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눈을 통해 자기를 보게 하는 것이다. 또한 자자는 나에게 대해서 알고 있거나 갖고 있는 생각을 드러내서 말해줌으로써 개인에게는 해명할 기회를 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니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이로운 것이다. 동시에 도반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다. 마음속에 불신이 쌓이는 것을 누우쳐서 해소를 하든 해명을 하든 어떻게 하든 내적인 신뢰를 갖게 한다. 자자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의 자아의식으로 인해서 상처가 되고 부작용이 되기 때문에 회원들만 하는 것이고, 자주 하지 않는 것이다. 개별적인 것이 연대를 통해 하나의 생명으로 되어가듯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름으로 해서, 이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갈등을 맞추어가기 위해 포살과 자자를 행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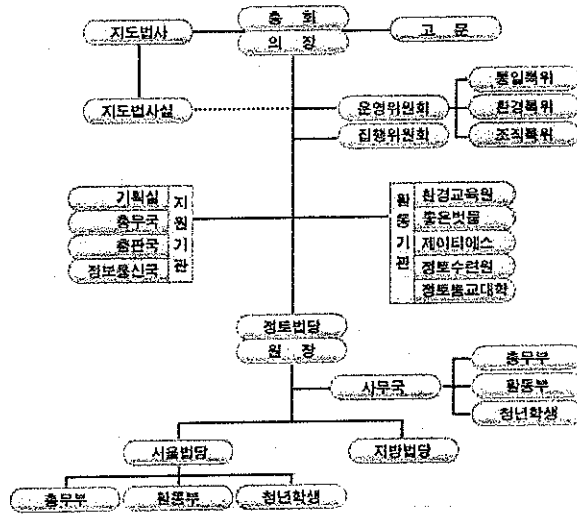
정토회는 매일 아침 불교문화인 대중공사를 통해 일상적으로 참회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포살, 1년에 2번 자자를 행한다.

갈등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되지 않아 발생한다. 그 원인을 줄이기 위해 정토회에서는 신도, 자원활동가, 실무자들 간 마음나누기가 잘 정착되어 있다. 공동울력을 하고 난 후 서로 일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가볍게 내어놓고 일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분별이나 오해들을 내어놓음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기회가 된다. 부서원끼리 혹은 같은 모임의 사람들은 이 마음나누기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길로 나아간다.

갈등해소의 또 다른 길은 수행지도이다. 상담, 중재의 역할과도 같은데, 이러한 수

행지도에도 중요한 원칙이 있다. 정토회 수행지도는 지도법사인 법륜스님만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람의 마음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지도하지도 않는다. 수행지도를 하게 됨으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고, 자비로운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신도 상호간에도 수행을 지도함으로 인해 위계질서가 생기게 된다. 수행지도를 하면 정신적으로 상하관계가 이루어지므로 항상 경계한다. 언제라도 지도법사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지도법사는 상담을 통해 수행을 지도함으로써 스스로가 가진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운영 조직



### ▶ 불교환경교육원

수행공동체 정토회의 환경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사)한국불교환경교육원은 자연과 조화되는 순환적인 삶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1988년 3월에 설립되어 생태주의·생명운동의 이념 전파를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연과 조화되는 가치관과 생활양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각종 교육운동과 대안문명 및 모델 연구, 공동체실험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 기아와 질병, 문명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 가는 (사)JTS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하고,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한다. 아이들은 제때 배워야 한다. 지구상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인류애를 실천해 나간다. 1993년

설립한 JTS는 현재 인도와 북한에서 기아와 질병, 문맹퇴치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네팔과 몽골,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구호활동을 조금씩 하고 있다.

JTS가 제일 주목한 대상은 인도에서도 가장 극심한 빈곤지역인 비하르주 보드가야의 등게스와리 지역에 사는 불가촉 천민들 이었다. 천민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인 이들은 문맹률이 100%에 가깝고, 삶의 조건은 지극히 열악하여 생업을 구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1993년 JTS가 이곳을 처음 방문할 당시 마을사람들 대부분은 여행객들에게 구걸을 하거나 간혹 약탈하는 것으로 살아오고 있었다. JTS는 이곳을 활동의 출발점으로 잡고 우선 이 지역에 옷과 쌀을 지원했다. 그리고 이 지역 빈곤문제의 핵심을 문맹으로 보고 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정토회의 모든 운동은 대중의 자발성을 일깨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을사람들에게 학교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마을사람들이 학교를 지을 땅과 노동력을 제공하기로 하고, JTS가 그 건설과 운영경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이렇게 세워진 학교가 수자타아카데미이다.

▶ 국제평화·인권·난민지원센터 (사)좋은벗들

평화운동은 서로 화해하며 조화롭게 사는 세상을, 인권운동은 인간으로서의 삶이 존중되는 세상을 그리고 난민지원은 갈등과 다툼이 없는 세상을 향한 활동이다.

## 경제와 생산

정토회의 재산은 거의 대부분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개인 소유는 없다.

또한 공동체내 핵심 멤버라 할 총회 회원들은 무소유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며, 개인 재산을 가지지 않는다.

정토회에는 공동우력이 있다. 한달에 한번 30개의 계본을 가지고 대중 앞에서 참회하는 포살 후 청정해진 몸과 마음으로 대중이 함께 정해진 시간까지 일을 한다. 그 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구석구석을 깨끗이 대청소를 하거나 연중행사의 하나인 초파일 연등 달기와 연등 철거, 회관 내 나무바닥 왁스칠, 창고정리 등 대중 전체가 필요한 일감이라면 언제나 포살 후 우력으로 그 일을 한다.

또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점심공양은 신도 자원활동가들이 준비를 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공동체에 사는 대중이 공양을 준비한다. 아침은 절에서 스님들이 하시는 발우공양을 하는데, 발우공양 준비를 1주일마다 3명의 당번이 돌아가면서 한다. 그리고 저녁공양 준비는 공동체에 사는 대중과 상근자원활동가들이 함께 3명이 한 조가 되어 매일 돌아가면서 준비한다.

대중은 각자 빨래를 내는 요일이 정해져 있고, 1주일마다 돌아가면서 3명이 1주일 동안 한 조가 되어 한다. 공동빨래를 하며 구성원에 따라 개인 빨래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 수시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경우 공동노동을 한다. 빨래, 청소, 공양, 숙직, 당직 등은 함께 정한 규칙에 따라서 한다.

인도성지순례, 중국역사기행 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 수익은 대부분 현지에 지원이 된다. 출판, 수련을 통해 들어오는 수익도 공동체의 프로젝트 사업에 해당하는 큰 규모의 사업에 지출이 된다. 수익이 들어오는 경우, 모두 회에서 총괄 관리하며 개인 수익이라는 개념이 없다. 회의 수익이 개인의 수익과 나뉘져 있지 않다. 회가 곧 개인의 이상을 실현하는 곳이므로, 회로 들어오는 수익금은 회에서 총괄 관리하고, 목적사업에 따라 들어오는 후원금은 그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된다.

실무자들도 인건비를 받지 않고 자원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이 많으나 경상비는 그 수에 비해서 적게 들고, 아끼고 절약하며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생활과 교육·문화

서울 방배동에 회원들의 주말농장이 있어 고추, 배추 등의 채소를 기르고 있으나, 공동체 먹거리를 부분적으로 풍성하게 하는 정도이다. 식사는 채식으로 하며, 불교 문화를 받아들여서 오신채는 사용하지 않는다.

정토회관은 1층에 정토포당이 있고, 2층에 세 개의 활동단체(좋은벗들, 한국JTS, 한국불교환경교육원)와 여러 행정기관이 모여있으며, 3층에는 공동체 대중의 숙소가 있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신도 대중과 자원봉사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최소 한끼 이상을 회관에서 식사를 하게 된다. 또한 정토회 행정기구와 세 개의 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대부분의 공동체 대중은 정토회관에 거처를 두고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매 끼니식사를 정토회관에서 해결하고 있다.

물 한 방울, 밥 한 톨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며 남김없이 닦아먹는 발우공양과 접시공양을 통해 음식을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고 물 절약도 함께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공양의 자세와 의미는 매 끼니마다 모든 대중이 함께 하는 공양게에 잘 나타나 있다.

### 공양게

한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깃들어 있고  
한 톨의 밥에도 만인의 노고가 깃들어 있으며  
한 올의 실타래 속에도 베짜는 이의 피땀이 서려 있다.  
이 물을 마시고



이 음식을 먹고  
이 옷을 입고  
부지런히 수행정진 하여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일체중생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이처럼 발우공양과 접시공양은 필요한 음식만 덜어 먹고 그릇 씻은 물까지 먹음으로써 식사 과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로 발생하는 것은 단지 조리 과정에서 버려지는 채소 꼭지와 껍질, 다과 후의 과일껍질, 찻잎찌꺼기 등이 전부다. 과일의 경우에도 껍이나 포도 등을 제외하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사과, 배 등은 껍질째 먹어 쓰레기 발생도 줄이고 있다.

물과 쓰레기 문제는 상당히 성과를 이루고 있으나 정토회관에서 에너지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문경에서 적용할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동체내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은 없다. 서울정토회당의 경우, 신도 자원활동가들이 교사가 되어서 매주 일요일 어린이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대안학교, 산모를 위한 교육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매년 봄에는 전국 청년들과 함께 등반대회를 하고, 부처님 오신 날 맞이 행사, 깨달음과 나눔의 축제가 있고, 공동체 성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함께 할 수 있다.

## 외부와의 관계

서초구 소년소녀가장돕기로 매월 지원을 하고 있으며, 쓰레기 제로운동 중 지렁이 분양 사업을 서초3동 동사무소와 함께 한 적이 있다. 서울시와 쓰레기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하고 있으며, 서울시 및 전국 정토회당이 있는 도시에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 정치적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현안에 따라 입장을 정리한다. 현안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편이며 실제 환경, 통일, 복지에 대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공동체 성원들은 회에서 하는 결정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는 편이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많은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만들어 간다. 정토회는 나의 문제의 해결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바램과 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회,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토회는 열린 공동체로 참여정도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다. 회원들이나 외

부인들이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항상 열려 있으며, 정토회 사상을 알고자 하거나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언제나 환영한다.

국외에도 정토회 지회가 12개가 있으며, 국외 언론이나 NGO단체들과의 국제연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 사단법인 별로 소식지가 발행이 되고 있으며, 정토회 자체에서는 월간 정토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 과제와 전망

정토회는 각성한 대중들이 운동의 주체가 되어서 활동을 해 나가며, 장기적으로 대중들이 전체 활동의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 정토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에서는 대중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구조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총회 구조를 확대하고, 대중들이 사업과 활동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

## 방문이나 참여는?

정토회 사상과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동체 성원이 될 수 있다. 공동체 성원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넓게 보면 후원회원까지 공동체 성원이 될 수 있고, 좁게 보면 총회를 구성한 총회 회원까지라고 볼 수도 있다. 각 자의 상황에 맞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정토회로 출퇴근하면서 자원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은 언제라도 방문을 해서 요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정토회 내에서 살고자 한다면 짐을 싸 들고 100일간 들어와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실무자는 100일간의 기도대중 과정을 거친다. 기도대중 과정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공부하는 기간이다. 기도대중을 마치고 실무자로 신청을 하면, 운영위에서 검토를 한다. 실무자로서 자격이 되면 예비실무자로 인정이 되고, 예비 실무자가 된 후 100일 동안의 예비실무자 과정을 거친 후 평가를 해서 인준을 하게 된다.

실무자가 되지 않고 정토회 내에서 생활하면서 마음공부를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대중으로 입재를 하게 된다. 기도대중은 첫 100일 후에도 본인이 원하면 계속 기도대중으로 살아갈 수 있다. 비용은 없다. 기도대중은 자기의 생각이나 고집을 내려놓고 공부하는 과정이므로 특별한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정해진 규칙에 맞게 생활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실무자는 활동하는 부서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또한 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경비 일체를

지원 받는다.

정토회관은 누구라도 방문 할 수 있고, 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 손님으로는 일주일 까지 지낼 수 있으며 같이 생활을 할 경우, 기본적인 공동체 생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토회관에 찾아와서 자신을 소개하고 방문 이유를 밝히고 상담을 거치면 종교나 다른 조건에 관계없이 생활이 가능하다. 손님으로 들어올 경우, 상담을 하면서 지정되는 업무를 따를 수 있어야 한다(밥을 짓든지, 청소를 하든지, 컴퓨터 입력 업무를 하는 등) 기본적으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경정토수련원의 경우, 깨달음의 장이라는 기본 수련을 마친 사람만 숙박이 가능하다. 방문은 할 수 있으나, 생활은 어렵다. 그러나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깨달음의 장을 마친 사람이면 일주일동안 생활이 가능하다. 일주일간 생활 체험은 참가비가 없다. **정토회**

#### **'정토회'를 소개한 자료들**

『수행과 일의 공동체 정토회, 연꽃으로 피어나다』, 박해연, 《월간 말》 제209호, 2003년 11월호

『일과 수행이 하나인 사람들: 정토회』, 정경일, 계간 《새길이야기》 제4호, 2002년 봄

『정토회 - 맑은 마음·좋은 벗·깨끗한 땅, 정토를 일구는 사람들』, 장도연, 격월간 《참여 불교》

『법륜스님 막사이사이상 수상 자료집』, 정토회, 2003.

『마을을 나누는 사람들 - 정토회』, 이근행, 풀무원 사외보 《자연을 담는 큰 그릇》 제97호, 2004년 가을

## 예수살이 공동체

하나님의 아들이자 아름다운 인간, 예수의 삶을 본받아 구원의 실재인 천국의 삶을 '지금, 지상에서' 실현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아 실천하는 생활을 하는 종교 공동체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교육, 영성 수련과 회원들의 모임을 통해 공동체의 정신과 목적에 따라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운동을 펼치고, 준비하고 있는 '산 위의 마을'은 공동체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 삼는다. 소유로부터 자유롭고, 가난하고 소박한 나누는 삶 그리고 인간과 하나의 몸으로 창조된 자연에 친화하는 삶을 지향한다. 서울의 활동과 농촌 공동체마을의 삶이 소통하고 함께 이루어지면서 공동체 정신을 구현해내고자 한다.

☞ 영성·수련·교육 공동체 / 생태마을 공동체(준비중)



산위마을 준비 모임 가족들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86-1 (121-883)
- 연락처 ; 02-3144-2144, 2442
- email ; office@jsari.com
- www.jsari.com (예수살이공동체)
- www.sanimal.org (산 위의 마을)
- 공동체 대표 ; 대표신부 박기호
- 담당자 ; 진선미 사무국장

## 역사와 현재

‘소비사회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를 질문하면서 1998년 1월 가톨릭 청년 의식화 교육을 시작으로 창설한 공동체 운동이다. 그 배경에는 1977년부터 시대의 징표에 응답하고자 청년 영성훈련프로그램을 연구하여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던 가톨릭 사제 수도자 그룹의 노력이 있었다. 초기에 11명의 사제, 수도자들이 길벗(협력자)으로, 그리고 청년과 신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시작하였다. 신앙고백을 쇄신하는 ‘배동교육’으로 지금까지 900명에 이르는 청년들에게 가르침이자 구원의 길인 복음의 인생관과 공동체 세계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1999년 봄에는 지금의 합정동 집을 빌려 공동체가 자리잡고 ‘밀알의 집’에서 청년들의 공동체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즈음 공동체의 첫 정회원(민들레) 임회(서원)가 시작되어 7기까지 진행된 현재 63명이 ‘예수살이 민들레 서원’을 하였다. 청년들의 밀알공동체가 형성된 뒤 시작한 청년금요미사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2002년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농촌 지역에 공동체 마을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1월 1일부터 농촌공동체 ‘산 위의 마을’ 건립을 위한 1,000일 기도를 시작하였고, 6월 15일 ‘산 위의 마을 준비모임’을 시작하였다. 이후 매월 모임을 갖고 있는 ‘산 위의 마을 준비 모임’은 현재 30여명의 가족들이 공동생활에 필요한 덕목을 수행하면서 다른 공동체들의 경험을 공부하고 있다. 산 위의 마을 건립 청원 1,000일 기도가 진행되며, 2003년 12월 부지를 확정하였으며, 2004년 3월에 선발대격인 3명이 1차로 귀농을 하였다.

예수살이 운동 차원에서는 2002년 9월부터 다양한 생활실천 프로그램인 ‘광야수행’을 시작하여 확산하고 있다. 또한 배동교육을 간접적으로 접한 교육생 부모들의 요청으로 2003년 10월부터는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제자교육’도 시작되었다.

현재 합정동의 밀알의 집에는 공동체 생활을 체험하고자 하는 20~30대의 미혼 청년들이 기간을 정해놓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밀알공동체는 1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예수살이 운동 사무국 역할을 하며 다양한 수행, 강좌, 생활실천활동과 함께 텃밭도 가꾸고 있다.

## 목적과 가치

예수살이 운동은 도시생활의 ‘각성운동’ 과 농촌생활의 ‘공동체 마을’ 이라는 두 방향(Movement and Living)에서 추구되고 있다. ‘산 위의 마을’은 무소유의 삶을 통해 예수살이 영성을 실천하고자 산촌에 건설되는 공동체마을이다. 산 위의 마을은 산상설교의 가르침 ‘산 위의 마을은 드러나게 마련이다(마태 5:14)’에서 명칭을 얻어 온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약속은 세상 종말까지 유효하며, 사도행전의 제자 공동체(사도 4:32-35)는 2천년 전의 허구가 아니라 21세기 우리 시대에도 가능하고 실현해야 할 과제로 삼아 증거하고자 한다. 예수살이 공동체는 그 이상을 '지상에서 천국처럼'으로 삼는다.

예수살이 공동체 운동의 기본 정신은 '자유·기쁨·투신'이다. 이 시대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모색하고 실천하며, 예수의 인간성을 본받아 소유로부터 '자유'롭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하는 '기쁨'을 느끼며, 아름다운 세상과 평화를 위한 '투신'의 정신으로 '지상에서 천국처럼' 살아가는 것을 공동체의 목표와 이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현 사회가 소비 위주의 사회임을 자각하고, 이 소비문화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환경의 파괴, 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오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을 복구하고 자발적인 가난과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비사회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대한 모색과 실천을 해나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준비 과정에 있는 농촌 공동체 '산 위의 마을'은 아래와 같은 생활양식을 지향한다.

- ① 삶을 성사화하고 성사를 생활화하는 기도 생활
- ② 깨끗한 먹거리의 유기농 생산(농업, 임업, 약초재배)
- ③ 삶을 미학화 하는 예술의 생활(문학, 미술, 음악, 공예, 전통문화)
- ④ 공동체적 세계관을 가르치는 자녀교육(공동육아, 초중등대안학교)
- ⑤ 필요한 것을 자급자족 자립하는 검약과 청빈의 삶
- ⑥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터전(생태건축, 대체에너지)
- ⑦ 도시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안식의 공간

이러한 가치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청년대상의 배동교육과 장년대상의 제자교육이 있다.

예수살이 정신을 공유할 수 있거나, 예수살이 정신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배동교육은 복음적 인생관 갖기, 소명의식을 위한 '자아발견', 좌선명상 수련, 성사생활과 기도생활 뜯짜기, 소비사회에서 그리스도 따르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3박 4일 동안 진행된다.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널리 알려져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 기수에 20~50명이 수료하는 배동교육은 2004년 8월 25기까지 진행되어 모두 890명이 거처갔다.

장년대상의 제자교육은 소비사회에서 예수 제자 되기, 좌선명상, 기도와 성사생활 뜯짜기, 부르심과 직업윤리, 그리스도론, 공동체 신학, 복음주의 자녀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 조직과 운영

예수살이 공동체는 배동교육을 마친 뒤 활동하는 '더부네'와 사제·수도자로 운영에 참여하는 '길벗', 그리고 활동을 후원하는 '수산나희'가 운동의 세 축을 형성한다.

'더부네'는 배동이, 민들레, 홀씨로 구성되는데, 예수살이 기초교육인 배동교육을 수료하고 배동이 서원을 하면 준회원인 '배동이'(땅이 민들레 씨앗을 품고 있는 단계)가 된다. 배동이는 예수살이 정심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며 학교, 본당, 직장에서 '두레'를 구성하여 두레모임을 갖는다. 향후 공동체가 원하는 '배동이 수련생활'을 거쳐 서원식을 통해 정회원인 민들레가 된다. '민들레'(민들레가 꽃을 피우는 단계)는 공동체와 결합하여 예수살이 영성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정회원이다. 배동교육을 수료하고 공동체가 원하는 '배동이 수련생활'을 통해 공동체 더부네들에 의해 추천되어 '민들레 서원'을 바친다. 공동체 더부네들과 가족과 사제단, 후원인들이 참석하는 서원 미사에서 '예수살이 민들레 서원'을 한다. 민들레는 생활 주변에서 두레모임을 인도하고, 공동체 정신을 생활화하고 공동체의 모든 일을 함께 나눈다. 활동가인 '홀씨'(민들레가 홀씨를 날리는 단계)는 민들레 가운데 공동체를 위해 일하고 두레모임을 지도하며, 예수살이 영성과 정신의 모범이 되는 예수살이 활동가이다. 시민 사회 운동 등에도 모범적으로 참여한다. 청년 정회원들은 '민들레모임'을 갖는다. 두레모임은 매주 또는 격주로 갖는 소모임으로, 공동체 정신에 따른 삶을 성찰하고 나누는 모임이며 두레모임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두레모임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회비 사용 등도 자체 운영한다. 더부네들의 소모임 공동체인 두레모임은 다양하여 소금두레, 맑은빛두레, 푸른누리두레, 마중물두레, 지천풍물패, 나무숲모임, 육아모임, 대안교육 모임 등이 활동하고 있다.

수도자와 사제 회원인 '길벗'은 더부네 개인들의 길벗(영적 지도자)이 되며, 운영위원 모임인 길벗모임을 갖는다.

'수산나희'는 '민들레' 부모들을 중심으로 한 후원모임으로, '공동체-민들레-가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이상적인 공동체 운동을 이룬다. 수산나희는 예수살이 운동에 지도와 재정, 필요한 문제 해결의 자문 등으로 후원활동을 한다.

예수살이 더부네들 가운데 좀더 투철한 생활을 원하는 이는 도시와 농촌에서 공동생활 공간을 마련하고 현장성을 지닌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권장한다.

의사결정은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 성원의 합의 방식을 기본으로 삼는다. 공동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는 정회원들이 대표자선출 논의과정을 거쳐 만장일치로 결정하며, 사제·수도자·청년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다.

## 생활과 교육·문화

밀알의 집에서 공동 생활하는 사람들은 함께 아침식사를 준비하여 먹고 직장으로, 학교로, 사무국 활동으로 일과를 보낸다. 공동체 공동식사는 매주 금요일 저녁 미사 후, 월 1회 1박 2일 모임 때, 연 1회 여름행사 기간에 함께 한다. 밀알의 집에는 작은 화단이 있어 텃밭으로 가꾸어 야채를 길러먹고 있다.

공동체 프로그램으로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청년금요미사'가 있다. 공동체 미사와 공동식사, 나눔의 시간을 가지며 배동이는 물론 일반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다.

매월 첫째 토요일 오후 6시에는 1박 2일로 '공동체의 날'을 가진다. 예수살이의 정신인 자유, 기쁨, 투신과 공동체에 관해 함께 배우고, 얘기나누는 모임이다.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모색을 통해서 보다 '예수살이'다운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좌담회, 강의, 토론회 등으로 꾸며진다.

소모임 활동인 두레모임은 매주 또는 격주로 주제별, 지역별로 이루어진다. 더부네 상호간의 영적 성장을 위한 수행에 더욱 힘쓰고자 한다. 현재 합정동에서는 소금두레, 작은두레가 모임을 하고 있고, 청주, 부산, 광주 등에서도 두레모임을 하고 있다. 새로운 두레모임을 가지려고 할 때는 민들레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일년에 세 차례는 모든 공동체 회원과 후원인들이 모이는 자리도 있다.

예수살이 운동은 생활 속에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이를 공동으로 노력하려는 것이 예수살이 공동체이다. 예수살이 운동은 '기도, 노동, 공유, 배려, 정직'을 함께 지켜갈 가치로 삼아(예수살이 五戒) 더부네들끼리 광야모임을 구성하여, 서로 실천생활의 경험과 성과, 좌절을 나누고 독려하는 '광야수행 OFF 운동'을 2002년 9월부터 벌이고 있다. 이는 소비사회를 극복하고 하느님께서 원시(原始)에 부여하신 야성과 주체성을 회복하여 생태적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다.

광야수행은 스스로 실천할 과제를 설정하고 더불어 실천하는 것으로 현재 SO운동(Shopping Off), TO운동(TV Off), HO운동(hand phone Off), CO운동(Credit card Off), AO운동(Auto Off), PO운동(Processed food Off), MO운동(Make Up Off) 등을 진행하고 있다. CO운동의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더부네들의 모임인데,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정리하고 하나만 가진 이들도 가입하게 하는 등 광야수행은 원칙을 지향하는 실천 노력을 중시하는 운동이다.

공동체 마을은 건설 시작 단계이며, 가능한 생태적인 요소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마을에서의 교육문제도 그동안 대안교육모임을 지속해 오며 구체적으로 준비중이다. 우선 귀농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매월 1박 2일 준비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공동체 축제로는 2000년부터 여름에 3박 4일간 휴가를 겸해 '공동체 축제, 지상에서 천국처럼'을 펼치고 있다.

## 외부와의 관계

청년들이 주축인 만큼 외부와의 관계맺기도 적극적인 편이다. 청년금요미사와 공동식사는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회원들은 사회적 현안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루는 편이다. 사안에 따라 공동체 정신을 근거로 입장을 표명하고 행동하며, 농촌수해복구, 공부방활동, SOFA개정운동 등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사회정의 구현에 연대하고 참여하는 활동에 직접 나서고 있다.

소식지는 매월 발행하며, 계간지로 발간하는 공동체 잡지 '산 위의 마을'은 2001년 봄호부터 12호까지 나왔다. 100여 쪽의 지면에 생태·영성적,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담기는데, 후원을 통해 6,000부를 무가지로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 과제와 전망

공동체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 실천운동 등 여러 활동에 대한 연구와 지속적인 실천방안들이 계속 발전시켜 가고자 한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공동체마을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주요한 과제이다.

## 방문이나 참여는?

공동체 참여는 기본과정인 배동교육과 제자교육으로부터 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체생활을 하는 밀알공동체에서는 함께 기도하고, 노동하고, 좋은 생각을 나누며 공동체 체험을 할 젊은이들을 환영한다. 일 년 단위로 신청을 받고 있다.

밀알의 집은 언제든 방문은 가능하며 기도와 묵상, 작은 모임과 하루 묵을 수 있는 시설도 있다. 교육이나 행사 일정, 시설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나 사무국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공동체**

## ☞ '예수살이 공동체'를 소개한 자료들

「영성공동체 탐방 - 예수살이 공동체」, 문재진, 《교육교회》 291권, 2001,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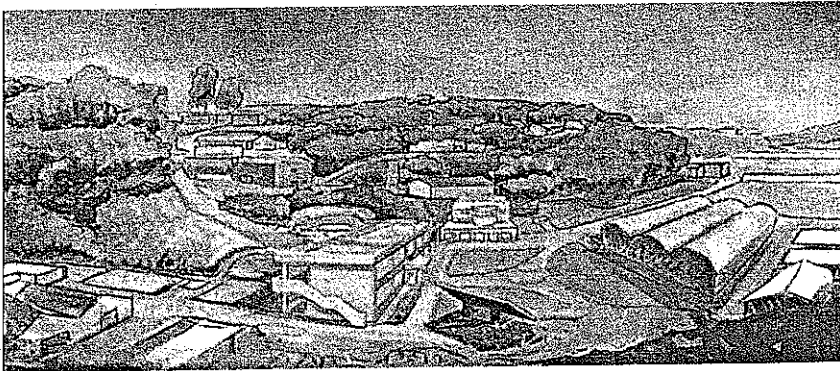
더불어 사는 평민

##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풀무학교는 1958년 지역의 학생들을 기독교 정신과 전인교육 차원에서 교육하려는 목표로 세워졌다. 47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농업중시, 교파를 넘어선 기독교 정신, 작은 학교라는 틀을 올바르게 유지해왔다.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데 풀무학교는 작지만 뜻이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큰 역할을 해왔다. 지역, 생태, 평화를 추구하는 교육활동이 이어져 1990년대 중반 이후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안학교의 모델로서 평가되고 있다.

☞ 교육공동체 · 지역공동체 · 생활협동공동체 (학교법인 풀무학원)



● 풀무학교 전경 (그림 백남호) ●

- 주 소 ; 충남 홍성군 홍동면 팔괘리 664 (350-814)
- 연락처 ; 041-633-3021
- www.poolmoo.or.kr                      • email ; csk0603@hanmail.net
- 공동체 대표 및 연락 ; 정승관 교장선생님

## 역사와 현재

1958년 연초에 흥동 지역에서 노평구, 함석헌 선생 등이 참여한 전국 무교회 성서 집회에서 이찬갑, 주옥로 선생 등이 중심이 되어 이 지역에 학교를 세우자는 결의가 이뤄졌다. 이후 지역에서 발기인 모임이 설립되었으나, 결국은 주도적 역할을 한 두 사람에게 의해 학교가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주옥로 선생님의 보리밭 2,000여 평에 초가집을 짓고 개교하였다. 그 후 1977년에 법인을 설립하고 네덜란드의 I.C.C.O의 도움을 받아 현재의 본관과 잣골의 농장을 구입하는 등 기틀을 세웠으며, 2001년에는 잣골에 전공부를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설립자들은 당시 전후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 안타까움을 가졌고 또한 전인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시작하게 되었으며, 무교회의 지원과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설립되었다. 학교법인 설립 이후에는 최태사 전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일심회가 학교 운영에 함께 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인 정착과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역할을 다 해 온 교사들의 노력도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 차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풀무학교 의사구조의 특징인 전원 참여 토론을 거쳐 어려움을 극복해왔다. 이것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학교가 안정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1988년에도 경제적 어려움과 학생 수용 문제 등으로 학교의 존재가 걸린 위기가 닥쳤다. 위기를 넘어서실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고 이 때 자칫 학교의 기본 정신을 흐릴 위기가 있었으나, 교사, 졸업생, 이사회 그리고 학생들까지 치열한 토론 끝에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현재 학교 구성원들은 학생수 93명(고등부 76명, 전공부 17명)에 상주 교직원인 21명, 강사가 12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의 토지는 학교부지와 실습지(논, 밭, 임야 등)를 합쳐 약 3만 여 평으로 이루어져 있다. 건물은 고등부 학교 본관, 학생관, 기숙사 등이 있으며, 전공부 역시 본관과 기숙사가 있다.

## 목적과 가치

풀무학교의 교훈은 '더불어 사는 평민'으로 이것이 학교의 정신이다. 무교회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고 개교 당시부터 평화, 생명을 중시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 결과 1976년부터 유기농업을 시작하였고, 바른 경제개념을 배우도록 협동조합을 시작하여 운영하였다. 이것이 현재 흥동 지역에 뿌리를 내려 지역에서 훌륭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풀무학교에는 “일만 하면 소, 공부만 하면 도깨비”라는 말이 내려왔는데, 이는 몸과 머리로 표현되는 실질적인 노동과 지식을 균형있게 배워 익히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한 말이기도 하다.

학교 교과과정 중에 성서시간이 있고 매일 새벽 학생들이 진행하는 간단한 예배를 보고 있으며, 주일 아침에는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때는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종교 활동은 교리를 중시하기보다는 고등학교 시절에 권장도서로 성서를 한번 읽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입학 당시 서약을 하게 된다. 기독교 정신은 풀무학교의 중요한 가치로서 공동체 성원이 되는 경우, 가능하면 함께 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다.

### 조직과 운영

학교의 모든 운영은 교사회를 통하여 학생들의 활동은 학우회나 생활관 운영회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교사회는 매일 아침의 교사 조회와 월요일 오후의 교사회를 통하여 진행된다. 학교의 모든 행사나 결정은 이 교사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무두무미’라 하여 한 사람의 의견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한 상황에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개는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한다. 교사회에서 합의하느냐, 위임하느냐의 여부도 문제의 성격을 논의하여 교사회에서 그 결정을 한다.

갈등을 해소하는 특별한 원칙이나 제도는 없다. 다만 풀무는 가족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운영 조직으로는 교사회, 학우회, 생활관 운영회 등이 있다.

소모임으로는 학생들의 경우 다양한 동아리가 있다. 현재 76명의 학생 수에 24가지의 동아리와 특별활동이 있다. 모든 동아리 운영은 대표들이 모인 동아리 협의회를 통해 활동 시간, 장소 그리고 예산 등을 결의하며 지도 교사는 학생들이 요청할 때 지원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

### 경제와 생산

학교에 교원 생협이 있어서 무공해 비누, 빵 또는 유기농산물을 이용한 효소 등을 판매하고 있다. 그 양은 아직 미미한 상태이지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과 실습을 함께 하거나 연간 일정하게 함께 하는 작업시간 등이 있다. 개인

들에게 노동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 생활과 교육·문화

쌀은 대부분 학교의 생산물을 이용하고 있으나, 부식의 경우는 30% 미만이다. 물론 학교에서 생산하는 것은 유기농산물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모든 생활을 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점심을 함께 먹는다.

2004년도에 남학생 생활관 1동을 나무와 흙으로 짓짓기를 진행하고 있다. 교사, 이사, 학부모로 이루어진 건축위원회를 설립하고 오랜 논의를 거쳐 설계가 완성되었고 하반기에 착공하였다.

현재 고등부에는 12Kw급의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소형 풍력발전기를 설치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전공부에도 곧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풀무환경농업전공과정은 풀무학교 2년 연장 과정으로 2001년 3월에 시작하였다. 전공부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 ① 우리나라 농업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환경과 지역을 살려 도시와 농촌이 공생하는 평화사회를 실현하려는 신념과 이상을 가진 농민을 기른다
- ② 단순히 농업에 종사할 뿐 아니라 가치관과 교양과 실무 능력을 갖추어 생각하고 일하는 농민을 기른다
- ③ 환경 호르몬, 윤리적 여과를 거치지 않은 유전자 조작 등으로 국민의 생존이 위협되는 먹을거리의 안전을 위해 종자, 품질 인증, 토양 미생물 등 모든 과제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고 실천한다.
- ④ 학교는 우리나라 농업의 장래가 환경농업을 하는 소규모 가족 복합 경영을 하는 농가가 공동경작, 가공, 유통, 정보, 문화 등 여러 방면의 협력을 추구하는 마을과 지역 구성에 있다는 믿음에 바탕 둔 교육 내용을 가르친다
- ⑤ 학교의 모든 강좌는 주민에게 개방하고 주민이 현장 교수가 되고 주민이 학생이 되어 평생 지역교육을 실현하는 풀뿌리 주민대학을 지향한다
- ⑥ 학교의 실습지 지체가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가공, 유통, 정보, 문화의 기능을 갖춘 작은 복합영농 지역을 축소한 친환경적인 마을의 실험본이 된다.
- ⑦ 교육은 학교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과 국내의 현장 교수 현장 실습지에서 배우는 열린 교육을 한다
- ⑧ 학교는 마을의 올바른 발전과 방향을 같이 하고 학교가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마을의 발전과 유기적으로 관련되도록 한다

- ⑨ 학교는 우수한 도서, 정보, 국내외 인사에 의한 교수나 특강을 확보하여 소비문명의 대안이 되는 흙의 문화를 창조하도록 한다.
- ⑩ 세계화 시대에 맞도록 기본 회화를 원어민에게 배우며 국외 실습으로 세계와의 연대 속에서 넓은 시야로 우리 것을 늘 창조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한다.

문화활동으로는 매년 10월 마지막 목·금·토요일 3일간 '풀무제'를 연다. 첫날은 학술 발표, 둘째 날은 체육대회 그리고 셋째 날은 학예발표를 한다. 대체로 학부모님들이나 외부 손님들은 셋째 날 참여하게 되는데, 올해 풀무제의 주제는 '쌀'이다.

### 외부와의 관계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이 초기에 학교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많고, 지금 그 기관·단체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풀무학교 출신으로 학창시절부터 관심을 갖던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직간접으로 다양한 교류를 하고 있다.

지역에 자리잡은 다음 기관들은 풀무 학교 정신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시작하여 지역으로 독립한 것들이다. 학교 정신을 존중하며 활동하고 있는 지역 공동의 산물들이다.

- ① 정농회 흥성지회(1991년)
- ② 풀무소비자생활협동조합(1981년), 현재 풀무생활협동조합
- ③ 풀무신용협동조합(1974년)
- ④ 시골문화사(1981년)
- ⑤ 갯골어린이집(1980년)
- ⑥ 풀무교직원 생활협동조합(1994년)
- ⑦ 문당리 환경농업교육관, 생태마을(2000년)
- ⑧ 주)풀무사람들(2001년)

사회적 사안에 대한 대응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과 공유하는 형식을 대체로 취하고 있다.

외부관계는 위에 열거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있으며, 국내와 일본에 여러 자매 학교들이 있어 이들과 정기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계간으로 '풀무'지를 발송하고 이밖에 후원회보, 전공부 소식지 등을 발간하고 있다.

## 과제와 전망

풀무학교의 중점 과제로는 물론 올바른 교육·세우기가 우선이지만, 지역사회운동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생명, 환경 그리고 생태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중장기 과제로는 5년 후가 되면 본교 개교 50주년이 된다. 남은 기간동안 그동안의 학교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역할과 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 방문이나 참여는?

방문·체험은 외부에서 손님이 많이 오시는 관계로 일부 제한을 하고 있다. 주로 언론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거절을 하고 있으며 교육관련 단체나 개인 또는 지역 운동 관련한 경우 학교 방문을 허락하고 있으며, 학교 안에서의 체류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 대부분 문당리의 환경농업교육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질차는 학교에 전화를 주시면 교사회를 통해 가부를 정하고 일정을 함께 협의하게 된다. 

## ☞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를 소개한 자료들

『지역이 학교요, 학교가 지역이다』, 김조년, 내일을 여는 책, 1996

『더불어 사는 평민을 기르는 풀무학교이야기』, 홍순명, 내일을 여는 책, 1998

『생명을 섬기는 풀무학교』, 홍순명, 《녹색평론》 제40호, 1998년 5-6월호

스스로를 살려 섬기고 나누는 소박한 삶,  
그리고 저 광활한 우주로 솟구쳐 오르는 '나'

## 자유학교 물꼬

물꼬란  
눈에 물이 넘어 들어가거나  
흘러가게 만든 어귀를 가리킵니다.  
물꼬는 아이들 숨통이 되고 싶습니다.  
물꼬는 세상 숨통이 되고 싶습니다.

물꼬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배웁니다.

물꼬는  
우리가 배운 것들이  
널리 다른 존재를 위해서 쓰이길 바랍니다.

물꼬는  
학교가 삶터요  
삶터가 곧 학교인  
생태공동체를 꿈꿉니다.

물꼬는  
아무도 버림받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 교육공동체 · 생태마을 · 지역공동체 (비영리법인)



● 물꼬 겨울풍경 ●

- 주 소 ; 충북 영동군 상촌면 대해리 698 (370 - 883)
- 연락처 ; 043-743-4833
- [www.freeschool.or.kr](http://www.freeschool.or.kr)    • email ; [mulggo2004@hotmail.com](mailto:mulggo2004@hotmail.com)
- 공동체 대표 ; 옥영경    • 연락 담당자 ; 신상범



## 역사와 현재

자유학교 물꼬가 중심이 되어 계획적인 물꼬 생태공동체와 산골마을 대해리 마을 공동체로 넓어질 꿈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학창시절부터 삶을 가꾸는 글쓰기 방과후 공부방 '열린글 나눔삶 터'를 운영해온 옥영경 교장은 1990년 초 몇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학교를 꿈꾸기 시작하였다. 자유로운 배움을 실천하던 방과후 공부방에서 짧은 시간의 만남으로는 부족하여 주말학교를 운영하였고, 1994년 여름 계절 자유학교를 열었다. 뜻과 사람이 모여 이듬해 8월에는 '자유학교를 준비하는 모임, 물꼬'로 발전하였다. 1996년부터는 마포에서 도시공동체 '연남리' 실험에 들어갔고, 그 해 10월에는 충북 영동군에 폐교한 대해분교를 임대하여, 서울에서는 방과후공부방과 주말학교를 운영하고, 영동에서는 계절학교와 주말학교를 진행하였다.

1999년 들어서는 모임을 '자유학교 물꼬'로 넓혀갔다. 이어 2001년 12월 '서울 자유학교 물꼬'를 영동으로 옮겨 '영동 공동체'와 하나를 이루어 본격적인 생태공동체와 학교를 세울 준비에 들어갔다. 10여 년에 걸쳐 다양한 내용으로 100여 차례의 계절학교와 주말학교를 열어 자유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방과후 공부를 통해 교과서 작업을 해왔다. 그동안 물꼬를 거쳐간 아이들은 3,000명이 넘는다. 이 경험을 토대로 2004년 4월 21일(음력 삼월삼짇날), 생태공동체와 학교가 함께 가는 상설학교 '자유학교 물꼬'가 문을 열었다. 10년의 약속을 실현한 것이다.

진정한 삶의 교육을 찾아 나선 길은 공동체로 이어졌다. 공부방과 주말학교를 넘어 계절학교는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즐거움이 있는 학교, 흩어진 조각이 아닌 모든 생명이 이어지는 연관고리를 찾아내는 배움의 장으로 삼았다. 그럼에도 그러한 배움이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일상화한 학교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삶의 터전이 함께 하지 않는 교육은 제대로 설 수 없다는 성찰도 하게 되었다. 이에 상설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꿈꾸게 되었고, 도시에서 젊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며 조율과 조정, 더불어 삶을 익히는 공동체 실험을 먼저 하였다.

처음에는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의 언저리에 있던 사람들이 활동의 방편으로 결합되기도 하여, 10년 뒤 자유학교에 대한 꿈을 함께 한다거나 공동체가 이 시대의 대안일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한 동의는 약했다. 그래서 생기는 갈등의 양상도 교육에 대한 생각, 혹은 공동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동료들의 갈등 형태로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났고, 그런 갈등에 조정자가 될 어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어서 구성원들 사이의 어려움이 많았다. 해를 거듭하며 물꼬의 꿈이 명확해지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고나는 가운데에도 경험과 꿈이 쌓이고 함께 그 꿈을 실현할 사

람들이 남아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게 되었다.

정말 가능할까 의심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담지는 못하지만 박수로 응원하는 힘들, 물꼬를 거쳐간 아이들이 중고생으로 자라 자원활동을 온다거나(물꼬에서는 이들을 새끼일꾼이라 부른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함께 행복했던 아이들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부터 온갖 고비들을 버텨낸 식구들의 어깨동무로 힘든 시간을 건너왔다.

현재 물꼬는 산골의 작은 폐교(6,200평)를 임대해서 상설 자유학교로 활용하고, 작은 농가도 두 채 빌려 쓰고 있다. 소유한 밭과 임야가 2,400평, 임대해서 쓰고 있는 논밭이 2,500여 평이 있다. 공동체 식구는 모두 일한명으로 30대(6명)가 주축을 이루고, 20대와 40대, 그리고 10살 아래 아이들이 3명 있다.

### 목적과 가치

물꼬의 가치는 자유학교의 이념 “스스로를 살려 섬기고 나누는 소박한 삶, 그리고 저 광활한 우주로 솟구쳐 오르는 ‘나’에 담겨있다. ‘스스로를 살려’ 홀로 설 수 있는 자립하는 힘을 기르고, 우주의 근본에 대한 경의이자, 타인과 스스로를 겸손하게 ‘섬기며’, 함께 배우고 익힌 것들을 모두와 우주에 보탬이 되도록 ‘나누는’ 단순하고 ‘소박한’ 생태적인 삶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유롭게 ‘광활한 우주로 솟구쳐 오르는 나’를 실현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다. 함께 살고 함께 농사짓고 함께 아이를 키우며, 풍족하지 못하더라도 풍요롭고 충만하게 사는 공동체가 이 시대의 대안이라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고 우주를 살리는 다른 길이 있을까?

물꼬에서는 이러한 목적과 가치를 고양하고 공동체에 참여하는 과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공동체 방문은 최소한 3박 4일을 머물도록 하고 있다. 방문기간에는 학교와 들, 밭과 부엌에서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일하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물꼬의 생활과 지향을 접하고 나눈다. 몇 차례 물꼬를 오가고 난 뒤 공동체를 들어오고자 한다면 공동체에서 1년을 머무는 사람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 기간도 공동체 식구들의 흐름을 온전히 따르도록 한다.

‘한데모임’은 공동체와 학교 아이, 어른들이 다 모여 얘기 나누는 시간이다. 지낸 얘기, 다른 이에게 하고 싶은, 같이 지내며 필요한 얘기들을 나누거나 서로 부딪치는 의견들을 조정, 조율하기도 하는 일종의 자치모임이다. 한데모임은 물꼬살이를 익히는 시간이기도 하다.

매일 아침 공동체 어른 모임 전에는 개인의 영성훈련을 위한 ‘명상과 요가’ 시간을 갖는다. ‘깊이보기’는 자기 마음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

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드나들며 마음공부도 하고, 공동체 식구들이 어떻게 의견을 조율해 가는지 보고 익히는 시간이다.

‘호숫가 나무’라 이름 붙인 경건의 시간도 갖는다. 우주 속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한 물꼬가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 생각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것인가는 자신의 선택이 될 터이다. 방문하기 전에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 곳곳의 글에서 물꼬를 먼저 이해하길 권하고 있다.



● 물꼬 계실학교에 참가한 아이들 ●

## 조직과 운영

대표가 있고 중앙위원회가 있다. 중앙위원회는 두레일꾼으로 이루어지고 재정이나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3년 이상 공동체 식구로 살고(현재 4명) 특별한 일로 해외에 장기간 나가있는 경우(현재 1명)가 아니면 두레일꾼(현재 3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한 삶의 세월이 가장 큰 경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는 공동체 식구 모두가 매주 한차례 모이는 한데모임에서 결정한다. 이때 물꼬가 굳이 원칙으로 삼는 게 있다면, ① 정말로 그러한가 끊임없이 묻고, ②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③ 공동체를 위하고 있는가, ④ 틀림없이 훌륭한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자신의 생각이라도 모두가 반대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살피고 또 살피는 일이다.

아직은 공동체 규모가 작고 학교가 큰 비중을 차지해서 학교 교장이 공동체 대표 역할도 하고 있지만, 생산공동체가 설립되는 2006년에는 분리가 가능하리라 내다보고 있다.

의사결정은 한데모임에서 이루어지는데, 무엇보다 각자 맡고 있는 역할(통합교과, 농사, 부엌, 사무실, 학교 소사, 목수, 요가 등)에 대해서 최대한 맡은 이의 의견을 존중한다. 또한 아이들의 일은 많은 경우 역시 아이들 한데모임에서 결정한다. 이때 어른이든 아이든 한 표씩을 행사한다.

물꼬에서는 갈등이 이미 자기 안에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각자의 영성훈련을 중요시한다. 식구들은 끊임없이 요가, 명상 혹은 일

을 통해서도 마음을 들여다보고, '깊이보기'를 통해, 마음 밑바닥까지 들여다보고 얘기를 나눈다. 이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갈등을 풀고 있다.

삶을 원칙으로만 살지 않듯이 딱히 정한 원칙은 없지만, 때에 따라 어떤 원칙을 세우기도 하고 그것이 낡았다 싶을 땐 다시 세우기도 한다. 이미 어떻게 살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 뒤 선택한 삶의 방향이고, 사소한 갈등이 그 방향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굴을 맞대고 사는 생활 속의 갈등은 대개 어떤 식으로든 풀게 된다.

물꼬에서 사는 법 가운데 하나는, 갈등이 생기면 다른 사람 입을 통해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있다. 다른 이들이 조언을 하기도 하지만 문제의 당사자들이 마주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더러는 시간의 흐름에 맞기기도 한다. 지금은 죽을 만큼 어려운 것도 지나면 심지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경우도 있음을 안다.

아이들이 함께 사는 곳이라 아이들을 생각해서도 갈등을 오래 끌려하지 않으며, 때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아이들이 쏟아내는 재롱과 경이로움들이 어른들의 갈등을 풀어주기도 한다. 사는 일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지만 그게 또 같이 살아보면 그리 복잡하지도 않다는 걸 알게되는 것 아닐까.

예를 들면 주방세제 쓰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공동체로서는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거나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밀가루, 등겨, 일반 세제 등을 다 늘어놓고 각자 생태지수에 따라 쓰고 있다. 모든 구성원들의 생태지수가 높아지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는 시기이며, 어느 때가 되면 모두가 환경생태용품만을 써야한다고 정할 때도 있을 것이다.

공동체의 운영은, 어른 아침모임에서 그날 움직임들을 확인하고, 어른과 아이들 모두는 매주 한번 한테모임에서 공동체의 여러 일들을 나눈다. 두레일꾼들만 모이는 중앙위원회에선 큰 재정적인 부분, 공동체 전체 방향에 관한 일들을 결정한다.

아이들의 일상은 아침모임(해건지기-요가, 명상 시간 뒤)에서 그날 움직임을, 그리고 아이들 저녁모임(한테모임)에서 하루를 정리한다.

공동체 식구들은 관심에 따라 여러 문화활동에 참여하는데, 아이들이 하는 예술활동 교과를 같이 하기도 한다. 지금은 한국화, 검도, 요가, 명상, 에어로빅, 풍물, 피아노, 천연구, 유기농 등의 소모임 활동들이 있다.

## 경제와 생산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물꼬를 이해하는 확실한 방법은 이곳을 하나의 큰 대가족 단위로 보는 것이다.

공동체 식구로 들어올 때, 개인 재산을 모두 공동체로 기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공동체에 들어오면 공동체에서 나가는 예를 들어 월급 같은 개인 재산도 따로 없다. 다만 달마다 용돈을 얼마씩 받는다. 자기 재산이 없는 경우엔 공동체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지만 있는 경우엔 의료비 따위를 스스로 감당하기도 한다. 강제성은 없고 스스로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 학교의 아이들도 학비가 없고, 교사들도 월급이 없다. 물꼬는 자본주의적 조직이 아닌 모두가 가족인 공동체이다.

물꼬에서는 계절마다 하는 계절학교가 가장 큰 사업이다. 계절학교는 참가비를 받는데, 이 돈은 계절학교에 돈을 낼 수 없는 아이들도 나눠 쓰고 물꼬 생활비로도 얼마간 쓰이며, 일부는 생태마을을 세우기 위해 적립하고 있다.

그리고 자금을 위해서 꾸리는 5,000여 평의 논밭 가운데 포도밭에서 나오는 저농약 포도를 팔아 수익을 내고 있다. 2006년에는 포도나 과일, 지역 특산물을 생산·가공하는 가내수공업 수준의 생산공동체(수공업품도 포함)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후원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를 세우기 위해 후원회원(논두렁)들이 지난 십여년 동안 보태온 돈은 2005년에 아이들 집과 방문자센터(임시이름)를 짓는 데 쓰일 예정이다. 현재 논두렁들은 학교살림을 보태는 이, 2014년 생태마을을 위해 보태는 이, 학교 건물을 세우는 데 쓰려고 보태는 이들로 나뉘어 있다.

일상에서 노동은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모두 6시간씩 자기가 맡은 곳, 사무실, 부엌, 학교, 논밭 등에서 일을 한다. 이 역시 큰 원칙으로 삼고 있을 뿐 의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논두렁(후원인), 품앗이일꾼(자원봉사)들은 원할 때 언제든지 와서 머물 수 있고 머무는 동안엔 힘이 필요한 영역에서 함께 일한다. 방문자는 3박 4일 이상 머물며 일을 하고, 물꼬 상설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배움값(학비)대신 매달 16시간 노동을 해야한다.

학교 아이들도 날마다 오후 3시간씩 일을 한다. 사무실이나 논밭, 부엌에서 일손을 거들며 자연스럽게 어른들을 이해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을 익히도록 하고 있다.

사업 수익은 모두 공동체에 남으며, 따로 어떤 투자를 하지는 않고 있다. 공동 시설로는, 학교건물(임대), 사택 세 채(임대), 아이들 집(농가, 임대), 농가(임대), 논밭(소유/임대) 등이 있다.

## 생활과 교육·문화

먹거리에 있어서는 채소나 과일, 쌀은 직접 기르고 있으며, 유기농이나 적어도 저농약으로 기르고 있다. 지금은 약 40% 정도 자금을 하고 있으며 모든 먹거리는 자급하려 한다. 채소나 쌀은 모두 자급하고, 포도는 팔기도 한다. 식생활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채식은 기본으로 하고 있다.

식사는 정소리를 들고 달려와 모두 함께 한다. 하루 세끼와 오후 새참이 있다. 시를 낭송하듯 고마움을 전하는 말, 감사노래와 함께 밥을 먹고, 자기 그릇에 물을 부어 깨끗이 헹구 마시는 발우공양을 한다. 설거지는 아이들이 맡고 있다.

건축 부분은 아이들이 놀이 삼아 학기 중에 만들 작은 토담집이 있다. 이 연습을 바탕으로 2005년엔 아이들 집(기숙사)과 방문자센터를 지을 예정이다.

2004년 LG산전에서 정부지원금으로 하는 대체에너지(태양열) 보급 사업으로 물꼬가 선정되었으나 번복되었다. 건물이 단기임대라는 이유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장기임대나 영구임대가 되면 다시 그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고, 지금은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 아이들 집과 방문자센터는 지열 에너지를 쓰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물꼬는 학교를 먼저 세워 꾸려가는 공동체인 만큼, 공동체에서 가장 큰 부분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물꼬는 교육에 대해 '배고픈 이가 먹어야 하듯 아픈 이가 치료를 받아야 하듯, 모든 아이들은 아무 조건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동체를 하나의 큰 가족으로 생각하기에, 그 중심인 자유학교 물꼬는 홈 스쿨링의 확장된 형태 정도로 보고 있다. 자유학교는 전국에서 모인 공동체 식구가 아닌 아이들도 함께 공부를 한다. 공동체 삶에 동의하는 이가 입학원서를 낼 수 있고, 귀농 혹은 공동체 삶을 꿈꾸는 부모의 아이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 2004년 물꼬의 첫 입학생은 7살부터 12살까지의 어린이 12명이다. 외부에서 온 아이들도 학교의 배움값이 따로 없고, 교사들도 임금이 없다. 학년 구분 없는 통합과정의 수업은 몇 가지 정규수업 외에 요가, 목공, 풀잎염서, 그리고 계절에 따라 다양한 만들기 등 대부분 자연과 실생활에서 배우는 것들로 이루어진다. 일곱 명의 교사들 외에도 자원활동 교사로 '비깅샘' 제도가 있어, 한국화, 에어로빅, 검도와 외국인(일어, 영어) 선생님이 수업을 맡아주기도 하고, 품앗이샘들도 수화, 점자, 공예 등 재주를 나누기도 한다. 배움은 일과 예술, 명상을 통해 자기를 다듬고 실력을 키워, 섬기고 나누는 삶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다.

생태공동체와 학교가 함께 꾸려지며,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 고등교육을 맞추어 준비할 계획이다. 초중고등 12학년제로 8학년까지는 전교과를 한 학급으로 통합교육하고, 9학년부터 개별교과학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졸업 후 1년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한 뒤 스스로 진로(공동체, 사회, 대학 등)를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아이들은 학교에서 1km 남짓 떨어진 집에서 지내며, 학교에는 두 개의 모둠방(큰 교실)과 사무실·작은 도서관·강당·동물의 집·우물이 있고, 인근에는 작은

저수지와 시내가 흐르고 있다.

12월에는 '잔치 잔치 열렸네'란 이름의 학술제, 공연, 생각나누기 잔치를 한달 내내 학교 아이들이 꾸린다. 지역사회뿐 아니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아이들이 영동읍 내나 김천시내에서 극장을 빌려 작은 공연 혹은 놀이를 할지도 의논하고 있다. 학교 문을 연 4월 21일에도 해마다 작은 음악회를 열 계획이다.

## 외부와의 관계

주변과의 관계는 많은 바깥사람들이 오셔서 교육, 문화적 교류를 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진 기술을 나누기 시작했고 지난 봄학기엔 짚으로 엮는 여러 가지를 배웠다. 무엇보다 철마다 농사법을 가르쳐주기도 하였다. 차차 민요, 국선도, 건강강좌, 옷감 물들이기, 자동차 정비, 자전거수리, 정육, 낚시, 불교강의, 성경 강의를 할 어른들이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다.

마을 어른들이 너무 연세가 많아 힘겨운 농사일을 아이들이 돕기도 하고, 때론 동네 새참을 만들어 죄다 들기도 한다. 국선도, 민요, 무료 미용봉사, 풍물 등 공동체가 가진 기술을 마을 분들과 나누기도 한다. 꼭 이 지역이 아니어도 돈을 내고 캠프를 갈 수 없는 아이들(서울 오류 애육원, 광주 성빈여사 등)이 이곳 계절학교에 참가하고 있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지 않지만, 종교가 그러하듯 개인적인 정치적 참여는 자유롭다.

외부에서 결합하는 사람들로, 학부모들이 달마다 학교에서 한번씩 모임을 가지고, 매달 16시간씩 공동체에서 일을 한다. 자기 직업은 따로 있으면서 물꼬의 삶을 지지하여 틈을 내 함께 하는 '품앗이일꾼' 주로 공동체에서 하는 계절학교에 손을 보탬다. 물론 농번기나 평상시에도 시간이 나면 며칠 묵으면서 일을 도와주고 있다.

초등학교 때 물꼬에서 공부하다 중고생이 되어 손을 보태주러 오는 '새끼일꾼'들도 있다. 그들은 배운 것을 고스란히 동생들에게 전하고, 역시 계절학교 때 교사로 손을 보태고 있다.

물질로든 마음으로도 도와주는 후원회원 '논두렁'이 있다.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내고 학교에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주기도 한다.

방문자와 오래 머무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공동체의 하루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며 일을 돕는다. 자연스럽게 물꼬 공동체의 삶과 가치관을 느낄 수 있다.

해외교류도 예정되어 있다. 방문자 센터가 마련되면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헨드레드 폴드 팜, 브루더호프 커뮤니티, 호주의 아난다마르가 리버스쿨 등의 공동체들과 오가

기로 하였다. 소식지로는 매달 「물꼬」를 내고 있다.

## 과제와 전망


먹을거리와 에너지의 자립을 중점과제로 삼고 있다. 산골이라 논밭의 한계가 있어 임야를 개간할 계획도 있으며, 재생가능에너지를 도입하기 위해 두루 공부하고 연락하고 있다.

지역적 한계 등으로 외부에 의존할 공산품들이 있기도 하다. 그래서 2006년 작은 규모의 수공업식 생산공동체(생산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여기서는 지역 특산물 가공이나 수공업품 생산을 구상하고 있다.

중장기로는 2014년에 초중고등 과정이 있는 자유학교 물꼬를 중심으로 물꼬 생태공동체와 대해리 마을공동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는 소박한 생태공동체마을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학부모들이 절반 이상은 귀농을 해올 수 있을 것이고 아이들이 자라 공동체에 남아 젊은 인력으로 역할 할 것으로 믿고 있다.

## 방문이나 참여는?

물꼬의 공동체 삶에 동의한다면 누구나 공동체 식구가 될 수 있다. 처음엔 그냥 머무는 사람으로 와서, 몇 차례를 드나든 뒤 머무는 시간을 늘이고 공동체 식구를 위한 준비로서는 한 해를 같이 머물러 본 뒤 공동체에 남을지 말지를 결정한다. 공동체 식구로 남고자 한다면 한데모임에서 왜,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는가에 대해 모든 식구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방문과 공동체 체험은 2주일 전에 미리 전화를 해서 최소 3박 4일 일정으로 방문 날짜를 학교와 결정한다. 비용은 따로 없고 다만, 첫 방문 때에는 아이들이 같이 올 수 없다. 방문자는 공동체의 일정에 따라 아이들과 함께 하는 농사일, 부엌일, 아이들 공부 따위 공동체 어느 구석에서든 필요한 일을 돕는다. 

## ☞ '자유학교 물꼬'를 소개한 자료들

「우주 닮은 아이들 개성 키워주마」, 정현상, 《주간동아》 제431호, 2004. 4. 22.

「산 속의 작은 천사들 - 자유학교 '물꼬」, KBS 1TV 〈현장르포 제3지대〉, 2003. 5.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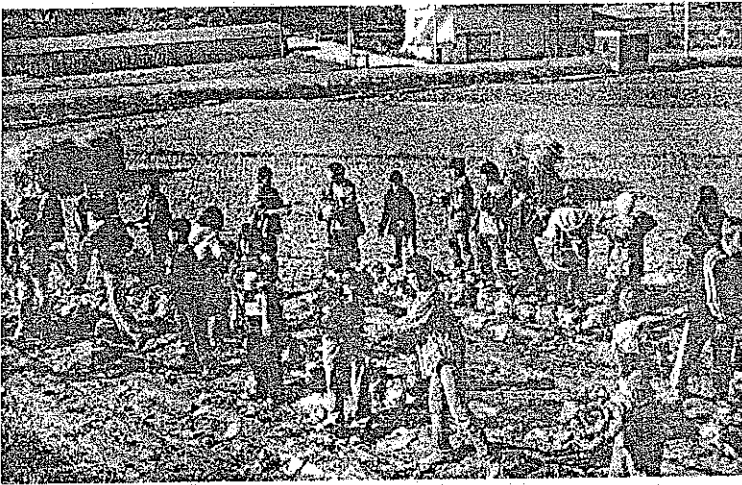


사랑과 자발성의 공동체

## 간디 청소년 학교

간디 청소년 학교는 교육의 본질을 되찾고 대안적인 삶을 위한 교육을 하고자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만든 교육 공동체이다.

☞ 계획공동체 · 교육공동체 (미인가학교)



● 직접 씨를 뿌려 돌보고, 김장할 배추를 나르는 간디학교 아이들 ●

- 주 소 ; 충북 제천시 덕산면 선고 1리 92-3번지 (390-852)
- 연락처 ; 043-653-5791~3
- [www.gandhischool.org](http://www.gandhischool.org)      • email ; [gandhi35@hanmail.net](mailto:gandhi35@hanmail.net)
- 공동체 대표 ; 양희창 교장
  
- [gandhischool.net](http://gandhischool.net) (간디학교)
- [www.gandhischool.net/bbs/indexeasy.htm](http://www.gandhischool.net/bbs/indexeasy.htm) (간디학교, 산청, 인가고등학교)
- [gandhifreeschool.wo.to](http://gandhifreeschool.wo.to) (간디자유학교, 군위, 미인가고등학교))
- [cafe.daum.net/educovillage](http://cafe.daum.net/educovillage) (둔철교육생태마을)
- [cafe.daum.net/gandhialternative](http://cafe.daum.net/gandhialternative) (간디대안교육연수원)

## 역사와 현재

1995년 경남 산청 신안면 외송리 122번지에서 양희규 선생님을 중심으로 생태적 삶을 살고자하는 몇 사람들이 모여 농장생활을 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으로 간디 대학, 간디 계절학교 등을 열면서 상설학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준비하여, 1997년에 중고 통합과정의 대안학교를 열게 된다.

이 때부터 교사 공동체를 만들어 미인가 중학교와 인가 고등학교가 함께 공존하였다. 학교 제정과 운영을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공동체였다. 그러다가 2000년 8월에 미인가 중학교에 대해 경남교육청이 해산명령을 내리고, 간디학교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중학교를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2002년도에 중학교는 충북 제천으로 터를 옮기게 되고, 또 다른 미인가 고등학교인 간디자유학교도 경북 군위에 설립되어 산청, 제천, 군위에 세 개의 학교가 자리를 잡았다.

생태적이고 대안적인 삶을 살고자 애초에는 간디농장의 형태로 출발하였으나 학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대안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현재 산청에서 출발한 공동체의 형태는 많이 퇴색되고 학교라는 조직만 남았다. 미인가 학교인 제천과 군위는 공동체의 모습을 갖고 있는 편이다.

정착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학교철학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이견과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떠나는 사람도 생겼다. 그럼에도 교사공동체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였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나긴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조율하는 지혜를 터득하게 되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분리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성격을 갖게 되었고, 산청 간디는 인가 학교로서의 조직성이 두드러지고 미인가학교인 제천이나 군위는 공동체적 성격을 갖추게 되었다.

경남 교육청과의 마찰을 통하여 인가학교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교사들이나 학부모, 교육의 틀을 바꾸기 위해 계속 싸워야 한다는 교사 간의 서로 다른 의견이 나타났고 이를 통하여 발전적 분리라는 현실적 해결책을 갖게 된 것이다.

현재 제천 간디학교는 전체 토지 약 5,500평, 건평 400평, 대지 2,000평을 가지고 있으며, 임대한 밭 500평과 개인 교사의 밭 500평을 경작하고 있다.

학생을 제외한 교사 공동체 구성원은 20~40대로 15명이다.

## 목적과 가치

간디학교는 '사랑과 자발성'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전인적인 교육, 공동체적인 교육, 자연친화적 교육을 하고자 한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작은 학교를 지

향하며 위대한 불복종의 정신, 쓸모있는 교육, 탁월성의 교육을 추구한다.

간디학교는 특정 종교를 표방하지 않으나 가치관 교육을 위해 철학 시간이나 간디 문화의 밤과 같은 문화행사를 통하여 영성적인 인간, 공적 가치를 지닌 인간이 되기 위한 교육을 행하고 있다. 교사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 년 동안의 수련과정이 필요하며 교사 공동체 정회원의 신입 투표에 의하여 정회원 심사를 거쳐 정회원이 된다.

## 조직과 운영

교사 공동체가 일상의 학교 교육을 관장하며, 학교생활에 관한 규칙이나 안건들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모여 의논하고 결정하는 가족회의가 있다.

부모들의 경우에는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교사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교사 공동체, 학부모 공동체, 학생회를 아우르는 '간디교육 공동체'는 가장 광범위한 공동체 조직이다.

교사 공동체의 경우 합의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의견을 나누고 회의를 거듭하는 만장일치제를 원칙으로 하고, 특정 사안의 경우 위원회를 만들어 위임한다.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간디교육 공동체에서 의논하고 일상적인 일들은 학부모 대표와 교사 대표로 이루어지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대화를 통하여 푼다. 대화는 공식적, 비공식적 통로 모두를 포함하며 의견이 조율될 때까지 계속 회의를 하거나 사적 만남을 통하여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공적 결정으로 가져간다.

작년에 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시점에서 교사들 간의 이견이 분분했다. 중학생에게 학점제를 선택하게 하는 것에 대한 교육적 방법에 관한 의문들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도 발생을 했다. 그러나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속적인 만남과 회의를 거친 결과 학점제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명확히 알게 되었고, 2004년부터 학점제를 시행하여 이제는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

운영 조직으로는 교사공동체에는 교장, 교무, 학생부 등 최소한의 조직이 있다. 학부모 공동체는 학부모 운영위원회, 그 산하에 기숙사 위원회, 교육과정 위원회 등이 있다. 간디교육 공동체는 재정 위원회, 교육 위원회 등이 속해 있고 학교의 이전 등 커다란 사항이나 대안교육 운동 등에 관여한다.

학생들은 학생회가 있다.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여 교과에서 소화할 수 없는 자발적인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 동아리, 연극, 락밴드, 풍물 등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다.

## 경제와 생산

미인가 학교이므로 아직은 법적으로 개인 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교육 공동체 재산이 된 상태이고 법인의 형태를 갖추어 공적 재산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공동 시설로는 교사 숙소를 만들어 재단에서 임대하는 방법을 구상중이며, 공동 농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에 속한 모든 재산은 공적인 재산이 되고, 각 교사들의 개인 재산은 사유재산이다. 교사 공동체에서 교사들의 임금을 결정하며 공동체 규약에 따라 일정 금액을 다시 학교에 내놓는다.

여름, 겨울 방학에 열리는 계절 학교는 교사들이 운영하며, 기존의 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일반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학교 교육을 알리는 동시에 약간의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교육사업이다. 네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며 여기에서 얻는 수익금은 약 일천만 원 정도인데 빈약한 학교 운영비로 충당한다. 일하는 사람은 자원봉사자를 합쳐 약 20명 선이다.

노동은 의식주 교과가 있어서 텃밭을 가꾸거나, 목공, 옷 만들기를 하고 있다. 특별한 건물을 짓거나 학교에 필요한 일들에는 전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일한다. 수입에 대해서는 내부 재단에서 일괄 관리한다. 행정실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적자 상태이므로 일부 출자나 적립은 생각할 수 없는 상태이다.

## 생활과 교육·문화

먹거리와 식사는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는 봄에 채소를 재배하고, 고추, 마늘, 그리고 김장 배추 등이다. 쌀은 지역에서 사 먹고 있다. 기숙사 생활을 하므로 세 끼 모두 공동 배식한다.

잔반 남기지 않는 날을 정하여 그 날은 잔반통 없이 배식을 하고 다른 날에도 거의 잔반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고기를 줄이고 채소 중심의 식단을 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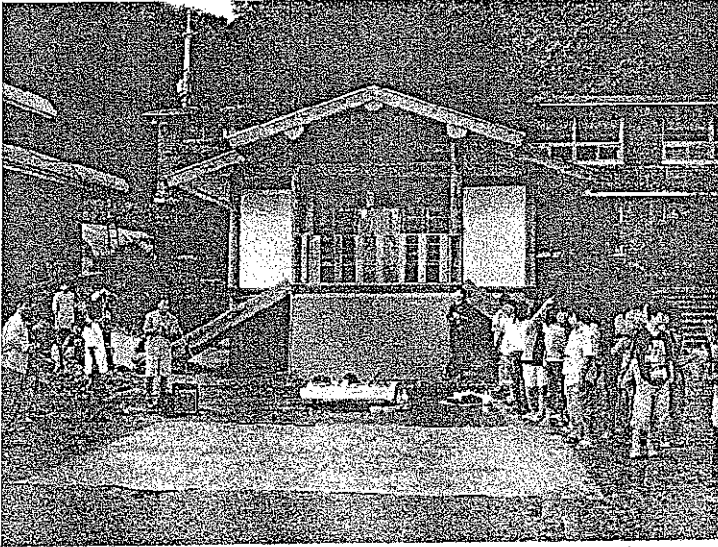
도서관 건물은 흙벽돌을 마감으로 한 전통 목조 주택으로 전혀 못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화장실은 생태 화장실로서 미생물에 의하여 자체 정화된 물은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다. 풍력 발전기 한 대가 있으며 태양 전지판이 함께 부착되어 있다. 이것으로 도서관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설치할 계획이다.

교육에 있어서는 홈 스쿨러들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상 중에 있다. 주 5일제에 따른 주말 학교도 건물이 마련되면 할 계획이다.

문화활동으로는 기말에는 항상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간디축제가 열려서 학부모,

일반인들이 함께 나눌 수 있다.

또한 일 년에 한 차례 대안교육을 외부에 소개하는 간디 문화축제를 학교 바깥에서 음악회나 공연 등의 형식으로 열고 있다.



● 지난 9월에 완공식을 마친 제천 간디청소년학교의 생태화장실 ●

### 외부와의 관계

아직 지역에 정착하는 단계이며 경제적 교류는 생산물을 구매하는 정도이다. 의료 봉사와 지역 문화공연 등은 꾸준히 하고 있는 편이다.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참여에 적극적이며 현장 조사나 시위 참여도 하고 있는 편이다. 지난 번 이라크 파병반대운동이나 부안 핵 폐기장 반대 등에 적극 참여하였다.

후원자들과 정기적인 교류를 하고 있고 일 년에 한 두 차례 만나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대안교육연대에 속하여 다른 대안학교들과도 교류하고 있다.

정기적인 간디 소식지를 격월로 내고 있으며 아이들이 만드는 소식지도 부정기적으로 보내고 있다.

### 과제와 전망

중점 과제는 대안적인 삶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하기에 아이들의 진로지도, 교육 공동체의 향후 방향 설정 등에 있어서 많은 고민과 시도가 있다. 현재 각 학교마다


중고 통합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고 빠르면 제천에서는 2006년부터 중고 통합교육이 이루어진다.

학교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 학교는 앞으로 성인교육까지 담당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 방문이나 참여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자격으로 공동체 성원이 될 수 있고, 교육 공동체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도 있다. 이 경우에는 규약에 의하여 일정 회비를 내고 똑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나 학교를 그만둔 교사의 경우 원하는 이들은 계속 교육공동체에 남아 있을 수 있다.

방문은 일 년에 한번씩 정기 방문 일이 있어서 학교를 소개하고 있으며, 개인적 방문은 미리 연락을 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한 방학 때마다 학교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계절학교가 있어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학교를 경험할 수 있다. 

자주적 가난 · 정의와 평화의 실천 · 생명의 본성을 따르는 삶

## 작은누리

우리는 생명의 본성을 따라 하늘의 음성을 따라 난다.

우리는 모든 불평등과 차별에 반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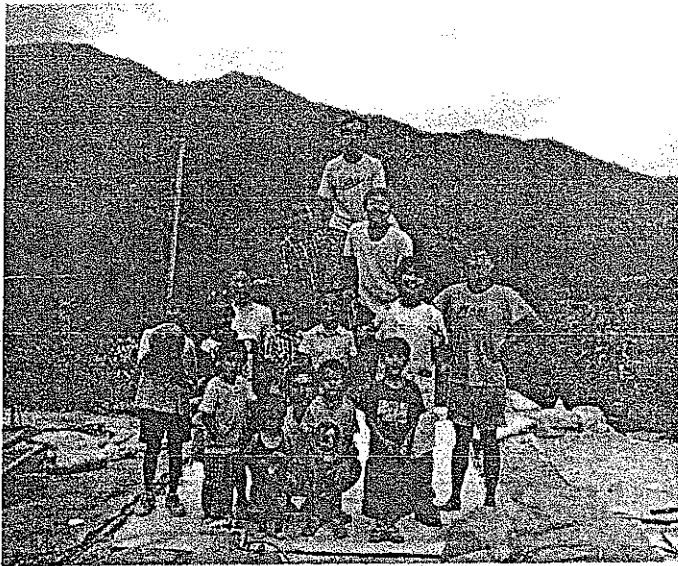
우리는 자주적 가난의 삶을 산다.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공동으로 일하고 공동으로 나눈다.

우리는 노동하고, 교육하고, 기도한다.

☞ 교육공동체 · 여성 · 수련공동체 · 사회복지공동체



● 집지울 터 철거를 마치고 모임 작은누리 식구들 ●

- 주 소 ;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268 (666-963)
- 연락처 ; [REDACTED]
- cafe.daum.net/jakunnuri      • email ; ysnbak@hanmail.net
- 연락 담당자 ; 박형규

## 역사와 현재

1993년 10월 서울 후암동에서 처음 5명(어른 2, 아이들 3)으로 시작하여, 포천에서 5년을 살다가 1999년 피산군 송면을 거쳐 2000년 문경시 가은 모래실에 작은누리가 뿌리를 내렸다. 2000년에 집터 460평을 매입하여 건물 1동을 짓고, 200평 교육공간으로 '빈방'을 건축했으며, 2003년에 '빈당' 건축, 2004년도에 사무실 건축으로 이어졌다.

1997년부터 기존의 학교 교육을 거부하고 자율적인 삶의 체계로 들어섰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웠으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삶의 길을 부정하고 주체적인 가난한 삶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었다.

공동체는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아이들을 입양하거나, 위탁교육(양육) 하고 있다. 자주적 가난의 삶을 살기로 굳게 작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4 가족이 혈연을 넘어서 여러 핏줄들이 한 가족으로 모여살고 있다.

10세 이하와 10대가 비슷한 비율로 15명의 아이들이 있고, 20대~40대까지의 어른들 7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토지 2,000평, 건물 4동(교육공간 2동, 주거공간과 사무실)이 있다.

## 목적과 가치

작은누리의 정신은 '생명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을 추구한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이 사람과 동등한 의미를 지닌 존재임을 믿으며, 인간이 결코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생명의 본성은 자유와 평등과 상생이다. 따라서 인간의 욕심대로 자연을 지배하고 망가뜨리는 인간중심의 문화를 우리는 거부한다. 하늘은 우리를 향해 그가 내신 생명세계의 본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우리는 '평등의 삶'을 추구한다. 사람은 본래 공동체성을 지니고 하늘의 뜻대로 삶을 일구어 가는 역사적 존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불평등과 차별을 거부하고, 하늘의 음성을 따라 평등의 삶이 구현 되도록 힘쓰고 노력한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경쟁을 하지 않는다.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칙은 상생과 자주와 협동이다. 자신의 삶을 위하여 누군가와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짓밟아야 하는 경쟁의 문화는 하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는 경쟁력을 길러야 살 수 있다는 이 잘못된 문화를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자주, 상생, 나눔의 삶'을 추구한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자주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먹는 것과 입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집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 그리고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일구는 이 모든 것들을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 조직과 운영

형식적인 대표자는 없고, 공동의 의견, 의사를 수렴하고 실천해가는 인디언식(불의 원) 토론구조를 가진다.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의 생산, 공동체원들의 미래(진로), 교육내용과 방식, 평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등을 논의한다.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갈등들은 2주에 한번(매달 2번) 정기 '생활회의'를 통해서 갈등을 조정해 간다. 그 외의 갈등들은 공동체 내부의 갈등이라기보다는 공동체 구성원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겪는 근본적인 사상과 원칙에서의 갈등이 대부분이고, 계속적인 토론으로 대부분 정리가 된다. 결국 공동체원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공동 노동과 각 개인이 해야 할 노동이 분명하게 잘 실천되지 않을 때 수시로 조정·조율하고 개인간의 다툼을 중재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와 같은 일을 하겠다고 찾아와서 집에 함께 살았던 식구가 있다. 그러나 사유방식과 생활방식, 지향하는 바가 너무나 달라서 결국은 나간 경우도 있다.

아직 규모가 작아 주로 전체회의를 통해서 대부분의 일들을 운영해 간다. 20세 이상의 어른들이 모이는 소모임이 있다. 이 모임에서 생활과 교육, 공동체의 과제들에 대해서 논의한다.

## 경제와 생산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그러나 공동체의 전체 운영을 위해서 정식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 경우 재산의 일부를 공동체에 헌납하도록 한다. 어느 정도인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맡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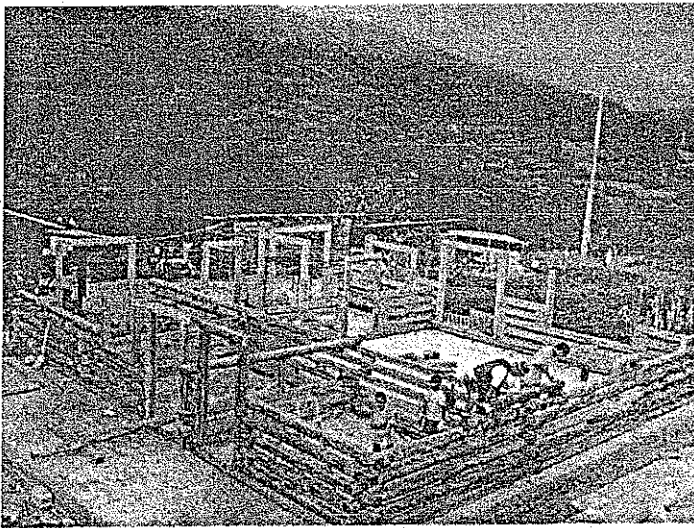
공동 시설로는 '빈당', '빈방' - 교육장소, 운동장, '어깨동무' - 사무실, 차량 1톤 트럭, 승합차 등이 있고, 현재 공동 소유 형태는 없다.

공동체 사업으로는 전통 통나무집 짓기를 한다. 그러나 이것을 공동체 운영을 위해서 수익사업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직까지는 아는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는 정도이다. '집짓기'를 공동체의 사업으로 삼는 문제는 좀 더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식·주·의를 자급자족해야 하기에 공동체 구성원들(만 10세 이상) 모두 하루 4시간 정도의 기본 노동이 있다. 이 기본 노동을 통해서 우리 먹거리를 만들고 생활을 꾸려간다. 먹는 것은 공동식당에서 함께 해결한다. 두 명이 한 조를 이루어 하루를 식당에서 당번으로 일하며 부엌 살림을 한다. 물론 총괄하는 책임자는 따로

있다. 그리고 각자가 맡은 개인의 노동이 따로 있다. 공동의 노동이 있는데 주로 먹거리 농사를 함께 한다. 이외에도 집을 짓는 경우 공동노동을 한다. 기본노동(4시간)을 했을 경우, 10냥의 보수가 지불된다. 1냥은 500원에 해당된다.

아직 공동의 수익구조 없이, 지금까지는 각자가 외부에서 경제활동을 해서 우리가 자급하는 것을 넘어서는 사안이 있을 경우 협의해서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공동체 전체가 혹은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공공의 수익구조를 합의해야 할 시점이 왔다. 우리의 가치관을 그대로 담고 있는 방식으로 수익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 작은누리의 건물 5채는 모두 아이들과 함께 지은 집이다 ●

### 생활과 교육·문화

먹거리의 70% 정도를 자급하고 있다. 쌀을 비롯한 채소류는 거의 스스로 해결한다. 쌀은 우렁이를 이용하여 짓고, 콩, 고구마 등 채소들도 똥, 오줌을 거름으로 하여 유기재배하고 있다. 채식주의는 아니며 자라는 아이들이 많아서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고기를 먹는다. 2004년에 심은 것은 여러 가지 콩들과 토마토, 상추, 치커리, 고구마, 파, 열무, 무, 아욱, 근대, 들깨, 호박, 가지, 오이, 겨자, 방울토마토, 부추 등이며 자급을 위한 것으로 판매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현미밥 위주로 매일 함께 밥을 먹는다. 아침밥은 간단하게 '죽'이나 '현미빵'으로 하고, 매월 한번은 생일 잔치를 겸해 성대한 만찬을 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건물들을 다 지었다. 귀틀공법을 이용한 통나무집이다. 주로 나무와 흙을 소재로 건축물들을 필요에 따라서 짓는다. 이곳 안모래실에서는 태양과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아이들 교육은 공동체내에서 진행된다. 몇 가지 교과를 두고 있다.

▶ 농사와 자연 ; 이 속에 흔히 학교에서 말하는 과학 즉, 생물, 물리, 화학, 지질, 생태, 천문이 다 들어 있다. 우리는 이 공부들을 분절시키지 않고 삶의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연결된 통째로 공부한다. (농사, 생활과학, 별 이야기 등)

▶ 집짓기와 목공 ;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생활 공간과 도구(가구)를 스스로 만들며 나아가서는 그것을 바람직한 생활의 문화로 이어가려고 한다. (집짓기, 목공, 목각)

▶ 우리 몸 공부 ; 우리는 우리의 몸조차도 잘못된 흐름의 문명 속에서 심하게 왜곡되고 비틀어져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왜곡된 우리 몸을 바로 잡고 건강한 삶을 창조해 가는 길목에 우리 몸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공부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낀다. (인체 공부, 기공, 검도, 도보여행)

▶ 역사와 사회 ; 우리의 생활이 곧 정의와 평화를 살아가는 그것이기 위해 지난 사람들의 발자취와 지혜, 그리고 오늘의 세상을 함께 생각하며 배운다. (역사와 오늘의 세상, 철학 이야기)

▶ 나눔의 영성 ; 우리의 생활 그대로 진정한 삶이기 위해서 그것은 항상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어야 하며 또 함께 나누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함께 만들며 함께 나눔>이 우리 삶의 문화의 뿌리가 되고 원칙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의 현존 그 자체가 <나를 드러내고 우리를 아우르는 아름다움의 차원 - 예술>으로 승화해야 하며, 또한 우리 삶을 지치지 않게 하는 <생명력 넘치는 동력 - 영성>으로 작용해야 한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여러 가지 예술의 형식을 통해 표현하고 나누는 방법을 배운다. 또한 하늘의 뜻을 따라 우리 생활과 세상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 (기도와 명상, 글 읽기와 글 쓰기, 음악, 미술)

문화활동으로는 1년에 2번 내부 축제가 있다. 외부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는 아이들판, 청소년살판, 빈방강좌 등이 1년에 2회 열린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필요에 따라 외부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사정에 따라 공동체가 지원하기도 한다.

## 외부와의 관계

가깝게는 귀농한 이웃들과 교류하고 있다. 그 중에는 작은누리 배움터에서 과학선생으로 역할하는 주민도 있다. 경제적인 교류는 없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회·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할 수 있

는 실천방안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표명해오고 있다. 그동안 이라크 파병반대 시위에 도 참여하였고, 병역거부나 국가 의무교육 거부 등의 활동도 하고 있다.

정기적인 외부와의 교류는 없고, 학부모나 여름·겨울 캠프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학생이나 어른들이 있다. 공동체 아이들과 외부 아이들이 빈방 F.C - 축구교류를 하고 있다.

작은누리가 하고 있는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 ▶ 입양 ; 작은누리는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입양하고 양육하는 일을 하고 있다.
- ▶ 위탁 교육과 위탁 양육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아이를 양육하지 못할 사정에 있을 경우 협의 하에 위탁 양육 및 교육을 한다.
- ▶ 웅달샘 쉼터 ;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미혼모나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일시적으로 쉬어갈 수 있다. 이혼이나 기타 사유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한 분들이 이곳에서 일시적으로 기거하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다.
- ▶ <빈 방> 강좌 ; 작은누리에서는 삶의 근본적인 주제인 '교육'을 우리의 과제로 삼아서 자라는 젊은이들과 함께 나누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2004년 여름으로 4 번째 빈방 강좌를 맞습니다.
- ▶ 해나요 - 해방과 나눔의 요람 ; 작은누리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직면하고 경험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찾고자 한다. 하여 1년에 4회 정도의 특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구체적인 고민과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가고자 한다.
- ▶ 모래실 배움터 ; 작은누리는 이곳에 사는 주민들과 더불어 아이들 교육을 위한 배움터를 운영한다. 현재 우리 마을에는 10 가구가 모여 살고 있다.
- 생활공동체 / 이곳에 함께 살며 공부하는 아이들
- 아이들관(계절) / 여름, 겨울 방학 때 타지역 아이들과 함께 2차레 가진다.
- 청소년마당 / 2003년 겨울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학교를 한다.

## 과제와 전망


작은누리의 자율적인 삶의 비중을 강화하면서도 외부에서 참여할 수 있는 입체적인 공유구조(수익·나눔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는)를 확립하는 것이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생활활동을 참조하여 먹거리를 넘어선 삶의 전반적인 것을 논의하고 일구어가는 공유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해방과 나눔의 요람'이란 모임을 통해서 이런 공유구조를 준비중이다.

중장기 과제로는 작은누리와 같은 작은 공동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 공동체의 일꾼을 기르는 일이다. 작은누리는 그 일꾼을 기르는 일에 매진하려고 한다. 여태껏 살아온 우리의 삶을 더욱 더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공동체의 일꾼을 양성하는 소박한 구조를 생각한다.

### 방문이나 참여는?

작은누리의 가치관에 동의하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최초 3개월을 살아보고 전체회의를 통해 논의한 뒤, 협의에 따라 1년 정도의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정식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과 공부가 필요하다. 분기별 평가를 통해, 그리고 최종 1년 후의 총 평가를 근거로 전체회의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

방문·체험은 일주일 전에 미리 방문 목적과 방문 시기를 알려 일정을 조정하고, 당일 방문일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으로 하는 작은누리의 생활(명상시간, 공동노동 등)에 참여하도록 한다. 한 달까지를 방문으로 인정하며, 방문비용은 1일 기준 1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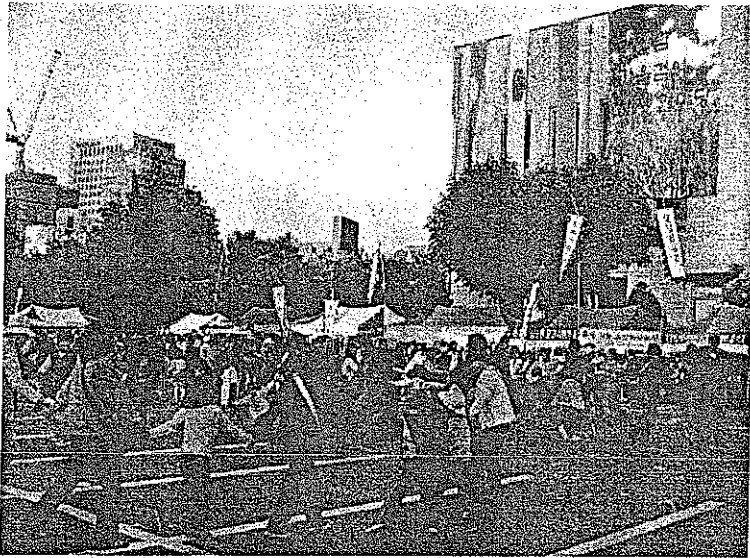
### ☞ '작은누리'를 소개한 자료들

- 「자율·공동체·자급자족의 진행형, 작은누리」, 권은정, 《인권》 2004년 7월호, 국가인권위원회
- 「공동체와 창조성 - 작은누리 공동체 이야기」, 박형규, 《녹색평론》 제80호, 2005년 1-2월호

## 한살림 서울생활협동조합

생명가치에 따른 생활양식의 창조적 실천이라는 한살림운동의 이념을 지역단위에서 실현하는 생활협동조합이다. 조합은 생명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생산한 먹을거리 등 생활용품을 생산자와 직접 교류하며 모심과 살림의 생활양식을 위한 다양한 협동활동을 전개하여 지역 순환농업이 튼튼히 자리잡는 더불어 사는 생명살림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나눔, 도농공동체, 지역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다.

### ☞ 생활협동공동체 (생활협동조합법인)



● 해마다 10월 마지막주에 가을걷이 잔치 한마당을 연다 ●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45-5번지 501호 (137-892)
- 연락처 ; 02-3498-3600
- hansalimseoul.or.kr    • email ; hansalim@chollian.net
- 공동체 대표 ; 하선주 이사장    • 연락 담당자 ; 이남선 상무

## 역사와 현재

한살림 서울생활협동조합의 역사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식되기 시작한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생명파괴현상의 심화에 대하여 산업문명 사회를 대신할 새로운 가치관, 세계관 전환운동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1970~80년대의 농민운동,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가치관과 세계관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정당한 분배요구와 정치권력의 민주화만 이루면 좋은 세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루어졌다.

1960년대부터 가톨릭 원주교구의 민주화운동과 협동조합운동, 부락개발사업을 전개하던 일군의 운동가들이 1970년대 후반 지금까지의 운동에 대한 빠져버린 성찰을 통하여 생명의 터전인 땅이 죽으면 사람도 살 수 없고 농촌은 도시 소비지와 떨어질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도시의 소비자들은 농업과 농촌과 농민이 없다면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모든 사물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 운동이 추구해 왔던 행복이 물질 중심이었고, 소유의 확대에 있었다는 반성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가난하지만 서로 나누는 공동체적 삶이고, 소박하지만 풀, 벌레, 나무까지도 신명나는 대동(大同)의 세상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다. 그래서 농촌의 생산자는 땅을 살리는 유기농업, 협동 생산의 공동체를 일구기 위해 땀을 흘리고, 도시 소비자는 이웃과 삶을 나누는 생활공동체를 통해 이기적이고 물질 만능의 현대적 삶에서 생명의 세계관을 깨닫고 이에 입각한 새로운 생활양식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가톨릭농민회와 가톨릭 원주교구의 지역사회개발 운동을 펼치던 박재일 회장 등이 1986년 12월 4일 서울 제기동에 쌀가게(한살림농산)를 열었다.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지킨다”는 가치를 내걸고 농촌과 도시를 유기농산물 직거래로 매개하는 한살림의 시작이었다. 천주교 원주교구와 독일 미세레올 재단으로부터 재정적인 도움도 있었다.

1988년 4월에는 한살림공동체 소비자협동조합을 창립하였고, 장일순, 박재일, 김지하, 김영주, 최혜성, 김민기 등이 참여한 ‘한살림 모임’은 1989년 ‘한살림 선언’을 발표하며 생활공동체운동의 장을 열었다. 1990년대 들어 한살림은 생활운동으로 협성 생산공동체와 재생가루비누를 개발해 공급하고, 재생휴지를 보급하기도 하고, 농업회생을 위해 우리밀 살리기운동에도 참여하고, 바른농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처음으로 어린이 생명학교를 열기도 하였다. 1994년 2월에는 사단법인 한살림으로 틀을 다지고 1996년 물류센터 준공, 1997년 북한동포돕기 성금모금 운동을 전개하였다.

생산자를 중시하는 활동은 2001년 강원도 홍천의 명동리에서 한 지역 전체가 '농약 없는 마을'을 선포하는 성과로 나타나고, 충남 아산에서는 생산자들은 소비자들과 힘을 모아 지역경제와 순환을 중시하는 두부공장을 세우는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한살림은 2002년 모심·기름·살림의 생명운동을 넓히고 깊게 가져가기 위해 '모심과 살림연구소'를 설립하고, 2003년 11월 '한살림 서울생활협동조합'으로 활동의 틀을 재조직하였다.

20년 가까운 활동의 성과는 전국적으로 8만명의 회원 조직으로 성장하였고, 지역 중심의 자율·자치의 지향에 따라 사단법인 한살림이라는 조직에서 한살림운동조직의 각 부문 및 지역별로 분화·발전하고 있다. 운동 전체를 아우르며 한살림운동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사단법인 한 살림, 각 지역에서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나누는 활동을 하는 지역조직, 생명사상의 심화와 연구를 위한 연구소, 생산자 조직 등으로 분화하고 있으며, 서울·수도권을 사업구역으로 삼는 '한살림 서울생활협동조합'으로 나뉘어 이어지고 있다.

조합은 2004년말 현재 자산이 63억원(유동자산 28억, 고정자산 35억원), 조합원이 6만명에 이르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회원들은 30~40대가 80%를 차지하며 주부들이 중심이다.

## 목적과 가치

협동조합형식의 한살림 생활공동체는 '생명의 가치관과 세계관', '모심과 살림'을 기본이념으로 추구하며, 생명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생산한 먹을거리 등 생활용품을 생산자와 직접 교류하며 모심과 살림의 생활양식을 위한 다양한 협동활동을 전개하여 지역 순환농업이 튼튼히 자리잡는 더불어 사는 생명살림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조합의 목적은 공동체활동의 뿌리이며 줄기로 이어오고 있는 한살림운동의 아래 다섯 가지 지향에도 잘 나타나있다.

- ① 우리는 우리 안에 모셔진 거룩한 생명을 느끼고 그것을 실현합니다.
- ② 우리는 우리가 딛고 사는 땅을 내 몸처럼 생각합니다.
- ③ 우리는 이웃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 ④ 우리는 우주 생명의 일원으로서 생태계에 책임지고자 합니다.
- ⑤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나부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가치는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조합원 가입교육에



서 한살림운동의 취지와 운영에 대한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조합원들의 생각을 넓히고 깊게 하는 다양한 주제로 조합원 강좌가 지역별로 다양하게 열리고 있다.

그리고 활동가들의 의식을 고양하는 활동가 교육과 실무 역량을 높이는 이념 및 실무에 대한 실무자 교육도 중요시한다. 조합원들이 생산지를 방문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라는 한살림 정신을 이어가는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며, 어린이들에게 자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어린이 생명학교도 운영하여 여러 대상과 다양한 교육에 힘쓰고 있다.

또한, “밥상 살림, 농업 살림, 생명 살림”이란 가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살림은 유난히 농업, 농촌과 농민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인공의 도시에서 살더라도 우리의 삶은 자연과 생태, 먹을 것을 생산하는 농촌과 농민의 뒷받침 속에 있다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도시 한살림의 생활공동체가 진정한 생명의 공생체(共生體)를 꿈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조직과 운영

조직과 운영은 협동조합 운영원칙에 충실히 따른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총회는 지부·지역 조합원 대표들로 대의원 총회(약 200명)를 구성하고 있다.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들이 돌아가며 역할을 맡고, 활동을 위한 각종 위원회(학교급식, 물품, 홍보, 환경, 기획정책 등)는 이사회에서 구성한다. 의사결정은 조합의 일반적인 방식인 다수결에 따르고 있으며, 의사소통과 조율을 주로 회의를 통한다.

운영 조직으로는 사무국을 두고, 기획팀, 조직부, 총무부, 공급사업부, 매장사업부, 주문상담부, 조합원 활동실 등의 부서 활동이 있다. 조합원들이 활동하는 다양한 소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다. 활동중인 소모임으로는 풍물, 민요 등 전통문화를 익히고 공연하는 ‘풍물모임’이나 생태기행에 대한 학습을 하고 진행되는 ‘생태기행 모임’에서부터 ‘녹색평론 읽기 모임’, ‘좋은 책 읽기모임’ 등이 있다. 생활 속의 관심이 소모임으로 만들어진 바느질을 배우고 웃도 만들어 보는 ‘바느질 모임’, 전통 발효음식에 대한 학습과 연구를 하는 ‘전통발효음식모임’도 있고, ‘아토피 엄마들의 모임’도 활발하다.

지역모임들은 살림살이가 철 따라 이루어지고 생활환경운동으로 이어지는 실천의 장이다. 석유로 농사짓는 계절 아닌 농산물을 먹지 않기 위해 여름 김장은 물론이고 똑같은 채소로 갖가지 요리를 하는 법을 익히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갈무리 법, 수박껍질로 장아찌를 만드는 등 알뜰 살림의 방법까지 요리교실을 통해 나누고 있다.

직접 천연염색도 해보고, 물을 오염시킨다는 합성세제며 치약을 안 쓰는 것은 물론이고 일회용품은 안 쓰고, 안 쓰는 물건은 바꿔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쓰는 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 달에 한번 환경위원회에서는 '생각을 행동으로'라는 환경 생활수칙을 만들어 이들 지역모임의 활동을 돕고 있다. 아직 일부에 불과하지만 지역모임, 생활공동체 활동을 통해 한살림 사람들은 이제 생활 주변의 환경운동을 넘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쓰고 버리는 시대를 극복할 근본적인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된다.

## 경제와 생산

조합의 기본 자산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형성되며, 주된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사업으로 연간 매출액은 2003년 340억원, 2004년 440억원 규모이다. 전적으로 사업과 활동에 헌신하는 실무자와 활동가 수는 사무국과 지부, 매장 등을 합쳐 150여명에 이른다.

사업에 따른 수익은 조합원에 배당하거나 내부에 적립한다.

4백 여 가지에 이르는 농산물, 가공식품, 몇 가지 환경 생활용품을 1주일에 1회 공급하기도 하고, 수도권에 있는 15곳의 매장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직접 방문하며 한살림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 생활과 교육·문화

조합원 개개인이 가정에서 활용·실천하는 외에 지역모임이나 조합모임 등 한살림 자체 행사에서 사용하는 먹을거리는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고 친환경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조합원과 일반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으로는 모심과 살림연구소가 주관하는 '생명학 강좌', '동학강좌' 등이 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한 여름과 겨울에 생명학교, 그리고 중학생 생명학교도 운영한다. 2박 3일 정도로 농촌지역에서 진행되는 생명학교에서는 우리 먹거리 만들어먹기(호박죽, 송편, 화전 등), 전통놀이(연만들기, 비석치기, 새총만들기, 쥐불놀이 등), 노래배우기 등과 함께 마을둘러보기, 생산자이야기 등 농업과 농촌문화를 모두 공동체로 체험하는 프로그램들로 진행한다.

생명문화운동을 주창하는 한살림의 가장 큰 행사는 매년 10월 마지막주 일요일에 여는 '가을걷이 잔치 한마당'이다. 1992년 처음 개최되었을 당시 2,200여명이 함께 했던 '가을걷이 잔치 한마당'은 이제 1만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하는 큰 어울림마당이 되었다. 조합원과 생산자들이 준비하여 즐기고, 풍물반, 민요팀 등 소모임도 한 몫을

하는 한마당 행사는 '밥긋(추수감사제)'으로 장을 열고, 한살림 물품을 이용한 먹거리 시식회와 장터, 줄넘기, 널뛰기, 줄다리기, 투호, 진흙빚기, 짚공예체험 등 신명의 놀거리로 구성하여 잔치판을 벌이고 있다.



● 2004 여름 생명학교에서 농사체험을 하고 있는 중학생들 ●

### 외부와의 관계

한살림의 지역사회 활동은 지부조직이 중심이 되어 각 지역사회에서 여러 지역시민단체들과 다양한 연대사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농촌과는 생산자와 도시 조합원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문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긴밀한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이나, 방과후 학교, 복지단체 지원 등의 활동도 활발하다.

사회적 활동은 생명가치의 입장에서 사회, 정치적 현안문제를 해석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도 한다. 한살림의 생활공동체운동은 우리의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산업사회의 물질적 가치관과 사회 시스템에 대하여 자율성에 바탕을 둔 새로운 결속원리인 대안적인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동시에 더 많은 참여를 통해 기존의 지역사회를 비판적으로 다시 만들어나가려는 시민운동적 성격도 띠고 있는 것이다. 주된 활동으로는 지역차지, 먹을거리 안전성, 세계화, 농산물 수입개방, 학교급식, 유전자조작식품, 북한문제, 전쟁반대와 평화 등에 대하여는 활동과제로

삼아 교육과 실천을 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조례제정 서명운동,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 서명운동 등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하고 있다.

초창기부터 인연을 맺어온 일본의 생협조직들과는 여전히 긴밀한 교류를 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그린코프 생협연합과는 정기적인 교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환경·농업 관련 단체들과 연대활동을 하고 있으며,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 등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조합원과 조합과의 소통을 위하여 매월 2차례 소식지를 발간한다.

## 과제와 전망

무엇보다 한살림운동의 이념을 널리 공유하고 심화하는 것이 지속적인 과제이다. 또한 조합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교육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생명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개발하는 것과 실무자 및 활동가 인력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이 조합의 중점적인 과제들이다.

중장기적으로 조합은 2010년 조합원 17만, 공급액 1,5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형적인 규모만큼 지역중심의 구단위 지부, 동네 단위 지역모임이 구성되는 것도 중요하겠다. 또한 사람이 중요한 만큼 실무자 및 활동가 인력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업확장을 위한 유기농 생산자를 늘여나가야 하겠다.

## 방문이나 참여는?

조합원에 가입하려면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안내 교육을 받으면 된다. 조합 출자금은 3만원, 처음 가입에 따른 가입금은 3천원이다. **중공제**

## ☞ '한살림'을 소개한 자료들

「지금, 여기에서 삶을 나누고 회색도시를 녹이는 복수초로 피어라」, 윤희근, 《월간 말》 제 202호, 2003년 4월호

농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원주 농민과 소비자의 생활공동체

## 원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1980년대 말 농촌지역 구판장 소비자협동조합으로 시작하여 도시 소비자들과 농산물 직거래 활동, 유기농산물 생산을 통해 생활협동조합으로 전환에 성공하고,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조합원으로 연계하는 생활협동운동을 펼치고 있다. 근래 생명운동의 발상지라 할 원주에서 조합원 자치 조직으로, 유기농업 산지를 지향하며 지역협동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 지역공동체 · 생활협동공동체 (생활협동조합법인)



● 2004 동년기원제에서 강강술래를 하는 조합원들 ●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무장리 482번지 (220-820)
- 연락처 ; 033-731-4272
- www.wcoop.or.kr
- email ; bisan1@hanmail.net
- 공동체 대표 ; 윤현애 이사장
- 연락 담당자 ; 노윤배 부장

## 역사와 현재

원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1988년 호저면에 있는 호저장로교회에서 시작되었다. 1987년 말 한경호 목사가 부임하면서 농촌과 농민사정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농촌지역에 협동조합운동을 모색하며 소비자협동조합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호저 지역주민들과 협력하여 회원들의 생산물을 도·농직거래로 해결하고, 조합원들의 사회경제적 권익을 보호하며, 생명농업의 전파를 목적으로 1989년 4월 호저소비자협동조합을 창립하였다.

초기 출자액은 너무 적어서 사업을 하기도 힘든 액수였으나 교회 기관에서 3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어 구판장을 세울 수 있었다. 호저생협은 설립초기 다른 농촌지역의 구판장 생협과 큰 차이가 없었다. 농민들에게 공산품을 싸게 공급하고 이용고를 배당하는 전통적인 농촌협동조합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구판장 사업은 원주시내와 이십리 떨어진 호저지역에 길이 확장되고 버스가 자주 들어오면서, 게다가 농협의 취급품목 확대 등으로 존립기반을 위협받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당시 대두하고 있던 유기농업과 농산물직거래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호저생협은 구매생협으로서의 위상에서 공급활동을 주로 하는 생산자 생협으로 전환하게 된다.

초기에는 주산리의 호저교회에 다니는 농민들이 주된 생산자이고, 소비자는 수원에 있는 고등교회와 그리고 1990년부터는 서울 강남의 동신아파트 부녀회와 연결이 되었다. 이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호저면 농민회도 만들어 농민들의 사회적 권익을 찾는 활동도 전개하였다.

1989년 겨울 농한기에 뜻 있는 농민지도자와 생협지도자 조합원들이 전국의 유기농 선진지에 견학을 다녀왔고, 이를 통해 유기농업의 토대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1990년도부터 유기농산물의 생산이 시작되었다. 1991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농산물 직거래량은 농민들에게 구판장 이용보다는 농산물직거래의 주체로서 조합에 대한 매력을 갖게 하였으며, 호저생협 지도부는 이때 유기농업을 호저생협의 주요한 정책으로 삼아 농민들에게 유기농업을 적극 권장하기 시작하였다. 호저생협은 1990년대 중반 대개의 농촌 구판장 생협들이 자기활로를 찾지 못하고 해산되는 상황에서 유기농업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해 새로운 생협의 전망을 찾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후 호저생협은 꾸준한 조합원의 증가와 출자액의 증가가 이어져 지금은 출자금 1억5천만 원을 넘고 있다.

1993년 4월에는 호저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개명하였고, 초기의 개인별 조합가입을 농가의 특성을 살려 1995년도부터 가구 가입으로 전환하였다. 1999년에는 원주시

내 도시민들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2000년 3월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하는 현재의 원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재창립 하였다.

이후 사업구역을 강원도로 확대하면서 호저 외에 횡성, 영월, 평창, 신림, 홍예에 있는 생산자들이 가입하여 2002년 7월에는 원주생협 생산자회를 출범하였고, 이어 2003년 9월에는 소비자위원회도 닷을 올렸다. 2004년 3월에는 농업회사법인 호저생명농업 유한회사를 설립하였다. 유기농업생산자는 170여 가구로 22개의 작목반(품목 수 50여 가지)으로 구성되어 생산하며, 유기농업 재배면적은 40만평(논 32만평)에 이르고 있다.

조합원수는 1999년까지 생산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완만한 성장을 보였으나 1999년 말부터 소비자조합원이 가입하기 시작하며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소비자조합원의 최소 출자액은 30,000원이어서 출자금 증대는 크게 늘지 않고 평균출자액도 감소하였다. 또한 조합원수가 늘어나며 직접 얼굴을 대하던 조합원들의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농사 체험, 추수기 잔치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원의 거리를 좁히려 노력하고 있다. 원주생협의 초기 유기농업은 주로 선진적인 농민들의 부분적 실천에 불과하였다. 전체조합원 중 초기 유기농업 실천 농가는 7농가를 넘지 않았다. 이들은 유기농 쌀과 유기농 채소를 소량 생산하는 정도였다. 생산을 늘려도 소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유기농업에 대한 경험도 적어 확산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에는 농산물수입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 우리 농산물이라는 조건만 가지고도 다양한 농산물의 직거래가 가능했다. 원주생협은 이때 소량의 유기농산물과 호저산 농산물을 가지고 직거래를 하였는데 유기농산물 외에도 잡곡과 가공품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특히, 1994년부터 시작된 수도권 의 단위 생협과의 교류는 원주생협이 생산자 생협으로서 도시지역 생협에 물자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구 단위로 가입하는 조합원들은 2004년 현재 생산자조합원 약 300여명(주로 남성, 40~70대 분포)과 소비자조합원 약 500여명(주로 여성, 30~40대 분포)으로 구성되어 있다.

## 목적과 가치

원주생협은 생협이 지향하는 일반적인 가치와 더불어 농촌의 생산자와 도시의 소비자가 함께 조합원을 참여하는 생활협동체이며, 원주라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① 조합원에 의한 자치운영, ② 유기농산지로의 정착, ③ 지역사회 협동조합운동' 이라는 정체성의 정립을 목적으로 삼아 활동하고 있다.

조합원 교육은 생산자 조합원의 경우 3월과 11월에 상·하반기 친환경농업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며, 소비자조합원들은 매월 '생활과 협동' 월례강좌를 하고 있다. 처음 가입한 신입 소비자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촌현장교육도 중요하다. 또한 임원, 활동가 등 지도자를 대상으로 8월에 친환경농업 지도자 연수회를 실시한다.

## 조직과 운영

생활협동조합의 일반 운영에 따르며 총회는 대의원 총회로 년 1회, 이사회는 월 1회 열어 의사결정을 한다. 집행기구로는 실행회의를 두어 매일 이사회전에 개최한다.

생산자회는 22개 작목반을 기본 단위로 하여 작목반의 대표들 운영기구로 운영위원회가 있고, 정책위원회, 기술소위원회가 운영된다. 소비자조합원들은 지역모임(6개)과 각종 소모임(요리사랑방, 토마토, 아이사랑, 문화답사모임, 몸사모 등 8개)에 참여하며 지역과 소모임 대표들로 소비자위원회를 운영한다. 소비자위원회의 소위원회로는 편집위원회, 식품안전위원회, 급식사모도 운영되고 있다.

생협과 관련한 농림사업, 농자재 공급, 가공, 생협 외 유통사업 등은 농업회사법인 호저생명농업 유한회사에서 담당한다.

내부의 소통을 위해 이사회는 생산자이사과 소비자이사 각 4명씩으로 구성하고 갈등요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상호 논의를 통해 중재한다. 이사장(소비자)은 소비자이사를 중재하고, 부이사장(생산자)은 생산자이사를 중재한다.



● 소비자조합원들을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

## 사업과 활동

생협의 사업은 생산자조합원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출하하여 소비자조합원과 소



비자생협에 공급하는 방식이며, 년 매출 규모는 20억원 가량이다. 이사 등 임원 외에 정식직원 5명, 계약직 2명, 활동가 3명이 활동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조합원 외에 주요 농산물 공급처는 수도권 생협 물류센터와 단위 생협, 그리고 지역단체 및 급식단체들이다.

조합원 및 소비자생협 조합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도 진행한다. 봄에는 오리입식행사가 크고 조합원들은 풍년기원제를 펼친다. 여름에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여름밤방울학교를 열고, 가을에 여는 메뚜기잡기 행사도 인기가 좋다. 특히 신입 소비자조합원과 일반인을 위해서는 농사기간 동안 매달 '제철 농산물 수확체험 행사'를 열고 있다.

### 지역사회 속에서

다양한 지역공동체운동이 일찌감치 자리잡은 원주에서는 생활협동운동을 하는 여러 조합·단체들이 참여와 자치의 지역사회건설 등을 목표로 2003년 6월 '원주협동조합운동 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원주의 경험과 지역중심의 대안모델을 만들어 가는 일련의 활동들이 거대자본과 중앙집중화, 수도권 중심의 기형적 사회구조 안에서 지역이 살아갈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제시하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협의회에는 원주생협을 비롯하여, 원주밝음신용협동조합, 원주 한살림생활협동조합, 삼도생활협동조합,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소꿉마당, 성공회 원주 나눔의 집, 원주자활후견기관 등 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원주생협은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차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본 S생협과의 정기교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 과제와 전망

원주생협은 현재 친환경농업 교육장 건립을 중점 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이 유기농업산지로 정착하고, 농민사업과 매장 등이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자치로 운영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 방문이나 참여는?

조합 가입은 원주지역을 기준으로 강원도 일원에서 가구단위로 가입할 수 있고, 생산자의 경우 조합원 출자금은 30만원(평균출자)이고, 소비자조합원의 출자금은 3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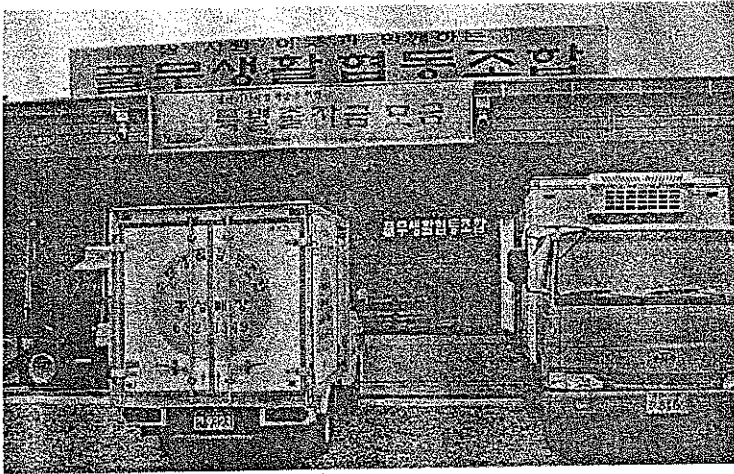
그리고 다른 지역의 생협 조합원이나 일반 소비자들도 원주생협이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생협**

땅 · 사람 · 이웃과 함께...

## 풀무생활협동조합

1980년대 초반부터 풀무학교의 영향을 받아 땅을 살리고 자연과 친화하는 유기농업을 실천해온 지역농민들의 자발적인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700여 생산자가 120종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유기농 산지조합이다. 유기농업을 지역 현장에서 실천하는 농민들이 협동조합의 틀로 생산, 가공, 유통을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 공동구매, 문화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 지역공동체 · 생활협동공동체 (생활협동조합법인)



● 풀무생활협 사무실과 물류센터 ●

- 주 소 ;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258 (350-812)
- 연락처 ; 041-633-3211, 632-9025
- [www.pulmu.or.kr](http://www.pulmu.or.kr)      · email ; [hsjhy21@hanmail.net](mailto:hsjhy21@hanmail.net)
- 공동체 대표 ; 박종권 이사장      · 연락 담당자 ; 정형영 전무

## 역사와 현재

1960년	풀무농업기술학교에 무인구판장 개설
1978년	홍동식품가공조합 창립
1980년	풀무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창립(생활용품, 철물판매 개시)
1984년	수도권 5개지역 소비자단체와 계절농산물 직거래 개시
1989년	조합건물 1차신축, 본격 유기농산물 직거래사업 추진
1990년	농산물집하장, 다용도실, 공산품매장(102평) 준공
1992년	풀무생협 유기농업생산자회 발족(35명)
1995년	제1차 오리입식 및 가을걷이 나눔축제 개최
2000년 2월26일	특별법인 풀무생활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2002년 9월17일	풀무산지물류센터 120평 준공(금평리 223번지)
2003년 8월	풀무식혜 오리농쌀음료 출시(16만켤)
2003년 10월15일	풀무햇살 버건조보관센터 준공(대지 1,500평/300평)

초기에는 생활용품이나 농자재를 중심으로한 공동구매 활동이 전개되었으나 1900년도부터 유기농산물 농산물직거래운동이 사업의 중심축으로 추진되면서 유기농생산자회를 산하조직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유기농산물 소비가 적어 갈아엎기를 반복하면서 많은 생산자들이 지속적인 영농에 어려움을 겪었다.

1999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제도화되고 법인체제로 농산물판매사업이 본격화 되었다. 근래 웰빙 바람이 불면서 급격한 소비증대로 생산자회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2003년 총회이후 생산자협동조합으로써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1차 생산물의 가공, 유통확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4년 현재 지역환경농업의 활성화라는 기본방향 아래 늘어나는 생산자회원의 교육과 내부 생산관리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풀무생협은 창립초기부터 소비자생활협동운동의 성격이 있어 조합원의 구성이 농민과 소비자의 공동구성으로 되어 있어 주로 구판장 또는 판매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점차 환경농산물 판매사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판매장사업을 접게되었다. 이 당시 친환경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조합원이 많이 있어 조합의 성격을 과도기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공동운영모형을 상정하고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논의구조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참여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등 문제가 발생되어 2003년도 총회를 통해 생산자협동조합으로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이사구조를 모두

농민으로 구성하여 생산과 판매사업에 집중화하여 현재는 우리나라 최대의 유기농업 생산자협동조합으로 발전될 수 있었다.

풀무생협 조합원이 생산하는 토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인증등록된 필지를 기준으로 논 98만평, 밭 21만평, 하우스 4만3천평, 과수원 1만2천평 등이며, 축사가 4만평에 이른다.

가구별로 가입하는 조합원의 구성은 40~50대가 300여명, 60대가 100여명으로 많고, 30대가 65명, 70대 이상이 50여명, 그리고 20대 농민 조합원도 15명 등 550여명으로 구성된다.

### 목적과 가치

풀무생협의 목적은 첫째, 유기농업의 가치가 추구되고 둘째, 지역농민의 요구와 고민이 집중적으로 나뉘지고 해결되며 셋째, 농민·농촌주체의 생산, 가공, 유통을 이뤄내어 넷째, 환경농업을 기초로 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활동에서 종교적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지역 특성에 따라 기독교를 배경으로 갖는 어른들이 주요 지도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신규조합원의 경우에는 조합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2회 참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월례농민강좌를 개설하여 협동조합의 운영원리, 유기농업의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현장견학이나 작목반장 교육등을 실시하여 한국농업의 현황, 지역농업, 직거래운동, 지역운동에 대한 교육과정이 이뤄지고 있다.

### 조직과 운영

생협 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 300명 가량의 조합원이 참석하여 예결산과 사업계획 등을 다수결로 결정한다. 이사회는 총회선출이사 7명과 각 생산위원회 위원장인 당연직 이사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1년에 15차례 정도 정기·임시 이사회를 갖는다.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대부분 전원합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무국은 12명의 상근직원이 있고 전무가 총괄하며, 생산관리부, 총무부의 2개 부서로 편성되어 있다.

조합내 문제는 감사와 이사회에서 조정되는데, 1990년대 중반 복식부기작성 등 전문회계인력이 없어 조합재정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적이 있다. 이에 한달 간 중환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에 따라 이사회는 새로운 인력을 보충한 뒤, 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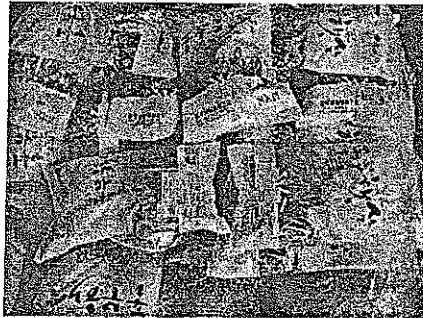
운영 조직으로는 쌀생산위원회(20개 마을 쌀작목반장으로 구성), 채소생산위원회(19개 품목별작목반장으로 구성), 유기축산위원회(축종별 작목반장으로 구성) 등이 있어 각각 매월 한차례 회의를 통해 생산계획과 기준, 교육과 신규작목반 가입을 심의한다. 각 품목별 작목반들은 소모임도 구성하여 운영한다.

## 경제와 생산

풀무생협이 소유하고 있는 공동 시설로는 산지물류센터(건물 120평, 부지 2,000평), 유기농벼 건조저장센터(건물 200평, 부지 1,500평), 환경농축산물 종합가공공장 부지 3,000평 등이 있다. 그 외의 농업관련 시설은 조합원들의 개인소유로 관리운영된다.

풀무생협의 사업은 환경농축산물 공동판매사업이 중심인데, 170여종의 곡류 및 채소, 과일류를 취급하고 10명의 직원이 활동하며, 년 매출액은 약 60억원으로 조합 운영 재정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유기농벼 건조사업은 100만평의 논에서 생산되는 벼 2,000톤을 건조하는 시설과 사업으로 2개월 동안 일시인력 4명이 배치되는데 약 1억원의 수익이 있고 이것으로 운영재정의 10%를 충당한다.

공동노동은 일에 따라 작목반 단위에서 주로 이뤄지며, 특히 벼농사의 경우 공동 육묘장이 공동으로 운영되고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은 없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생산자가 농가별로 노동을 하고, 이웃사람들끼리 일손을 나누는 품앗이는 개별 친분관계에 따라 이뤄진다.



● 오리농법 유기농 쌀 ●

조합의 사업수익은 전년도 사업손실금 보존, 법정적립금 충당, 사업수익에 대한 세금을 처리하면 거의 없다. 그래도 남은 수익은 기본출자금을 제외한 목적출자금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시중금리 정도에서 배당을 한다.

## 생활과 교육·문화

대부분의 조합원은 먹거리를 자립적으로 조달하고 있으나 일부 없는 품목은 다른 생산자의 것을 얻거나 홍성 읍내에 있는 유기농 전문매장을 이용하고 있다. 농촌에서 자립적으로 생산하지 못하고 구입하는 것은 대략 30%정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회의 때 공동식사는 지역의 일반식당을 이용하는 편이며, 공동행사 때 식사는 조

합에서 생산되는 각종 먹거리를 이용하여 뷔페식으로 차려지고 있다.

주거생활은 일반 농촌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조합원들 가운데 자신의 집을 새롭게 황토흙집, 통나무집 등 생태적으로 지은 가정이 5명이 있다. 한 조합원은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하였다.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적은 비용과 간단한 시설로 주로 취사용으로 사용되고 잔여물은 환경농업을 위한 고급 액비로 활용하고 있다.

교육은 지역의 보육·교육기관들이 활용되는데, 먼저 어린 아이들은 대부분 갯골 어린이집에 다닌다. 갯골 어린이집은 풀무학교에서 시작되어 지역사회에 개설한 보육기관이다. 초등·중등학생은 지역의 일반학교에 다닌다. 고등학교과정은 대안교육의 원조적인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와 풀무전공부가 있다. 공동체의 주요 임원들이 이 학교 출신이고 풀무생협도 연원은 풀무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학교와는 조합원교육 등에 유기적인 협력을 하고 있으며 조합에서 4명의 학생 수업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역의 흥동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인근의 장곡, 금마 초등학교와 부속 분교 두 곳 등 모두 6개 학교 650여 명에게는 지역에서 생산한 유기농쌀 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미 기준의 급식비 지원금과 유기농쌀과의 차액은 오리쌀 작목회와 풀무생협 조합원들이 부담하고 있다. 갯골 어린이집 아이들은 풀무생협의 지원으로 쌀뿐만 아니라 부식까지 친환경 식자재로 공급받고 있다. 지역의 순환과 자립이라는 유기농업의 원칙을 지역에서 하나씩 실현해 가고 있다.<sup>1)</sup>

문화활동은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마을별로 잔치를 벌이기도 하며, 풀무생협이 준비하는 행사로는 오리입식축제, 가을 나눔의 축제, 대보름축제 등이 있다. 딸미의 마을방문체험 프로그램을 참조하면 된다.

## 외부와의 관계

풀무생협은 초기부터 학교와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이 조합원이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농가의 살림살이를 꾸려가고 있다. 즉 지역사회와 풀무생협은 인적관계 등이 매우 긴밀하다.

이러한 배경과 조건 속에서 풀무생협은 사회,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개진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편이다. 지역사회의 농민회, 시민사회단체,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생협전국조직 등을 통해 생협, 지역사회 또는 제도와 관련된 일에 입장을 개진하거나 참여하고 있다. 농업문제, 환경문제, 평화문제, 지방자치 등에

1) 흥동지역 급식운동에 대해서는 <장길섭, 2004. '마을공동체와 교육, 학교급식', '녹색평론' 제 74호, 1·2월호> 및 <홍살림(heuk.or.kr)신문 2004년 4월호, 81호>기사 참조

있어서 생협의 역할을 하고자한다.

생협법의 틀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직접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조합내부의 주요성원간의 비공식적인 토론과 협력은 늘 논의되고 있다.

풀무생협이 교류하고 있는 소비자단체로는 한국여성민우회생협, 한국생협연합회 소속 생협, 수도권생협연합회 소속 생협 등이 생산지전학, 주요축제 등에 일상적으로 교류·참여하고 있으며, 생산단체로는 (가칭)지역환경농업생산단체협의회 결성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전국의 약 30여 개 생산조직과 긴밀한 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해외의 경우 일본에서 지역방문이 많은 편이지만 생협 차원에서 직접 교류해온 단체는 없고, 현재 일본의 시모고농협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다.

정기간행물은 매달 풀무생협소식지를 600부 발행하여 조합원들에게 발송한다.

## 과제와 전망

풀무생협의 중점과제는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잉여농산물의 가공, 산지물류시설의 확대 등이 이루어져 지역농업의 안정된 경제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환경농업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지역이 농림부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관련한 활동과 지역의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또한 세계화 종속전략에 대응하는 지역대안경제방안을 마련하고, 원거리수송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저비용 저효율의 경제를 구축하며, 지역생산과 지역소비의 순환형 경제체계를 구축하는 대안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방안들을 중장기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다.

### ① 지역화폐 '풀무지역화폐은행' 운영

- 현금(돈)이 없어도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유통되는 지역경제시스템 구축
- 전통 두레공동체를 현대적 경제공유방식으로 승화시켜 현실에 적용
- 지역화폐단위를 '1원=1풀무'로 등가환산하고 풀무지역화폐은행 운영
- 생산자 결제, 직원급여 등 일부 약 10%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점차 확대
-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돈 없이 나누고 교환하여 살 수 있는 지역공동체 구축
- 지역화폐네트워크 구축(생협, 풀무학원, 신협, YMCA, 신문사, 교회 등)
- 풀무은행(주사무소-신협, 분사무소-생협, YMCA 등) 개소

### ② 지역내 50주 직매송 년회원제도 도입

- 풀무생협에서 생산하는 년중 생산품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할 년회원가정



## 모집

- 휴가기간 또는 연말년초 등 특정기간을 제외한 회원가정에 년 50회 직배송 체제 구축(회원가정 1,000가정 목표, 년 20억)
  - 회비는 5인 가정 기준으로 년회비 200만원, 분할납부도 가능토록
  - 흥동, 흥성, 인근 시군으로 확대해 나감
  - 1차 년도 100가정 목표설정, 3년 이내 1,000가정 모집 추진
- ③ 친환경농산물 학교(단체)급식부식재료 의무이용운동 추진
- 국민건강증진, 지역농업보호, 농촌살리기 운동, 자급자족의 지역순환 경제체제 구축에 기여
  -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도·군조례제정운동과 연계 (조례안에 친환경농산물 표기토록)
  - 여론형성 및 지지세력화 : 조합원 및 지역 소비자교육 실시, 지역신문 여론형성 작업, 서명작업, 캠페인, 공청회 등 개최
  - 시범적 실천활동으로 갯골어린이집, 흥동초등·중학교, 장곡초등학교 등에 우선 적용하고, 참여증진을 위한 품목별 인센티브 적용폭 확정
  - 흥성군 유초중고 학교급식인원은 약 20,782명, 년평균급식일 180일, 1일1인 평균 식품비 938원
- ④ 지역내 생협 직거래 공급
- 지역내 소비자생협 태동시 직거래 공급 개시
  - 현재 흥성읍 인구는 3만7천명으로 생협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서산, 당진, 예산, 보령 등과 연계필요성 대두
  - 흥성읍을 중심으로 소비자생협이 구상되고 있고, 전국물류에 합류될 경우 풀무생협의 생산물이 수도권물류기지를 거쳐 다시 지역으로 배송되는 아이러니가 발생될 수 있음
- ⑤ 지역내 직매장 운영과 확산
- 생산자물류 시발, 물류의 생산자중심성 확보, 풀무생산정책에 기초한 매장운영과 확대
  - 단지화작업 및 생산자 확산에 따른 판매망 확대전략 필요성 대두
  - CI작업을 통해 친환경농축산물 전문매장인 가칭“풀무마을”기칭
  - 흥성에 제1호점 개설을 시발로 인근 시군, 여타지역으로 확산
  - 향후 수도권지역으로도 확산

## 방문이나 참여는?

플무생협 가입은 농사를 유기농업으로 지으려는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가입신청서를 쓰고 가입비 1만원과 기본출자금 2만원을 내면 일단 조합원으로 가입된다. 이후 조합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2회 이상 수료하고 기존 조합원의 추천을 받아 작목반에 가입하고, 소유필지에 대한 인증절차를 받아 생산계획서와 함께 조합 생산관리부에 제출하면 재배한 농산물을 조합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

방문·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다. 소비자 생협별로 또는 개인·단체별로 사전신청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논오리입식축제 : 매년 6월 6일 당일, 약1,000명, 마을별 분산개최, 농오리방사, 농가방문식사 및 대화, 감자캐기, 콩따기, 제초 등 농사체험, 오리쌀떡 만들어먹기, 공동체놀이 등. 참가비는 가정당 오리입식자금 1구좌 18,000원이다. 이는 새끼오리 10마리를 구입하는 값이다.
- 가을걷이 나눔의 축제 : 매월 10월 3일 당일, 약1,500명, 마을별 분산 개최, 농가방문식사 및 마을별 공동식사, 오리쌀떡 만들어먹기, 오리로스구이먹기, 밤따기, 고구마캐기, 운동회 등, 참가비는 1인당 5,000원이다.
- 정월대보름축제 : 정월보름 당일, 오퍩밥 먹기, 쥐불놀이, 감자구워 먹기 등, 마을별 분산개최, 참가비는 1인당 5,000원이고, 건나물을 산지에서 살 수 있다.
- 유기농잼딸기 축제 : 딸기 끝물수확시기 약 300명, 1인당 5,000원, 잼용딸기 직접 수확하여 가져가기, 산지견학 등

이외에도 산나물축제, 표고버섯축제, 김장축제 등 생산수확시기에 맞추어 다양한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어느 때나 생산지체험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일정과 프로그램을 사전에 협의하여 캠프를 진행할 수 있다. 생산지체험 프로그램은 플무생협 총무부장이 담당하고 있다. **중요**

환자가 주인인 의료 지역공동체

## 안성의료생활협동조합

안성의료생활협은 한국의료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전문가(안성진료회)와 의료소비자(지역민)가 공동으로 건강문제를 모색하고자 만든 자발적인 조직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의료생활협이다. 주요 활동내용을 기존의 질병 치료중심에서 보건 예방 중심으로, 협의의 건강에서 생활전체로, 지역주민을 건강의 대상에서 건강주체로 만들어 가는 지역공동체이다.

☞ 생활협동공동체 (비영리사단법인)



● 안성의료생활협에서 운영하는 병원 중 하나인 우리생활협의원 개원식 ●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인지동 414-5번지 (456-230)
- 연락처 ; 031-672-6121
- [www.medcoop.or.kr/ansung](http://www.medcoop.or.kr/ansung)    · email ; [bongsub3@hanmail.net](mailto:bongsub3@hanmail.net)
- 공동체 대표 ; 송창호 이사장    · 연락 담당자 ; 최봉섭 사무국장

## 역사와 현재

1987년 안성에서는 고삼면 가유리 마을 청년회가 마을 사람들을 위한 진료소를 유치 하고자 했고, 농민 건강에 관심이 있는 의사와 의대학생들이 이에 호응하여 주말 진료활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다양한 직종의 보건 의료인이 참여하였고 1991년에는 한의사가 참여하여 양·한방이 같이 진료활동을 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주부들을 대상으로 마을 건강요원을 꾸리기도 하였고, 예방 접종 사업도 진행하였다.

1991년 10월 주말 진료의 한계를 느껴오던 의료인들은 지역에 의료 기관을 만들고자 '안성 진료회'라는 의료인 모임을 결성하고, 1992년 11월에는 의료인과 지역 주민이 공동 출자하여 '안성 한의원'을 설립하였다. 이에 힘입어 1993년 8월 안성군 농민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과 안성진료회, 기독청년의료인회 등의 의료인이 참여하여 안성 농민의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출자운동을 전개하여 예비 조합원 253명에 출자금 1억 3천만원을 모았다. 이들은 1994년 4월 24일 안성의료생활협동조합 창립 총회를 열고, 5월 2일 안성농민의원을 개원하고 안성한의원을 이전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생활협동조합이 창립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권리이자 의무이다. 건강이 인간행복의 기본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료기관이 거의 80%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의 의료시장이 의료의 상품화로 의료의 사회적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로 지역사회의 건강 유지능력이 떨어지고 의료전문가에 독점되어, 의료혜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의료 현실의 문제를 공감하면서 지역주민의 건강 지키기, 의료인과 의료소비자의 신뢰관계 회복, 의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의료정책 요구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요구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이 결실을 본 것이다.

안성의료생활협 창립이후 바로 조합원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가정간호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듬해에는 만성질환자 관리와 지역활동을 시작하고, 한발 앞서있는 일본 의료생활협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후 연도별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996년 아시아 국제보건협동조합 모임에 참석, 보건학교 시작, 대의원 총회 구성
- 1997년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시작, 지역무료순회 진료, 양·한방의사, 보건예방활동 인력이 충원되어 의료생활협의 모습을 갖추
- 1998년 거리 건강캠페인 시작,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정책토론회 연대, 현재의 사

업장으로 이전

1999년 해바라기 교실(뇌졸중 환자 돌보기) 시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  
참여, 의정지기 학교 연대진행

2001년 비영립 특별법인 설립총회

2002년 생협 치과 개원, 가정간호사업소 개설

2003년 우리생협의원 인수 운영

안성의료생협의 역사는 우리나라 의료생협의 역사나 다름이 없다. 지난 10년간 활동을 자체 평가한 자료를 통해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자.<sup>1)</sup>

1994년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나서 1996년까지의 생협 형성기에는 진료활동의 강화를 통한 의료기관 운영의 내실화, 의료생협 조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임직원에 대한 생협 교육, 지역보건 예방사업에 대한 기초 자료조사, 의료생협 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각 위원회, 실무자회의, 임원과 실무자간의 의견 수렴 방안 등 의료생협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 내부 운영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주력한 시기이다.

임직원을 상대로 한 집중적인 생협 교육과 일본의료생협 연수는 안성의료생협의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주민홍보를 위한 순회진료활동, 각종 모임 및 행사에 참여하기 등 농민회를 중심으로 조합원이 자신이 속한 지역모임이나, 마을모임에 실무자를 초청하여 설명하는 방식의 선전홍보 활동을 하였다.

조합원이 참여하는 방법은 조합원 마당놀이, 생협인의 밤, 야유회 등 일회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방식이었으며, 조합원에 대한 교육이나 모임은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조합원 간담회형식으로 진행된 대의원 선거는 의료생협의 현황소개, 조합원 알고 얼굴 익히기, 조합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의 내용으로 지역별 의료생협 조직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2000년까지는 의료생협의 토대를 구축하고 성장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조직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한 임원 및 대의원의 역할강화에 목표를 두었다. 조합원의 참여기반 확대를 위한 조합원 간담회, 지역별 대의원 모임, 선거를 위한 간담회 등이 진행되어 조합원의 참여의식을 고양시키고 조합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역별 모임 준비과정에 임원, 대의원이 참여하지 않고 실무자에 의해 준비되고, 조합원의 참여율이 낮은 것 등, 지역별 모임은 조합 운영 구조로 정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모임이 진행되면서 임원 및 대의원의 역할 강화의 필요성이 크게

1) '안성의료생협 조직·교육·홍보·연대활동 평가', 최봉섭, 2004. <10년 사업 평가 토론회> 자료, 안성의료생협

대두되었다.

양, 한방, 보건 예방실 인력 충원으로 인한 1차 진료 및 보건예방 활동이 확대되었으며, 병원 이전으로 교육 공간 확보에 따른 강좌(바둑, 사진, 요가) 및 소모임(해바라기, 좋은 엄마아빠 모임)이 가능하게 되었다. 조합원 교육을 위한 비디오 제작, 조합 홍보를 위한 거리 건강체크대회 및 스티커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조직을 확대하였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는 안성의료생협이 확대되고 발전한 기간이다. 조직의 내실과 활성화를 통한 이사 대의원, 실무자모임을 통한 지역별 운영구조의 확립, 소모임 활성화 등 생동감 있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꾀하는 시기로 법인 설립 무산으로 인한 조합조직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조직이 개편되었다.

조합원의 활동이 다양한 내용의 소모임으로 확대되었으며, 소전사<sup>2)</sup> 활동의 시작으로 활동하는 기본 골간 조직들이 구축되었다. 외적으로는 치과, 가정간호사업소 및 우리생협의원 개설을 위한 가입 및 증자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주부 및 어린이를 상대로 한 모임이 조합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안성의료생협은 현재 안성농민의원, 농민한의원, 생협치과, 우리생협의원 등 4개 병원과 가정간호사업소, 제가케어복지사업단 등 2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물은 250평을 임대로 사용하고 생협 명의로 30평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안성시는 도농 복합시로 의료생협 초기에 참여조합원은 농민이 주된 층이었으나, 현재는 안성시내에서 가입한 조합원이 48%로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2001년에는 조합원들의 요구로 치과를 두기 위해 증자운동을 벌였고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조합원은 1천명을 넘었다. 2004년 말 현재 조합원은 1,700여명이며, 가구원으로 보면 6,000여 명에 이른다. 조합원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남녀가 비슷하고, 연령별로는 40대, 30대, 10대, 20대 순으로 나타나며 20~40대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 목적과 가치, 교육

의료생협이란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신의 건강, 의료와 관련하는 생활상의 문제를 다루고자 조직된 주민의 자발적인 협동조직이다. 의료생협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임원들과 직원, 의사를 비롯한 의료전문가들과 협동하여 의

---

2) 매달 나오는 안성의료생협 소식지를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조합원에게 전달하는 조합원

료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노인등 건강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등 건강, 의료에 관련한 여러 현안들을 스스로 해결하고자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의료생협은 지역주민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지역주민들에게서 질병이 생기기 이전에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방보건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주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모임(반)을 구성하고, 의료기관등을 민주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에서 민주적인 지역주민조직의 모태가 되고 있다.

안성의료생협은 그 목적을 크게 4가지 가지고 있다. ① 생태주의적 의 삶(생명존중) 지향 ; 지역의 유해한 환경개선 대응, 유기농 먹거리 모임 운영, ② 보건예방 ;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활동을 증시하여 매년 조합원 건강검진 권유, 만성질환자 관리(당뇨, 고혈압, 간염환자 투약)및 건강교육을 실시, ③ 상부상조(협동) ; 주민의 자치적이고 협동적인 활동을 통한 보건의료문제 해결, 건강마을 만들기, 자원봉사자의 가정방문 간병활동, 해바라기(중풍환자) 모임 진행, 지역보건복지 네트워크 운영, ④ 주민자치 ; 다양한 형태의 건강모임(소모임 활동),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각종 위원회 참여, 조합운영의 주체자 참여)

이러한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활동은 의료와 생협을 두 축으로 실시한다.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보건학교(년 1회, 건강상식 및 간단한 건강체크 방법 교육), 무지개 강좌(월 1회, 갱년기, 우울증, 관절염, 비만 등), 생협 강좌(년 3회생협의 이념과 역사 등), 생협학교(년 1회, 의료 생협의 정체성 등) 등을 진행하고 있다.



● 2005년 들어 지역활동으로 실시한 안성시 농아인협회 건강체크대회 ●

## 조직과 운영

안성의료생협의 조직과 운영은 기본틀에서 생협 일반에 따르기는 하지만 그 기본 정신에 철저한 충실함으로 다른 조합들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규모에 따라 안성의료생협도 총회를 대의원 총회로 구성하는데, 여기서는 대의원을 조합원 12인이 모여 1명의 대표를 선출하여 100명의 대의원이 1년에 한번 조합사업의 중요한 사안을 의결하는 대의원 총회를 구성한다. 이사회도 조합원 10명이 추천한 조합원이 후보로 등록하여, 대의원 총회에서 모두 선출하고 매월 이사회를 갖는다.

각 위원회(조직교육위, 경영이용위, 보건위, 지역복지위, 우리생협운영위위원회)는 이사, 실무자, 대의원, 전문가 등 8~10명으로 구성하여, 각 위원회의 사업을 집행하고 기획,입안, 검토하는 단위로 월 1회 모임을 갖는다.

소모임 운영도 체계적이고 활발한데, 소모임은 조합원 5명이 동의하여 제안하고 공개적으로 소모임 회원모집을 공지한 후, 10명이상 동의하면 조합에서 진행한다. 소모임 운영에 관한 비용은 모임별로 자체 부담하며, 소모임 대표자 회의를 월 1회 진행한다.

소모임도 생협의 성장기를 거치면서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15개 소모임에 3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체조교실, 문화유산 답사회, 심심축구단, 좋은엄마아빠모임, 생활채공동구매모임, 포크댄스교실, 택견교실, 동화속으로,, 영화속으로, 숲속으로, 유소년축구단, 해오름(품물팀), 일요산행, 미술로 자라는 아이들, 요가 등의 소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의료생협에서 소모임 활동의 의미는 조합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하여 건강한 생활체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왕성한 소모임 활동으로 조합 내 소모임 공간의 부족한 어려움마저 나타나고 있다. 소모임 회원이 다른 조합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구성원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소모임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소모임 활동은 단순히 취미활동에 머물지 않고 건강한 주체와 협동운동의 의미를 인식하는 교육적 효과와 과제가 있는 것이다.

## 사업과 활동

안성농민의원(의사 2인, 의료기사 3인, 간호조무사 3인, 간호사 1인), 안성농민한의원(한의사 3인, 간호조무사 6인, 약탕실 1인), 우리생협의원(의사 1인, 간호사 2인, 간호조무사 1인), 생협 치과(의사 1인, 위생사 2인), 가정간호 사업소를 공동이용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며, 안성의료생협이 운영하는 사업체로 등록되어 있다.

재가간병팀은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지원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11명의 건강도우미가 46명의 대상자를 상대로 가정 방문하여 간병 및 가정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조합 사무국에는 실무담당자가 4명 근무한다. 안성의료생협의 연간 매출은 2003년 결산 기준으로 대략 12억원이고, 3천5백만원 가량의 수익이 있었다.

지역사회와는 초기부터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그만큼 지역현안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소각장 대책위나 어린이날 연대행사 등에도 참여한다. 사회, 정치적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사회나 조합원의 정서를 고려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공존하여 사안에 따라 대응하는 편이다.

이제는 전국에 10개에 이르는 의료생협이 생겼고, 의료생협연대도 꾸려져 긴밀히 교류하고 있다. 또한 의료생협 수가 136개에 조합원이 170만명에 이르는 일본의 의료생협과도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조합원 대상의 소식지를 매월 발행하고 있으며, 송년회와 체육대회를 해를 번갈아가며 조합원 전체행사로 진행하고 있다. 지역별 조합원 간담회도 순회하며 매년 한 차례씩 진행하고 있다.

## 과제와 전망


과제로는 조합원의 참여의식을 확대하여 다양한 조합 및 지역 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조합원의 생활공간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별 조직체계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꾸준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는 지역별로 돌아가며 이사, 대의원, 실무자 모임을 2개월에마다 진행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지난 10년을 평가하는 작업과 토론회를 가졌고, 앞으로의 10년에 대해서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총회에 제출할 것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 방문이나 참여는?

안성의료생협에 가입하려면 안성시 및 평택, 용인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1만원 이상을 출자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출자에는 제한을 두고 있는데, 너무 많은 돈은 받지 않는다. 대부분 5~10만원 안팎의 출자금을 내고 있다. 조합원의 권한과 의무는 조합에서 하는 사업을 이용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필수로 하고 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조합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활동과 서비스를 안내받고 생협 조합원으로서의 참여 의무에 대한 안내도 받는다. 조합원 카드에 가족관계와 병력 등을 적어 낸다. 또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신입 조합원 환영회에도 참여해야 하고 다양한 소모임과 생협활동에 참여를 권유받으며 정식 조합원이 된다.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사전에 협의하여 조합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결합할 수 있다. 

### '안성 의료생협'을 소개한 자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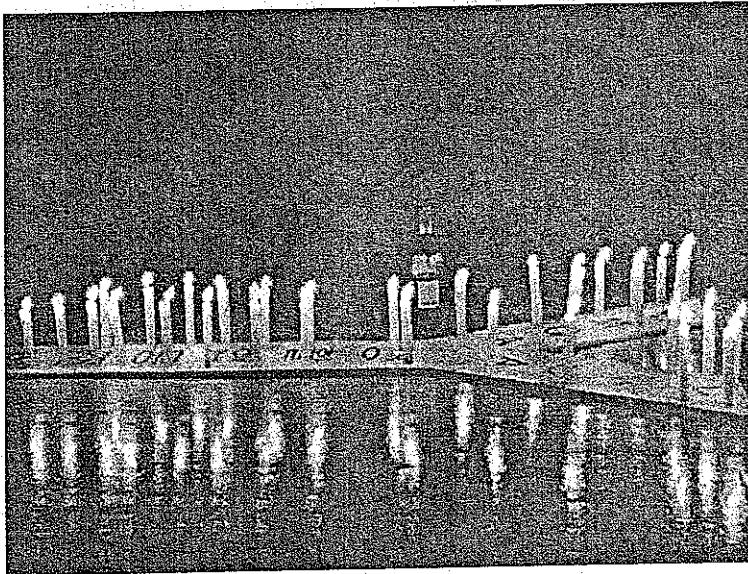
「환자의 인권, 생명 존중 - 안성의료생활협동조합」, 정인교, 《월간 이장》 2005년 1월호, 이장

생산자는 소비자의 안전을,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 광명YMCA 생협

1989년 부천YMCA에서 시작한 등대운동, 소공동체 운동이 지역자치활동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고 광명에서도 그와 같은 모델을 적용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10년을 맞고 있는 광명Y생협은 초기의 등대모임을 그대로 유지하며 양적 성장보다는 내부 공동체성을 잘 살려온 모범적인 생활협동공동체이다.

☞ 생활협동공동체 · 교육공동체 · 지역공동체



● 2004 촛불 수련회에서 ●

- 주 소 ; 광명시 하안동 62-4 우성빌딩 601호 (423-060)
- 연락처 ; 02-809-2081
- [www.kmymca.or.kr](http://www.kmymca.or.kr)      · email ; [kmymca@hanmir.com](mailto:kmymca@hanmir.com)
- 공동체 대표 ; 김혜란 이사장      · 연락 담당자 ; 김창현, 박제훈

## 역사와 현재

1994년 8월 광명YMCA 활동시작

1995년 3월 광명YMCA생협 등대 15개 점등

1996년 5월 지역에서 대대적인 촌지없애기 캠페인, 계절학교 등 지역사회 활동 시작

1998년 3월 공교육에 대한 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1998년 5월 생활협동조합 창립(초대이사장 윤옥자)

2000년 3월 2차 총회(변희중 이사장)

2002년 3월 3차 총회(김월계 이사장)

2004년 3월 4차 총회(김혜란 이사장)

2004년 7월 생협 적립금으로 사무실 54평 구입

1989년 부천YMCA에서 시작한 등대운동, 소공동체 운동이 지역자치활동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고 광명에서도 그와 같은 모델을 적용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따라서 초창기에는 실무자가 중심이 되어 등대를 조직하였다.

등대를 점등하고 일년뒤에 새로운 촛불들과 함께 등대분체를 하겠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등대에서는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였다. 만일 등대를 쪼개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각각 흩어진다면 자신들은 탈퇴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등대가 촛불끼리의 자족적인 모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큰 대의에 동감하여 대부분의 촛불들은 분체가 맞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두개의 등대는 끝까지 분체를 거부하고 다음해에도 기존 촛불들끼리 등대활동을 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분체를 거부했던 등대들은 일년동안 보람이 적었고 촛불들끼리 유대감도 식었고 새로운 촛불들과 함께 한 다른 등대들은 새 촛불들의 신선한 기운과 기존 촛불의 긴장감속에서 훨씬 더 자기성장의 기회가 많았다. 이후에는 분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갖는 촛불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이 분들도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 들은 후에는 공감하고 있다.

### 토지나 시설

하안동 사무실 56평, YMCA회관 250평(건평150평), 법씨학교 건물(95평)과 토지(103평)

구성원들은 주로 30대 주부들 중심으로 300명의 촛불이 활동하고 있다.

## 목적과 가치

구성원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소모임을 갖는다. 소모임에서 암송하는 생활수칙은 다음과 같다.

- 자연자원과 생활용품의 소비를 최대한 줄인다.
-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을 개선한다.
- 항상 배우고 실천하며 나누는 생활을 한다.
- 지역사치에 관심갖고 적극 참여한다.

촛불들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보존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한다. 물이나 에너지의 절약, 숲의 보존, 걷기등을 실천하고 가능한 육식을 덜하고 음식을 소중히 생각하며 소비활동을 지양하고 있다. 물품은 서로 바꿔 쓰고 함께 모일때는 도시락과 개인컵을 지참한다.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에 대한 가치비중도 크다. 마을활동에는 대부분의 촛불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함께 하는 활동(아나바다 나눔장터, 마을축제, 놀이터 만들기, 영화상영 등)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YMCA가 기독교단체이기는 하지만 등대에서 하는 활동중에 기독교의 형식을 담고 있지는 않다.

매주의 모임이 곧 교육과정이다. 모임은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는 마음나눔, 2부는 활동나눔, 3부는 생활재나눔이다. 마음나눔에서는 자신과 만나는 명상의 시간과 함께 생활나눔, 생활반성, 생활계획이 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소공동체가 함께 일주일동안 지켜나갈 생활계획을 짜는텔 생활계획은 삶을 단순하고 소박하게 하기 위한 생활약속으로 이루어진다. 활동나눔에서 매월 한권의 책을 선정하여 같이 읽기도 하고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사안을 촛불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실천활동을 하기도 한다. 활동나눔에서 생협이 지향하는 가치를 학습할 기회를 갖게 된다.

## 조직과 운영

총회를 해마다 하지만 일상적인 결정은 이사회와 등대지기월례회를 통해 하게 된다.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되며 주로 마을의 대표자가 이사로 추천된다. 이사장은 두 번은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이 선출하였고두번은 이사중에서 자원하는 형식으로 추대되었다. 소공동체의 책임을 맡고 있는 등대지기들은 등대에서 선출된다. 등대지기도 매월 회의를 통해 등대운영을 어떻게 할지, 촛불들에게 어떤 내용의 교육이나 이벤트가 적절한지를 자문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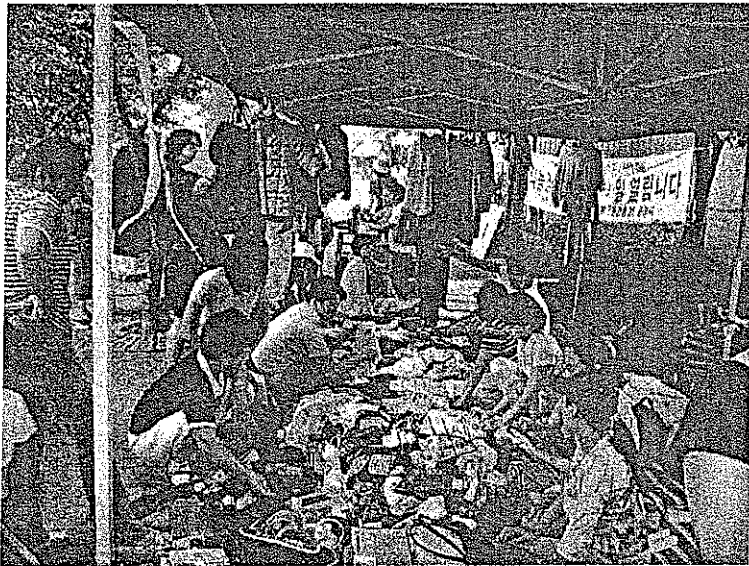
전체 성원의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한다. 만일 소수가 찬성하지 않으면 소수의 의

견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다수결로 하는 결정방식은 쓰지 않는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등대에서 토론해서 마을지기가 등대의 의견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이사회는 전체 분위기에서 무엇이 합의과정에 더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교육이나 수련회, 간담회 등의 방식을 선택하여 다시 토론하면 된다. 출자금의 문제, 카드사용 안하는 문제 등이 이제까지 이런 토론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이사나 등대지기들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갖는다. 이사는 연8회(2003년), 등대지기는 연4회 정도 간담회를 갖고 거기에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통해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객관화한다.

운영 조직으로는 등대, 이사회, 등대지기월례회 및 다른 월례회, 독서소모임, 사립소모임, 시정지기, 환경위원회, 생활재위원회, 마을모임 등이 있다.

또한 풍물패, 노래모임, 워커즈준비모임, 지금은 활동이 뜸한 아이사랑 등의 소모임이 있다.



● 아나바다 나눔장터 ●

## 경제와 생산

한국YMCA유지재단에 소유권을 가지며 사무실이 공동 시설이다.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는 촛불들의 생산협동조합인 워커즈 컬렉티브 (Worker's Collective)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

이사들이나 소모임이 시간을 내서 조직활동을 지원하고 나눔장터, 도서관자원봉사와 같은 지역활동에 봉사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일체 없다.

수익은 적립한다. 하지만 이익배당은 가능하면 하지 않고 이익금은 회원들의 교육을 위하여 재투자하고 시설확보, 차량구입등을 위해 적립한다.

## 생활과 교육·문화

### 먹거리와 식사

몇 회원들이 주말농장을 하기도 하지만 공동체 차원에서 하지는 않고 있다. 2년전에 공동체 차원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하다가 농장임대를 하지 못해서 중단되었다.

소공동체인 등대에서는 매번 모임할 때 마다 공동체 식사를 한다. 각자 반찬 한가지씩을 가져오고 집주인이 밥과 찌개를 하는 식이다. 마을모임은 월1회정도 이루어지는데 이 때에는 밥과 반찬한가지를 가져와 큰 양푼에 넣고 비빔밥을 해 먹는다. 비빔밥은 식사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다.

대안유치원으로 풀씨유아학교, 초등대안교육기관으로 범씨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풀씨는 아기스포츠타운을 2004년 들어서면서 대안학교로 선언했고 범씨는 4년제로 접어들었다. 범씨는 중고등과정을 포함해 12년제로 전환할 것을 지난 7월 학부모총회에서 결정하였다. 풀씨나 범씨 모두 생협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 때문에 외부에서 학교 때문에 이사하는 드문 경우라도 반드시 생협활동에 참여한다.

모든 모임은 노래로 시작한다. 모이면 촛불들의 합창을 갖고 모이고 본격적인 모임시작 전에 몇곡의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명상과 생활나눔을 통해서 개인의 사회적영역을 드러내고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게 된다.

아이들은 이모라는 호칭을 주로 사용한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모가 정말 많다.

일년에 한번 촛불들의 한마당이라는 축제를 갖는다. 각 등대에서 사랑하고 싶은 내용을 연습해서 공연이나 전시를 한다. 촛불들의 한마당에는 외부사람 누구라도 와서 볼 수 있으며 공개하고 있다. 잔치는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며 때로는 야간에 개최하여 아이들과 남편들도 참여하기도 한다.

## 외부와의 관계

지역사회의 여러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중집회나 모임에 참여하기도 하고 선거 때에는 후보자 토론회를 열어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

기도 한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도서관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하며 지역 축제를 열기도 한다. 한달에 한번 상설 나눔장터를 열고 동네(10군데 정도의)에서 봄, 가을로 두번 나눔장터를 연다.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하고 자치부녀회 활동에 참여를 하는 회원들도 있다. 이들은 지역주민들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동네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올바른 시민의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보편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참여하여 활동한다.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이나 평준화 시민연대, 러브호텔 반대운동, 생태보존활동 등

경기도지역 YMCA생협, 수도권사업연합

조합원들에게 매주 생협 일정과 생활제안내, 소식을 전하는 쪽지 '생활나눔' 발행

## 과제와 전망

중점 과제는 지역사회에 알리는 일,--지역사회 활동들 나눔장터나 마을도서관, 놀이터만들기, 축제등, 회원을 충원하는 일(이사가는 회원들이 많아서), 회원지도력을 늘리는 일 등이다.

철산동, 광명동 지역에 현재 규모로 자치적인 운영이 가능한 생협조직을 만들 전망을 갖고 있다.

## 방문이나 참여는?

광명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회비 만원과 출자금 이 만원을 내고 회원카드를 작성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으로 가입되면 그 분이 사는 지역의 등대지기에게 연락이 되어 등대지기는 새 회원에게 연락하여 모임안내를 해 준다.

방문·체험 프로그램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방문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로 지역운동을 조직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단체에서 많이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광명**

## ☞ '광명 YMCA 생협'을 소개한 자료들

'살기좋은 우리동네' - 광명 마을만들기, 강찬호, 《월간 국토》 269호, 국토연구원.

2004



두물머리의 생명살림

## 팔당생명살림

수도권 시민의 쫓겨난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해 10여 년 간 유기농업운동을 펼쳐 온 팔당의 유기농가들과 한강을 안고 있는 구리, 남양주, 하남, 양평, 서울 동북부 시민들이 손을 맞잡고 생명존중, 유기농업의 육성 및 생활운동을 전개하여 더불어 사는 생명공동체 건설과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협동공동체이자 지역공동체이다.

☞ 지역공동체 · 생활협동공동체 (비영리사단법인)



● 2004 추수축제에서 고시를 지내는 생산자 회원들 ●

-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756-24 (476-823)
- 연락처 ; 031-774-4242
- www.psss.or.kr
- email ; paldang62@hanmail.net
- 공동체 대표 ; 이준용
- 연락 담당자 ; 박종서

## 역사와 현재

1971년 10월 7일(건설부령 108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지정되어 댐 건설로 인해 농경지와 가옥이 수몰되었고, 1975년 7월9일(경기도 고시 제 193호) 팔당호 유역 1시 3군 8면 28리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이어서 1990년 7월 19일(환경처 고시 제 90-15호)팔당호 상류지역 7개군 43읍면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은 이중 삼중의 규제에 묶이게 된다. 1994년 2월 팔당상수원 피해주민공동대책위원회가 탄생되면서 정부의 각종 규제에 주민들이 대항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공대위내 개발론자와 친환경론자간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친환경론자들이 공대위에서 제명당하게 된다. 친환경론자들의 상수원지역에서의 상수원을 살리고 주민들을 살리는 길은 유기농업임을 확인하면서 1995년 12월 22일 팔당상수원유기농업운동본부를 설립하게 된다. 설립의 주요인사로서 권오균, 정상목, 김병수, 이준용외 10여명등이 핵심멤버들이다.

팔당생명살림 10년간의 역사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일은 2002년 운동본부와 생협의 통합이다. 당시 운동본부는 내부적으로 조직운영 및 회원들간의 이견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를 감당할 리더와 사무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며, 생협은 초기 재정상의 문제로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두 단체가 서로간의 부족분을 매우고 나아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팔당지역에서의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생활운동의 전개, 나아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가고자 하는 데 뜻을 같이하여 통합하게 된다. 현재는 두 단체가 사업규모가 커지고 각 부문에 대한 집중을 위하여 분리 독립운영 하고 있지만, 이것이 단초가 되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1976년 : 양평 두물머리 농장 유기농업 시작(정상목, 정상일회원)

1989년 : 남양주 한솔생명공동체 유기농업 시작(김병수외), 한살림 생산지

1995년 : 서울시와 농협의 팔당상수원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 시작

1995.12.22 : 팔당상수원유기농업영농조합 설립, 초대회장 정상목, 사무국장 김병수

1996년 9월 : 팔당지역 유기농산물 판매를 위한 유통전문회사 새농 설립

1997년 : 농협 하나로클럽 운영 시작(양재동 하나로클럽)

2001. 3.24 : 팔당상수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이사장 유영훈, 사무국장 양홍

관

2002. 3.30 : 영농조합과 생협의 통합체인 팔당생명살림연대 설립

2003. 2.28 : 사단법인 팔당생명살림 설립

2004. 4. 1 : 영농조합 팔당생명살림(회장 이준용), 팔당생명살림 생활협동조합(이

사장 양홍관) 분리 독립, 두기구의 협의체인 사단법인 팔당생명살림(회장 정정수)으로 독립 운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280평,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집하장 80평, 저온저장고 6개 100여평, 5톤차량 1대, 2.5톤 2대, 1톤 3대, 승합차1대 등이 법인 소유이다.

구성원은 90가구, 360여명으로 40대가 절반, 다음으로 50대와 30대가 주로 많다.

## 목적과 가치

### ①농촌공동체 회복

본회의 중심적인 목적은 正農에 기반을 둔 농촌공동체의 회복이다. 농촌이 변방이 아닌 중심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농사에 기반을 둔, 삶과 일속에서의 공동체를 부활시키는 것이 우리 회가 추구하는 중심적인 목적이다. 회원들 간에 일과 삶 속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나아가 두레의 전통을 부활시키는 것이야말로 파편화, 경제화 되어 가고 있는 농촌을 되살리는 기본이라 할 것이다.

### ②경제적 자립운동

농촌이 농촌으로서의 제 기능을 가지는데 경제적인 자립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농촌공동체 회복을 위한 목표에 나아가는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제반 경제, 사회활동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할 것은 당연하다.

### ③유기농업의 지속적인 확산

유기농업을 단순한 경제자립운동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닌 농촌공동체 운동이자 농촌살리기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업의 지속적인 확산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통에 의존하는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 생산기반을 확대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 유통의 직접화를 통해 얻어진 판매망의 확대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회원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상수원 지역에서의 유기농업 확산운동은 상수원 보호라는 생명운동의 전개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 ④문화/교육운동의 전개

농촌공동체로서 유기적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운동의 전개는 중요한 과제이다. 농촌공동체로서 지속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 사람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중요한 일이며, 사람이 없는 농촌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농촌공동체로서의 내용을 풍부히 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문화와의 결합이다.

공동체의 목적이나 가치를 위해 연간 2회의 전체수련회와 1회의 생명살림배움터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속에서 본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에 대하여 교육한다. 설사 가치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교육과 만남을 통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하고자 한다. 본회의 중심적인 목적에 동의하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생산자는 회원으로서 가입이 가능하다. 종교는 별다른 상관이 없다.

## 조직과 운영

공동체의 운영에 있어 매년초 총회에서 한해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결정하며, 매월 열리는 이사회에서 그때 그때의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일상적인 생산과 유통, 관리 업무는 사무국에서 총괄하여 진행한다. 모든 임원진에 대하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한다.

의사결정에 있어 전체 성원이 함께 결정해야 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전체총회를 통해 결정하며, 기타 안건들에 대하여는 매월 열리는 지회를 통하여 의견 수렴을 한 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공동체 내부에 갈등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각 지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지회는 지역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갈등사항들이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중재하기도 한다.

운영 조직으로는,

-총회 : 전체 회원들이 모여 한해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의결하는 기구

-이사회 : 주요 사안들에 대해 월마다 의결하는 기구

-사무국 :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의거하여 사업을 집행하는 기구. 부서로서 생산팀, 유통팀, 경영지원팀, 교육홍보팀이 구성되어 있음.

-지회 : 지역별로 의견 수렴 및 해당 지역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안들에 대하여 논의하는 기구임

-위원회 : 정책기획위원회, 생산기획위원회, 유통위원회, 교육홍보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어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와 결과물을 도출해 내며, 도출된 사안들을 이사회에 상정함.

-작목반 : 품목별 작목반을 구성하여 해당 품목에 대하여 연간, 계절별로 생산계획과 가격등에 대하여 결정함.

소모임은,

-소모임 : 회원들의 취미 활동과 단합을 위하여 구성된 모임으로서 현재 축구소모임이 조직되어 매주 금요일 회원들이 모여 축구 모임을 운영하고 있음. 이밖에 산행

모임, 품물모임을 준비중임.

-공동체 소모임 :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기엔 규모가 있어 6-7명으로 구성된 회원들간의 소규모 공동체 1모듬이 운영되고 있음. 이곳에서는 공동의 생산기반 조성 및 공동 품앗이, 친목도모등의 일들을 꾸려 나가고 있음.

## 경제와 생산

본회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280평,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집하장 80평, 저온저장고 6개 100여평, 5톤차량 1대, 2.5톤 2대, 1톤 3대, 승합차1대 등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통해 재배한 농산물의 공동 출하 및 판매등의 사업을 하며, 연간 매출규모로는 59억원(2004년 예상)이며, 사무국에서 종사하는 실무자는 국장포함 18명이 일하고 있으며, 일용직으로는 8명이 함께 일하고 있음. 연간 매출액에서 10%는 사회환원 사업비로 쓰여지며, 30%는 적립금으로 나머지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사업등에 쓰여짐.

노동은 사무국 실무자와 원하는 생산자회원들을 위하여 공동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국에서의 노동은 실무자들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음. 단, 본회내 회원들간의 소규모 공동체 모임이 운영되는 속에서는 품앗이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음.

수익은 사무국을 통한 생산과 유통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매년 이익금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집행됨. 예를들어 10%는 사회환원, 30%는 적립, 나머지는 총회에서 결정됨. 그리고 매월 본인이 출하하는 금액에서 2%를 출자적립금으로 적립함.

## 생활과 교육·문화

각각의 농가에서 자가로 필요한 곡물은 직접 재배하여 먹거리로 충당하며, 사무국 내에서 실무자들을 위한 공동 시험포를 운영하여 공동식당의 급식재료로 공급하고 있음.

매일 공동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회원들의 경우 원하는 회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정부에서 지원한 태양열을 이용하여 집은 있으나 다른 특별한 것은 없음.

회원들의 교육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이며, 아이들을 위한 교육으로서 금번 10월 4일 개교예정인 팔당생명살림 방과후 학교가 운영예정임. 방과후 학교에서는 농촌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생태적 감수성을 위한 제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

임.

문화활동으로는 매년 10월 3일 열리는 추수축제가 있음. 한해 동안의 추수에 대한 감사함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어울려 감사를 드리며, 서로에게 감사의 정을 나누는 행사임. 평균 800여명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가하고 있음.

### 외부와의 관계

지역사회는 일반 농촌지역에서의 지역사회와의 관계와 큰 차이는 없음. 단, 친환경 농업에 대한 본회와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

본회에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의견표명을 적극적으로 하는 입장임. 그러나 전체적으로 정치적 참여 정도는 미약한 편이며, 주로 사무국 실무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임.

외부와의 관계는 소비자나 회원들과는 정기적인 견학프로그램에서 교류를 하고 있으며, 지역내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을 통하여 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교류를 추진하고 있음. 매월 정기적인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음(최근에는 격월간으로 발간하고 있음)

### 과제와 전망

최근 친환경농산물의 급속적인 소비확대로 인하여 기존의 정농에 기반을 둔 지속 가능한 농업의 구조가 아닌 상업농으로의 전환이 감지되고 있어, 이를 해결해야할 과제가 있음. 이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공동체 소모임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본회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은 팔당지역이 변방이 아닌 중심으로서 제 기능을 갖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안학교의 설립과 육성, 학교 급식의 지속적인 투자와 확대, 각각의 소모임 활성화, 유기농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팔당지역을 생명가치의 실현지로서 도모하고자 함.

### 방문이나 참여는?

본회 공동체 회원으로 가입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해야 하며, 각 지회나 사무국의 추천을 거쳐 매월 열리는 이사회에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처음 가입부터 1년간은 준회원 기간으로서 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며,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사회에 승인을 거쳐 정회원의 자격이 주어 집니다. 정회원이 되면 기본적인 출하에 대한 대우와 총회에서 의결권

이 주어집니다. 또한 의무로서 본회 정관과 규약, 규정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경고와 제명등의 조치가 이어집니다.

방문·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매주 토요일 견학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내용은 오전 10시 명상의 시간 10시30분 유기농업에 대한 이해, 11시 00분 두부만들기(딸기잼 만들기등), 12시 유기농 식사 1시30분 대동놀이 2시30분 유기농가 방문 및 체험행사 4시 종료, 원하는 소비자나 단체는 미리 교육홍보팀에 신청하면 참가 가능하며, 비용은 성인 13,000원이다.



## 3 부

### 〈 공동체 만들기 〉

- ◆ 퍼머컬처란 무엇인가 ?
- ◆ 공동체 건설을 위한 지침



## 퍼머컬처란 무엇인가 ?

임경수 ((주)이장 대표)

퍼머컬처Permaculture : 영속적인 농업permanent agriculture..

영속적인 문화permanent culture

퍼머컬처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농장까지, 거대한 도시에서부터 야생초지까지 광범위하게 응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개념이다. 퍼머컬처는 음식, 에너지, 집 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생산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탱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 기반을 만들 수도 있다. 퍼머컬처는 우리의 자연환경과 자원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합리적으로 충족시킬 것인가를 깊게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를 통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지속되는 농업과 환경의 체계를 구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Permaculture International Journal -

현대의 관행농업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안고 있고 그에 따라 토양과 물, 영양분을 보존하고 화석연료, 화학비료, 합성물질을 적게 사용하는 식량생산체계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최근 유기농 운동이 확대되고 있지만 과학적 지식과 전통적 지혜가 결합하여 농장이 자연 생태계와 닮은꼴로 설계 될 때 보다 지속가능한 농업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자연생태계의 높은 생산성과 안전성은 농업생태계를 설계하는데 가장 좋은 본보기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자연생태계에 이러한 점을 가장 잘 받아드리고 있는 방법이 바로 퍼머컬처이다. 생태학자 빌 몰리슨(Bill Mollison)은 자족(Self sustaining)의 개념을 발전시켜 퍼머컬처의 토대를 만들었다. 퍼머컬처는 단순한 농업기술에서 더 나아가 식량과 섬유와

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족적인 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자연의 원리를 응용한다. 미세한 기후의 변화, 한해살이 혹은 여러해살이식물, 물과 토양관리, 사람의 욕구 등 다양한 요소를 잘 짜 맞추어 관리가 쉬우며 높은 생산량을 유지하는 효율적인 체계를 만든다. 퍼머컬처는 자연과 함께 일하며 깊게 생각하여 자연과 연대하고 모든 것을 전체로 바라본다.

퍼머컬처는 자연적 “천이”를 이용한다. 자연적인 천이를 이용하거나 천이를 의도적으로 일으키면 에너지와 영양물질을 절약할 수 있고 토양을 보전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인 도움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수나무 아래 한해살이 작물을 심으면 과수나무가 열매가 열릴 때까지 경제적인 수입이 생긴다.

퍼머컬처의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은 생산과 관리에 필요한 모든 것은 언제든지 생물자원에서부터 얻는다는 것이다. 식물과 동물은 해충방제, 잡초제거, 영양물질 순환, 토양비옥도 증가, 에너지 보존, 경운 등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생물자원의 이용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체계를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퍼머컬처는 다양성을 기본으로 한다. 동식물, 구조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이익이 되는 관계는 최대한 하고 해가 되는 것은 줄이거나 최소화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다양성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유용하다. 농부의 수입은 시장가격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다양한 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시장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퍼머컬처는 환경의 건전성, 사회의 책임성, 협동, 공동체의 윤리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에 실제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도시와 농촌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다.

### 퍼머컬처 가치관 *ermaculture ethics*

우리가 해야 하는 윤리적 결정은 오직 한 가지. 환경, 사회, 공동체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모리슨

퍼머컬처의 가치관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철학적인 길잡이다. 이는 퍼머컬처에서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윤리는 지혜로운 전통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윤리의 개념에 의하자면 우리는 “나의 행동이 지구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서로 공동체적으로 나누고 있는지” 묻는 것이다.

지구 사랑의 예 : 깨끗한 공기와 물, 산림과 서식지의 재생장과 보전, 생물다양성, 토양 회복과 보전, 재활용, 공해 감소, 에너지 보전, 적절한 기술

사람 사랑의 예 : 건강과 행복. 좋은 먹을거리로 영양섭취, 교육, 올바른 살림과 의미 있는 일,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개방된 공동체, 신뢰와 존중  
 나눔의 예 : 협동조합, 조직화와 나눔, 자원과 부의 분배, 소비의 감소, 과정과 개발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기여하기

## 퍼머컬처의 목표 permaculture aims

### 1. 안전한 먹을거리

- 국내 혹은 유기적인 농산물 사용하기
- 안전한 먹을거리를 장만하는 과정은 곧 문화의 다양성을 지키는 방법
-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서는 종자보전이 필요
- 화학제품의 사용과 건강에 대한 영향을 감소를 위해 유기농산물 사용
- 작고 독립적이며 지속 가능한 농장을 후원한다.  
 이를 위해서 가정 텃밭, 도시 농업, 공동체 텃밭, 파머스 마켓, 협동조합, 유기농장, 경관농업을 지원
- 먹을거리에 대한 영양학적인 가치 증진, 균형의 회복

### 2. 토양 개선

- 건강한 토양은 건강한 식생, 건강한 먹을거리, 건강한 사람의 기초
- 토양의 생산성과 건강한 생태의 유지를 위해 퇴비, 뿌리덮개, 자연 비료 사용
- 땅의 비옥도 감소를 피하기 위한 농작법과 토지 이용법의 사용
- 생산성 떨어지는 땅의 복구

### 3. 쓰레기 관리

- 쓰레기는 곧 자원이 된다는 개념의 전환
- 쓰레기 관리는 공해를 줄이고 폐기물은 감소
- 소비 행태를 변화하여 궁극적으로는 환경적, 사회적 영향의 최소화
- 자연 에너지와 지역 자원의 사용

### 4. 깨끗한 물

- 물의 집수, 저장, 보전
- 물을 정화하여 사용하고 다시 사용
- 물의 모이도록 관리하고 이를 최적화

### 5. 주거와 거주지

-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다. 이를 위하여 태양 에너지,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확대
- 기후와 풍토에 맞는 집을 설계
-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에너지가 적게 들며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
- 지역 생물군집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간의 거주지 설계
- 농촌 지역에서는 농촌생활에 적합한 생태주택 생산
- 도시에서는 건설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과 공동체의 재활성화

## 6. 지속 가능한 살림

- 가급적 외부로의 자본, 자원의 유출을 방지하여 다양하고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구축
- 의미 있는 작업을 스스로 결정
- 개별 가정과 협동조합의 교환
- 경제적인 가치이외에도 다양한 가치 증진
- 공정한 거래
- 인간의 권리 확인, 실제 필요량에 따른 합리적인 제공
- 환경, 사회, 문화에 대한 영향의 최소화

## 7. 적절한 개발

-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규모와 속도
- 적절한 기술 활용
- 자연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것을 사용
- 지역에서 생산되며 유지 가능한 것
- 지역의 기술과 지식에 기초해서 만든다.
- 섬세한 생태 관광을 통한 농장, 마을의 활성화

## 8. 야생

- 필요사항과 쓰레기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요구되는 지역의 감소
- 안정적인 생태계의 회복, 유지
- 자연을 세밀하게 관찰하며 배움

## 9. 지역 공동체와 지역 문화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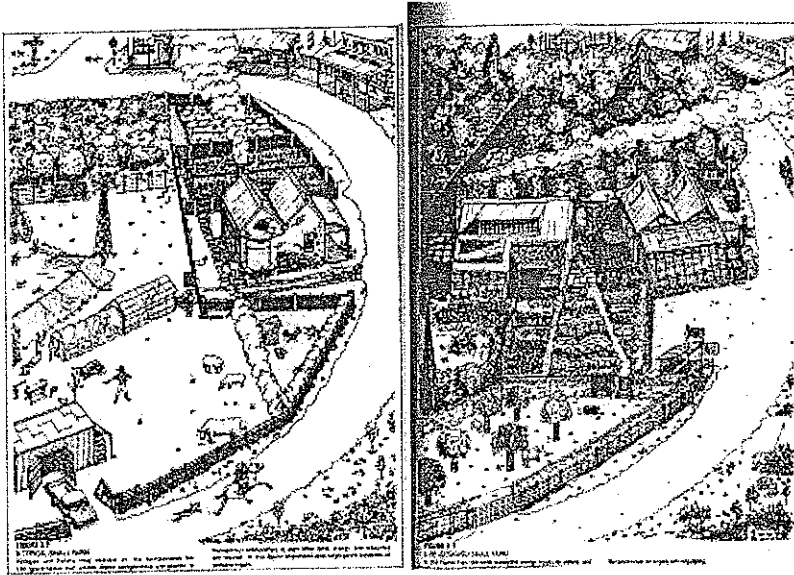
- 여성과 함께 일하기
- 교육을 통해 아이와 함께 일하기

- 연장자와 함께 일하며 전통의 재평가와 재발견
- 이웃, 자연과 함께 일하며 관계 강화
- 기존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기
- 기술과 지식을 나누면서 교육하고 자생력을 함양
-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모든 의사 결정에 참여
- 협력하여 일하기
-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과 일의 우선순위 제기하기
- 문화 활동에 참여하기
- 끝까지 듣고 가능한 한 받아들이기
- 자신의 가정, 공동체, 나라를 변화시키기

### · 퍼머컬처의 과정 permacultre process

- 단계 1. 장점, 단점, 가변상황을 파악한다. 이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유용한 자원을 관리하여 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 단계 2. 교육을 생태적 쟁점의 인식망 구축한다. 이는 사업 진행에 있어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게 한다.
- 단계 3. 전통과 문화를 재평가한다. 새로운 것보다는 전통적인 것이 더 생태적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부심과 자존심을 확보하여 일을 신나게 만들 수 있다.
- 단계 4. 가능한 구체적인 정보를 모인다. 총체적인 개념을 구축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선명하게 할 수 있다.
- 단계 5. 적절한 기술 확보한다.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막대한 자본이 들지 않는 기술의 확보는 과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 단계 6. 비전과 전망을 세운다. 이 과정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업이 구체화된다.
- 단계 7. 전략을 세운다. 한번에 목표에 다가갈 수 없다. 계단을 만들어 목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단계 8. 풀뿌리적으로 추진한다. 한사람에 의해서가 아닌 공동체적 방식에 의해서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일을 해야 지속성이 생긴다.
- 단계 9. 사람을 양성하고 키운다. 함께 일하는 지역 사람이 기술과 자원을 확보하게 하여 그들 스스로 일을 지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퍼머컬처는 공동체와 구성원의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세심한 배려와 관찰, 나눔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공생을 기조로 한 자연계의 질서에서 배워온 지혜를 실천하는 체계로서 지속가능한 농업, 지속 가능한 문화를 유지하는 데 뛰어난 도구임에 틀림없다.



퍼머컬처에 의해서 개조된 농장의 사례.. 왼쪽과 같은 농장이 오른쪽처럼 변화할 수 있다.

## 퍼머컬처의 원리 Permaculture Principle

### 다양성(diversity)

- 다양한 작물과 가축을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합
- 자연 생태계를 닮은 안정되고 유기적인 다작 체계의 조성
- 예) 단작보다는 다양한 작물이 하나의 밭에서 자라는 혼작이나 간작 사용

### 가장자리 효과(edge effect)

- 두 가지 체계가 중첩되는 곳에는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예:하구)
- 최상의 효과를 위해 가장자리와 자연의 적응력을 응용
- 예) 저수지나 하천 주변을 보전하고 저습지가 살아있는 저습지를 복원

### 에너지 계획(energy planning)

- 지구계획과 구역계획을 통해 동선을 줄이고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관리

- 중력, 경사, 높이 등 일반적으로 잘 이용하지 않는 에너지의 활용

예) 저수지는 가급적 위치에너지가 높은 곳에 설치

#### 에너지 순환(energy cycling)

- 자원을 절약하고 버려지는 폐기물과 오염물질을 재사용

- 물질과 에너지를 통합체계 안에서 순환

예) 사용한 물은 재이용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설을 이용

#### 규모의 점검(check scale)

- 작지만 집약적인 체계 조성

- 간단하고 적절하고 효율적인 기술 선택

-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부터 시작-작게 시작

예) 대규모 축사보다는 사료밭, 퇴비장, 텃밭 등이 연계된 복합 시스템 구성

#### 생물자원의 이용(biological resources)

- 작업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기보다는 자연적인 노동에 기반한 자원을 최대한 이용

예) 지렁이를 활용하여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 중복적인 요소(multiple element)

- 중요한 기능은 여러 가지 요소로 충족되도록 설계

- 두 가지 이상의 요소로 욕구를 충족 -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예) 물 공급을 위해 저수지뿐만이 아니라 수로, 지하관정 등을 개발하여 다양화

#### 중복적인 기능(multiple function)

- 모든 요소는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도록 한다.

예) 저수지는 물 공급이외에도 수생식물 생산, 방화수, 야외활동 등에 함께 활용

#### 자연적 천이(natural succession)

- 자연을 닮게 만들고 토양과 지역이 스스로 진화하게 돕는다.

예) 경관조성을 위해 야생화를 심기보다는 자생적인 꽃나무를 식재

#### 상대적 위치(relative location)

- 모든 요소는 서로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위치를 설정한다.

· 연결 전략 수립 - 투입 요인과 배출 요인을 연결한다.

예) 퇴비장과 닭장을 상하로 배치하여 쉽게 퇴비를 만들 수 있도록 계획

## 퍼머컬처 지구와 구역 Permaculture Zones & Sectors

### 지구계획 (Zone)

어떤 요소를 어디에 자리를 잡아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작업의 빈도나 난이도를 고려하여 배치하는 작업이므로 생산성과 적절한 에너지관리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의 관건은 지구계획과 지역계획에 달려 있다. 다양한 지구에서 어떤 요소를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몇 번이나 그곳에 가야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가장 요구가 많은 것은 바로 문 앞에 두어야 한다. 드물게 가도 상관없거나 관리가 많이 필요치 않은 것은 먼 거리에 두어도 된다.

지구계획의 방법론은 도시나 농촌지역이나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물론 한 지구의 가장자리가 분명한 경계선을 갖는 것은 아니다. 지구끼리 중첩되기도 하며 중심부로부터 거리에 따라 적용하는 유연한 도구이다. 야생동물의 이동로를 만들고 싶다면 첫 지구에서부터 마지막 지구까지 통로를 놓을 수도 있고, 한 지구에서 다른 지구를 통과해 통로를 만들 수도 있다. 다음 목록은 지구계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요소를 예시한 것이다. 이 요소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는 공간, 전체적 전후관계,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다르다.

### 구역계획(Sector)

구역계획은 경관의 상호관계를 설정하는 자연적 요소 - 즉 태양, 빛, 강우, 불, 조망, 물의 흐름 등을 다루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러한 것은 외부에서 시스템 내부로 들어와 흘러 지나간다. 구역 계획은 이러한 요소가 어디에서 들어와 어떻게 우리에게 이득을 주고, 이런 요소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려준다. 좋은 계획은 장점을 잘 살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위험구역을 알고 있다면 거주지구에 산불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다시 말해 그 구역에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나무를 심거나 호수, 석벽, 나대지 등을 만들어 산불 확산을 막으면 된다.

### 지구 0 (zone 0)

활동의 중심지역



거주지구-가옥 설계, 온실, 거주시설, 화장실

#### 지구 1 (zone 1)

끊임없는 관찰, 잦은 방문, 작업이 필요한 지구 - 자급용 채소밭, 조리용 식물, 작은 동물, 기구창고, 퇴비장, 물 저장소, 세탁실

#### 지구 2 (zone 2)

어느 정도 집약적인 유지가 이루어지는 지구 - 닭 방목지, 조밀하게 심은 과수나무, 교목, 방풍림, 규모가 큰 채소밭, 경작용 둔덕, 하수처리 시설, 양봉장, 곤충이나 새를 끌어들이는 꽃밭 등

관리가 필요한 동식물은 이 지구에 적합하고, 쪼트는 지구 2에 인접하여 울타리를 하고 지구3에 두는 것이 적합하다.

#### 지구 3 (zone 3)

농장 지구 - 상업적인 작물, 가축을 위한 방목장, 녹색비료 터, 수생경작지, 관리가 적은 조림지, 규모가 큰 시스템, 큰 규모의 창고, 식림용지, 방풍림 등

#### 지구 4 (zon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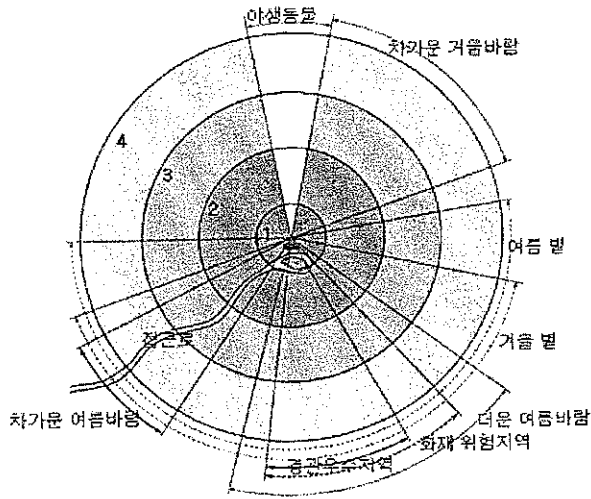
숲을 경계로 관리를 적게 해도 되고 야생의 성격을 많이 갖는 지구 - 채집을 위해 무언가를 모아두는 곳, 숲, 연료, 목재를 위한 조림지, 댐, 방목지, 가지치기 하지 않는 나무

#### 지구 5 (zone 5)야생지역

관리를 하지 않거나 아주 드물게 관리하는 자연적 야생 시스템. 공부하고 관찰하는 지역, 또는 방문자가 휴양하는 지역

### 퍼머컬처를 배울 수 있는 방법

호주의 크리스탈 워터 생태공동체에서는 퍼머컬처와 관련하여 다양한 코스를 진행하고 있다. 퍼머컬처 디자인 코스는 14박 15일로 진행이 되지만 1박 2일로 진행되는 체험 위주의 워크샵 프로그램도 있고 보다 전문화된 프로그램도 두 가지 정도 더 진행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크리스탈 워터 생태공동체 내의 SEED (Sustainability Education & Ecological Design)라는 단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지구와 구역계획의 예, 동심원으로 표시된 것이 지구를 설정한 것이고 피자 조각처럼 구분한 것이 구역을 설정한 것이다. 농장이나 마을에 필요한 요소(창고, 닭장, 온실 등)을 하나씩 동심원과 구역계획으로 구분된 공간에 대입하면서 가장 적절한 공간에 요소를 배치하면 설계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경관이 우수하고 화재가 위험한 지역의 구역의 3,4 지구에는 저수지나 연못을 만들면 가장 적절할 것이다.

참여할 프로그램을 정했으면 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참가신청은 서신, 전화, 이-메일이 가능한데 이-메일이 편리하다. 이-메일로 참여의사를 밝히면 참가신청서를 보내준다. 참가신청서에 자신이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다시 보내면 일단 참가신청을 완료되고 이후 이-메일을 통해 참가준비물, 찾아오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주고받게 된다. 참가비의 일부는 예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도 이-메일을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물론 코스에 참가한 후 나머지 참가비도 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고 그 곳에서 판매하는 물건, 책자 등도 모두 카드 결제로 구입할 수 있다.

참가비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만원 정도이고 예약금으로 15만원 정도를 지불하면된다. 참가비 안에는 식비가 포함 되어있다. 숙박비는 따로 지불하여야 하는데 세가지 종류의 숙소를 선택할 수 있다. 가장 비싼 숙소는 개인용 숙소이고 중간 가격의 숙소는 5-6명의 참가자들과 이층침대를 쓰는 통나무집 숙소이며 가장 싼 숙소는 캠핑장이다. 통나무집의 이층 침대를 쓰는 비용은 침구류 대여비용과 함

께 약 25만원 가량이 소요되었다.

퍼머컬처 디자인 코스를 운영하는 SEED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SEED (Sustainability Education & Ecological Design)


○ Teacher : Morag Gamble and Evan Raymond

○ 주 소 : Lot 50 Crystal Waters Eco-Village MS 16 Maleny Qld 4552  
Australia

○ 전 화 : +61 754 944 833 (팩스접용)

○ 이- 메일 : [info@permaculture.au.com](mailto:info@permaculture.au.com)

○ 홈페이지 : <http://www.permaculture.au.com>

한국에서도 퍼머컬처 디자인 학교가 열리고 있는데 한국에 퍼머컬처를 보급하고 생태마을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장에 연락을 하면 된다. 퍼머컬처 디자인 학교는 일년 2-3차례 열리고 있다. 연락은 주식회사 이장 대표 임경수 [limks@e-jang.net](mailto:limks@e-jang.net)으로 하면 된다. 

## 공동체 건설을 위한 지침<sup>1)</sup>

###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제대로 알려라”

공동체는 목표에 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와서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와 동화되지 못한다면, 그들은 잘못 찾아온 것이다. 그들은 자기네 목표와 잘 맞는 다른 공동체로 가야만 한다. 그래서 당신은 공동체의 역할과 기능,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 적절한 장소를 찾는데 직관력과 상식 모두를 활용하고,

### 법적 소유권을 어떤 형태로 할지 결정하라.

적절한 장소는 이성적인 방법보다 직관에 의지하여 찾는 것이 가장 성공적이다. 당신이 땅을 찾아 헤메고 있다면, 그 땅 역시 당신을 찾고 있다! 각 장소의 독특한 특징에 적합한 공동체의 형태가 따로 있다. 문제는 잘 맞는 짝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터 캐디는 공동체가 영성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한 지역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함께 할 수 있는 의식을 만들라.

구성원들을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묶어 줄 수 있는 규칙적인 의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공유하는 정신적(종교적) 가치가 없다면, 나름대로 집단 의식(group ritual)을 만들어 합창, 군무(群舞), 동하지(冬夏至), 또는 경축일 기념하기 등을 행함으로써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을 함께 하면 공동체가 힘든 시간을 헤쳐 나가는데 필요한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에너지가 생성된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은 모임을 와해시킬 수도 있는 많은 긴장과 갈등을 유발한다. 그룹의 조화를 꾀하고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분위기를 띄우는 활동이 중

1) 『새벽의 건설자들』 10장, 코린 맥러플린·고든 데이비드슨, 황대권 책임번역, 2005, 한겨레신문사를 요약한 글로, 『공동체를 위한 지혜』, 황대권 외, 『녹색평론』 제78호, 2004년 9-10월호, 녹색평론사의 일부분이다.

요하다.

### **친목을 돈독히 하라.**

공동체에서 어려운 일이란 육체적 노동이 아니라 감정적·정신적 관계망을 만드는 일이다. 즉 사람들과 함께 신뢰와 우정, 단단한 팀워크를 쌓고, 의사소통과 갈등 해소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일이 그것이다. 다른 가치와 생활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사하고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하고 같이 사는 것도 때로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사람들 간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설거지와 같이 가장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들이다.

### **갈등 해소를 위한 적절한 절차를 개발하라.**

올바른 철학이나 신념체제로는 공동체를 꾸려나가는데 충분치 않다. 적절한 의사소통과 친목을 다지기 위한 기술이 필수적이다. 개인들 사이에 서로 다름으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는 명확한 절차를 가지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이러한 갈등은 방치해 두어서도, 억눌러두어서도 안 된다. 사람들 사이의 올바른 관계는 사랑과 연대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관계를 그러한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 **전체와 통합에 중심을 두고 구심력을 만들어라.**

공동체의 첫 단계에서는 그룹의 정체성인 목표에 중점을 두고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멤버들이 배워야 하는 자세와 활동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오히려 개인은 그룹의 “배경”이 아니라 “등장인물”이 된다.

### **권한과 책임, 재정에 대한 협약을 분명히 하라**

협약을 명확하게 하려면 성숙함과 상호존중과 영적인 고결함이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공동체의 생활에 대해 반드시 새 멤버들과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 약정서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룹 내에서 말로 표현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종종 문제를 불러 일으키는 것을 보면 초기부터 멤버들이 서로 기대를 달리 하고 있던 것을 알게 된다. 처음부터 의논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권한과 책임과 재정이다.

### 사회봉사에 중점을 두어라.

대부분의 성공적인 공동체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필요만 충족하면서 고립된 삶을 살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식으로든 사회에 봉사하려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공동체들은 기꺼이 주고자 하는 헌신적인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더욱 강한 그룹이 된다.

### 세상의 필요로움을 믿고 실질적인 수입원을 만들어라.

대부분의 그룹은 영성과 물질 둘 다가 아니라 어느 한 쪽을 중시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적인 가치를 구현할 때 영혼은 물질 안에서 드러난다. 여기에서 참된 시험이 이루어진다. 모든 일의 기초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좀 더 세속적으로 표현하자면, 긍정적 사고). 진실로 세상에 봉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신이 주재하는 우주의 필요로움으로부터 완벽하게 얻게 될 것이다.

### 적극적인 사고와 투신하는 자세로 몰두하라

가장 필요한 것은 실제로 헌신하려는 한 사람이다. 돈이나 건물 같은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헌신하려는 사람을 얻는 것보다 중요하지도 않으며 어렵지도 않다. 다른 모든 것들은 노력만 하면 언제고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다. 아름다운 건물과 돈이 풍부한 장소는 얼마든지 있지만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 모든 게 다 소용없다.

### 사랑/빛/의지의 균형을 유지하라.

사랑과 빛, 의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다른 것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목적과 비전, 방향감각도 없이 사랑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자기생각에만 빠져 감상적이 되고 결국에는 현실감각을 잃어버리고 만다. 의지라는 동적인 에너지가 없으면 공동체는 곧 정체되거나 타성에 젖게 된다. 사람들 사이에 변화와 성장, 쇄신과 도전의 에너지가 생겨나질 않는다. 이런 상황은 서로 사랑하는 친한 친구들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할 때 자주 일어난다. '함께' 사는 것만을 좋아하면서 함께 있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동체 생활은 곧 활기를 잃게 되고 사람도 떠난다. 그렇지 않으면 멤버들은 지나친 사랑 때문에 "숨이 막히는" 상태에 있게 된다.

공동체가 빛에 의한 분별력을 잃고 지나치게 사랑에 의존하면 공동체 생활에 전혀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공동체의 목적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어와 머물게 된다.

지나친 사랑과 포용은 그룹의 에너지를 흠뜨리고 하나의 목적 아래 있어야 할 공동체를 여러 갈래로 찢어 놓는다. 이렇게 되면 공동체 내부의 서로 다른 욕구를 조정하고 부조화를 치유하는 일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된다. 또 지나친 사랑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의해 공동체의 선의가 잘못 이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공유와 협동에 기초한 공동체에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머무르도록 허락한다면 이기적이지 않은 멤버들의 에너지 가운데 많은 부분이 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일에 끊임없이 쓰이게 될 것이다.

공동체에 사랑은 없고 빛이나 진실만이 지배하게 되면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려는 생각이 부족해지고 환경이 날로 삭막해져 살고 싶은 생각이 사라진다.

한편 그룹에 사랑은 없고 의지와 목적이 지나치게 많으면 사람들의 기력을 소진시키고 소외감이 만연하게 된다.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무시한 채 언제나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면 바로 그 목적을 수행하여 현실로 만들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랑 없는 의지는 쉽게 남을 이용만 하고 더 높은 이상을 추구할 수 없게 만든다.

### 질서 있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유지하라

장소가 질서 있고 아름답지 않으면 그 안에서 영감을 느끼기가 무척 어렵다. 그 결과로 생각과 느낌도 점점 더 어지러워진다. 사랑을 갖고 건물을 깨끗이 하면 그곳에 있는 물건들은 좋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사람들도 그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에서 그룹회의를 열면 무질서한 환경에서 열 때 보다 더욱 조화롭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대지와 자원의 좋은 청지기가 되어라

우리는 주어진 모든 것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현명하고도 효과 있게 이용하는 좋은 관리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인으로 행동한다면 저장할 필요가 없다. 자원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경제는 전체 시스템 안에 자원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방해물이 없거나 축적하지 않을 때 가장 잘 돌아간다. 도구와 의복, 가구와 책 등 당장 사용하지 않는 자원들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거나 팔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분명한 통로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바로 풍요의 흐름이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더 나은 삶의 모델이 되고자 하는 공동체들에게 있어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서로 나누는 태도는 특히 중요하다.

### 모든 생명체와 조화를 이루어라

때로 우리 인간은 자신이 이 지구상에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생명체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할 때 반드시 우리와 함께 땅을 공유하고 있는 생명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식물과 동물뿐 아니라 우리가 쓰는 도구와 기계, 건축자재 같은 것들을 만드는 광물질도 모두 생명이 있는 것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생명체들과 조화를 이루고 그들을 잘 이해하며 축복해 주는 것이 좋다. 직관적인 수용력을 가지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으면 자연의 힘들과 협력하여 함께 창조하면서 더욱 풍요로운 정원을 가꿀 수 있다.

### 올바른 시기와 유기적인 성장과정에 주의하라

무슨 일이든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 성장은 느리며 유기적이다.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물리적인 건설에 드는 시간은 언제든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두 배 내지 다섯 배가 더 걸린다. 마음은 육체보다 훨씬 빨리 앞서 나간다. 공동체 설립자들은 일반적으로 먼 미래의 비전을 세우는 데는 아주 능하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

###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를 만들어라

대규모 기업체와 정부기구에서 보는 것과 같은 구조의 관료화와 경직화를 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되도록 작고 유연성 있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점이다. 멤버들 간에 의사소통이 잘 되면 관료주의와 규율에 의한 지배를 피할 수 있다. 공동체에서 예전의 조직 형태를 반복할 수는 없다. 뉴 에이지 공동체는 혁신적이고도 단순한 방법으로 그룹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유연하면서 열려있어야 한다.

### 이상을 실현하는데 있어 현실적이 되어라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현실성과 인내와 실천이 요구된다. 필요한 것이 또 있다. 바로 훌륭한 조화감각이다. "비전이 없으면 죽는다." 그러



나 현실을 모르면 역시 죽을 수 있다!

### 공동체의 성공이나 실패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공동체 설립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원칙이 바로 이것이다. 궁극적인 영적 시험은 우리 노력의 결과에 사로잡히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동체의 실패를 나 개인의 실패로 여기고 성공으로 인해 우쭐해지는 등 공동체와 자신을 지나치게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다.

### 유연성을 길러라.

공동체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되어 있으면 오래가지 못한다. 끝까지 살아남는 공동체는 사회와 공동체 구성원들의 요구에 대해 유연하면서도 탄력적으로 반응할 줄 아는 공동체이다. **공동체**

# 부 록

## 〈 부록에 담은 내용 〉

- ◆ 공동체 목록
- ◆ 공동체 관련 단체 · 정보 website
- ◆ 공동체와 만남 · 공동체 만들기 프로그램들
- ◆ 공동체 관련 자료 목록
- ◆ 다른 나라의 공동체들

## 공동체 목록

### ● 계획공동체

공동체 대표/담당자	주소 website	전화번호 email
공생농 두레	대구시 달서구 송현2동 84-3	053-654-5979
천규석		kjp8376@hanmail.net
두레누리살림터	경남 거창군 남상면 오계리 121	055-944-8922
유성일목사		durenuri@hanmail.net
두레마을 (함양)	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817	055-964-2316~8
김진홍	www.doorae.or.kr	hoyeol110@hotmail.com
두레마을 (화성)	경기 화성군 우정면 화산7리 692-15	031-358-3191
김진홍	www.doorae.or.kr	
민들레공동체	경남 산청군 신안면 갈전리 42번지	055-973-6813/5804
김인수	www.dandelion.or.kr	kis5804@hanmail.net
변산공동체	전북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3번지	063-584-0584
윤구병		
산안마을	경기 화성시 향남면 구문천3리 산141-1	031-353-3920
윤성렬	www.allhappy.or.kr	ryusy_@hotmail.com
풀무 평화공동체	충북 괴산군 청천면 평단리 241	
원경선		

한국 라브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169-6	033-673-0037
	www.labri.or.kr	korea@labri.org
한농북구회	경북 울진군 서면 왕피리 101번지	054-783-6857
이광길총제	www.hannong.com	tencom3@kornet.net
한울다리공동체	경남 거제시 남부면 다대리 102-1	055-633-3147
김인수	www.hanultary.com	

● 교육공동체

공동체 대표/담당자	주소 website	전화번호 email
간디청소년학교	충북 제천시 덕산면 선고 1리 92-3	043-653-5791~2
양희창	gandhischool.net	whan730@hanmail.net
과천 무지개학교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15-111	02-507-7778
	www.moogigae.or.kr	gcmoogigae@hanmail.net
둔철생태교육마을	경남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양희규	www.humanedu.net/edueco/dunchul2.html	choi@humanedu.net
자유학교 물꼬	충북 영동군 상촌면 대해리 698	043-743-4833,0213
옥영경	www.freeschool.or.kr	mulggo2004@hanmail.net
작은누리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268	
박형규	cafe.daum.net/jakunnuri	ysnbak@hanmail.net
풀무학교	충남 홍성군 홍동면 팔파리 664번지	041-633-3021
정승관	poolmoo.or.kr	csk0603@hanmail.net

● 기독교 공동체

공동체 대표/담당자	주소 website	전화번호 email
디아코니아공동체 (사랑방교회)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무림리 348번지	031-544-1615
정태일	www.sarangbang.org	
보은 예수마을 (보나콤)	충북 보은군 산외면 대원리 62-1번지	
	bonacom.or.kr	bonacom@bonacom.or.kr

● 생산자협동조합

공동체 대표/담당자	주소 website	전화번호 email
사람과공간 종합건설	서울 강북구 미아2동 777-6 삼양상가빌딩 3층	02-981-2799
김진택	www.humanandspace.com	ecohuman@hanmail.net
솔샘ilter	서울 강북구 미아5동 674-12	02-987-7053
장영옥		solsaem94@hanafos.com
쌍호공동체	경북 의성군 안사면 쌍호리 153-4	054-862-1575
진상국	http://www.andongkcfm.or.kr/group_main2.html	
웃과사람들	서울 성동구 금호4가 1535 노인정 1층	02-2294-4003
이관희		
웃사랑	서울 강북구 미아1동 838-28	02-984-3372
이승옥	www.wesky.co.kr	
좋은마을협동조합	전북 장수군 번암면 유정리 561	
이남곡	http://cafe.daum.net/joeunvillage	

증평영농조합법인	충북 괴산군 증평읍 증평동 431	043-836-9991
이재등		
풀무생협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223	041-632-9025
박종권	www.pulmu.or.kr	hsjhy21@hanmail.net
하늘자리 김치	서울 관악구 봉천3동 14-98	02-875-9632
김제노베파		anjelamam@hanmail.net
한솔밥	서울 종로구 무학동 45-94	02-735-5253
박문수		hansotbab@hanmail.net
한울공동체	전북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종암 610-26	063-583-3423
화북공동체		
화북공동체	전남 순천시 낙안면 평사리 578	061-755-0314
한옥현		
명례방협동조합	서울 중구 명동2가 1 카톨릭회관 412호	02-777-7261
김기종	www.poor.or.kr	kimkm@catholic.or.kr
방주공동체	경북 울진군 서면 쌍전1리	054-783-5368
강문필		
옥잠화공동체	충북 영동군 신천면 옥계리 980-2 옥잠화 영농조합법인	043-742-0036
김도준		od927@hanmir.com
청마공동체	충남 부여군 초촌면 신암리 141	041-832-4709
강수옥		

● 생태마을

공동체 대표/담당자	주소 website	전화번호 email
안솔기 마을	경남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안솔기마을	055-973-2962
최세현 등	cafe.daum.net/gandhifarm	himnanum@hanmail.net
청미래마을	경남 함안군 백전면 대안리 173 www.청미래마을.com	055-963-3343 kyc0928@hanmir.com
하늘소마을	전북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김영규	http://cafe.daum.net/backwha	yawha86@hanmail.net

● 생활협동조합

공동체 대표/담당자	주소 website	전화번호 email
광명YMCA생협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61-1 주은플라자301	02-809-2081
김혜란	www.knymca.or.kr	ymca02@hanmail.net
귀빈래마을	경북 상주시 화북면 입석리 산 6-1	054-535-5039
조삼수	www.chsfarm.co.kr	chsfarm@hanmir.com
마포두레생협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5-44	02-3141-0505
박홍섭	www.mapocoop.org	mapocoop@hanmail.net
원주생협	강원 원주시 호저면 주산1리 567	033-731-4272
박영학	www.woop.or.kr	bisan1@hanmail.net
팔당생명살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756-24	031-774-4242
이준용	www.pssss.or.kr	paldang62@hanmail.net

한살림서울 생활협동조합	서울 서초구 양재1동 145-5 501호	02-3498-3600
하선주	www.hansalimseoul.or.kr	hansil21@hotmail.com

● 영성·수련 공동체

공동체 대표/담당자	주소 website	전화번호 email
다일공동체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390-1 다일영성생활 수련원	031-584-7478
최일도	www.dail.org	durebak99@hanmail.net
동광원(귀일원)	광주 광역시 남구 봉선 2동 132번지	062-652-0576
복은순	www.gwiilwon.or.kr	gwiilwon@gwiilwon.or.kr
슈리 크리슈나 다스 아쉬람	경남 창원시 북면 신리 771번지 www.krishnadass.com	055-299-6379 krishnadass@krishnadass.com
예수살이공동체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86-1	02-3144-2144
박기호	www.jsari.com	hanulnara@hanmail.net
예수원	강원 태백시 태백우체국 사서함 17호	033-552-0633
현재인	www.jabbey.org	jabbey@jabbey.org
정토수련원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1리 118	054-571-6031
유수스님	www.jungto.org	
정토회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토회관	02-587-8991
유수스님	www.jungto.org	jtplan@jungto.org
푸른누리	경북 상주시 화북면 입석리 545	054-536-9820
최한실	cafe.daum.net/pururuuri	



● 의료생활협동조합

공동체 대표/담당자	주소 website	전화번호 email
대전민들레 의료생활협	대전시 대덕구 법1동 282-7 www.mindlle.org	042-638-9042 mindlle@mindlle.org
서울의료생활협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989-10 동화빌딩 1층 www.medcoop.org	02-848-2150
김연자	www.medcoop.org	
안산의료생활협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5-18 로얄프라자 304 www.medcoop.or.kr/ansan	031-401-2208 lovehrc@hanmail.net
안성의료생활협	경기도 안성시 인지동 414-5	031-672-6121
송창호	www.medcoop.or.kr/ansung	medcoop@chollian.net
원주의료생활협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122 밝음신협 3층 www.medcoop.or.kr/wonju	033-744-7572,3
김승환	www.medcoop.or.kr/wonju	
의료생활협연대	인천시 부평동 부개1동 327-11	032-524-6911
송창호	www.medcoop.or.kr	
인천평화의료생활협	인천시 부평동 부개1동 327-11	032-524-6911
신동우	www.medcoop.or.kr/inchon	
함께걸음 의료생활협	서울 서초구 방배동 923-13 근복빌딩 6층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2-521-5364
이성재	www.healthcoop.or.kr	

● 지역공동체

공동체 대표/담당자	주소 website	전화번호 email
눈비산마을	충북 괴산군 소수면 입암리 570	043-832-8063
조희부		
문당리 환경농업마을	충남 홍성군 문당리 405	041-631-3538
주형로	www.mundang.invil.org	nanum2100@hanmail.net
물만골공동체	부산 연제구 연산2동 산 176-55	051-852-0399
견대필		kdp0399@korea.com
솔뫼농장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253	043-833-0729
김용옥	www.solmoefarm.com.ne.kr	sjsin1@chollian.net
한마음공동체	전남 장성군 남면 마령리 538번지 한마음자연학교	061-393-1925
남상도	www.yuginong.co.kr	ock66@hanmail.net
한생명	전북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 508번지	063-636-5388
도범스님	www.hanlife.or.kr	onelif21@hanmail.net

● 지역화폐

공동체 대표/담당자	주소 website	전화번호 email
고잔팜아이	안산시 고잔동 659-6 고잔1동사무소 2층	031-402-6192
	www.pumasi.net	
부산Y공동체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43-13	051-440-3353
	www.yfam.or.kr	

상봉품앗이	경남 진주시 상봉서동 1032-10	055-749-2646
	www.sbsd.net	
송파품앗이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62-2 송파구민회관 2층	02-2202-2351
	www.pumasi.or.kr	
지역품앗이 광명그루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419 광명시평생학습원 丙 3층	02-2619-6148
이병곤	www.gmlets.or.kr	
과천 품앗이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17 과천타워 2층	02-502-2238
정중숙	www.gcpoomasi.or.kr	mo0203@hanmail.net
한발래츠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1동 282-7 민들레 의원 3층	042-638-2465
박현숙 두루지기	www.tjlets.or.kr	dal45452@hotmail.com



## 공동체 관련 단체 · 정보 website

이름	홈페이지
불교환경교육원	<a href="http://www.jungto.org/baea/baea.html">www.jungto.org/baea/baea.html</a>
생태공동체운동센터	<a href="http://www.commune.or.kr">www.commune.or.kr</a>
생명문화자료정보센터(모심과살림연구소)	<a href="http://www.mosim.or.kr">www.mosim.or.kr</a>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a href="http://www.maul.or.kr">www.maul.or.kr</a>
생태산촌 만들기 모임	<a href="http://www.ecovill.org">www.ecovill.org</a>
전국귀농운동본부	<a href="http://refarm.org">refarm.org</a>
이장(주)	<a href="http://www.e-jang.com">www.e-jang.com</a>
인드라마생명공동체	<a href="http://www.indramang.org">www.indramang.org</a>
참여불교재가연대	<a href="http://www.buddha21.org">www.buddha21.org</a>
생태교육연구소 터	<a href="http://ter.or.kr">ter.or.kr</a>
(사)생태유아공동체	<a href="http://ecokid.or.kr">ecokid.or.kr</a>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연구공간 대안과 실천	<a href="http://www.gongdong.or.kr">www.gongdong.or.kr</a> <a href="http://cafe.daum.net/altspace">cafe.daum.net/altspace</a>
민들레	<a href="http://www.mindle.org">www.mindle.org</a>
협동조합연구소	<a href="http://www.coops.or.kr">www.coops.or.kr</a>
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a href="http://www.co-op.or.kr">www.co-op.or.kr</a>
한국생협연합회	<a href="http://www.coop.co.kr">www.coop.co.kr</a>
의료생협연대	<a href="http://medcoop.or.kr">medcoop.or.kr</a>
마포공동체 라디오	<a href="http://cafe.daum.net/radiomapo">cafe.daum.net/radiomapo</a>
공동체연대	<a href="http://www.undong.org">www.undong.org</a>
녹색평론	<a href="http://www.greenreview.co.kr">www.greenreview.co.kr</a>
공동체로 사는 이유	<a href="http://www.wonshine.net">www.wonshine.net</a>

이름	홈페이지
도리촌	www.dorichon.com
엄익복 홈페이지	my.netian.com/~iknow/main.html
아난다마르가	cafe.daum.net/anandamarga
두레허브마을	cafe.daum.net/herbmadang
속리산 귀농마을	cafe.daum.net/humanlifenature
소로우와 월든호수	www.walden.or.kr
사회공동체 사람의 마을	cafe.daum.net/mghschool
오지를 꿈꾸는 사람들	cafe.daum.net/see17
歸農을원하는사람들의모임	cafe.daum.net/refarm
귀농복덕방	cafe.daum.net/naroo
오두막 마을	cafe.daum.net/farmingstory
곰은터 사람들	cafe.daum.net/myrefarm
생태귀농/생태창업	cafe.naver.com/natureforum.cafe
집짓기 두레	cafe.daum.net/housingdule
흙과 사람	cafe.daum.net/WHOAU
하늘 그리운 사람들	cafe.daum.net/noaark
흙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	cafe.daum.net/sharingfarm
한밭생태공동체마을	cafe.daum.net/noaark
생태공동체마을 어우름	cafe.daum.net/ecotogether
전원마을 공동체	cafe.daum.net/hihooll
오래된 미래마을	cafe.daum.net/Econet
신앙으로 신학하기	cafe.daum.net/theo
바람이 꽃이되어	cafe.daum.net/peacetree2
김석균의 도둑집이야기	www.salim.pe.kr
골짜기 사람들	cafe.daum.net/goljaki
흙집 건축이야기	cafe.daum.net/ecohouse
우리의 흙집	cafe.daum.net/clayhouse
막사밭생태마을	cafe.daum.net/ecovilmaksabal



## 공동체와 만남 · 공동체 만들기 프로그램들

### 공동체에서 주관하는 '공동체로 들어서기' 프로그램들

#### ● 야마기시즘 특별강습연찬회

강습연찬회는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중지(衆知)를 모아서, 쉽고 간단하게 "정말은 어떤가" 하고 검토해 가는 지적인 연찬방식이다. 인간이 보다 바른 것을 궁구(窮究)하기 위해서나, 사람들이 사이좋고 유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믿거나, 단정하거나 하는 관념을 고정하는 것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고정하기 쉬운 인간의 관념을 고정이 없는 관념으로, 모두가 함께 하는 연찬방식에 따라, 참으로 자유로운 관념으로 전환 하게한다.

주 최 : 행복회 야마기시회

장 소 : 산안마을(야마기시즘 사회경향 실현지, 경기 화성 소재)

일 시 : 비정기 (매년 연찬 일정을 산안마을 홈페이지에 게재)

기 간 : 7박 8일

참가자격 : 만18세 이상

참가비용 : 30만원

연락처 : 031-353-3920

홈페이지 : [www.yamagishism.co.kr](http://www.yamagishism.co.kr)

#### ● 깨달음의 장, 나눔의 장

깨달음의 장은 지금까지의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일체의 '조건', 그리고 온갖 관념의 굴레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로 부딪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진실은 무엇일까?'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금까지와는 달라진 참모습, 참행복을 발견하도록 하여 준다. 깨달음의 장을 마친 이는 나눔의 장을 수련할 수 있다.

나눔의 장은 상대적인 관계없이 마음이 스스로 자유롭고 인간관계가 평화로워지는 과정으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고 상대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넉넉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다.

주 최 : 정토회

장 소 : 정토수련원(경북 문경 소재)

일 시 : 비정기 (수련 일정은 정토수련원 홈페이지에 게재)

기 간 : 4박 5일

참가자격 : 만18세 이상

참가비용 : 30만원

연락처 : (054) 571-6031

홈페이지 : <http://jungto.org/>

#### ● 예수원 공동체 지원 교육

예수원 공동체 지원생은 서류심사 및 개별면접을 거친 후에 확정되며, 3개월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지원생을 위해 마련된 강의나 세미나에 참석한다. 예수원에서는 3개월 지원 수료자를 대상으로 1년간의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류심사 및 개별면접을 거쳐 확정되며,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예수원 일과에 동참하게 된다. 1년 수련자의 교육목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제자화'이며, 2년 수련자의 교육목표는 '능력있는 공동체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2년 수련 신청은 1년 수련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절차 및 교육프로그램은 1년 수련 때와 동일하다.

예수원의 교육 프로그램은 종교와 공동체에 관한 것들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공동체 생활, 노동자의 영성, 믿음으로 사는 재정원칙, 공동체와 코이노니아, 내적치유, 성령론, 소명의 분별, 토지와 경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 최 : 예수원

장 소 : 예수원(강원 태백 소재)

일 시 : 년 2회 봄, 가을

기 간 : 3개월

참가자격 : 기독교인

참가비용 : 없음

연락처 : (033) 552-0668

홈페이지 : <http://www.jabbey.org>

### ● 배동교육

년중 3회(여름 2, 겨울1)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내용은 소비사회 안에서 그리스도 따르기, 복음적인 인생관 찾기, 소명의식을 위한 자아발견, 좌선명상 수련, 성사생활과 기도생활 틀짜기 등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은 청년(18세 이상)과 장년(3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주 최 : 예수살이공동체

장 소 : 밀알의 집(서울 합정동 소재)

일 시 : 년 3회 여름, 겨울

기 간 : 3박 4일

참가자격 : 카톨릭 신자

참가비용 : 청년 7만원, 장년 9만원

연락처 : 02) 3144-2144

홈페이지 : <http://jsari.com/>

### ● 농촌 비전학교

농촌 비전학교는 농촌에서의 대안적 삶에 관심을 갖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교회 중심의 농촌 활성화의 이론 및 실재를 공동체적으로 배움으로써 농촌 선교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토록 하며, 농촌에서의 대안적 삶을 개발하고 참여자의 또 다른 자기 성숙의 기회가 되도록 하는 교육이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1)교회 중심 농촌 활성화 학습 2)국내외 농촌 선교의 다양한 전략 학습 3)대안적 삶으로서의 농촌의 가치 학습 4)전인적 성장과 기독교 가치관 확립에 두고 있다.

교육 내용은 교회와 농촌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교회중심 지역사회개발론, 적정기술, 퍼머컬처, 농촌문화예술, 대체의학, 홈스쿨링, 환경농업, 기독교 가치관 등으로 이루어진다.

주 최 : 민들레공동체

장 소 : 민들레공동체(경남 산청 소재)

일 시 : 비정기

기 간 : 11박 12일

참가자격 : 기독교인

참가비용 : 20만원



연락처 : 055) 973-6813

홈페이지 : <http://dandelion.or.kr/>

● 영성 수련 프로그램

다일공동체의 영성수련 프로그램은 3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1단계는 아름다운 세상 찾기로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가? 참 행복의 길을 물으며 찾아가는 과정으로 기도수련과 내적치유를 체험한다. 2단계로 년 4회 4박5일간 진행되는 작은 예수 살아기기가 있으며 3단계로는 9박10일 과정의 영성수련 지도자과정이다.

주 최 : 다일공동체

장 소 : 다일공동체 본원(경기 가평 소재)

일 시 : 매월 1회

기 간 : 4박 5일

참가자격 : 제한 없음

참가비용 : 30만원

연락처 : 031) 584-7478

홈페이지 : <http://www.dail.org>

## 공동체를 향한 프로그램들

### ● 생태귀농학교

전국귀농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생태귀농학교는 1996년에 시작하여 졸업생만 2000여명에 이르는 대표적인 귀농교육 과정이다. 생태귀농학교는 생태적 가치와 자립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농촌과 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생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는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울산, 광주 등 각 지역에서도 귀농학교가 열리고 있다.

	강 의		강 의
1	지금 왜 귀농하는가?	11	돌파리의 농촌 이야기
2	생태위기의 극복	12	농가의 살림살이
3	농자천하지대본야	13	귀농 길라잡이
4	자립하는 복합영농	14	생태적인 주거문화
5	심은대로 거두는 농사이야기	15	현장실습/귀농선배와의 만남
6	귀농과 여성	16	흙을 살리는 길
7	현장실습/신명의 농경문화	17	밥상을 살리는 농도공동체
8	오리농법과 마을 만들기	18	생태마을 가꾸기
9	스스로 자라는 아이들	19	성공하는 귀농 - 워크샵
10	행복한 도시농부	20	귀농을 꿈꾸는 이들에게

주 최 : 전국귀농운동본부

장 소 : 농협중앙회 용산별관 7층

일 시 : 년 4회

기 간 : 3개월(주 2회 교육)

참가자격 : 제한 없음

참가비용 : 15만원 (부부참가자 할인)

연락처 : 02) 2281-4611

홈페이지 : <http://www.refarm.org>

### ● 실상사 귀농학교

인드라마생명공동체에서 주관하는 귀농학교로서 장기간의 합숙교육을 통해서 몸 만들기와 마음 만들기를 배울 수 있다. 실상사 귀농학교는 건강하고 자립적인 귀농

을 위한 준비와 생태적 가치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자연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과 양식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야	교육과목
생명농사와철학	자아성찰 프로그램(2박3일)
	명상강의(주1회)
	생명농사와 철학
	귀농, 좋은 마을만들기
공동체삶	공동체란 무엇인가
	생태공동체의 현황과 모색
	공동체탐방(2박3일)
	퍼머컬처
생태농업	생태농업의 기초이론
	흙과 퇴비
	벼 재배 일반론
	밭 작물 재배 원론
	전문유기농업-독립영양농법
	자연농업 자재만들기 실습
	복합영농 탐방
실습	생태농업 실습 (매주 2~3일)
자치살림	바른몸 만들기
	산야초 기행
	천연염색 실습
	효소만들기 실습
	우리집짓기
	음식과 건강
	귀농선배와 좌담
	지리산 산행
	밭우공양(주1회)
개별현장학습	실상사 인근 및 개별 농가
취미교실	풍물
	조각

주 최 :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장 소 : 지리산생명문화교육원(전북 남원 소재)

일 시 : 년 2~3회

기 간 : 9주

참가자격 : 귀농희망자, 생태적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이

참가비용 : 70만원

연락처 : 063) 636-3776

홈페이지 : <http://www.indramang.org>

● 한국퍼머컬처 디자인학교

퍼머컬처는 지속가능한 삶을 일구기 위한 디자인 체계를 일컫는 말로, 70년대 중반 Bill Mollison 등에 의해 고안되었다. 이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한정된 자원으로 우리와 다음세대까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파트 베란다에서 농장까지, 거대한 도시에서부터 야생초지까지 지속가능한 공간과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01년도부터 호주의 생태공동체 Crystal Waters에서 강사가 파견되어 진행되었으나 2003년도부터 (주)이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생태적 기초 지식, 생태적 가옥 설계, 생태적 농장 설계, 생태적 농법, 생태도시 및 공동체 만들기, 디자인 실습 등으로 이루어진다.

주 최 : (주)이장

장 소 : 미정

일 시 : 년 2회

기 간 : 8박 9일

참가자격 : 제한 없음

참가비용 : 40만원

연락처 : 033) 256-0763

홈페이지 : <http://www.koper.co.kr>

● 지리산생명문화교육원 전문강좌

생태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의 생활 전반에 걸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강좌이다. 우리 옷 만들기에서부터 흙집 짓기, 자연의학에 이르기까지 제반의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 프로그램 내용

- 우리 옷 만들기, 소품 만들기 - 차와 산야초 효소 만들기

- 천연염색
- 한옥, 흙집 짓기
- 몸 다루기, 마음 다루기
- 전통음식 만들기
- 자연의학
- 요가와 명상

주 최 : 지리산생명문화교육원

장 소 : 지리산생명문화교육원(전북 남원 소재)

일 시 : 비정기 (홈페이지에 공고)

기 간 : 강좌별

참가자격 : 제한 없음

참가비용 : 강좌별

연락처 : 063) 636-3776

홈페이지 : <http://hanlife.or.kr>

#### ● 귀농운동본부 살림강좌

자급자족하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친다. 유기농 자재 만들기에서부터 생태 뒷간 만들기까지 실용적인 강좌들이 있다.

##### • 프로그램 내용

- 내 손으로 만드는 햄, 소시지, 베이컨
- 내 손으로 옷 만들기
- 뽕나무 기르기와 활용
- 생태적 뒷간 만들기
- 내 손으로 하는 천연염색
- 내 손으로 유기농자재 만들기

주 최 : 전국귀농운동본부

장 소 : 미정

일 시 : 비정기(홈페이지에 공고)

기 간 : 강좌별

참가자격 : 제한 없음

참가비용 : 강좌별

연락처 : 02) 2281-4611

홈페이지 : <http://www.refarm.org>

● 생태건축 아카데미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4년 정도 진행되었던 생태건축강좌가 생태건축 전문가를 양성하는 생태건축 아카데미로 개편되었다. 기존의 건축이 간과해온 자연환경에 대한 반성과 생태주의적 성찰을 도모하여 보다 나은 건축문화를 만들고자 생태건축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배출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프로그램 내용

- 생태건축의 이해
- 에너지 유지 및 획득
- 건축의 재료 및 구법

주 최 : 생태건축연구소

장 소 : 생태아카데미 교육장

일 시 : 매년 3월

기 간 : 1년 (주 1~2회 교육)

참가자격 : 제한 없음

참가비용 : 120만원

연락처 : (02) 745-3051

홈페이지 : <http://www.ecoarch.org>

● 풀무환경농업 전문과정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에서 2001년도에 연 2년제 전공과정이다. 생태적 가치관과 교양을 갖추고 노동과 실제능력을 익히며 소가족 복합경영의 생태농업을 실천하여 진리추구와 생활과 배움을 하나로 하는 공동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교육 과정

- 교양
- 사람, 농업 & 환경
- 농업기초이론
- 유기농업
- 재배
- 종자
- 유기축산
- 농업과 사회·예술
- 산림농업
- 농장 디자인, 마을만들기
- 실습 (재배, 원예, 적정기술, 농산물 가공)
- 교직

주 최 :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장 소 : 풀무전공부 (충남 홍성 소재)

일 시 : 매년 가을 모집  
기 간 : 2년  
참가자격 : 제한 없음  
참가비용 : 분기당 25만원  
연락처 : 041) 631-6604  
홈페이지 : <http://www.poolmoo.net>

### ● 녹색 대학

2003년 3월 처음으로 문을 연 녹색대학은 생태적 조화를 회복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문명의 대안과 교수와 학생의 학문공동체로서 학생들 사이의 상호협동과 맞춤형 교육이라는 교육본연의 모습에 충실할 것을 이념으로 삼고 있다. 녹색문화학, 생명농업학, 녹색살림학, 생태건축학, 풍수풍류학 등을 전공과정으로 하는 4년제 학부과정과 녹색교육학과, 자연의학과, 생태건축학과의 2년제 대학원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교육과정은 전공필수와 전공선택 외에 교양과정으로서 녹색필수, 녹색선택, 전인강좌 등에서 공동체나 생태학, 생태철학, 함양지역학 등을 두어 전일적 삶을 계획하는 생태적 인간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녹색선택에는 학생들이 만드는 수업을 포함하고 전공을 복수전공을 택하게 하는 교육과정을 택하고 있다. 전공별 교육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주 최 : 녹색대학

장 소 : 녹색대학(경남 함양 소재)

일 시 : 매년 가을 모집

기 간 : 학부 4년, 대학원 2년

참가자격 : 제한 없음

참가비용 : 입학금 10만원, 등록금 학기당 160만원

연락처 : 055) 964-0987

홈페이지 : <http://www.green.ac.kr>

**공동체**

## 공동체 관련 자료 목록

- 가벼오따쓰 : 세상을 다시 창조하는 마을, 앨런 와이즈먼, 황대권 옮김,  
월간 말, 2002
- 공동체 경제를 위하여, 이가옥·고철기, 녹색평론사, 2001
- 공동체 제자도, 하인리히 아놀드, 편집부 옮김, 쉼터, 1997
- 공동체란 무엇인가, 김수중 외, 이학사, 2002
- 공동체란 무엇인가 - 사회학적시각에서, 로자벳 모스 캔터, 김운 옮김,  
심설당, 1983
- 공동체를 찾아서, 한국불교환경교육원, 녹색세상, 1997
- 공동체신학, 김현진,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 공동체의 기초 이론, 大塚久雄, 이영훈 옮김, 돌베개, 1982
- 공동체의 전개와 지향, 최협 외, 선인, 2001
- 공동체의 현실과 전망, 최협 외, 선인, 2001
- 공동체이론, 신용하 편역, 문학과지성사, 1993
- 나를 찾아 떠나는 17일간의 여행, 조연현, 한겨레신문사, 2001
- 더불어 사는 평민을 기르는 풀무학교 이야기, 홍순명, 내일을 여는 책,  
1998
- 백척간두에 서서 : 공동체를 위한 명상, 황대권, 사회평론, 1993
- 새로운 세상을 여는 공동체이야기 : 후어로 마을의 꿈과 좌절, 하나후사  
료스케, 이학선 옮김, 내일을 여는 책, 1997
- 새벽의 집, 문영미, 보리, 1996
- 세계 어디에도 내 집이 있다 :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2, 조연현 외,  
한겨레신문사, 2002
- 세계의 공동체 마을들, 올리버 파피노·크리스 파피노, 이천우 옮김, 정  
신세계사, 1993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헬렌 니어링, 보리, 1998  
 어린이 공화국 벤포스타, 에버하르트 피비우스, 보리, 2000  
 에코토피아, 어니스트 칼렌바크, 김석희 옮김, 정신세계사, 1991  
 오래된 미래 : 라다크에서 배운다,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박종철 외 옮김, 녹색평론, 1998  
 월덴 투(Walden two), B. F. 스키너(Skinner), 이장호 옮김, 심지, 1982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생태마을 길잡이, 이병철 외, 녹색연합, 2000  
 작은 것이 아름답다 : 인간 중심의 경제학, E. F. 슈마허, 김진욱 옮김, 범우사, 1995  
 작은 풍요, 강수돌, 이후, 1999  
 잡초는 없다, 윤구병, 보리, 1998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강대기, 아카넷, 2001

아무도 기획하지 않은 자유 - '수유+너머'에 대한 인류학적 보고서, 고미숙, 휴머니스트, 2004

The 60s Communes : Hippies and beyond, Miller, Timothy, Black Rose Books(New York), 1985  
 Acrosanti : An Urban Laboratory?, Paolo Soleri, Prism Press, 1984  
 Ananda : Where Yoga Lives, John Ball, Syracuse University Press(New York), 1999  
 Attempting an Alternative Society, Karol Borowski, Green Print(England), 1991  
 Awareness : Exploring, Experimenting, Experiencing, John Stevens, Diggers and Dreamers Publication(London), 2004  
 The Best Investment : Land in a Loving Community, David Felder,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2  
 Building Social Change Communities, The Traing/Action Affinity Gro

- up of Movement for a New Society, Harper and Row, 1984
- Commitment and Community : Communes and Utopias in Sociological Perspective, Rosabeth Moss Kanter, Evolutionary Press(San Francisco), 1983
- Commune and The Green Vision, Pepper, David, Ananda Publications(Nevada City, California), 1968
- Communes : A Social History and Guide, Mercer, John, J. P. Tarcher(Los Angeles), 1979
- Communes, Law and Commonsense, Lee Goldstein, Acropolis Books (Washington D.C.), 1982
- Communities, the Fellowship for Intentional Community, Wellington Press(Tallahassee, Florida), 1982
- Communities Directory, the Fellowship for Intentional Community, The Training/Action Affinity Group of Movement for a New Society (Philadelphia), 1979
- The Community Land Trust Handbook, The Institute for Community Economics, Rodale Press(Emmaus, Pennsylvania), 1982
- Creative Conflict, Christopher Hills, Harvard University Press(Cambridge, Massachusetts), 1972
- Diggers and Dreamers 2004/2005 : The Guide to Communal Living, , Spiritual Community Publications(Berkeley, California), 1984
- Earth Community, Susan Cambell, , Eric Raimy, Shared House, Shared Lives, , 2000
- Faces of Findhorn, The Findhorn Community, Norwood Editions(Norwood, PA), 1984
- The Findhorn Garden, The Findhorn Community, Ingrid Komar(Norwood, PA), 1983
- Intentional Community : An Anthropological Perspective, Brown, Susan Love edit, Harper and Row(New York), 1975
- Living the Dream : A Documentary Study of the Twin Oaks Commune

- ity , Ingrid Komar, Harper and Row(New York), 1980
- Nancy Branwein·Jill MacNeice·Peter Spiers, The Group House Handbook, Avant Books(San Diego, CA), 1984
- New Consciousness Sourcebook : Spiritual Community Guide #5, Parmatma Singh Khalsa edit, Bowling Green University Popular Press(Boling Green, OH), 1982
- The Search for Community : From Utopia to a Co-operative Society, Melnyk, George, Addison-Wesley Publishers(Menlo Park, CA), 1983
- Sees of Tomorrow, Cris and Oliver Popenoe, New Community Projects(Boston, MA), 1974
- Swami Kriyananda, Cooperative Communities : How to Start Them and Why, Bantam Books edition(New York), 1973
- The Upstart Spring : Esalen and the American Awakening, Walter Anderson, University of the trees Press(Boulder Creek, CA), 1980



## 다른 나라의 공동체들

다음의 공동체들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써서 아래의 정보가 여전히 맞는지 그리고 그들이 방문객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공동체들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 말씀의 터전(Adobe of the Message)

PO Box 300, New Lebanon, NY 12125 USA. (518)794-8095, [www.theabode.net](http://www.theabode.net)  
[programs@theabode.net](mailto:programs@theabode.net) - 1974년 시작. 인구 85명. Pir Vilayat Khan이 버크셔 산의 450 에이커 땅에서 시작. 수피 공동체. 수피 지도자인 Hazrat Inayat Khan의 가르침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음. 기도와 명상 생활. 저녁 수피즘 수업, 피정, 상담, 춤과 음악, 그리고 Universal Worship Service 등을 진행.

### 알파 농장(Alpha Farm)

Deadwood, OR 97430 USA. (541)964-5102. [www.pioneer.net/alpha](http://www.pioneer.net/alpha).  
[alpha@pioneer.net](mailto:alpha@pioneer.net) - 1972년 시작. 인구 19명. 280에이커의 농장. 모든 재산과 수입을 공유하는 협동조합 법인. 공동 저녁 식사. 많은 식품과 연료를 자체 생산하고 마을에 상점 두 곳을 운영.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

### 아난다 협동조합 마을(Ananda Cooperative Village)

14618 Tyler Foote Rd, Nevada City, CA 95959 USA. (530)478-7500.  
[www.ananda.org](http://www.ananda.org) - 1968년 시작. 인구 263명. Swami Kriyananda가 시작. Paramahansa Yogananda의 제자들. 요가와 명상, 치유 세미나, 요가 교사 훈련 등을 진행. 유기농 밭, 낙농, 건강식품 상점과 식당, 선물 가게, 건설 회사를 운영. 향료와 기름을 생산해 판매. 책과 테이프 제작. 어린이를 위한 영성 학교, 방문객을 위한 피정 오두막 운영.

### + 아프로베초(Aprovecho Research Center)

80574 Hazelton Rd, Cottage Grove OR 97424, USA. (541)942-8198,  
[apro@efn.org](mailto:apro@efn.org), [www.aprovecho.net](http://www.aprovecho.net) - 1976년 콰테말라 대지진을 목격하고 온

일군의 사람들에 의해 조직. 주로 제3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단순함에 기초하여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연구하여 널리 전파하는 일을 한다. 1981년에 오레곤에 공동체 연구소를 만들어 현재 전세계 6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적정기술과 협동에 기초한 대안의 살림살이를 전파하고 있음.

#### 아르코산티(Arcosanti)

HC 74, Box 4136, Mayer, AZ 86333 USA. (502)632-7135, 6233. [www.arcosanti.org](http://www.arcosanti.org). [terigrine@getnet.com](mailto:terigrine@getnet.com) - 1970년 시작. 인구 52명. 건축가인 Paulo Soleri가 5천명을 위한 모델 도시를 건축하면서부터 시작됨. 건축과 생태적 작업을 통합 시켰기 때문에 "아르콜로지(arcology : architecture + ecology)"로 불림. 콘크리트와 태양열 공법을 이용해 온실을 만드는 3주 동안의 건축 교육 과정을 운영. 청동으로 주조한 종을 판매. 방문객 센터, 공예 건물, 음악 센터, 컨퍼런스 등 운영.

#### 오로빌(Auroville)

Auroville Cooperative, Matrimandir Office Center, Auroville 605101, Tamil Nadu, INDIA. [www.auroville-india.org](http://www.auroville-india.org) - 1968년 시작. 인구 1,800명. 스리 오로빈도(Sri Aurobindo)와 마더(The Mother)의 가르침에 기초해 11,000 에이커의 땅에서 시작. 24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생활. 인간애의 진보를 앞당기기 위한 영성적이고 물질적인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 목적. 구형의 만티르만디르 사원 건립. 대규모 산림 프로젝트 진행. 합의에 의한 자치.

#### 스리 오로빈도 아쉬람(Sri Aurobindo Ashram)

Pondicherry 605002, INDIA. [www.sriaurobindoashram.net](http://www.sriaurobindoashram.net) - 1910년 시작. 인도의 철학자이자 성인인 스리 오로빈도와 마더(The Mother)의 가르침에 기초. 요가와 명상.

#### 베어 트라이브 주술사 협회(Bear Tribe Medicine Society)

DaughterThe Bear Tribe, PMB 223, 3750-A Airport Blvd. Mobile, AL 36608-1618 USA, (251)665-0499, [www.ewebtribe.com](http://www.ewebtribe.com) - 1973년 시작. 인구 10명. 40 에이커. 어머니 지구, 위대한 영혼, 그리고 살아 있는 모든 것들과의 적합한 관계를 다시 배우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임. 체페와 주술사인 선베어(Sun Bear)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음. Wabun Wind를 거쳐 1996년 이래 지금까지 Wind Daughter가 협회의 법통을 잇고 있음. 소식지 발행. 지구에 대한 자각 추구. 시골에서 사는 기술을 공유하고 세미나, 강의, Medicine Wheel Gathering 등을 함께 함.

### 자작나무 홀(Birchwood Hall)

Storrige, Malvern, Worcestershire, WR13-5EZ, ENGLAND,  
paddymcc@netcomuk.co.uk - 1970년 시작. 회원 10명. 구타 피해 여성들을 위  
한 피난처 운영. 코뮌 네트워크 소식지(Communes Network Newsletter) 발행.  
식사, 요리, 빨래, 육아를 함께 함. 회원 대부분이 외부에 직장을 가지고 있  
음. 회원들 사이의 일치를 위한 10분 회의 제도 운영.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 빵과 장미(Bread and Rose Base Community)

Fabriciusstrasse 56, D-22177 Hamburg, Germany, +49(040)69702085, jens.  
schild@weitblick.de, www.brot-und-rosen.de, - 1993년 시작. 처음에 12명이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상주회원 5명. 카톨릭 워커 운동의 하나로 만들어진 노  
숙자와 난민들을 위한 복지 공동체. 기부금으로 운영.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  
들지만 늘 8명 정도의 노숙자와 난민들이 있음.

### 브라이튼부시(Breitenbush)

PO Box 578, Detroit, OR 97342 USA (503)854-3314. www.breitenbush.com.  
office@breitenbush.com - 1977년 시작. 인구 42명. 미네랄 온천 휴양 시설로  
시작. 단체로 명상, 치유 워크샵 등을 할 수 있는 치유-피정 컨퍼런스 센터를  
운영.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1999년에 인근에 67에이커의 땅을 구입하여 생  
태회복 프로젝트 시작.

### 브루더호프(The Bruderhof)

Woodcrest Bruderhof, Rte 213, Rifton NY 12471 USA. (845)658-8351.  
www.bruderhof.com. 1920년 시작. 독일에서 시작된 기독교 공동체. 현재 독  
일(1곳), 영국(2곳), 미국(7곳), 호주(1곳)에 모두 11곳의 공동체 마을이 있  
고 각각 150명에서 4백여명이 살고 있음. 교육용 가구와 장난감을 만드는  
Community Playthings 회사와 장애인 보조기구를 만드는 Rifton Equipment 회  
사를 운영. 재산과 수입 공유. 어린이집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자체 운영.

### 브라인 겔드 홈스테드(Bryn Gweled Homesteads)

1150 Woods Rd, Southampton, PA 18966 USA. (215)357-3977.  
http://www.bryngweled.org, hmv1@libertynet.com - 1940년 시작. 인구 124  
명. 75 가정이 각각 2 에이커의 땅 위에 생활, 다양한 이웃 사이 문화, 가족  
자치, 이웃의 친밀함과 정직함을 나눔.

### 캠프힐 김버튼 마을(Camphill Kimberton Village)

Box 155, Kimberton, PA 19442 USA. (610)935-3963.

www.camphillassociation.org - 1972년 시작. 인구 125명. 350에이커의 바이 오다이나믹 농장.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의 철학에 기초. 정신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해 110명이 함께 지냄. 매년 <김버튼 힐스 농사 달력>을 발행. 정신 발달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위한 공예 작업실 운영. 캠프 힐 공동체 운동은 오스트리아 태생의 칼 쾨니히(Karl Koenig) 박사에 의해 1940년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시작됐음. 캠프힐 마을은 특수학교를 포함해 미국에 총 8곳, 캐나다에 1곳이 있고 세계적으로는 19개 나라에 약 90여개의 마을이 있음.

#### + 대안기술센터(CAT : Center for Alternative Technologies)

Machynlleth, Powys, SY20 9AZ, UK. (0)1654-702400. www.cat.org.uk - 1975년 시작. 조합원 37명. 방문자들에게 물로 이동하는 암벽철로, 친환경적 자가 발전 빌딩, 쓰레기 퇴비화 등 대안 기술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대안 기술 프로그램을 제공. 대안기술 컨설팅. 출판물과 비디오 판매.

#### 빛의 센터(Center of the Light)

PO Box 540, Great Barington, MA 01230 USA. (413)229-2396 - 84 에이커. 회원 12명. 1979년 시작. 전일론적 기술(the wholistic techniques), 허브, Graf's Body System 등을 응용한 치유법을 훈련시킴. 허브 연구 사업 운영.

#### 센터포인트(Centrepoint)

PO Box 35, Albany, Auckland, NEWZEALAND - 1978년 시작. 회원 100명. 30 에이커.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인 버트 포터(Bert Potter)에 의해 시작. 개인적 성장과 치유 그리고 신을 찾는 일에 집중.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변해야 한다고 믿음. 공개 워크샵과 공동체 재정 사업들을 운영. 1992년 설립자 버트를 포함한 주요 멤버가 불미스런 일로 투옥. 활동 정지. 2000년부터 Public Trust의 감독 아래 새로운 생태마을로 태어나고 있음.

#### 치누크(Chinook)

PO Box 57, Clinton WA 98236 USA. (360)341-1884, <http://www.whidbeyinstitute.org>. [info@whidbeyinstitute.org](mailto:info@whidbeyinstitute.org) - 1972년 시작. 인구 25명. 50 에이커. 뉴 에이지 주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전통적인 교회들과 연결되어 있음.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 마을에 영성 관련 책방을 운영. 1993년에 지구, 영성, 인류의 미래를 탐구하고 교육하는 Whidbey Institute를 설립. 치누크 교육 센터 운영.

#### 크리스치니아(Christiana)

Badsmannstroede 43 Copenhagen 1407 K DENMARK. (31)577195.  
www.christiania.org. webcrew@christiania.org - 1971년 시작. 인구 900명.  
2차 대전 중 군수 기지로 사용되었던 코펜하겐 외곽 지역에 자유와 공동체를  
추구하는 일단의 이상주의자들이 모여들어 경찰과 세금이 없는 도시 속의 마  
을 공동체를 세움. 이후 시 당국의 계속된 철거 명령에 대항하여 끊임없이 투  
쟁한 결과 1991년 마침내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마을의 자치를 인정하는 협정  
을 체결. 그러나 현재 시 당국의 토지 및 건물의 사유화 정책 결정으로 인해  
다시 한번 위기 상황을 맞고 있음.

#### 크리살리스(Chrysalis)

PO Box 61, Helensburg, IN 47435 USA. (812)988-6446, - 42에이커의 땅에  
세워진 월든 II 형태의 공동체. 염소 목축 사업을 운영하고 컴퍼런스 와 워크  
샵 등을 개최. 아이들을 환영. FEC에 속한 몇몇 공동체들을 모델로 삼았음.

#### + 클레이스 레인 주거협동조합(Clay Lane Housing Co-operative)

The Community Centre, Clays Lane, Stratford, London, E15 2UH, UK.  
(020)8555-9182. <http://www.clays-lane.org.uk> - 1980년대 초 시작. 인구  
450명. 독신자들을 위한 주거 협동조합. 유럽 최대의 코하우징으로 10개 블록  
에 450개의 방이 있음. 총회를 통해 모든 의사 결정을 하고 관리위원회 등 생  
활에 관련된 일을 해결하는 위원회들이 있음.

#### 창조적 비폭력을 위한 공동체(Community for Creative Non-Violence)

1345 Euclid St. NW, Washington, D.C. 20009 USA. (202)667-6407,  
<http://users.erols.com/ccnv>, - 1971년 시작. 기독교적 영성에 기초한 저항  
과 섬김의 공동체. Guinan 신부와 워싱턴의 운동권 학생들이 설립. 집없는 사  
람들을 위한 공동체. 가난한 사람들과 삶과 물질을 나눔. 급식소와 쉼터 운  
영.

#### + 방주 공동체(Community of the Ark)

La Communauté de l'Arche, La Borie Noble, 34650 Roqueredonde, FRANCE -  
"기체는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손은 사람을 해방시킨다." 간디를 따른 최초의  
서양인으로 알려진 Lanza del Vasto (1901-1981)가 간디 저격 직후인 1948년  
프랑스 남부에 간디의 정신을 구현하는 공동체를 설립. 발전을 거듭하여 유럽  
과 그 언저리에 140여개의 형제 공동체와 지부들이 있다.

#### + 크리스털 워터스 (Crystal Waters)

65 Kilcoy Lane, Conondale, Qld, 4552, Australia. (7)5494-4653.



www.ecologicalsolutions.com.au/crystalwaters - 1987년 시작. 인구 200명. 640 에이커. 전체 면적의 80%가 자연. 퍼머컬처(permaculture. \*'오래가는'이라는 뜻의 permanent와 농업을 뜻하는 'agriculture' 또는 문화를 뜻하는 'culture'의 합성어로 지속 가능한 농업과 문화를 의미) 마을. 유기농 농장 운영. 공동체 성원들은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음. 퍼머컬처 교육 실시. 국제 생태마을 네트워크(GEN : Global Ecovillage Network)의 생태마을 교육센터인 에코센터(Eco-center)가 마을 안에 있음.

#### + 댄싱 래빗(Dancing Rabbit Ecovillage)

1 Dancing Rabbit Lane, Rutledge, MO 63563 USA, (660)883-5511, dancingrabbit@ic.org, www.dancingrabbit.org - 1995년 설립. 현재 어른 17명과 개 3마리가 함께 살고 있음. 지역적으로 자급자족하는 인구 500~1,000의 생태마을을 목표. 지역화폐, 생태건축, 생태농업, Food Co-op, Vehicle Co-op.

#### + 다만후르 공동체 (Comunita di Damanhur)

Via Pramanzo 3, I-10080, Baldissero Cse, Torino, ITALY, +39 (0124)512-2239, www.damanhur.info - 1977년에 오베르토 아이라우디의 철학 사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북부 이탈리아의 발디세로 지방에 세운 영성공동체. 다만후르는 여러개의 작은 공동체와 지역이 결합한 커다란 공동체로서 자체 화폐와 일간신문, 학교 및 40여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음. 현재 800여명이 공동체 안에서 자족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

#### 민들레(Dandelion)

194 Jackson Rd, RR 1, Ontario K0K 1Z0 CANADA. (613)358-2304. dlion@kingston.net - 1975년 시작. 인구 7명. 50 에이커의. 소설 <월든 II>의 영향을 받음. 물건, 수입, 지출을 함께 나눔. 주식 공예, 손으로 짠 헤먹과 의자 사업을 운영. 책을 우편으로 판매하는 사업 운영. 공동체적 삶과 사회적 변화에 대한 워크샵. 공동 육아. 중요한 일은 합의에 의해 결정.

#### 이스트 윈드(East Wind)

Box CD 3, Tecumseh, MO 65760 USA. (417)679-4682. www.eastwind.org - 1974년 시작. 인구 70명. 1,045 에이커. 진보적인 정치·사회적 가치와 온화한 문화, 협동, 평등, 환경 등의 가치를 추구. 성과 인종 차별에 반대. 민주적인 방법으로 노동과 물질을 함께 나눔. 줄로 만든 샌달, 땅콩 버터, 헤먹 사업 운영. FEC 회원.

#### + 이타카 에코빌리지(EcoVillage at Ithaca)

200 Rachel Carson Way, Ithaca, NY 14850, USA, (607)255-8276, ecovillage@cornell.edu, www.ecovillage.ithaca.ny.us - 1992년 설립. 지역 통화로 유명한 이타카 지역에 세워진 생태마을. 계획적인 생태마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는 전형. 1977년 30가구로 구성된 1차 마을 완성. 2003년 30가구 2차 마을 완성. 공동체지원농업(CSA)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생태 인프라를 구상 중에 있음.

#### 에살렌 연구소(Esalen Institute)

Big Sur, CA 93920 USA. (408)667-2355, www.esalen.org - 1962년 시작. 스탭 회원 35명. Michael Murphy 와 Dick Price 가 설립. 인간잠재력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과학과 종교, 대체 의학, 신체운동에 대한 강의 제공. 어린이들을 위한 Gazebo 학교 운영. 미네랄 온천 목욕.

#### 파라론스 연구소 농촌 센터(Farrallones Institute Rural Center)

15290 Coleman Valley Road, Occidental, CA 95465 USA. (707)874-1557, <http://www.oaec.org> - 1974년 시작. 캘리포니아주 건축가인 Sim Van Der Ryn 에 의해 적정 기술을 위한 연구소로 출발.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 유기농 식품 생산, 퍼머컬처, 식용 작물 경작, 퇴비 화장실 등에 관한 강의 제공. 버클리에 일체형 도시주택 모델 운영. 1994년 The Occidental Arts and Ecology Center (OAEC)로 이름이 바뀜.

#### 페어 디 웰 센터(Fare-Thee-Well Center)

Rt. 66, Huntington, MA 01050 USA. (413) 238 5973, [berkhillsprod@email.msn.com](mailto:berkhillsprod@email.msn.com) - 1974년 시작. 목사이자 치유자인 Floyd McAuslan에 의해 설립. 치유 프로그램에 외부 사람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도움. 워딩턴 인근의 92 에이커의 땅에 일곱 가족이 함께 생활. 대중을 위한 예배와 강의 진행.

#### 팜(The Farm)

34 The Farm, Summertown, TN 38483 USA. (931)964-3571. [www.thefarm.org](http://www.thefarm.org). - 1971년 시작. 인구 163명. 1,750 에이커. 1960년대 Stephen Gaskin의 월요일 저녁 강의로부터 시작. 가난한 사람들, 원주민, 동물, 그리고 환경을 위해 planet 안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일에 헌신. 영성적인 이유 때문에 평화주의와 채식주의를 추구. 제 3세계를 돕기 위해 비영리 자선 조직인 플렌티(PLENTY)를 설립. 출판사, 건강식품 회사, 조산원 학교를 운영.

#### 핀드혼 재단 공동체(The Findhorn Foundation Community)

The Park, Findhorn, Forres IV36 3TZ, SCOTLAND. (0)1309-690311.  
www.findhorn.org. enquiries@findhorn.org - 1962년 설립. 여러 나라에서 온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함께 살며 일을 함. 모든 생명들 안에 신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세계 문화의 출현을 모색. 광범위한 방문자 교육 프로  
그램 운영. 출판. 공연 예술.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 농사 학교, 네트워크/자  
료 센터 운영. 정령과의 조율(Attunement)을 통해 풍성한 농장을 가꿈.

#### + 가나스 공동체(Ganas)

135 Corson Ave, Staten Island NY 10301 USA, (718)720-5378,  
ganas@well.com, www.ganas.org - 1978년 뉴욕시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6명  
이 시작. 현재 90명의 회원이 10개 건물에 살고 있음. 전형적인 도시 생태공  
동체로 공동체적 삶을 통해 대화와 소통의 기술을 터득한다. 원래 이름은  
Foundation for Feedback Learning. 대도시 뉴욕의 다양함을 그대로 간직한  
채 대안적인 삶을 실험. 뉴욕 북부에 GROW II 라는 제2의 공동체 건설 중.

#### 신의 계곡(God's Valley-Pandamarama)

P.R. 1 Box 478, Williams, IN 47470 USA. (812)388-5571 - 1966년 시작. 인  
구 200명. 2,000 에이커. 제재소와 통나무 오두막을 통해 경제활동을 함. 학  
교, 주방, 통조림 사업, 공예품 가게를 운영. 영성적 기반을 갖고 있지만 특  
정한 종교를 표방하지는 않음. 사람들이 일치와 조화 속에 살 수 있는 새로운  
세계 질서속의 소우주 도시를 추구.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공동 식당에서 식  
사를 함.

#### + 굿이너프(Goodenough Community)

2007-33rd Ave So, Seattle WA 98144 USA, (206)323-4653,  
goodenuf@wolfenet.com, www.wolfenet.com, - 1969년 설립. 인구 101명. 공식  
적인 이름은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Furtherance of community이다.  
대안학교와 대안교회, 마을의회 등을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소읍(town)으로  
공동체적 삶을 통해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기를 추구. 해마다 마을에서 '인  
간관계실험실'(Human Relation Laboratory) 프로그램을 운영.

#### 굿라이프(Goodlife)

2006 Vine St., Berkeley, CA 94709 USA. (415)525-0251 - 1968년 시작.  
인구 10명. 초기 이름 Harrad West. 만족스럽고 즐거운 생활을 추구. 다원적  
인간관계 추구.

#### 하빈 온천(Harbin Hot Springs)

PO Box 82, Middletown, CA 95461 USA. (707)987-2477. www.harbin.org - 1972년 시작. 인구 180명. 1,600 에이커의 계곡에서 생활. 워크샵과 피정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신앙과 삶의 방식을 표방. Home of Harbinger Center New Age Work Study Program, 니야마 마사지 학교, East West Center for Macrobiotic Studies, 온천탕, 지압 센터, 학교, 식료품점, 영화관을 운영.

#### 하드스크래블 힐(Hardscrabble Hill)

Castine Rd., Box 62A, Orland, ME 04472 USA. (207)469-7112 - 개인 성장 그리고 자급자족 기술과 관련된 워크샵을 제공하는 페미니스트 공동체.

#### 히스코트 센터(Heathcote Center)

21300 Heathcote Rd., Freeland, MD 21053 USA. (410)343-3478. www.heathcote.org. info@heathcote.org - 1965년 시작. 인구 17명. 44 에이커의 공동체 토지신탁과 68 에이커의 숲. 1977년에 Living Land Trust 학교로 정착. 피정 프로그램 진행. 평등한 환경을 만들고, 합의에 의해 의사 결정을 함. 열린 분위기 선호. 영성 세계 탐구.

#### 하이 윈드(High Wind)

Belden Paulson, President W7122 County Road U Plymouth, WI 53073 tel: (920) 528-8488 fax: (414) 352-1516 email: bhp@csd.uwm.edu - 1977년 시작. 46 에이커의 농장 위에 위스콘신 대학의 교수인 Lisa와 Beldon Paulson에 의해 시작. 비소비형 미니 농장인 바이오셸터(bio-shelter) 건설, 태양열 샤워, 태양열 온실. 뉴 에이지와 관련된 주제로 워크샵 진행. 마을에 책방을 운영. 합의에 의해 의사 결정. 1992년 농장 근처에 144 에이커의 땅을 매입하여 생태마을 High Wind Village와 Plymouth Institute를 설립. 교육, 연구, 지역개발, 그린 비즈니스 등 다양한 사업.

#### 히말라야 연구소(Himalayan Institute)

RD 1, Box 88, Honesdale, PA 18431 USA. (717)253-5551. http://www.himalayaninstitute.org - 1971년 시작. 442 에이커. Swami Rama가 설립. 명상, 요가, 전인 건강, 생체반응, 스트레스 관리, 영양에 대해 교육. 책 40여권을 출판. 그 중 많은 책들이 대학 교재로 사용됨. 스크랜턴 대학을 통해 석사학위 제공.

#### 인사이트 명상 센터(Insight Meditation Center)

Pleasant St., Barre, MA 01005 USA. (617)355-4378, www.dharma.org - 1975년 시작. 인구 14명. 80 에이커. 비파사나 명상 훈련을 위해 설립. 일일 명

상 교수법에 의해 피정 진행. 밤에는 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the retreat center와 the forest refuge라는 두 개의 피정센터와 불교대학을 운영.

**+ 문화 연구소(Institute for Cultural Affairs)**

4750 N. Sheridan Rd., Chicago, IL 60640 USA. (312)769-6363, www.icaworld.org - 제 3세계 원조와 교육을 제공하는 초교파적인(ecumenical) 기독교 운동으로부터 시작. 1977년 벨기에 부루셀에서 출발하여 전 세계에 지부가 있음. 인간개발, 공동체적 지역개발,

**케리스타 마을(Kerista Village)**

543 Frederick St., San Francisco, CA 94117 USA. - 1972년 시작. 인구 24명. "신종족"(neotribal) 평등주의자 공동체. 평등주의자들의 경제 시스템인 Gestalt-O-Rama를 포함해 공동체 생활에 적용되는 혁신적인 것들을 많이 시도. 아이들에 대한 복수 부모, 질투와 소유욕 없이 성인들이 함께 지내기 등을 추구. 계간지를 발행하고 유토피아 대학, 가게 앞 교실, 성장 협동조합을 운영. 1992년 중심인물이 떠나자 투표를 통해 공동체 해산을 결정.

**코이노니아(Koinonia)**

1400 Greenspring Valley Rd., Stevenson, MD 21153 USA. (410)486-2405 - 1951년 시작. 인구 30여명. 치유와 성장을 위한 초교파 센터. 거주 프로그램과 건강과 뉴 에이지에 관한 강좌를 제공. 아이들을 위해 발도르프(Waldorf) 식 어린이집을 운영. 유기농 농사. 1998년에 설립된 인터넷 유기농 회사 Local Harvest를 통해 농산물 판매.

**코이노니아 협력자(Koinonia Partners)**

Route 2, Americus, GA 31709 USA, (229) 924-0391 www.koinoniapartners.org - 1942년 시작. 인구 27명. 600 에이커의 농장. 기독교적 공동체. 국가, 인종, 성 사이의 화해, 비폭력 등을 추구. 신으로부터 받은 재원을 함께 나눔.

**크리팔루 전인 건강 센터(Kripalu Center for Holistic Health)**

P.O. Box 793 West Street, Route 183 Lenox, MA 01240 413-448-3152, www.kripalu.org reserve@kripalu.org - 인구 150명. 영성 공동체. 요가의 가르침을 유지하면서 신성한 삶을 살려는 공동의 목적을 추구. 설립자이며 영성적 지도자인 Yogi Amrit Desai는 Swami Shri Kripalvanandji의 가까운 제자였음. 재가 예방 의학 센터 운영.

**크로토나 연구소(Krotona Institute)**

46 Krotona Hill, Ojai, CA 93023-3901 (805)646-1139, (Fax)805-646-5381, [www.theosophical.org/centers/krotona/index.html](http://www.theosophical.org/centers/krotona/index.html) - 1924년 시작. 인구 40명. 118 에이커. 과학과 종교 그리고 동양과 서양을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철학 체계인 신지학(Theosophy)을 탐구. 강좌와 피정 프로그램 운영. 서점을 운영하고 잡지를 발간. 영성과 비의(esoteric)와 관련된 책을 광범위하게 보유한 도서관 운영. 개별 주거 방식.

#### 라마 재단(Lama Foundation)

PO Box 240, San Cristobal, NM 87564 USA. (505)586-1269, 1964. [www.lamafoundation.org](http://www.lamafoundation.org). [info@lamafoundation.org](mailto:info@lamafoundation.org) - 1968년 시작. 인구 17명. 109 에이커. 다양한 영적 전통 포용. 여름 프로그램, 가내 공업, 노동 캠프, 방문자 프로그램과 피정 프로그램 진행. Ram Das와 초기 때부터 긴밀히 연결 됨.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 로리스톤 홀(Laurieston Hall)

Laurieston Hall, Castle Douglas DG7 2NB, SCOTLAND, [evi@lauriestonhall.demon.co.uk](mailto:evi@lauriestonhall.demon.co.uk) - 1972년 시작. 인구 30명. 135 에이커. 로리스톤 홀은 대저택의 이름. 회원의 3분의 2가 로리스톤 홀에 살면서 소득을 공유. 땅과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 여름 컨퍼런스 진행. 다양한 수공예. 페미니즘, 협동, 그리고 창조성을 이상으로 삼음. 합의에 의한 의사 결정.

#### + 레벤스 가르텐(Lebensgarten)

Ginsterweg 3, Steyerberg 31595, GERMANY. +49 (0)57 64 23 70 [www.lebensgarten.de](http://www.lebensgarten.de). [lebensgarten-seminare@web.de](mailto:lebensgarten-seminare@web.de) - 1985년 시작. 인구 70명. 생명의 정원이라는 뜻. 독일 북부의 전원에 자리 잡고 있음. 공동주방이 있는 마을회관, 재활용품 교환센터 부티크, 카페 등을 운영. 아침의 춤, 명상 모임 등을 갖고 1년에 네 번씩 공동식사를 함.

#### 라이프스팬(Lifespan)

twonhead, Dunford, Bridge, Near Sheffield, ENGLAND - 1974년 시작. 15명. 비폭력과 성 평등 추구. 인쇄 사업 운영. 합의에 의한 의사 결정. 90년대 후반 회원이 급격히 줄어 1명만 남았으나 이후로 확인 안 됨.

#### 산 속의 빛(Light of the Mountains)

Big Sandy Mush Creek Rd., Rt. 2, Box 166, Leicester, NC 28748 USA. (828)683-9068 - Hazart Inayat Khan의 가르침에 기초한 수피 공동체. 기도, 명상, 수피 춤, Universal Worship Service. 치유 프로그램 운영.

### 린나이 농장/월셔 하우스(Linnaea Farm/Wilshire House)

Box 98, Mansons Landing, B.C., VOP 1K0, CANADA (250) 935-6747  
www.linnaeafarm.org, info@linnaeafarm.org - 회원 12명. 생우유 생산판매.  
터틀 아일랜드 토지보전협회의 농촌 지부. 내재하는 영혼에 대한 믿음과 조울  
을 통해 삶을 영위. 60명이 다니는 어린이 학교 운영.

### 리빙 러브/켄 케이스 센터(Living Love/Ken Keyes Center)

790 Commercial Ave., Coos Bay, OR 97420 USA. (541)267-6412,  
www.livinglove.org - 1972년 시작. 거주자와 견습생 60명. <Handbook to  
Higher Consciousness>을 쓴 Ken Keyes 2세가 설립한 훈련 기관. 한 달에  
40-60명의 학생이 생활. 타인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위해 책에 소개된  
'Living Love 기술'을 사용.

### + 로스로리엔 공동체(Lothlorien Community)

CAETÉ-AÇU 46940-000 PALMEIRAS, BAHIA, BRAZIL +55(0)75 344 1129,  
centro@lothlorien.org.br, www.webserve.co.uk/lothlorien - 1984년 설립.  
인구 500명. 브라질의 바히아에 스코틀랜드의 핀드혼 공동체를 모델로 하여  
만든 영성과 치유의 공동체. 주변에 뛰어난 경승지가 있어 명상과 치유를 원  
하는 방문객들이 많음.

### 마타기리 스리 오로빈도 센터(Matagiri Sri Aurobindo Center)

Eric Hughes and Sam Spanier 1218 Wittenberg Road, Mt. Tremper, NY 12457,  
(845) 679-8322info@matagiri.org, www.matagiri.org - 1968년 시작. 40에이  
커. 스리 오로빈도의 완전요가 시스템을 가지고 훈련. 스리 오로빈도와 오로  
빌에 관련된 정보와 생산물의 전파를 위해 설립. 정기적인 집단 명상과 독서.

### 메타노기트(Mettanokit)

Medicine Story, 167 Merriam Hill Road, Greenville, NH 03048 USA, (603)  
878-2310, mettanokit@yahoo.com, www.circleway.org - 1978년 시작. 인디언  
스승인 Medicine Story에 의해 시작. 자립, 자족, 신뢰에 기초한 대안적 사회  
를 추구. 뉴 에이지 컨퍼런스 센터를 운영. 정주 공동체라기보다 전 세계를  
돌며 인디언식 치유와 영적 가르침을 전파. 어린이를 위한 자연학교 운영. 교  
도소 수감자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 Talking Stick 이라는 계간 소식지  
발행.

### 메리암 힐(Merriam Hill)

at Merriam Hill Education Center, 148 Merriam Hill, Greenville, NH 03048, (603)878-1818, [www.monadnockconservancy.org](http://www.monadnockconservancy.org) - 1981년 시작. 54에 이커의 농장부지에 공동체와 자연보호, 영적개발을 위한 "메리암 힐 교육 센터" 설립. 1989년 Monadnock Conservancy를 설립하여 자연보전을 위한 토지신탁을 운동을 벌임. 최근 교육센터가 Durham으로 이전.

#### 몬로 연구소(Monroe Institute - New Community)

The Monroe Institute, 365 Roberts Mountain Road, Faber, Virginia 22938, (866)881-3440, (434)361-1252, [monroEinst@aol.com](mailto:monroEinst@aol.com), [www.monroeinstitute.org](http://www.monroeinstitute.org) - 1981년 Robert Monroe에 의해 시작. "창조자와 인간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계몽"을 위해 시작. 대부분의 회원이 Monroe Institute 프로그램에 관련되어 있음. 집과 토지는 각자가 소유.

#### 마운트 마돈나 센터(Mount Madonna Center)

445 Summit Rd., Watsonville, CA 95076 USA. (408)847-0406. [www.mountmadonna.org](http://www.mountmadonna.org). [programs@mountmadonna.org](mailto:programs@mountmadonna.org) - 1978년 시작. 인구 96명. 355 에이커의 땅 위에 세워진 교육 기관. Baba Hari Dass에 의해 영감을 받음. 요가, 치유 예술, 그리고 미술에 대한 세미나.

#### 새로운 사회를 위한 운동 - 필라델피아 라이프 센터(Movement For a New Society - Philadelphia Life Center)

1501 Cherry St. Philadelphia, PA 19102 USA, (215)241-7035, [www.trainingforchange.org](http://www.trainingforchange.org) - 1966년 베트남 반전운동을 계기로 결성된 사회운동 네트워크. 케이크 액션 그룹이 주도. 새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한 직접 행동으로 비폭력과 페미니스트 전략을 이용. 합의에 의한 의사 결정. 훈련 프로그램과 워크샵 진행. New Society Publishers 라는 출판사를 차려 새로운 사회운동 전략에 관한 책을 지속적으로 발행. 필라델피아에 비폭력에 기반한 사회운동 교육기관인 Training for Change 설립.

#### + 뭉케쇠가르(Munkesoegaard)

Denmark. [www.munkesoegaard.dk](http://www.munkesoegaard.dk) - 1995년 시작(2000년부터 입주 시작). 인구 290명. 생태마을이자 공동주거 공동체. 전체 주거 지역의 약 10%를 공동식당, 세탁실 등이 있는 공유 주택 용지로 사용. 친환경적인 건축 기법으로 모든 주택을 지었음. 난방, 하수처리, 쓰레기 처리 등에도 대안 기술을 적용해서 친환경적인 생태 시스템을 구축. 20개 가구씩 5개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룹별로 2명의 대표를 뽑아 총 10명의 공동대표가 활동. 각 그룹은 2-3주에 한



번씩, 전체 그룹은 일년에 5-6회씩 모임을 갖고 있음.

#### 네베이 샬롬(Neve Shalom)

IL-99761 Doar Na Shimshon ISRAEL. [www.nswas.com](http://www.nswas.com). [pr@nswas.com](mailto:pr@nswas.com) - 1977년 시작. 30 가족이 정착. 유대인과 아랍인을 위한 이스라엘의 협동촌. 기독교인, 유대인, 이슬람교인들이 함께 생활. 브루노(Bruno) 신부에 의해 시작. 어린이집, 초등학교, 평화 학교 운영.

#### 오자이 재단(Ojai Foundation)

9739 Ojai-Santa Paula Rd, Ojai, CA 93023 USA. (805)646-8343. [www.ojaifoundation.org](http://www.ojaifoundation.org). [contact@ojaifoundation.org](mailto:contact@ojaifoundation.org) - 1979년 시작. 인구 11명. Joan Halifax에 의해 시작. 종교적 공동체의 원칙과 실행에 초점을 맞춤. 다양한 전통을 갖고 있는 영성 지도자들과 함께 워크샵을 진행. 일일 명상 수행.

#### 백마일 오두막(One Hundred Mile Lodge)

Box 9, 100 Mile House, BC V0K 2E0, CANADA, 250-395-4077, [www.emissariesbc.com](http://www.emissariesbc.com), [ebclodge@bcinternet.net](mailto:ebclodge@bcinternet.net) - 에미서리 공동체의 일부. 영성공동체. 브리티시 콜롬비아 지역에 진출한 최초의 에미서리 공동체로 지금은 지역 곳곳에 퍼져있음. 지역 사회에서 소규모 사업들을 운영. 주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Atr of Loving" 강좌. 월간 <Integrity International>을 발간.

#### 패스워크 피니아(The Pathwork Phoenicia - Center for Living Force)

PO Box 66, Phoenicia, NY 12464 USA. (845) 688-2211, [www.pathworkny.org](http://www.pathworkny.org), [pathwork@pathworkny.org](mailto:pathwork@pathworkny.org) - 1972년 시작. 인구 40명. 300 에이커. 설립자 Eva Pierrakos의 가르침에 기초한 영성공동체. 집은 각자 소유. 대중을 위한 워크샵과 컨퍼런스 진행.

#### 펜들 힐(Pendle Hill)

338 Plush Mill Rd. Wallingford, PA 19086, USA. (610)566-4507, [www.pendlehill.org](http://www.pendlehill.org), [bobbie@pendlehill.org](mailto:bobbie@pendlehill.org) - 1930년 시작. 인구 35명. 웨이커 교육 센터.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음. 워크샵과 컨퍼런스 진행. 출판. 노동, 공부, 명상. 짧은 방문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합의에 의한 의사 결정.

#### + 플럼 빌리지(Plum Village)

Le Pey, 24240, Thenac, France, (33) 5.53.58.48.58  
UH-office@plumvillage.org, www.plumvillage.org - 1982년 시작. 베트남 태생의 평화운동가인 틱낫한 스님에 의해 시작. 프랑스 내에는 7개의 마을이 있고, 독일과 베트남에도 각각 마을이 한 곳씩 있음. 미국에도 플럼 빌리지의 명상 수행을 하는 몇 개의 센터가 있음. 주말(금요일~일요일) 명상훈련 프로그램과 일주일 방문자 프로그램을 운영. 주로 걷기 명상을 함.

#### 프로비덴스 선원(The Providence Zen Center)

99 Pound Road, Cumberland, RI 02864 (401)658-1464, pzc@kwanumzen.org, www.kwanumzen.org/pzc - 인구 40명. 선(禪) 마스터 송산스님 세계 곳곳에 세운 선원의 미국본부. 현재 대광 스님과 종해 스님이 지도. 전통적 선 훈련 수행. 유기농 밭을 일곱. 들 조각. 생태학 공부, 피정, 명상 수행.

#### 르네상스(Renaissance)

Box 281, Turners Falls, MA 01376 USA. (413)863-8411 - 1967년 설립. 인구 80명. 매사추세츠 Gill의 80 에이커 땅. 개인적 성장, 창조적 표현, 그리고 의식의 성장을 추구. 바람과 태양열 디자인을 이용해 에너지 효율적인 마을을 건설. 건축 사업 운영. 전세 버스, 녹음실 등 다양한 임대 사업을 운영. 90년 대로 들어와 공동체는 쇠락을 거듭하여 지금은 그 자리에 명상센터인 Renaissance center 만이 남아 있음. 또한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인 Daniel Botkin 이 원래 부지의 일부에 "공동체가 지원하는 농장"(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를 운영하고 있음.

#### 모래언덕 농장(Sandhill Farm)

RR 1 BOX 155-W, Rutledge, MO 36563 USA. (816)883-5543. www.sandhillfarm.org. visitors@sandhillfarm.org - 1974년 시작. 인구 13명. 135 에이커. 사탕수수 시럽, 꿀, 겨자 소스 판매. 형식적이고 구조적인 길을 지양하는 영성 공동체. FEC 회원.

#### 삶의 학교(School of Living)

215 Julian Woods Lane, Julian, PA 16844 USA. (814)355-8026. www.s-o-l.org. sol@s-o-l.org - 1936년 시작. 36 에이커의 community-land-trust 땅. 랄프 보소디(Ralph Borsodi)의 철학에 기초. 지역의 성인을 대상으로 뉴 에이지적 삶을 위한 교육 실시. 계간지 <녹색혁명(Green Revolution)> 발간. 자급자족이 가능한 농장 추구.

#### 세븐오크스 패스워크 센터(Sevenoaks Pathwork Center)

403 Pathwork Way, Madison, VA 22727 USA. (540) 948-6544 sevenoaksevents@nexet.net, www.sevenoakspathwork.org - 인구 12명. 130 에이커. 비영리 영성 교육 재단. 1972년 Eva Pierrakos 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Susan and Donovan Thesenga에 의해 설립. 120명의 어른이 생활할 수 있는 시골의 피정 센터 운영. 컨퍼런스 센터 운영. 2개의 가내 수공업 운영. 정신, 몸, 영혼, 그리고 감정의 조화를 강조하는 영적 성장 추구.

#### 샤논 농장(Shannon Farm)

274 Shannon Farm Ln, Afton, VA 22920 USA. (804)361-1417, 1180. www.ic.org/shannonfarm - 1973년 시작. 인구 89명. 520 에이커. 평등과 페미니즘을 추구. 땅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집은 각자 소유. 노동자 소유 기업(worker-owned business) 운영.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 산티바남(Shantivanam - Saccidananda Ashram)

Tiruchirapalli, Tamil Nadu, INDIA, 0091-(0)-04323-222260, www.shantivanam.org - 1950년 두 명의 프랑스 베네딕트 신부에 의해 설립. 현재 Bede Griffith 신부가 책임을 맡음. 동서양 가치의 연합을 창조. 힌두교, 불교, 그리고 기독교의 명상과 성가. 베네딕트식 아쉬람.

#### 시리우스(Sirius)

72 Baker Rd., Shutesbury, MA 01072 USA. (413)259-1251. www.siriuscommunity.org. sirius@siriuscommunity.org - 1978년 시작. 인구 38명. 86 에이커. 펀드혼 공동체 회원이었던 사람들이 세움. 협동적인 영성 공동체. 매일의 삶이 영성적 스승이 됨. 그룹 합의와 명상에 의한 자치. 공동체적 삶. 영성적 원칙들, 그리고 피정 등 교육적인 프로그램 제공. 협동적인 사업들을 운영하고 유기농 밭을 일궈. 뉴 에이지 공동체와 관련된 강의 테이프와 슬라이드 자료. 뉴 잉글랜드 빛의 네트워크 총람(New England Network of Light Directory) 발간.

#### 시바난다 아쉬람(Sivananda Ashram)

8th Ave., Val Morin, P.Q., CANADA, (819) 322-3226 www.sivananda.org/camp Swami Vishnu-Devananda와 그의 스승인 Swami Sivananda의 가르침에 기초한 요가 수련장. Hath Raja의 요가를 가르침. 명상 수행. 요가 지도자들을 위한 훈련 과정 운영.

#### 새매 마을 -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의 빛(Sparrowhawk Village - Light of Christ Community Church)

12 summit Ridge Drive, Tahlequah, OK 74465 USA. (918)453-0063, 9097. www.sanctasophia.org - 1981년 시작. 인구 84명. 440 에이커. 3분의 1은 자연 보호구역, 3분의 1은 농사터, 3분의 1은 개인 집들. 에큐메니칼 교회. Carol Parrish-Harra가 목회자로 있음. 영성 과학을 위한 강좌. Agni 요가. 만월 명상.

#### 봄의 계곡(Spring Valley)

241 Hungry Hollow Rd., Spring Valley, NY 10977 USA. (914)425-4109 - 인구 300명. 루돌프 슈타이너(Rudolph Steiner)의 가르침에 기초. 출판. 자연 건강 제품. 아이들을 위한 푸른 초원 발도르프 학교(Green Meadow Waldorf School). 어른들을 위한 율동(eurythmy) 학교. 바이오다이나믹 농법. 노인들을 위한 가정 간호제도 운영.

#### 별의 춤(Star Dance)

1531 Fulton St., San Francisco, CA 94121 USA. (415)929-0671 - 인구 8명. 도시의 협동적 가구. 식사와 재원을 나눔. 목공 사업. 합의를 통한 의사 결정. [확인불능]

#### 슈텔레(Stelle)

Box 12, Stelle, IL 60919. (815)256-2200, www.stellecommunity.com - 인구 125명(44 가정). 240 에이커. 책 <The Ultimate Frontier>의 아이디어에 기초해 1973년 설립. 24공장, 학교, 협동조합 가게, 온실, 전인건강 센터 운영. 에큐메니칼 센터로 발전. 건강 관련 워크샵, 참여 민주주의, 인간의 잠재적 발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는 세미나 운영.

#### + 스반홀름(Svanholm)

Svanholm Alle 2, DK-4050, Skibby, Denmark. 4756-6670. www.svanholm.dk/kol/english - 1978년 시작. 인구 107명. 아나키적인 생태마을 공동체. 유기농으로 작물을 재배. 술, 담배, 동성애 등을 개인 자율에 맡김. 공동체원을 있는 동안 재산을 함께 나누고, 공동체를 나갈 때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음. 합의에 의한 의사 결정.

#### 무지개(Sunbow)

14812 S. E. 368 Place, Auburn, WA 98002 USA. (206)939-8824 - 1980년 시작. 인구 12명. 84 에이커. 사업가와 전문인들. 영성적 성장, 봉사, 생태 그리고 "지구에서 가볍게 살기"를 추구.

### 선레이 명상 협회(Sunray Meditation Society)

P.O.Box 269, Bristol VT 05443, USA. (802) 453-4610, sunray@sover.net, www.sunray.org - 세계 평화에 헌신하는 국제적 영성 협회. 모든 존재의 신성한 연합에 대한 고대의 가르침에 따라 미국의 인디언 스승 Dhanye Yawhoo에 의해 설립. "선레이 평화마을"건설. 인디언 원로회의, 뉴 에이지 주제에 대한 워크샵 진행. 명상, 색과 수정을 통한 치유 수행.

### 해뜨는 농장(Sunrise Ranch)

569N Loveland, CO 80537 USA. (970)679-4200, www.sunriseranch.org - 세계 2백여 개의 공동체들의 모임인 에미서리 공동체의 본부(Emissaries of Divine Light). 로드 마틴 세실(Lord Martin Cecil)이 이끔. 삶의 기술과 지도력에 대한 워크샵 진행.

### + 떤제(The Taizé Community)

71250 Taizé, France. +33 (0)3 85 50 30 30. www.taize.fr - 1940년 시작. 로제 수사(Brother Roger)에 의해 설립된 국제적인 범 그리스도 공동체. 25개국 이상에서 온 100여명의 수사로 이루어져 있음. 일요일부터 다음주 일요일까지 연중 계속 열리는 집회에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하고 있음. 집회 기간 중에는 화해의 교회(Church of Reconciliation)에서 하루 3번 공동기도 모임이 열림.

### 타오리마(Taorima)

Krotona Hill, Ojai, CA 93023 USA. (805)646-5322, www.theosophical.org - 인구 100명 이상. 은퇴한 사람들을 위한 근교 공동체. 공동체 바로 옆에 있는 Krotona 신지학회와 교류. 공동체 활동과 모임. [현재상태 확인 불능]

### 테메노스(Temenos)

65 Mt. Mineral Road, Shutesbury, MA 01072 USA. (413)367-9779, www.massretreats.com/temenos.html - 18 에이커. 1973년 웨이커 교도들이 건설. 피정, 워크샵. 불교와 웨이커 방식을 결합한 일일 명상수행. 비폭력과 자연친화 추구. 영성에 대한 연구. 산속의 조용한 피정센터.

### 테르 누벨(Terre Nouvelle)

BP 52-05300, Laragne, FRANCE - 인구 18명. 프랑스 알프스의 오래된 도시를 복원. 뉴 에이지 주제에 대한 워크샵 진행. 명상 수행. 신성한 춤. 야채와 치즈 판매. 펀드혼 공동체로부터 영감을 받음.

트랩록 평화 센터 - 울맨 힐(Traprock Peace Center - Woolman Hill)  
Keets Road, Deerfield, MA 01342 USA. (413)773-7427,  
www.traprockpeace.org - 8명의 스태프 회원. 케이크 활동가들의 공동체. 반핵  
활동 등 평화 교육. 워크샵과 컨퍼런스.

#### 트윈 오크스공동체(Twin Oaks Community)

P.R. 4G, Box 169, Lousia, VA 23093 USA. (504)894-5126. www.twinoaks.org.  
twinoaks@ic.org - 1967년 설립. 인구 100여명. 450 에이커. 설립 때 소설 <  
윌든 2>의 영향을 받았음. 협동, 비폭력, 그리고 평등을 중심 가치로 여김.  
여성이 가정을 이끌고 남성이 아이를 기르는 일을 장려. 경제적으로 자급자족  
을 이룸. 목장과 농장에서 공동체 필요의 60% 정도 되는 먹거리를 공급. 일과  
놀이를 통합하는 것이 공동체 생활의 핵심. 해먹, 두부 사업 등을 운영하고  
수입을 함께 나눔. 태양열을 이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건물을 사용. 1년  
에 11번 3주 방문자 프로그램 운영.

#### + 우파 파브릭(ufaFabrik. International Center for Culture and Ecology)

Viktoriastr. 10-18, 12105 Berlin / Tempelhof, GERMANY. +49 (0)30 755  
03-0. www.ufafabrik.de - 1979년 시작. 인구 30여명. 150여명의 협력자들이  
함께 활동하는 베를린의 예술촌. 2차 세계대전 전까지 독일 최대의 영화사였  
던 우파(UFA)가 있었던 곳에 예술인들이 정착하면서 마을이 시작됨. 옥상 녹  
화를 하고 빗물을 정화해 이용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마을을 생태적으로 가  
꾸어 왔음. 유기농 빵집과 카페 올레(Ole)를 운영. 아이들을 위한 서커스 학  
교를 열고 있음.

#### 나무 대학(University of the Trees)

PO box 644, Boulder Creek, CA 95006 USA. - 1974년 성공한 사업가이자 뉴에  
이지 철학가인 크리스토퍼 힐스(Christopher Hill)가 자신의 사상을 가르치  
려고 설립. "창조적 갈등"(Creative Conflict) 해결, 명상, 자기 치유 등을  
교육. 나무 대학 출판사와 Lightforce(Spirulina Company) 회사를 설립 운영.  
1990년 나무 대학 폐쇄. [www.drhills.com 참조]

#### + 행복회 야마기시회 (幸福會ヤマギシ會)

〒169-0075 幸福會ヤマギシ會本部事務局 東京都新宿區高田馬場2-19-7 タック  
イレブンビル4F +81 (0)3 3200 8675. koho@koufukukai.com  
www.koufukukai.com - 1953년 시작. 야마기시 미요조 1958년 일본을 시작으로  
야마기시즘 생활 실현지가 건설되기 시작했고, 1984년에는 한국에도 실현지가

생겼음. 그후 스위스, 브라질, 태국, 독일, 호주, 미국 등에 실현지가 생겨나서 현재는 전세계에 50여개의 실현지가 있음. 야마기시즘 특별강습연찬회를 열고 있음. 무소유와 공용일체의 사회를 꿈꾸며 실천하고 있음. 농업이 중심.

#### 야소다라 아쉬람(Yasodhara Ashram)

Box 9, Kootenay Bay, British Columbia, VOB 1X0 CANADA. (604)227-9224, www.yasodhara.org yashram@netidea.com - 1956년 시작. 83 에이커. Swami Sivananda Radha에 의해 세워짐. 종교에 구애됨이 없이 와서 자아발견을 추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요가와 명상. 서점, 녹음실, 인쇄소 운영. 잡지 발행. 작은 목장과 파수원 운영.

#### 요가빌(Yogaville - Satchidananda Ashram)

Rt. 1, Box 172, Buckingham, VA 23921 USA. (804)969-4801. www.yogaville.org. - 1980년 시작. 인구 223명. 650 에이커. 스와미 사치다난다(Swami Satchidananda)에 의해 시작. 세계의 모든 종교를 존중하는 사원 LOTUS(Light Of Truth Universal Shrine)가 있음. 하타 요가와 명상 강좌를 운영. 주유소와 비행장을 소유.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운영. 채식주의와 금욕 생활 추구.

#### + 제그(ZEGG : Zentrum für Experimentelle Gesellschafts-Gestaltung. Center for Experimental Cultural Design. 실험적 문화 디자인 센터 )

GmbH, Rosa-Luxemburg-Straße 89, D-14806 Belzig, Germany. +49 (0)33841 595 10. www.zegg.de - 1991년 시작. 인구 110여명. 공동체원들은 임대료와 식사료를 내고 생활.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고 공동체 밖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음. 세미나 공간을 빌려주고 수익을 얻음. 모래가 많은 땅을 유기농 경작지로 바꾸는 시도를 해 왔음. 많은 멤버가 채식주의를 실천. 일년에 다섯 번 외부 사람들이 공동체를 체험할 수 있는 행동 주간(Action Week)을 열고 있음. 13인의 위원회를 통해 공동체 공동의 일을 논의하고 공동체 전체 회의에서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함.

## ■ 공동체 네트워크

### 평등주의 공동체 연합(FEC : FEDERATION OF EGALITARIAN COMMUNITIES)

1976년 결성. 북미에 있는 공동체들의 연합 조직. 사회·경제적 평등을 중요  
히 여김. 공동체들 사이의 경제·문화적 연대활동과 컨퍼런스 등을 진행. 새  
로 시작한 공동체의 성장을 지원.

138 Twin Oaks Rd  
Louisa, VA 23093 USA  
(540)894-5126  
www.thefec.org

### + 계획 공동체 협회(FIC : Fellowship for Intentional Community)

1948년 결성. 중간에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1986년 다시 결성되었음. 북미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들의 연합체. 월간 잡지 <공동체(Communities)>를 발간하  
고 <공동체 총람(Communities Directory)>를 발간. 공동체 다큐멘터리 '유토  
피아의 비전(Visions of Utopia)'을 제작했음.

RR 1 Box 156-W  
Rutledge MO 63563-9720 USA  
(660)883-5545  
www.ic.org

### 국제 코뮌 데스크(ICD : International Communes Desk)

1976년 설립. 이스라엘에 위치. 키부츠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운동  
에 대한 정보를 제공.

Yad Tabenkin,  
Ramat Efal,  
ISRAEL 52960  
(3)534-6078  
www.communa.org.il

### + 국제 생태마을 네트워크(GEN : Global Ecovillage Network)

1990년 결성. 세계 생태마을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 생태마을들의 발전을 지  
원. 유럽, 오세아니아, 미주에 각각 지역 사무국이 있음.

Dkodsborgvej 189  
DK-2580 Naerum



DENMARK

(45)56-01-030

<http://gen.ecovillage.org> (본부)

<http://www.gen-europe.org> (유럽·아프리카 사무국)

<http://genoa.ecovillage.org> (오세아니아 사무국)

<http://ena.ecovillage.org> (미주 사무국)

#### 뉴잉글랜드 빛의 네트워크(NEW ENGLAND NETWORK OF LIGHT)

c/o Sirius Community

Baker Rd.

Shutesbury, MA 01072 USA

(413)259-1251

[www.siriuscommunity.org](http://www.siriuscommunity.org)

#### + 무정부주의 공동체 네트워크(Anarchist Communitarian Network)

2003년 설립. 무정부주의자 공동체들 간의 소통과 정보교류를 위해 설립. 무정부주의 성향의 개인들에게 공동체 설립에 관한 정보 제공. 소식지 발간.

PO Box 6

Liberty, Tenn. 37095 USA

[www.anarchistcommunitarian.net](http://www.anarchistcommunitarian.net)

#### + 리빙 루트(Living Routes: 에코빌리지 교육센터)

1999년 설립. 세계 각국에 있는 에코빌리지에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대안 사회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지금까지 체험 프로그램이 교섭되어 있는 곳은 스코틀랜드의 핀드혼, 미국의 시리우스, 인도의 오로빌, 브라질의 Ecoversidade, 호주의 크리스탈 워터스, 세네갈의 에코 요프, 멕시코의 Huehucoyotl 등임.

Living Routes Study Abroad

79 S. Pleasant St. suite 302

Amherst, MA 01002

Toll free - 888-515-7333

Normal - 413-259-0025

[info@LivingRoutes.org](mailto:info@LivingRoutes.org)

[www.livingroutes.org](http://www.livingroutes.org)

#### + 래디컬 루트(Radical Routes)

영국의 주거 협동조합(housing co-ops)과 노동자 협동조합(workers co-ops)의

네트워크. 조합간의 정보공유. 개인들에게 조합에 대한 정보 제공.  
<http://radicalroutes.org.uk>

+ 지속가능한 공동체 네트워크(Sustainable Communities Network)

지역사회를 어떻게 공동체로 만들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아 놓았다. 주로 미국의 도시와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공동체 건설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담고 있다.

[info@sustainable.org](mailto:info@sustainable.org)  
[www.sustainable.org](http://www.sustainable.org)

+ 공동주거네트워크(The Cohousing Network)

1997년 설립. 공동주거의 이념을 널리 알리고 공동주거를 희망하는 개인과 그룹들에게 공동체 관련 정보를 제공.

PO Box 2584  
Berkeley CA 94702  
(303)584-3237  
[www.cohousing.org](http://www.cohousing.org)

+ 유토피아 생태마을 네트워크 연합(Utopian Ecovillage Network federation)

남미 에콰도르에 본부를 둔 생태마을 네트워크. 에콰도르에서 대규모 생태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자체의 생태공동체를 건설하고 있으면서 전체 공동체들의 네트워크를 모색.

Phone in Ecuador 593-72-580-372  
USA Fax: 253-595-6153  
Apartado Postal Loja #533  
Loja, Ecuador  
[www.uevn.org/](http://www.uevn.org/)

+ 무지개 가족(Rainbow Family)

1972년 설립. 전 세계적인 지구가족 운동으로 특정한 조직체나 리더가 없다. 세계 곳곳에 모임이 있으며 지구영성, 평화, 비폭력, 생명, 사랑, 대안적인 생활양식을 추구함.

[rob@welcomehome.org](mailto:rob@welcomehome.org)  
[www.welcomehome.org](http://www.welcomehome.org)



---

# 한국의 공동체와 공동체운동

---

2005년 1월 20일 발행

발행처 생태공동체운동센터  
편집인 이근행

서울시 성동구 행당1동 128-22 칠성빌딩 5층  
전화 : 02-2298-7719  
website : [www.commune.or.kr](http://www.commune.or.kr)  
E-mail : [ecolkh@chollian.net](mailto:ecolkh@chollian.net)

---

이 자료는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